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19-11
연구보고	2020-22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0

연구보고 2020-22

연구보고 20-R57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0. 12.

책임연구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최수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조 사 기 관 : (주)한국리서치

#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한국리서치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실시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67001호)의 2020년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이하 생략)”를 근거로 하며,
  - 기존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와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를 통합하여 2016년 제1차 조사에 이어 격년을 주기로 하며 2018년 제2차 조사 이후 세 번째 조사임.
2. 이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함. 2020년 조사 참여 대상자는 총 14,536명(초등학생 4,642명, 중학생 4,438명, 고등학생 5,456명)이며, 조사 영역별로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음.
  - 매체 영역, 행위 영역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 약물 영역 :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
    - ※ 초등학생은 고카페인 음료 등 일부 정서저해식품 이용 경험만 해당
  - 업소 영역, 근로보호 영역 :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 ※ 초등학생은 제외
3.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임.
4. 통계표에 수록된 결과는 표본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평균 또는 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음.
5. 통계표에 수록된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6.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는 반올림하여 보정하였기에 표 내의 수치와 전체 합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중 중복응답 문항은 비율의 합계가 100.0을 초과함.



8.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세부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경우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경험률과 세부 문항 응답률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9.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해당 숫자 없음.                      [0.0] : 단위 미만(0 포함)
10. 본 조사는 COVID-19 여파로 대면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음.
11.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  
(승인번호 202007-HR-수탁-004)

# **목 차**

I. 조사 개요 .....	1
1. 조사 목적 .....	3
2. 조사 연혁 .....	4
3. 조사 체계 .....	4
3-1. 조사 대상 .....	4
3-2. 조사 기간 .....	4
3-3. 조사 방법 .....	5
3-4. 조사 기관 .....	5
3-5. 법적 근거 및 통계승인내역 .....	5
4. 표본 설계 .....	5
4-1. 모집단 분석 .....	5
4-2. 표본 설계 .....	7
5. 조사 내용의 구성 .....	20
5-1. 조사 영역 구성 .....	20
5-2. 조사 내용 .....	22
II. 주요 발견 요약 .....	27
1. 매체 영역 .....	29
2. 행위 영역 .....	36
3. 약물 영역 .....	44
4. 업소 영역 .....	51
5. 근로보호 영역 .....	54
III. 조사 결과 분석 .....	63
1. 매체 영역 .....	65
1-1. 매체 이용 실태 .....	65
1-2. 성인용 영상물 .....	75
1-3. 성인용 간행물 .....	83
1-4. 신·변종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성인용 인터넷 게임, 도박성 게임 및 조건만남 메신저) .....	92

1-5.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	98
1-6.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경험 .....	102
1-7.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108
1-8. 매체이용 교육 경험 및 효과 .....	112
2. 행위 영역 .....	119
2-1. 청소년폭력 .....	119
2-2. 청소년 성폭력 .....	140
2-3. 가출 .....	164
3. 약물 영역 .....	179
3-1. 고카페인 음료, 피우는 비타민 및 정서 저해 식품 이용 .....	179
3-2. 음주 경험 .....	186
3-3. 흡연 경험 .....	200
3-4. 전자담배 이용 경험 .....	213
3-5. 환각성 물질 경험 .....	224
3-6. 유해약물에 대한 접촉 환경 .....	228
4. 업소 영역 .....	232
4-1.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실태 .....	232
4-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용 실태 .....	239
4-3. 업소 이용방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247
4-4.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 .....	259
5. 근로·보호 영역 .....	261
5-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261
5-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263
5-3. 아르바이트 업종 .....	266
5-4.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	269
5-5.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 .....	271
5-6. 아르바이트 급여 .....	284
5-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290
5-8.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 .....	294
5-9. 근로권익교육 경험 .....	296
5-10.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	302

5-11.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	311
6. 생활 일반 .....	316
6-1. 사회적 관계 .....	316
6-2. 자율적 통제능력 .....	317
6-3. 자율적 통제능력과 청소년들 자기 보호 노력 .....	318
IV. 정책 제언 .....	321
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323
1-1. 매체 영역 .....	323
1-2. 행위 영역 .....	331
1-3. 약물 영역 .....	336
1-4. 업소 영역 .....	342
1-5. 근로보호 영역 .....	346
2. 2022년 조사를 위한 제언 .....	352
2-1. 실사 기간 및 조사 방식 조정 .....	352
2-2. 조사 대상 학교의 학급 수 조정 .....	352
참고문헌 .....	353
부 록 .....	357
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초등용 조사표 .....	359
2.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고등용 조사표 .....	378

## 표 목차

〈표 Ⅰ-1〉 시·도 및 학교급별 학교 수 .....	6
〈표 Ⅰ-2〉 시·도별 남녀공학 및 남·여학교 수 .....	7
〈표 Ⅰ-3〉 시도 및 학교급별 모집단 및 표본 학생 수 .....	10
〈표 Ⅰ-4〉 시도 및 학교급별 목표 표본 수 및 필요 학급 수 .....	11
〈표 Ⅰ-5〉 시도 및 학교급별 필요 학급 수 및 조사 대상 학교 수 .....	12
〈표 Ⅰ-6〉 17개 시도 및 학교급별 표본학급 및 조사 대상 학생 수 .....	13
〈표 Ⅰ-7〉 표본 현황 .....	17
〈표 Ⅰ-8〉 17개 시도별 실사 완료 현황 .....	18
〈표 Ⅰ-9〉 표본의 특성: 일반청소년 (가중 전) .....	19
〈표 Ⅰ-10〉 조사영역 구성의 변화 .....	21
〈표 Ⅰ-11〉 조사 내용 .....	22
〈표 Ⅱ-1〉 연도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위 5개 업종 비교 .....	55
〈표 Ⅲ-1〉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중복응답) .....	66
〈표 Ⅲ-2〉 최근 1년 간 매체별 ‘거의 매일’ 이용 비율 .....	68
〈표 Ⅲ-3〉 최근 1년 간 매체별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 비율 .....	69
〈표 Ⅲ-4〉 최근 1년 간 매체별 주로 이용하는 기기 .....	70
〈표 Ⅲ-5〉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 이용 빈도 및 이용 기기 .....	73
〈표 Ⅲ-6〉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14년-’20년 비교 .....	76
〈표 Ⅲ-7〉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중복응답) .....	77
〈표 Ⅲ-8〉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79
〈표 Ⅲ-9〉 성인용 영상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81
〈표 Ⅲ-10〉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14년-’20년 비교 .....	84
〈표 Ⅲ-11〉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중복응답) .....	86
〈표 Ⅲ-12〉 성인용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88
〈표 Ⅲ-13〉 성인용 간행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90
〈표 Ⅲ-14〉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중복응답) .....	93
〈표 Ⅲ-15〉 최근 1년간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 ’14년-’20년 비교 .....	94
〈표 Ⅲ-16〉 신·변종유해매체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96
〈표 Ⅲ-17〉 기기별 사용 여부 및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99
〈표 Ⅲ-18〉 사용하는 휴대폰/스마트폰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100
〈표 Ⅲ-19〉 심야시간대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 및 주된 이용 기기 .....	103

〈표 III-20〉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빈도 .....	105
〈표 III-21〉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 빈도('16년) .....	106
〈표 III-22〉 PC를 이용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빈도 .....	107
〈표 III-23〉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108
〈표 III-24〉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는 주된 이유 .....	110
〈표 III-25〉 인터넷 게임 외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111
〈표 III-26〉 매체이용 교육 경험(중복응답) .....	113
〈표 III-27〉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	115
〈표 III-28〉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성인용 영상물 .....	117
〈표 III-29〉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	118
〈표 III-30〉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	120
〈표 III-31〉 피해응답률 및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	121
〈표 III-32〉 청소년폭력 피해를 주로 경험한 장소 .....	124
〈표 III-33〉 청소년폭력 피해 주 경험장소: '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	125
〈표 III-34〉 폭력 가해자 유형 .....	127
〈표 III-35〉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128
〈표 III-36〉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	131
〈표 III-37〉 피해 사실 알린 것의 도움 정도 .....	133
〈표 III-38〉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	135
〈표 III-39〉 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	137
〈표 III-40〉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139
〈표 III-41〉 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중복응답) .....	141
〈표 III-42〉 청소년 성폭력 피해 장소 .....	144
〈표 III-43〉 성폭력 가해자 유형 .....	147
〈표 III-44〉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성별·학교급별 비교 .....	149
〈표 III-45〉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린 대상(중복응답) .....	151
〈표 III-46〉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된 정도 .....	153
〈표 III-47〉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	155

〈표 Ⅲ-48〉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 받은 기관(중복응답)	157
〈표 Ⅲ-49〉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59
〈표 Ⅲ-50〉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0
〈표 Ⅲ-5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1
〈표 Ⅲ-52〉 성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3
〈표 Ⅲ-53〉 가출을 고민한 경험	165
〈표 Ⅲ-54〉 가출 경험률 및 가출 횟수	167
〈표 Ⅲ-55〉 가출 원인	169
〈표 Ⅲ-56〉 가출 기간	172
〈표 Ⅲ-57〉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174
〈표 Ⅲ-58〉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중복응답)	178
〈표 Ⅲ-59〉 최근 1개월 간 고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	180
〈표 Ⅲ-60〉 에너지(또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 연도별 비교	181
〈표 Ⅲ-61〉 최근 1개월 간 피우는 비타민 이용 실태	182
〈표 Ⅲ-62〉 최근 1개월 간 정서 저해 식품 이용 실태	183
〈표 Ⅲ-63〉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184
〈표 Ⅲ-64〉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 이용 경험에 따른 관련 교육 및 교육만족도	185
〈표 Ⅲ-65〉 음주 생애 경험	186
〈표 Ⅲ-66〉 성인의 권유, 강요 등에 따른 음주 경험	187
〈표 Ⅲ-67〉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	188
〈표 Ⅲ-68〉 술을 구한 방법(중복응답)	190
〈표 Ⅲ-69〉 술을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193
〈표 Ⅲ-70〉 주류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	196
〈표 Ⅲ-71〉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	197
〈표 Ⅲ-72〉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98
〈표 Ⅲ-73〉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99
〈표 Ⅲ-74〉 흡연 생애 경험	200
〈표 Ⅲ-75〉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	202
〈표 Ⅲ-76〉 최근 1개월 간 피워본 담배 종류 (중복응답)	204

〈표 III-77〉 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	205
〈표 III-78〉 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207
〈표 III-79〉 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	209
〈표 III-80〉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 .....	210
〈표 III-81〉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211
〈표 III-82〉 흡연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212
〈표 III-83〉 전자담배 생애 경험 .....	213
〈표 III-84〉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경험률 .....	215
〈표 III-85〉 전자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	217
〈표 III-86〉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219
〈표 III-87〉 전자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	221
〈표 III-88〉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 .....	222
〈표 III-89〉 전자담배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흡연 예방 교육 만족도 .....	223
〈표 III-90〉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 및 획득 경로(중복응답) .....	224
〈표 III-91〉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226
〈표 III-92〉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및 만족도와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유무 .....	227
〈표 III-93〉 주류에 대한 접촉 환경 .....	228
〈표 III-94〉 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	229
〈표 III-95〉 전자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	230
〈표 III-96〉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중복응답) .....	233
〈표 III-97〉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시간대 이용 시도 및 나이 확인 여부 .....	235
〈표 III-9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연간 이용률 및 나이 확인 여부 .....	240
〈표 III-99〉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	245
〈표 III-100〉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률 .....	246
〈표 III-101〉 청소년출입 제한적 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	248
〈표 III-102〉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	252
〈표 III-103〉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	254
〈표 III-104〉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	258



〈표 III-105〉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에 관한 인식 .....	260
〈표 III-10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262
〈표 III-107〉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	264
〈표 III-108〉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	267
〈표 III-109〉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	270
〈표 III-110〉 근무 기간 .....	272
〈표 III-111〉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	275
〈표 III-112〉 하루 평균 근로시간 .....	278
〈표 III-113〉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81
〈표 III-114〉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 .....	282
〈표 III-115〉 급여 지급 기준 .....	285
〈표 III-116〉 급여 수준 .....	288
〈표 III-117〉 급여 수준 비교 .....	289
〈표 III-11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291
〈표 III-119〉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	293
〈표 III-120〉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 .....	294
〈표 III-12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	295
〈표 III-122〉 근로권익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중복응답): 학교급별 비교 .....	297
〈표 III-123〉 기관별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및 교육 방식 .....	298
〈표 III-124〉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 .....	300
〈표 III-125〉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 .....	301
〈표 III-126〉 부당행위 경험 여부 .....	303
〈표 III-127〉 주요 부당행위 및 처우 유경험률 .....	304
〈표 III-128〉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	307
〈표 III-129〉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문제해결이 도움이 된 정도 .....	308
〈표 III-130〉 부당행위 및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	310
〈표 III-131〉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	312
〈표 III-132〉 사회적 관계 .....	316
〈표 III-133〉 자율적 통제능력 .....	317
〈표 III-134〉 자율적 통제능력과 성인용 매체 자기 보호 .....	318
〈표 III-135〉 자율적 통제능력과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알림 여부 .....	318

〈표 Ⅲ-136〉 자율적 통제능력과 유해약물 관련 자기보호 능력 .....	319
〈표 Ⅳ-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	325
〈표 Ⅳ-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340

## 그림 목차

【그림 II-1】 연도별 매체 이용률 .....	29
【그림 II-2】 연도별 TV를 통한 매체 이용률 .....	30
【그림 II-3】 연도별 스마트폰을 통한 매체 이용률 .....	30
【그림 II-4】 연도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31
【그림 II-5】 연도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31
【그림 II-6】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로 .....	32
【그림 II-7】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로 .....	32
【그림 II-8】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율 .....	33
【그림 II-9】 연도별 기기별 사용률 .....	34
【그림 II-10】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34
【그림 II-11】 연도별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35
【그림 II-12】 연도별 청소년폭력 피해율 .....	36
【그림 II-13】 연도별 성폭력 피해율 .....	36
【그림 II-14】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률 .....	37
【그림 II-15】 연도별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률: 성별 차이 .....	37
【그림 II-16】 연도별 청소년폭력 가해자 .....	38
【그림 II-17】 연도별 성폭력 가해자 변화 .....	39
【그림 II-18】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성별 차이 .....	40
【그림 II-19】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성별 차이 .....	40
【그림 II-20】 연도별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음’ .....	41
【그림 II-21】 연도별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음: 성별 차이 .....	41
【그림 II-22】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	42
【그림 II-23】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도움이 됨’ .....	42
【그림 II-24】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 .....	42
【그림 II-25】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움 정도: ‘도움이 됨’ .....	42
【그림 II-26】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학교급별 .....	43
【그림 II-27】 가출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쉼터 인지율 .....	43
【그림 II-28】 고카페인 경험률 .....	44
【그림 II-29】 생애 음주 경험률 .....	45
【그림 II-30】 생애 흡연 경험률 .....	45
【그림 II-31】 성인의 권유 및 강요에 의해 술을 마신 경험 .....	46

【그림 Ⅱ-32】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자의 술을 구한 방법(중복응답) .....	46
【그림 Ⅱ-33】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자의 담배 구입 경로 .....	47
【그림 Ⅱ-34】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48
【그림 Ⅱ-35】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48
【그림 Ⅱ-36】 술 구매 시 성인 확인 여부 및 성인 확인 방법 .....	49
【그림 Ⅱ-37】 담배 구매시 성인 확인 여부 및 성인 확인 방법 .....	50
【그림 Ⅱ-38】 연도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률 .....	51
【그림 Ⅱ-39】 연도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이용률 .....	51
【그림 Ⅱ-40】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	52
【그림 Ⅱ-41】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시 나이 미확인율 .....	52
【그림 Ⅱ-42】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환경 분포 .....	53
【그림 Ⅱ-43】 연도별 아르바이트 경험률 .....	54
【그림 Ⅱ-44】 연도별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	54
【그림 Ⅱ-45】 연도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	56
【그림 Ⅱ-46】 연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40시간 초과 비율 .....	56
【그림 Ⅱ-47】 연도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만 지급 비율 .....	57
【그림 Ⅱ-48】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 .....	58
【그림 Ⅱ-49】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	58
【그림 Ⅱ-50】 연도별 학교급별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	59
【그림 Ⅱ-51】 교육장소 및 교육방식별 근로권익교육 효과 긍정적 응답 비율 .....	59
【그림 Ⅱ-52】 연도별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	60
【그림 Ⅲ-1】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중복응답) .....	66
【그림 Ⅲ-2】 최근 1년 간 매체별 ‘거의 매일’ 이용 비율 .....	68
【그림 Ⅲ-3】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 .....	74
【그림 Ⅲ-4】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중복응답) .....	77
【그림 Ⅲ-5】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80
【그림 Ⅲ-6】 성인용 영상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82
【그림 Ⅲ-7】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중복응답) .....	86
【그림 Ⅲ-8】 성인용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88
【그림 Ⅲ-9】 성인용 간행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91
【그림 Ⅲ-10】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중복응답) .....	93

【그림 Ⅲ-11】 신·변종유해매체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97
【그림 Ⅲ-12】 기기별 사용 여부 및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100
【그림 Ⅲ-13】 사용하는 휴대폰/스마트폰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101
【그림 Ⅲ-14】 심야시간대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 및 주된 이용 기기 .....	104
【그림 Ⅲ-15】 PC를 이용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률 .....	107
【그림 Ⅲ-16】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109
【그림 Ⅲ-17】 매체이용 교육 경험(중복응답) .....	113
【그림 Ⅲ-18】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	115
【그림 Ⅲ-19】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성인용 영상물 .....	117
【그림 Ⅲ-20】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	118
【그림 Ⅲ-21】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	121
【그림 Ⅲ-22】 청소년폭력 피해를 주로 경험한 장소 .....	125
【그림 Ⅲ-23】 폭력 가해자 유형 .....	127
【그림 Ⅲ-24】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129
【그림 Ⅲ-25】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	131
【그림 Ⅲ-26】 피해 사실 알린 것의 도움 정도 .....	133
【그림 Ⅲ-27】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	135
【그림 Ⅲ-28】 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137
【그림 Ⅲ-29】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	139
【그림 Ⅲ-30】 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 .....	141
【그림 Ⅲ-31】 청소년 성폭력 피해 장소 .....	145
【그림 Ⅲ-3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유형 .....	147
【그림 Ⅲ-33】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149
【그림 Ⅲ-34】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린 대상(중복응답) .....	151
【그림 Ⅲ-35】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된 정도 .....	153
【그림 Ⅲ-36】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	155
【그림 Ⅲ-37】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157
【그림 Ⅲ-38】 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	159
【그림 Ⅲ-39】 성교육 경험 .....	163

【그림 Ⅲ-40】 가출을 고민한 경험 .....	165
【그림 Ⅲ-41】 가출 경험률 및 가출 횟수 .....	167
【그림 Ⅲ-42】 가출 원인 .....	170
【그림 Ⅲ-43】 가출 기간 .....	172
【그림 Ⅲ-44】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	176
【그림 Ⅲ-45】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중복응답) .....	178
【그림 Ⅲ-46】 최근 1개월 간 고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 .....	180
【그림 Ⅲ-47】 최근 1개월 간 피우는 비타민 이용 실태 .....	182
【그림 Ⅲ-48】 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184
【그림 Ⅲ-49】 음주 생애 경험 .....	186
【그림 Ⅲ-50】 음주 생애 경험률 .....	187
【그림 Ⅲ-51】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 .....	189
【그림 Ⅲ-52】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 .....	189
【그림 Ⅲ-53】 술을 구한 방법(중복응답) .....	191
【그림 Ⅲ-54】 술을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194
【그림 Ⅲ-55】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199
【그림 Ⅲ-56】 흡연 생애 경험 .....	200
【그림 Ⅲ-57】 흡연 생애 경험률 .....	201
【그림 Ⅲ-58】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 .....	202
【그림 Ⅲ-59】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률 .....	203
【그림 Ⅲ-60】 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	206
【그림 Ⅲ-61】 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208
【그림 Ⅲ-62】 흡연 예방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212
【그림 Ⅲ-63】 전자담배 생애 경험 .....	213
【그림 Ⅲ-64】 전자담배 생애 경험률 .....	214
【그림 Ⅲ-65】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경험률 .....	215
【그림 Ⅲ-66】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경험률 .....	216
【그림 Ⅲ-67】 전자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	218
【그림 Ⅲ-68】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220
【그림 Ⅲ-69】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 획득 경로(중복응답) .....	225
【그림 Ⅲ-70】 약물 생애 경험률 .....	225

【그림 Ⅲ-71】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226
【그림 Ⅲ-72】 주류에 대한 접촉 환경	229
【그림 Ⅲ-73】 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230
【그림 Ⅲ-74】 전자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231
【그림 Ⅲ-75】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중복응답)	233
【그림 Ⅲ-76】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	238
【그림 Ⅲ-77】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연간 이용률 및 나이 확인 여부	243
【그림 Ⅲ-78】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245
【그림 Ⅲ-79】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률	246
【그림 Ⅲ-80】 청소년출입 제한적 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251
【그림 Ⅲ-81】 청소년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252
【그림 Ⅲ-82】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257
【그림 Ⅲ-83】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258
【그림 Ⅲ-84】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에 관한 인식	260
【그림 Ⅲ-85】 '20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262
【그림 Ⅲ-86】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265
【그림 Ⅲ-87】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268
【그림 Ⅲ-88】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270
【그림 Ⅲ-89】 근속 기간	273
【그림 Ⅲ-90】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276
【그림 Ⅲ-91】 하루 평균 근로시간	279
【그림 Ⅲ-92】 주당 평균 근로시간	283
【그림 Ⅲ-93】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	283
【그림 Ⅲ-94】 급여 지급 기준	286
【그림 Ⅲ-95】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92
【그림 Ⅲ-96】 근로권익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중복응답)	297
【그림 Ⅲ-97】 기관별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및 교육 방식	299
【그림 Ⅲ-98】 주요 부당행위 및 처우 유경험률	305
【그림 Ⅲ-99】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307

【그림 Ⅲ-100】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문제해결이 도움이 된 정도 .....	308
【그림 Ⅲ-101】 부당행위 및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	310
【그림 Ⅲ-102】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	315





# 제 I 장



##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연혁
3. 조사 체계
4. 표본 설계
5. 조사 내용의 구성



# 제 | 장

##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2014년까지 격년으로 각각 실시되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는 2015년에 조사통합이 결정되어 2016년에 첫 번째 통합조사가 이루어짐.
  -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1항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조사 내용 중복 등의 사유로 통합이 결정되어, 같은 해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를 통해 통합조사의 기본문항이 확정됨.
- 이에 제1차 통합조사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근거기반의 청소년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됨.
  - 제1차 통합조사는 조사 내용과 표본설계 측면에서 기존 두 개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질의 국가승인통계 생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
- 제2차 통합조사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제1차 조사에 이어 국가승인통계로서 안정적인 조사 품질을 유지하고 정책의 작동실태 점검에 목적을 두고 추진됨.
  - 특히 조사 시기에 맞춰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내 주요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제3차 통합조사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안정적인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국가승인통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함.
  - 이를 위해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으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근거기반 정책 수립이라는 조사 목적에 따라 일부 노후 문항의 개선이 불가피함.
  - 특히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 수립 시 활용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음.

## 2. 조사 연혁

### ○ 주요연혁

- 1999. 12 : 제1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02. 10 : 제2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06. 01 : 제3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06. 07 : 작성승인(제16701호)
- 2006. 12 : 제4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07. 12 : 제5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09. 12 : 제6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10. 12 : 2010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11. 12 : 201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12. 12 : 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14. 12 :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2016. 09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변경승인(제167001호)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
- 2016. 12 :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18. 07 :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통계작성 변경 승인(통계청고시 제2018-245호, 2018.07.12.)
- 2018. 12 :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20. 12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3. 조사 체계

### 3-1. 조사 대상

-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며,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일반청소년 조사는 16,500명을 목표 표본으로 하여 확률표집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국가승인통계(제167001호) 관리 대상임.

### 3-2. 조사 기간

○ 2020년 7월 20일 ~ 10월 19일

### 3-3. 조사 방법

- 전문조사기관((주)한국리서치)이 전국에서 조사원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조사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초·중고 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됨.
- 교육내용은 조사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 조사지원 체계 구축, 학교/기관 접촉 방식, 현장 발생 문제 대처 능력, 조사완료 후 수집된 자료의 완결성 검토, 자료 최종 확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전문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에 대해 집단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 COVID-19의 여파로 조사 대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집단조사 외 우편조사 방법을 병행함.

### 3-4. 조사 기관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 전담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 3-5. 법적 근거 및 통계승인내역

- 법적 근거: 「청소년보호법」 제33조 4항
- 승인 내역: 승인번호 제167001호

## 4. 표본 설계

### 4-1. 모집단 분석

- 본 조사에서 확률표집을 하는 일반청소년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임. 고등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교로 구분하였음.<sup>1)</sup>
- 본 연구의 조사모집단은 2019년도 교육기본통계연보의 현황을 활용함.

1) '16년, '18년 조사에서 고등학교 계열 명칭 중 '특성화계교'는 '20년 조사에서 정식 명칭인 '직업계교'로 변경 사용하였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가 포함되며, 직업계교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포함됨.

○ 17개 광역 시·도 및 학교급별 학교 수 현황은 <표 I-1> 및 <표 I-2>와 같음.

- 모집단에 포함되는 전체 학교 수는 11,874개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305개, 중학교가 3,239개, 고등학교가 2,330개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1,820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510개임.
- 모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학생 수는 4,046,253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이 1,359,363명, 중학생 1,291,565명, 고등학생 1,395,325명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1,155,746명, 직업계 고등학생은 238,579명임.

표 I-1 시·도 및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개교)

시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자율/특목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체	11,874	6,305	3,239	2,330	1,820	510
서울	1,313	607	386	320	246	74
부산	618	304	172	142	106	36
대구	446	229	125	92	73	19
인천	520	261	135	124	96	28
광주	312	156	90	66	55	11
대전	300	150	88	62	50	12
울산	242	122	63	57	46	11
세종	91	49	24	18	17	1
경기	2,416	1,310	635	471	398	73
강원	653	378	162	113	90	23
충북	477	268	126	83	57	26
충남	723	420	188	115	85	30
전북	762	424	209	129	101	28
전남	875	480	256	139	92	47
경북	960	508	269	183	131	52
경남	971	519	266	186	153	33
제주	195	120	45	30	24	6

표 1-2 시·도별 남녀공학 및 남녀학교 수

(단위: 명)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합계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합계
전체	1,950	366	327	2,643	1,406	403	417	2,226
서울	288	48	44	380	160	74	85	319
부산	94	36	33	163	65	39	35	139
대구	101	11	8	120	50	23	19	92
인천	69	30	26	125	39	42	37	118
광주	72	8	7	87	30	16	20	66
대전	66	11	9	86	34	15	12	61
울산	53	4	4	61	39	9	7	55
세종	21	1	1	23	14	1	1	16
경기	549	27	26	602	420	21	26	467
강원	72	13	12	97	58	20	17	95
충북	62	17	17	96	59	10	12	81
충남	86	23	21	130	67	13	21	101
전북	86	19	16	121	52	27	30	109
전남	94	25	24	143	99	13	15	127
경북	82	44	32	158	89	43	38	170
경남	131	42	40	213	115	31	35	181
제주	24	7	7	38	16	6	7	29

## 4-2. 표본 설계

### ① 표본 크기

○ 표본 크기는 표본추출방법,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_{\alpha/2}$ 은 신뢰계수를 의미함(신뢰 수준 95% 하에서  $z_{\alpha/2} = 1.96$ ).

$$n = \frac{N(z_{\alpha/2} s)^2}{Nd^2 + (z_{\alpha/2} s)^2}$$

- 조사 내용이 비율인 경우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여기서  $p$ 는 모비율의 값이며,  $q = 1 - p$ 임.



$$n = N \frac{z_{\alpha/2}^2 p q}{N d^2 + z_{\alpha/2}^2 p q}$$

- 본 연구에서 1차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함.
- 따라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함.

## ② 층화

- 본 연구의 조사모집단은 조사 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교육기본 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이용하였음. 즉,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층화변수는 17개 시·도 및 학교급임.
- 17개 시·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시·도 구분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였고, 학교급 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계와 직업계로 층화하였음.
-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는 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설정하였음. 그리고 각 표본학교에서 원칙적으로 1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도록 설계하였음.
- 이와 같이 각 표본학교에서 원칙적으로 1개 학급을 표본으로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방식은 조사 대상 학교 수를 늘림으로 인해 개별 학교 특성에서 기인하는 편의(bias)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학교의 응답 부담도 줄일 수 있음.

### ③ 표본 배분

- 본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표본학교에서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전체 약 16,500명을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음. 특히 조사 목적에 17개 시·도별 비교가 포함되어 있는 바, 시·도 구분과 학교급 구분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였음.
  - 각 시·도별 표본배분은 17개 시·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대해서 12개(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일반계 3개교, 직업계 3개교)의 표본학교를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 표본은 학생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우선할당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각 시·도 및 학교급별 표본배분은 학생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표본배분법은 지역 및 학교급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하되,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역 및 학교급별로 최소 1개 학년씩(총 3개 학년)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계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급에 대해서 각 3개교를 우선할당 배분하였음.
- 우선 배정된 표본수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수는 시·도 및 학교급별 학생 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였음. 상술한 표본배분 원칙에 따라 배분된 시도 및 학교급 표본 학생 수 현황은 <표 I-3>에 제시되어 있음.

표 I-3 시도 및 학교급별 모집단 및 표본 학생 수

(단위: 명)

시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단	표본 학생수	모집단	표본 학생수	모집단	표본 학생수	일반/자율/특목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모집단	표본 학생수	모집단	표본 학생수
전체	4,046,253	16,500	1,359,363	5,073	1,291,565	5,027	1,155,746	4,631	239,579	1,769
서울	651,720	2,173	210,401	677	206,844	676	192,582	635	41,893	185
부산	230,134	948	75,618	286	73,114	287	63,586	260	17,816	115
대구	195,215	845	62,677	248	62,389	256	56,617	239	13,532	102
인천	231,431	951	79,449	297	74,323	291	61,390	253	16,269	110
광주	135,933	675	44,597	196	42,967	200	41,251	195	7,118	84
대전	126,391	647	41,304	186	40,643	193	37,010	183	7,434	85
울산	98,130	564	33,529	163	30,895	165	27,185	154	6,521	82
세종	34,292	379	13,613	106	11,289	108	9,058	101	332	64
경기	1,091,286	3,450	379,450	1,169	351,849	1,097	315,027	990	44,960	195
강원	117,628	621	38,140	177	37,649	184	34,710	176	7,129	84
충북	127,439	649	43,047	191	40,783	194	31,827	167	11,782	97
충남	176,026	789	60,363	241	55,923	237	49,016	217	10,724	94
전북	153,317	724	49,068	209	48,559	216	45,593	207	10,097	92
전남	144,538	699	47,007	203	45,537	207	38,329	186	13,665	103
경북	196,396	850	64,651	254	61,307	253	55,681	237	14,757	106
경남	277,736	1,086	96,169	345	88,644	333	80,626	309	12,297	99
제주	58,641	449	20,280	125	18,850	130	16,258	122	3,253	72

\* 주: 1) 표본 학생 수는 학교급별 최소 표본수를 각 시도 및 학교급별로 우선 배정 후 시도/학교급별 학생 수에 비례배분하여 얻은 결과임.

○ 표본 학급 수 산출은 시·도 및 학교급별 표본 학생 수를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 학교급별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019년 교육기본통계연보에 수록된 각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및 전체 학급 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21.7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4.3명임.
- 본 조사의 표본 학급 수는 <표 I-4>에 제시되었음.

표 I-4

시도 및 학교급별 목표 표본 수 및 필요 학급 수

(단위: 명, 개)

시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표 표본수	필요 학급수	목표 표본수	필요 학급수	목표 표본수	필요 학급수	일반/자율/특목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목표 표본수	필요 학급수	목표 표본수	필요 학급수
전체	16,500	702	5,073	235	5,027	200	4,631	184	1,769	83
서울	2,173	92	677	31	676	27	635	25	185	9
부산	948	39	286	13	287	11	260	10	115	5
대구	845	37	248	12	256	10	239	10	102	5
인천	951	41	297	14	291	12	253	10	110	5
광주	675	29	196	9	200	8	195	8	84	4
대전	647	28	186	9	193	8	183	7	85	4
울산	564	24	163	7	165	7	154	6	82	4
세종	379	16	106	5	108	4	101	4	64	3
경기	3,450	147	1,169	54	1,097	44	990	40	195	9
강원	621	26	177	8	184	7	176	7	84	4
충북	649	29	191	9	194	8	167	7	97	5
충남	789	33	241	11	237	9	217	9	94	4
전북	724	31	209	10	216	9	207	8	92	4
전남	699	29	203	9	207	8	186	7	103	5
경북	850	36	254	12	253	10	237	9	106	5
경남	1,086	46	345	16	333	13	309	12	99	5
제주	449	19	125	6	130	5	122	5	72	3

\* 주: 1) 필요 학급 수는 각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본 조사의 내용 특성 상 학교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학교 수 결정 시 1개 학교에서 1개 학급만 조사하도록 설계함(표 I-5).

- 이러한 원칙에 따라 표본 학급 수와 학교 수가 동일하지만, 조사 대상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시는 일부 학교급에 대해 1개 학교에서 2개 이상의 학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결정에 따라 본 연구의 17개 시·도 및 학교급별 표본 학교 수는 <표 I-6>과 같음.

표 I-5

사도 및 학교급별 필요 학급 수 및 조사 대상 학교 수

(단위: 개, 개교)

시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 학급수	표본 학교수	필요 학급수	표본 학교수	필요 학급수	표본 학교수	일반/자율/특목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필요 학급수	표본 학교수	필요 학급수	표본 학교수
전체	702	700	235	235	200	200	184	184	83	81
서울	92	92	31	31	27	27	25	25	9	9
부산	39	39	13	13	11	11	10	10	5	5
대구	37	37	12	12	10	10	10	10	5	5
인천	41	41	14	14	12	12	10	10	5	5
광주	29	29	9	9	8	8	8	8	4	4
대전	28	28	9	9	8	8	7	7	4	4
울산	24	24	7	7	7	7	6	6	4	4
세종	16	14	5	5	4	4	4	4	3	1
경기	147	147	54	54	44	44	40	40	9	9
강원	26	26	8	8	7	7	7	7	4	4
충북	29	29	9	9	8	8	7	7	5	5
충남	33	33	11	11	9	9	9	9	4	4
전북	31	31	10	10	9	9	8	8	4	4
전남	29	29	9	9	8	8	7	7	5	5
경북	36	36	12	12	10	10	9	9	5	5
경남	46	46	16	16	13	13	12	12	5	5
제주	19	19	6	6	5	5	5	5	3	3

○ 앞에서 기술한 표본배분 계획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표본학교 총 700개에서 702개 학급 16,513명의 학생을 조사하는 것으로 목표 표본을 설정함.

- 학교급별 목표 표본은 초등학생 5,170명, 중학생 5,000명, 일반계 고등학생 4,600명, 직업계 고등학생 1,743명임(표 I-6).

표 1-6

17개 시도 및 학교급별 표본학급 및 조사 대상 학생 수

(단위: 명, 개)

지역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 학급수	예상 표본수	필요 학급수	예상 표본수	필요 학급수	예상 표본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필요 학급수	예상 표본수	필요 학급수	예상 표본수
전체	702	16,513	235	5,170	200	5,000	184	4,600	83	1,743
서울	92	2,171	31	682	27	675	25	625	9	189
부산	39	916	13	286	11	275	10	250	5	105
대구	37	869	12	264	10	250	10	250	5	105
인천	41	963	14	308	12	300	10	250	5	105
광주	29	682	9	198	8	200	8	200	4	84
대전	28	657	9	198	8	200	7	175	4	84
울산	24	563	7	154	7	175	6	150	4	84
세종*	16	373	5	110	4	100	4	100	3	63
경기	147	3,477	54	1,188	44	1,100	40	1,000	9	189
강원	26	610	8	176	7	175	7	175	4	84
충북	29	678	9	198	8	200	7	175	5	105
충남	33	776	11	242	9	225	9	225	4	84
전북	31	729	10	220	9	225	8	200	4	84
전남	29	678	9	198	8	200	7	175	5	105
경북	36	844	12	264	10	250	9	225	5	105
경남	46	1,082	16	352	13	325	12	300	5	105
제주	19	445	6	132	5	125	5	125	3	63

\* 주: 1) 세종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수가 1개이므로, 1개 학교에서 3개 학급을 모두 조사함.

#### ④ 표본 추출

○ 본 조사에서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임. 따라서 각 표본학교에서 1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조사 대상 학년은 각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학년을 높이거나 낮추면서 표본학교에서 조사 대상 학년을 결정하여 전체 표본학급인 조사 대상 학년이 골고루 선정되도록 하였음.

○ 각 층에서 표본 학교의 추출은 각 학교급 구분 내에서 남녀공학 여부 및 고등학교 계열(일반/직업계)을 분류지표로 활용하여 내재적 층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렬한 후 학교 내 학급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함.

-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은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음.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개의 학급이 모두 남녀 혼합반으로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남녀 구성비가 반영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 구성이 남녀 혼합반인 경우와 단독 성별로 구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표본학교로 선정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구성의 특성과 학급별 학생 수 등을 파악한 후에 표본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함.
  -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은 전체 학생이 조사 대상자가 되지만 장기결석, 문자해독 불가 학생, 전학, 자퇴 및 퇴학 등의 상황에 있는 학생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에 포함된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음.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고, 지역별·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함.

### ③ 가중치와 모수 추정

#### ■ 가중치

-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도 구분과 학교급 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음. 각 층에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는 전체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였음.
  - 이와 같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이 적용된 경우 표본추출률은 아래 산식과 같음.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급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급 수를 의미함. 본 조사에서는 표본학교에서 한 학급씩을 표본으로 추출함에 따라  $n_{hi} = 1$ 임.
- 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 다음 단계로 무응답 조정은 각 표본 학급을 무응답 조정셀로 이용하여 이루어졌음. 즉, 표본 학급에서 조사 대상 전체 학생 수를 실제 응답한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이와 같이

무응답 조정된 설계 가중치는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여기서  $M_{hi}$ 와  $m_{hi}$ 는 각각 표본 학급 내 전체 조사 대상 학생 수와 실제 응답자 수임.

$$W_{hij}^b = W_{hij}^a \times \frac{M_{hi}}{m_{hi}}$$

○ 가중치 작성의 다음 과정으로 사후층화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됨. 사후층화 조정은 추정량의 편향을 줄여주고, 표본의 특성을 최신 모집단 정보와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함. 본 조사의 사후층화는 조사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교육기본통계연보 현황을 이용하였음.

- 17개 시·도 및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에 따라 성별 ( $k=1, 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음. 사후층화 조정계수는 다음 식과 같음.

$$W_{h(k)}^p = \frac{N_{h(k)}}{\sum_{j=1}^{n_{h(k)}} W_{hij}^b}$$

-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서 응답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의미함.
- $\sum W_{hij}^b$ 는 각 세부 층의 무응답 조정된 설계 가중치의 성별 합계임.

○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함.

$$w_{hij} = W_{hij}^b \times W_{h(k)}^p$$

## ■ 모수 추정

○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1, 2, \dots, H$ )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응답 학생의 번호 ( $j=1, 2, \dots, m_{hi}$ )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응답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할 수 있음.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1, \dots, l$ )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 ○ 추정량의 분산 계산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quad \bar{e}_{h..} = \left( \sum_{i=1}^{n_h} e_{hi.} \right) / n_h$$

- $n_h = 1$ 인 경우  $\hat{V}_h(\bar{Y}) = 0$ 으로 계산

○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StdErr(\bar{Y}) = \sqrt{\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StdErr(\bar{Y})$ : 오차한계의 추정치(95% 신뢰수준에서  $z_{\alpha/2}=1.96$ )

4 표본 현황

- 본 조사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된 일반청소년(초·중·고등학생) 표본은 14,536명임.
- 성별은 남자 7,633명(52.5%), 여자 6,903명(47.5%)로 구성되었음.
- 남녀공학 여부는 남학교 11.8%, 여학교 12.9%, 남녀공학 75.3%로 각각 파악되었으며 남녀공학이 많은 이유는 초등학교 전수가 남녀공학이기 때문임.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4,642명(31.9%), 중학생 4,438명(30.5%), 고등학생 5,456명(37.5%)으로 구성되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34명(20.9%)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464명(10.1%)으로 그 뒤를 이었음. 광역시의 경우, 인천 860명(5.9%), 부산 854명(5.9%), 대구 777명(5.3%), 대전 589명(4.1%), 광주 583명(4.0%), 울산 533명(3.7%), 여타 시·도는 경남 1,075명(7.4%), 경북 767명(5.3%), 충남 760명(5.2%), 전북 700명(4.8%), 충북 672명(4.6%), 전남 611명(4.2%), 강원 500명(3.4%), 제주 441명(3.0%), 세종 316명(2.2%) 순임.
- 이주배경 여부(본인과 부모님의 출생 국가)는 대한민국 13,751명(96.5%), 그 외 국가가 505명(3.5%)임.

표 1-7 표본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표치	완료치	목표치	완료치	목표치	완료치	일반/자율/특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목표치	완료치	목표치	완료치
실사 (학교수)	700	633 (90.4%)	235	209 (88.9%)	200	179 (89.5%)	184	170 (92.4%)	83	75 (90.4%)
실사 (학생수)	16,500	14,536 (88.1%)	5,073	4,642 (91.5%)	5,027	4,438 (88.3%)	4,631	3,974 (85.8%)	1,769	1,482 (83.8%)

표 1-8

17개 시도별 실사 완료 현황

(단위: 명, %)

시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표 학생수	완료 학생수	목표 학생수	완료 학생수	목표 학생수	완료 학생수	일반/자율/특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목표 학생수	완료 학생수	목표 학생수	완료 학생수
전체	16,500	14,536	5,073	4,642	5,027	4,438	4,631	3,974	1,769	1,482
서울	2,173	1,464	677	485	676	366	635	502	185	111
부산	948	854	286	278	287	269	260	231	115	76
대구	845	777	248	265	256	182	239	249	102	81
인천	951	860	297	283	291	234	253	248	110	95
광주	675	583	196	157	200	178	195	154	84	94
대전	647	589	186	158	193	205	183	158	85	68
울산	564	533	163	156	165	180	154	122	82	75
세종	379	316	106	104	108	56	101	96	64	60
경기	3,450	3,034	1,169	1,025	1,097	1,055	990	790	195	164
강원	621	500	177	132	184	153	176	140	84	75
충북	649	672	191	211	194	177	167	174	97	110
충남	789	760	241	224	237	249	217	218	94	69
전북	724	700	209	192	216	239	207	198	92	71
전남	699	611	203	206	207	195	186	116	103	94
경북	850	767	254	268	253	238	237	185	106	76
경남	1,086	1,075	345	354	333	328	309	293	99	100
제주	449	441	125	144	130	134	122	100	72	63

표 1-9

표본의 특성: 일반청소년 (가중 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4,536	100.0
성별	남자	7,633	52.5
	여자	6,903	47.5
남녀공학	남학교	1,714	11.8
	여학교	1,877	12.9
	남녀공학	10,945	75.3
학교급	초등학생	4,642	31.9
	중학생	4,438	30.5
	고등학생	5,456	37.5
	└ 일반계고	3,974	72.8
	└ 직업계고	1,482	27.2
학년	초4	1,478	10.2
	초5	1,597	11.0
	초6	1,567	10.8
	중1	1,455	10.0
	중2	1,506	10.4
	중3	1,477	10.2
	고1	1,687	11.6
	고2	1,751	12.0
	고3	2,018	13.9
지역	서울	1,464	10.1
	부산	854	5.9
	대구	777	5.3
	인천	860	5.9
	광주	583	4.0
	대전	589	4.1
	울산	533	3.7
	세종	316	2.2
	경기	3,034	20.9
	강원	500	3.4
	충북	672	4.6
	충남	760	5.2
	전북	700	4.8
	전남	611	4.2
	경북	767	5.3
	경남	1,075	7.4
	제주	441	3.0
이주 배경	대한민국	13,751	96.5
	그 외 국가	505	3.5

## 5. 조사 내용의 구성

### 5-1. 조사 영역 구성

- 조사 목적에 따라 2016년 제1차 조사, 2018년 제2차의 조사 영역(①매체, ②약물, ③업소, ④행위, ⑤근로보호)을 유지함.
- 2016년 조사에서는 조사 참여에 따른 부정적 학습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경우 ‘약물’ 영역 응답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8년도 조사에서 일부 문항만 응답하는 것으로 조사 영역이 변경된 바 있음.
  -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의 주요 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고려한 것이며, 이 문항에 한하여 초등학생이 약물 영역 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 변경됨(김지경 외, 2018, p.20).
- 2020년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시계열 비교를 위해 기존 조사의 영역과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되,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조사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 문항은 삭제하고 정책 개선 및 개발을 위해 신규 문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음.
  - 매체영역에서는 2020년부터 2G폰 서비스가 종료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로 피쳐폰 사용률이 극소하여 응답 피로도 해소를 위해 해당 문항은 삭제하고 2018년 조사 이후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IPTV·넷플릭스·WAVVEting 등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서비스, Over-The-Top서비스) 이용 경험을 신설함. 이와 함께 매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터넷 게임 이외 인터넷 사용 시 타인의 아이디 사용 경험을 신설함.
  - 행위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신체촬영 강요, 성적이미지 합성 및 유포 협박 등의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경험 등을 신설함.
  - 약물 영역에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술, 담배 주문 경험, 최근 1개월 간 경험한 담배 종류에 대한 문항을 신설함.
  - 근로보호 영역에서는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와 계약서 작성 여부, 산재보험 가입 제외동의서 작성 여부, 건당 급여(보수) 문항을 신설하고, 아르바이트 시 부당노동행위 피해경험(일 하다 실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개인 보전) 문항을 추가함. 또한 근로권익교육의 도움 정도를 교육장소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일부 수정함.
  - 마지막으로 업소 영역을 포함하여 전체 영역에서 응답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문항을 지시문으로 대체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고자 보다 익숙하고 명확한 용어와 예시로 변경함. 이상에서 기술한 각 연도 조사 영역과 2020년도 조사 영역별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이 <표 I-10>임.

표 1-10 조사영역 구성의 변화

		'16년 조사		'18년 조사		'20년 조사		주요 변경 사항
		초등	중·고	초등	중·고	초등	중·고	
① 매체 영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매체, 예시 변경(2G폰 삭제, OTT 신설 등)</li> <li>• 정책 개발을 위해 인터넷 게임 이외 인터넷 사용 시 타인의 아이디 사용 경험 신설 등</li> </ul>
② 행위 영역	폭력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상 강요 및 협박 피해 경험 신설</li>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경험과 도움 정도 신설</li> </ul>
	가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③ 약물 영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술, 담배 주문(직거래, 심부름 앱 등) 경험 신설</li> <li>• 최근 1개월 간 경험한 담배 종류 신설</li> </ul>
④ 업소 영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편의 제고를 위해 문항 위치 및 로직 변경</li> </ul>
⑤ 근로보호 영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 및 계약서 등 작성 여부 신설</li> <li>• 급여 또는 보수 형태 추가(건당 평균)</li> <li>• 아르바이트 시 부당노동행위 피해경험 추가</li> <li>• 근로권익교육 도움정도 장소별 파악 가능하도록 변경</li> </ul>
⑥ 일반 현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 대응역량 척도 개선</li> <li>• 이주배경 여부 신설</li> </ul>

## 5-2. 조사 내용

-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 총 6개 조사 영역에 따른 조사 내용은 <표 I-11>과 같음.
- '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조사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승인번호 202007-HR-수탁-004).

표 I-11 조사 내용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매체	최근 1년 동안 매체 항목별 이용 경험률,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문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 이상 시청 가'로 표시된 성인용 영상물 접촉 경험률	문2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 접촉 경로	문2-1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 접촉 시 연령 확인	문2-1-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 이상 시청 가'로 표시된 성인용 간행물 접촉 경험	문3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간행물 접촉 경로	문3-1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간행물 접촉 시 연령 확인	문3-1-1
	성인용 영상물·간행물접촉 환경 및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 능력	문4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게임, 도박, 19세 이상 음악영상 파일, 조건만남 메신저 접촉 경험	문5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게임, 도박, 19세 이상 음악영상 파일, 조건만남 메신저 접촉 시 연령확인 여부	문5-1
	데스크탑PC, 노트북,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사용여부	문6
	데스크탑PC, 노트북,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스마트폰에 유해사이트 차단 설치 여부	문6-1
	최근 1년 동안 밤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이용 경험	문7
	최근 1년 동안 밤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이용 빈도	문7-1
	최근 1년 동안 밤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이용기기	문7-2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아이디 및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 도용한 온라인 게임 경험 여부	문8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아이디 및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한 이유	문8-1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아이디 및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 외에 인터넷 사용경험 여부 <sup>4)</sup>	문9
	최근 1년 동안 유해매체 피해 예방 교육 경험	문10
	최근 1년 동안 유해매체 피해 예방 교육의 도움 정도	문10-1
행위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	문1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피해 장소	문1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가해자 유형	문13
	청소년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 알린 경험	문14
	청소년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 및 기관	문14-1
	청소년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 알린 것의 도움 정도	문14-2
	청소년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유	문14-3
	청소년폭력 피해 유경험자 상담, 치료·치유경험	문14-4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청소년폭력 피해 유경험자 상담, 치료·치유 받은 곳	문14-4-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	문15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성폭력 피해 장소	문1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유형	문17
	성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 알린 경험	문18
	성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 및 기관	문18-1
	성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 알린 것의 도움 정도	문18-2
	성폭력 피해 유경험자의 피해사실 알리지 않은 사유	문18-3
	성폭력 피해 유경험자 상담, 치료·치유경험	문18-4
	성폭력 피해 유경험자 상담, 치료·치유 받은 곳	문18-4-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디지털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문19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디지털 성매매 예방교육 도움정도	문19-1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고려한 경험	문20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 및 빈도	문21
	최근의 가출 기간	문21-1
	가출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문21-2
	가출청소년 보호/상담기관에 대한 인지도 여부	문22
	가출청소년 보호/상담기관 이용 여부	문22-1
	가출청소년 보호/상담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문22-2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을 받은 경험	문23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	문23-1
약물	최근 1개월 동안 고카페인(에너지)음료 및 흡입제, 정서 저해 식품 이용 실태(빈도) 파악	문24
	지금까지의 음주 경험 여부	문25
	성인의 권유 및 강요 등에 따른 음주 경험	문25-1
	최근 1개월 동안 술 경험 여부	문26
	최근 1개월 동안 술 접촉 경로 확인	문26-1
	최근 1개월 동안 술 직접 구입 시 접촉경로 확인	문26-2
	최근 1개월 동안 술 직접 구입 시 연령 및 본인 확인 여부	문26-2-1
	최근 1개월 동안 술 직접 구입 시 나이 확인 방법	문26-2-2
	최근 1개월 동안 술 직접 구입 시 본인 확인 방법	문26-2-3
	지금까지 담배 이용 경험 여부	문27
	최근 1개월간 담배 이용 경험 여부	문28
	최근 1개월간 이용해본 담배 종류 <sup>4)</sup>	문28-1
	최근 1개월간 담배 접촉 경로 확인	문28-2
	최근 1개월간 담배 직접 구입 시 접촉경로 확인	문28-3
	최근 1개월간 담배 직접 구입 시 연령 및 본인 확인 여부	문28-3-1
	최근 1개월 동안 담배 직접 구입 시 나이 확인 방법	문28-3-2
	최근 1개월 동안 담배 직접 구입 시 본인 확인 방법	문28-3-3
	지금까지 전자담배 이용 경험 여부	문29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접촉 경험 확인	문30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접촉 경로 확인	문30-1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직접 구입 시 접촉 경로 확인	문30-2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직접 구입 시 연령 및 본인 확인 여부	문30-2-1
	최근 1개월 동안 전자담배 직접 구입 시 나이 확인 방법	문30-2-2
	최근 1개월 동안 전자담배 직접 구입 시 본인 확인 방법	문30-2-3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접촉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 및 자율적 보호 능력	문31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여부	문32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 접촉 경로 확인	문32-1
	최근 1년 동안 술, 담배, 고카페인, 유해약물 등에 대한 예방교육 경험	문33
	최근 1년 동안 술, 담배, 고카페인, 유해약물 등에 대한 예방교육 도움 정도	문33-1
업소	최근 1년 동안 업소(전자오락실, 술집,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 이용 여부	문34
	최근 1년 동안 PC방/노래방/찜질방 심야시간대 이용 경험	문34-1
	최근 1년 동안 심야시간대 이용 시, 연령 확인 여부	문34-1-1
	최근 1년 동안 업소(비디오/DVD방, 술집, 나이트클럽, 멀티방, 숙박업소 등) 이용 여부	문35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출입 금지 업소 이용 시, 연령 확인 여부	문35-1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만화방, PC방, 노래방, 비디오방/DVD방, 술집 등)에서의 근로경험	문36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근로 시 연령 확인 여부	문36-1
	청소년출입금지업소(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 이용방법 인지여부	문37
	청소년출입금지업소(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 출입 가능 여부 인지경로	문37-1
	청소년출입금지업소(비디오/DVD방, 멀티방, 룸카페, 유흥 및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인지여부	문38
	청소년출입금지업소(비디오/DVD방, 멀티방, 룸카페, 유흥 및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숙박업소 등) 출입 가능 여부 인지경로	문38-1
	등하굣길, 집주변 등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정도	문39
근로	현재 및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경험	문40
	아르바이트 목적	문41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업종	문42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문43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 근로 기간	문44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 주평균 근로 시간	문45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 일평균 근로 시간	문46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방식 및 임금 수준	문47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문48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문48-1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배달/운전 아르바이트의 근로방식	문49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근로 시작 전 서류 작성여부	문49-1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 시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여부	문50
	부당행위 경험 시 대처방법	문50-1
	부당행위 경험 미대처 이유	문50-1-1
	부당행위 경험 시 대처효과	문50-1-2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문51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근로 권익교육(노동인권교육) 경험 장소	문5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근로 권익교육(노동인권교육)의 교육방식	문52-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근로 권익교육(노동인권교육)의 효과	문52-2
사회 인구학적 배경	성별	문53
	태어난 해	문54
	함께 거주하는 사람	문55
	출생국가	문56
	자율적 대응역량에 대한 인지 <sup>3)</sup>	문57
	가족(보호자)에 대한 인식	문58
	친구에 대한 인식	문59
	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	문60

\* 주: 1) 문항번호는 중·고생용 조사표 기준임.

2) 초등학생의 경우 매체 영역, 행위 영역, 그리고 약물 영역의 일부 문항만 조사하였음.

3) 자율적 통제능력(대응역량) 척도는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2008)의 자율적 행동 척도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함.



## 제 II 장

### 주요 발견 요약

1. 매체 영역
2. 행위 영역
3. 약물 영역
4. 업소 영역
5. 근로보호 영역



## 제 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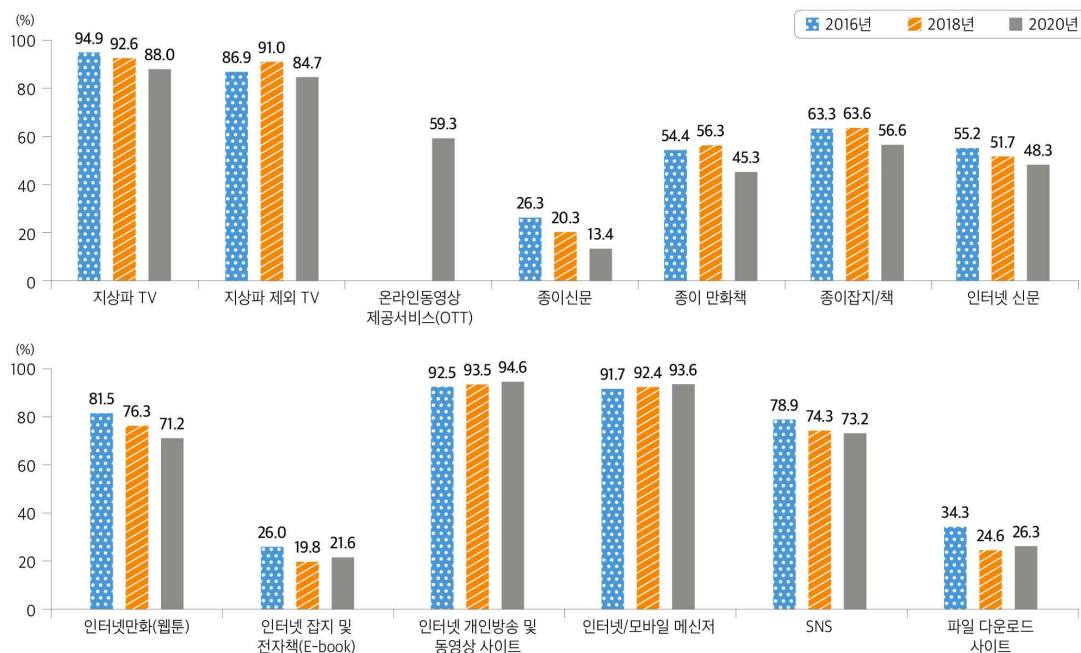
### 주요 발견 요약

#### 1. 매체 영역

##### ① 매체이용률 및 주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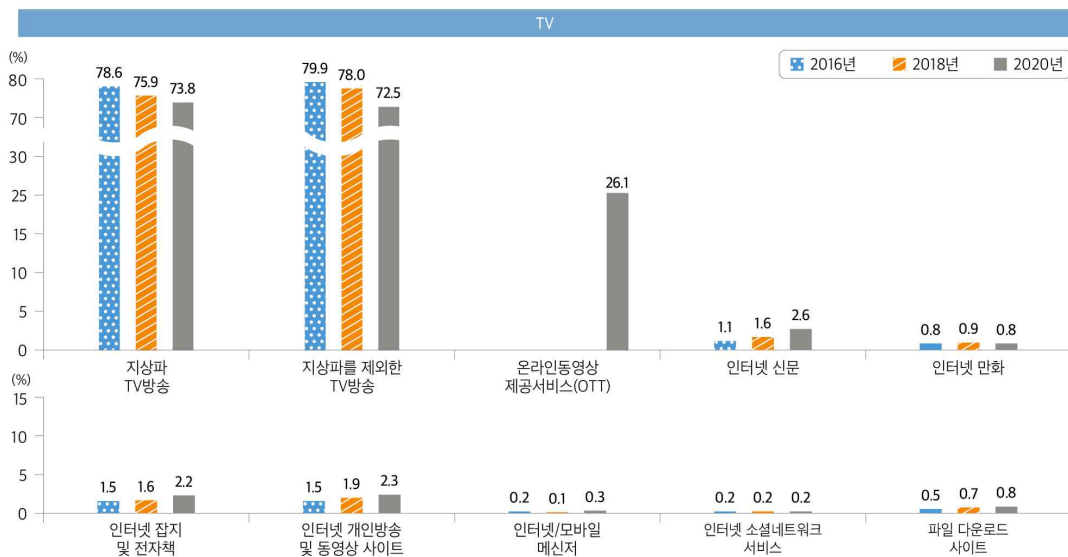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최근 1년 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이용률은 93.0%가 넘으며 지난 '16년과 '18년 조사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함.
- 매체 이용빈도를 보면 청소년의 80.7%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77.2%는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의 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1년 동안 온라인동영상 제공서비스(OTT)를 이용한 청소년은 전체의 59.3%로 나타남.
- 그에 비해 종이신문, 잡지/책 등과 같은 인쇄 매체 뿐 아니라 ‘지상파 TV’ 등 전통적 매체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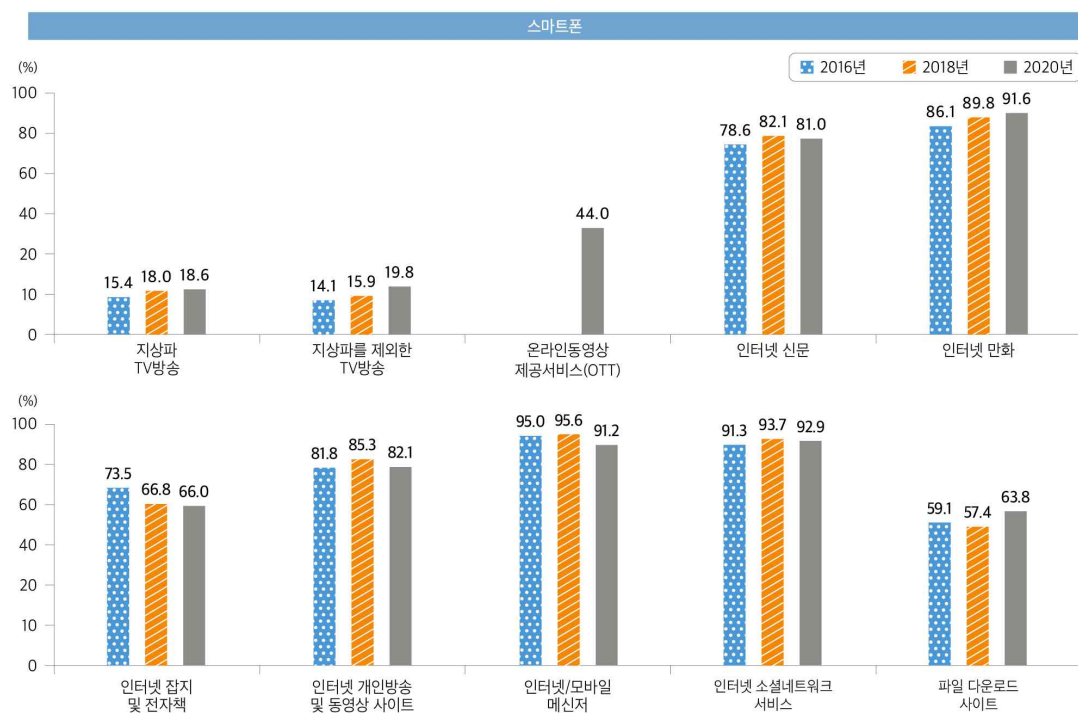


【그림 II-1】 연도별 매체 이용률

○ TV방송을 제외하면, 청소년들은 매체를 접할 때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함.



【그림 11-2】 연도별 TV를 통한 매체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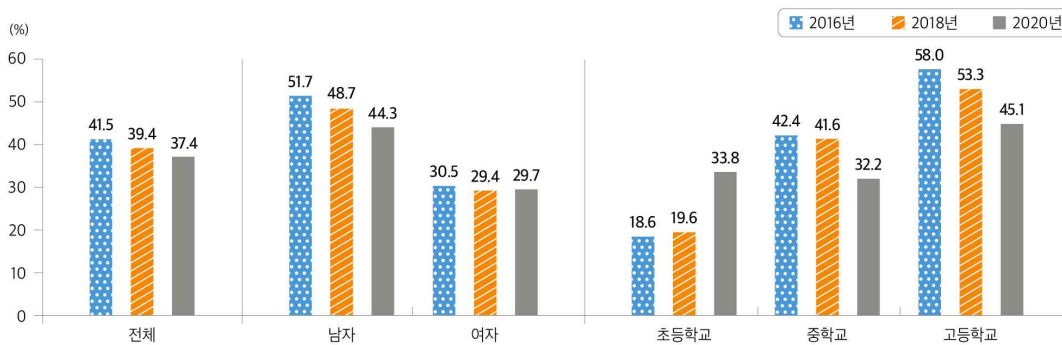
【그림 11-3】 연도별 스마트폰을 통한 매체 이용률

#### [시사점 및 제언]

○ 매체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경향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특히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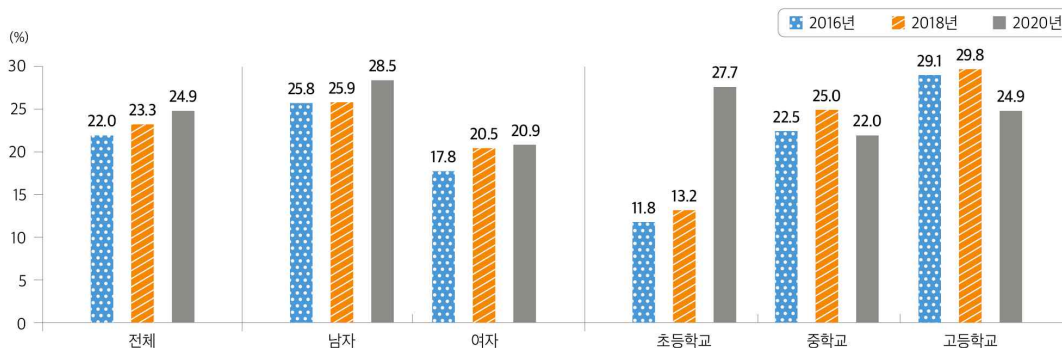
## ②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청소년 연령의 하향화

-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은 초·중·고생 전체 평균 37.4%였으며 최근 4년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16) 41.5% → ('18) 39.4% → ('20) 37.4%
- 영상물 이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 남학생(44.3%)의 이용률이 여학생(29.7%)보다 현저히 높음.
- 초등학교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은 예년에 비해 증가함.



【그림 II-4】 연도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간행물을 접한 경험은 초·중·고생 전체 평균 24.9%로 영상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이나 최근 4년간 이용률은 영상물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16) 22.0% → ('18) 23.3% → ('20) 24.9%



【그림 II-5】 연도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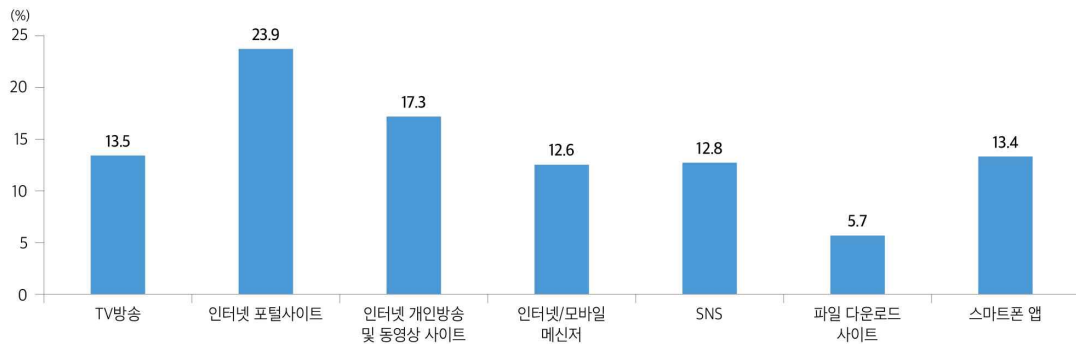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률은 감소하는데 반해 초등학생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남학생의 영상물 이용률은 감소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아 이들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필요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간행물의 이용률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교육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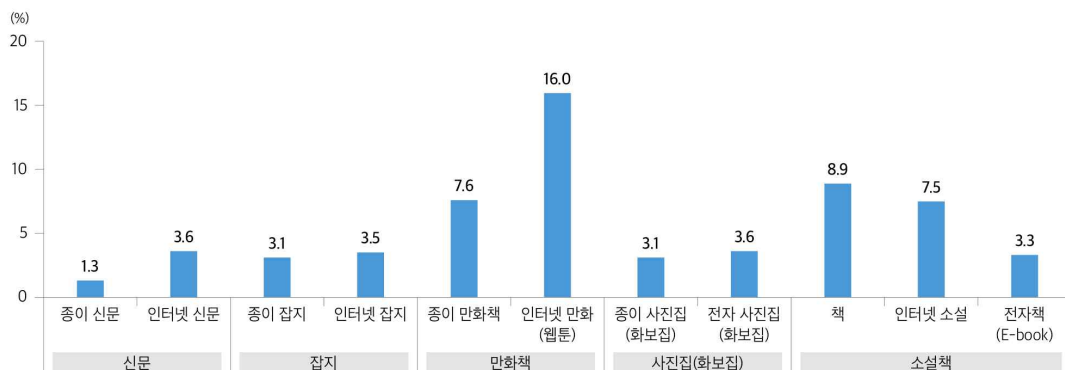
### [3]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경로의 다양화

-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매우 다양함. 그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 앱’(13.4%)이나 ‘인터넷/모바일 메신저’(12.6%)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음.



【그림 11-6】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로

- 청소년들의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로를 보면 소설책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전통적 방식인 인쇄 매체에 비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인용 간행물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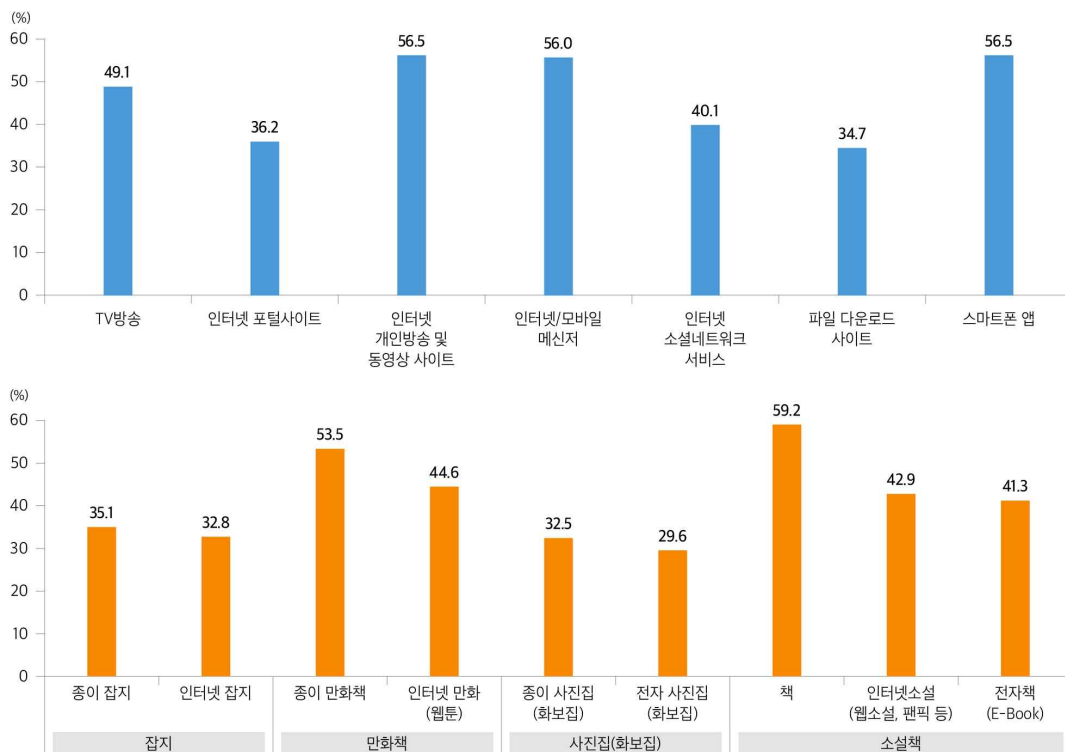
【그림 11-7】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로

### [시사점 및 제언]

-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매체 노출 여부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인 차단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 ④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의 강화

-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을 했는지 알아본 결과 나이를 확인한 경우는 소설책이 59.2%로 가장 높아 모든 항목에서 60.0% 미만임.
- 전자화보집은 나이 확인율이 29.6%로 가장 낮았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잡지 및 화보집 등에서의 확인율은 30.0%대에 머물고 있음.



【그림 II-8】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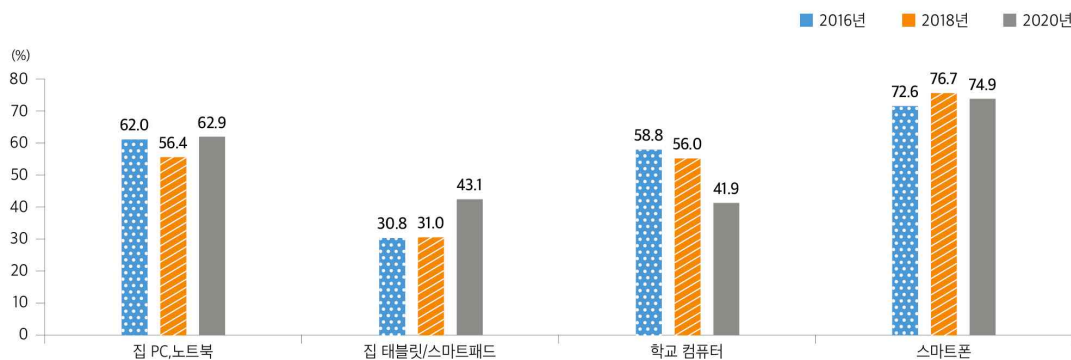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성인인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아지고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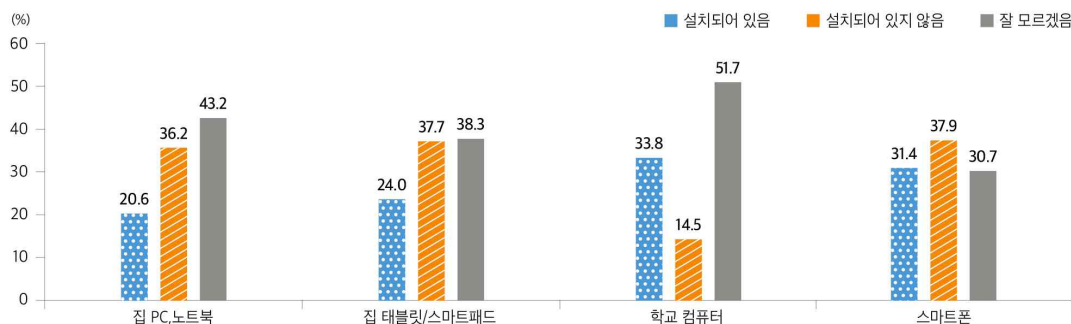
## ⑤ 집에 있는 기기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분석결과]

- 기기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집에 있는 기기에 대한 이용률은 '18년 대비 모두 증가한 반면, 학교에 있는 기기를 이용한 비율은 크게 감소함.
  - 집 데스크탑PC/노트북 이용률: ('16) 62.0% → ('18) 56.4% → ('20) 62.9%
  - 집 태블릿PC/스마트패드 이용률: ('16) 30.8% → ('18) 31.0% → ('20) 43.1%
  - 학교 데스크탑PC/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패드 이용률: ('16) 58.8% → ('18) 56.0% → ('20) 41.9%
- 집에 있는 기기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림 11-9】 연도별 기기별 사용률



【그림 11-10】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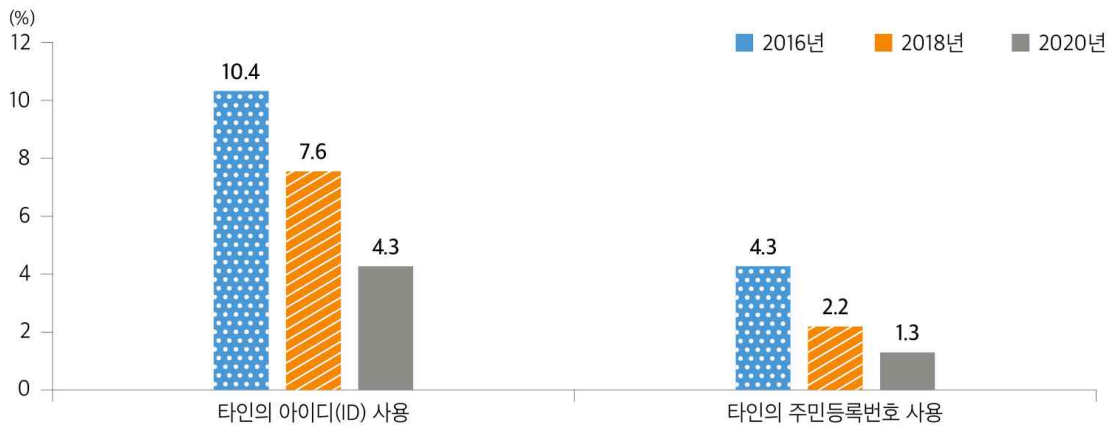
- 온라인학습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기기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유해매체에 접촉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유해매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⑥ 인터넷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분석결과]

○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타인의 아이디(ID) 도용 비율: ('16) 10.4% → ('18) 7.6% → ('20) 4.3%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비율: ('16) 4.3% → ('18) 2.2% → ('20) 1.3%



【그림 11-11】 연도별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시사점 및 제언]

○ 예년 대비 '20년에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인터넷 게임 접촉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매체 이용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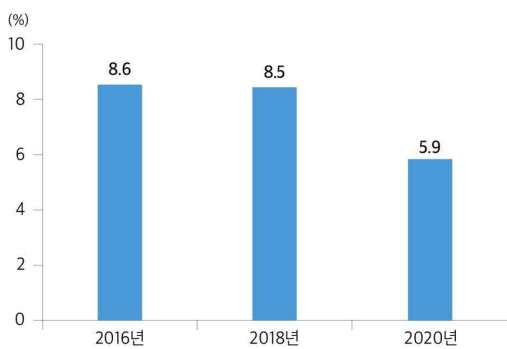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2. 행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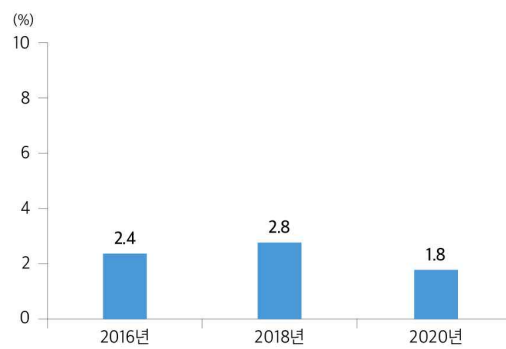
### ① 청소년폭력 피해율의 감소

#### [분석 결과]

- 최근 1년간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전체의 5.9%로, '16년 이후 감소함.
- 또한, 최근 1년 간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1.8%로, '18년에 비해 피해율이 1.0%p 감소함.
  - 다만, 여학생에게서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의 피해는 2016년 이후 증가함('16) 0.7% → ('18) 0.8% → ('20) 1.0%).



【그림 II-12】 연도별 청소년폭력 피해율



【그림 II-13】 연도별 성폭력 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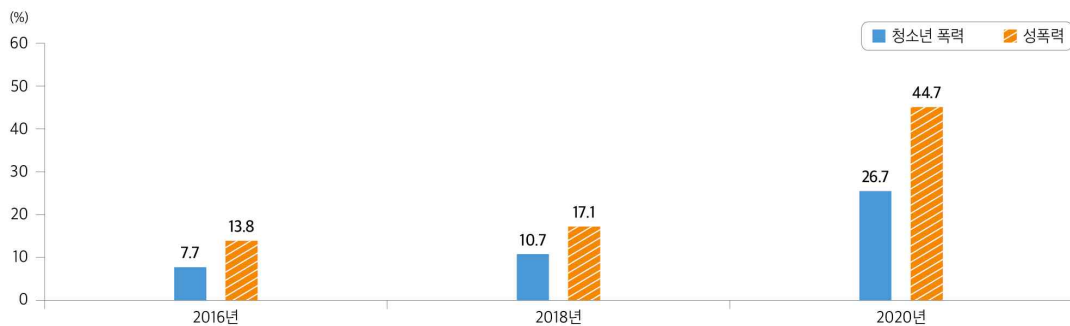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청소년폭력과 성폭력 피해율의 감소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영향인지,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움. 다만, 온라인 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비대면 수업의 확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와 같은 COVID-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온라인 상의 폭력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여학생에게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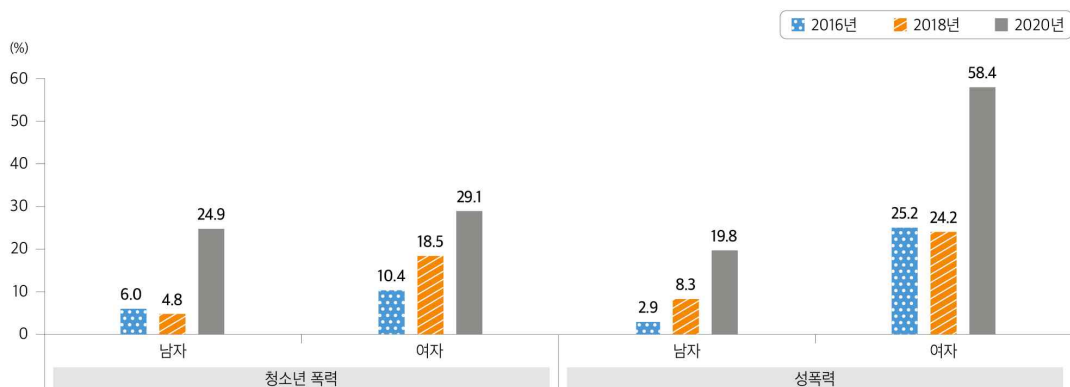
## ② 온라인 폭력 피해 급증

### [분석 결과]

- 폭력 피해자의 피해 장소는 과거 폭력의 주된 피해 장소였던 ‘학교 교실 안’,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등의 공간이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율: (‘16) 75.7% → (‘18) 71.3% → (‘20) 45.9%
  -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율: (‘16) 63.6% → (‘18) 62.8% → (‘20) 32.5%
-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대비 16.0%p,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7.6%p 증가함.
  -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율: (‘16) 7.7% → (‘18) 10.7% → (‘20) 26.7%
  -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율: (‘16) 13.8% → (‘18) 17.1% → (‘20) 44.7%
-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이 2018년에 비해 급증(20.1%p)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매우 증가(34.2%p)함.



【그림 II-14】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률



【그림 II-15】 연도별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률: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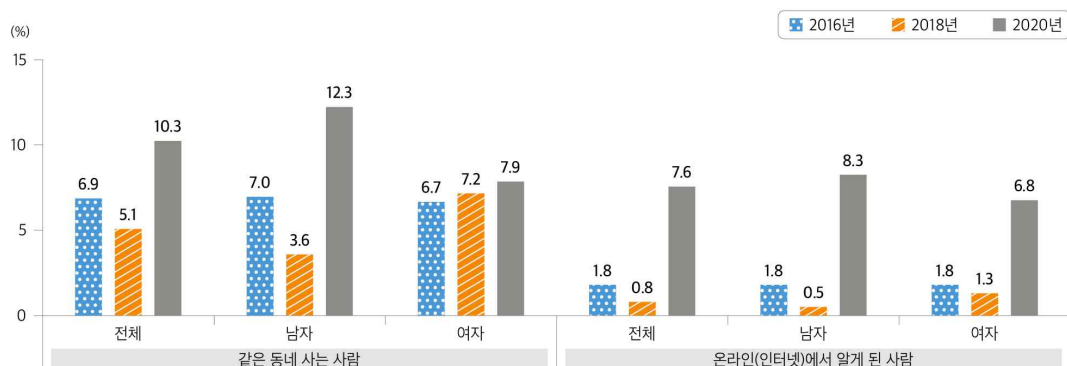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20년도 조사에서 청소년폭력과 성폭력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온라인(인터넷)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률이 증가하는 추세 역시 COVID-19의 영향인지 교육의 효과로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COVID-19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등교 및 활동이 제한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온라인(인터넷)'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폭력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대응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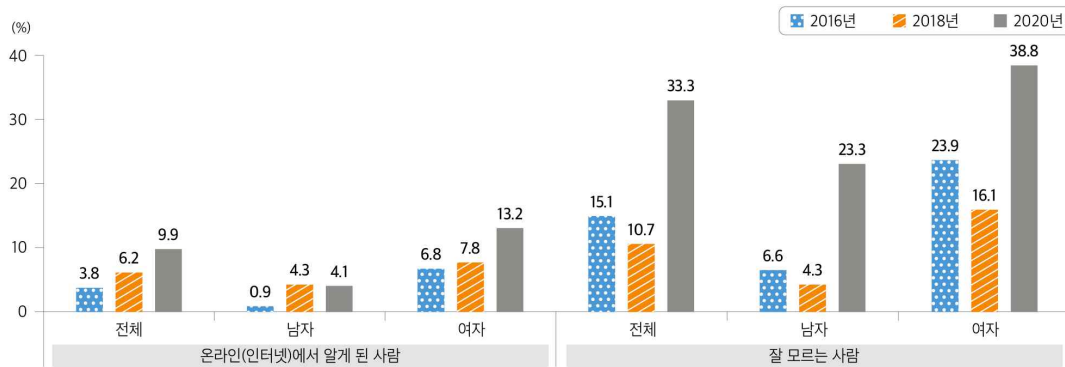
### [3] 폭력 가해자 유형 변화

#### [분석 결과]

- 청소년폭력과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긴 하나, 청소년폭력은 '18년 이후, 성폭력은 '16년 이후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함.
  - 청소년폭력: ('16) 84.8% → ('18) 86.9% → ('20) 72.1%
  - 성폭력: ('16) 73.7% → ('18) 73.5% → ('20) 47.7%
- 이에 비해 '20년에 청소년폭력의 가해자로 '같은 동네 사는 사람'과 '인터넷(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함. 특히, 남자청소년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 성폭력의 가해자로는 '온라인(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함. 특히 '온라인(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는 '16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는 '20년에 매우 증가함.



【그림 II-16】 연도별 청소년폭력 가해자



【그림 11-17】 연도별 성폭력 가해자 변화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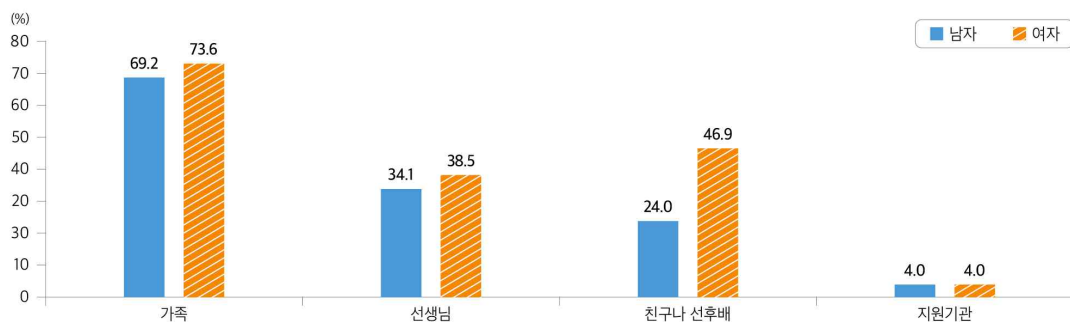
- 그간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의 주요 발생 공간은 학교, 주요 가해자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점차 발생공간은 온라인(인터넷)공간, 주요 가해자는 온라인(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 등으로 변화함. 이는 COVID-19로 인해 ’20년 1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이용률 및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온라인(인터넷)’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청소년들이 온라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④ 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이 취약한 여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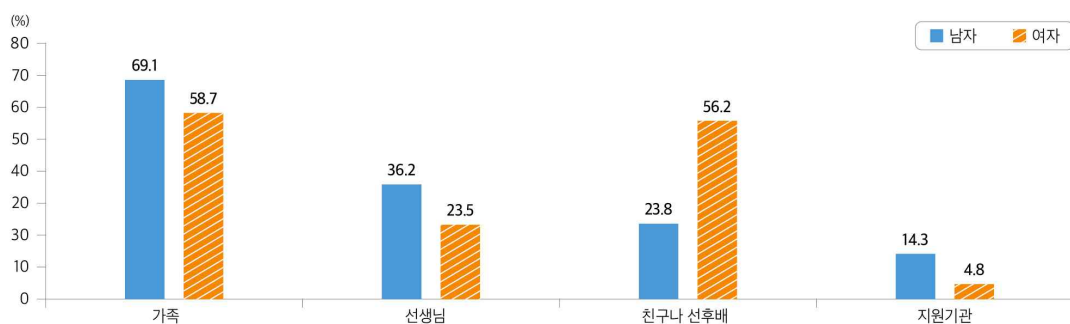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청소년폭력 피해 청소년 중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2.4%,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5.3%으로 2018년에 비해 증가함.
- 남자청소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상이 가족, 선생님, 친구나 선후배, 지원기관 등의 순인 반면, 여자청소년은 가족, 친구나 선후배, 선생님, 지원기관 등의 순임.
-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비율이 높고(청소년 폭력 22.9%p, 성폭력 32.4%p), 성폭력의 경우 지원기관에 알리는 비율이 9.5%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성인 지지자 혹은 전문 지원기관에 비해 동년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II-18】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성별 차이



【그림 II-19】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성별 차이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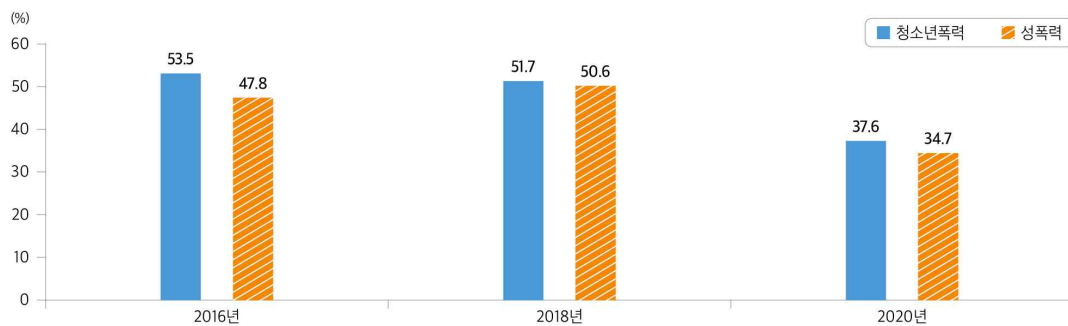
-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율(남 3.2%, 여 14.4%)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폭력 예방교육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기관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시킴으로써 피해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조사 결과 지원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여전히 낮으므로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 ⑤ ‘보복이 두려워’ 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청소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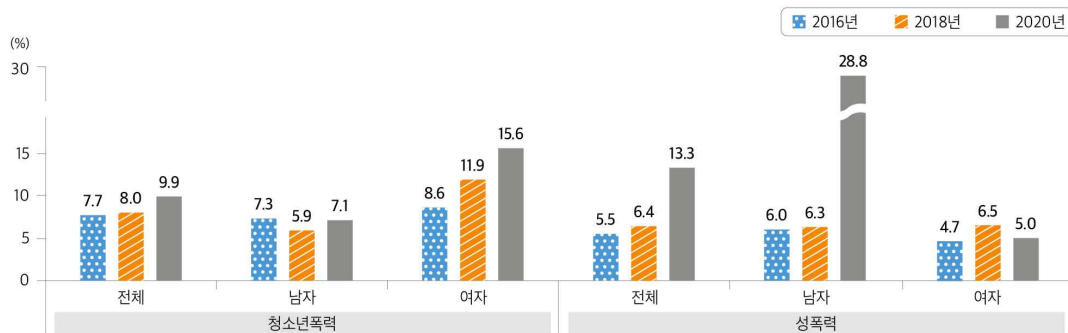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1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못하는 청소년이 35%에 달함(청소년폭력 37.6%, 성폭력 34.7%).

-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기관)에게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임.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폭력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성폭력은 남자청소년들에게서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20】 연도별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음’



【그림 II-21】 연도별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음: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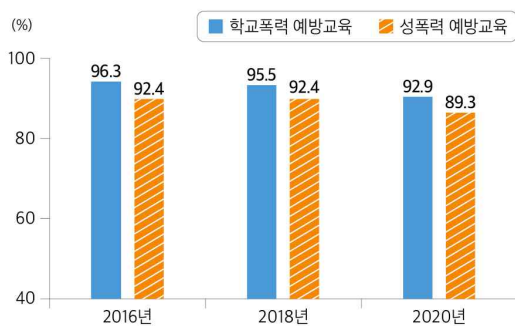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여전히 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 알리지 않는 주요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임. 청소년들이 주변환경이나 매체를 통해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임. 피해 청소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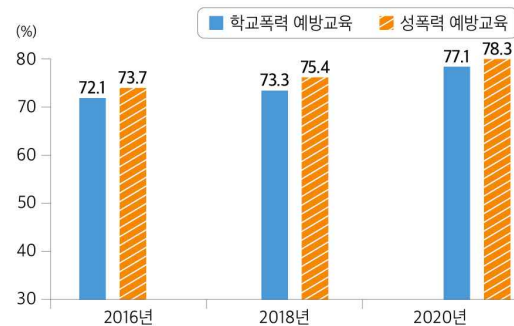
## 6 폭력 관련 교육경험률은 감소, 교육 도움 정도는 증가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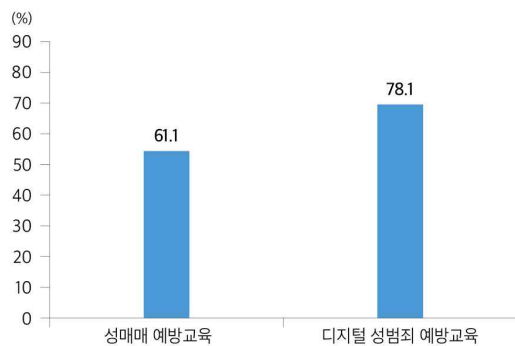
-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은 '1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20년도에 처음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은 78.1%로,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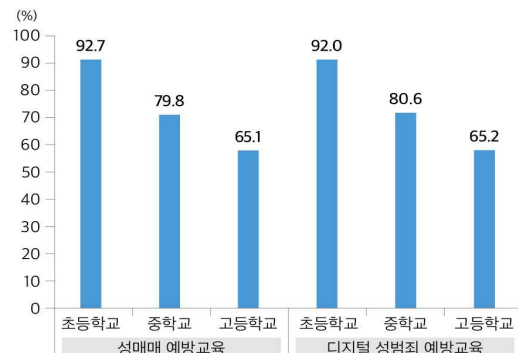
【그림 11-22】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그림 11-23】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도움이 됨'



【그림 11-24】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



【그림 11-25】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움 정도: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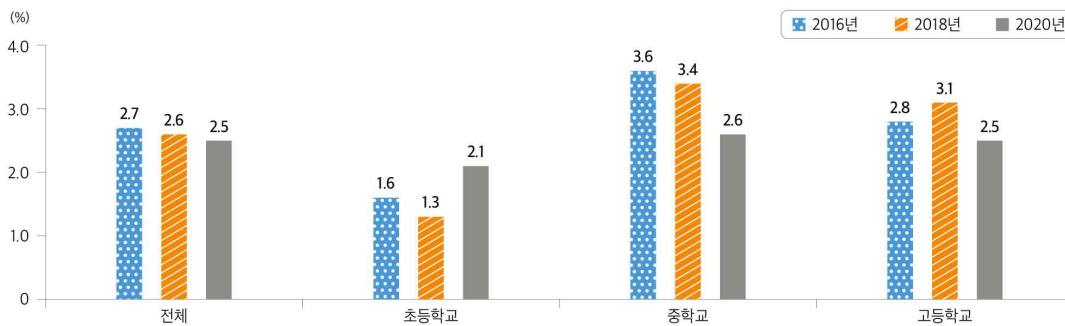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이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높은 특성을 보임. 2020년 처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경험률은 다소 낮으나 이 또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이에 저연령에서부터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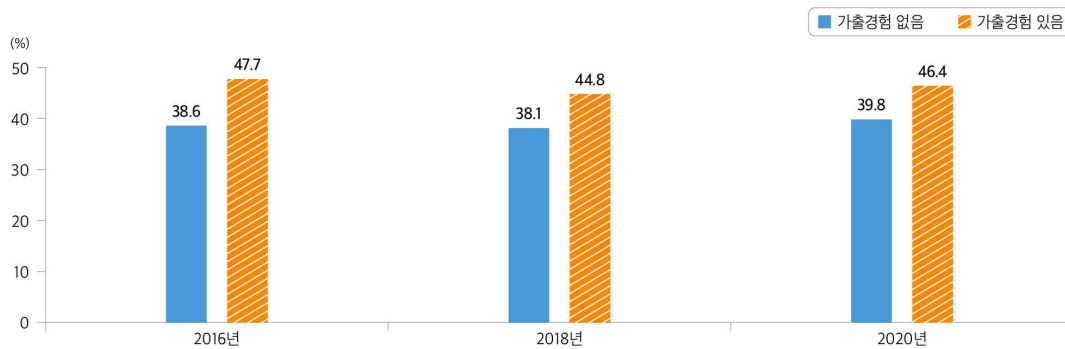
## 7 초등학생 가출율 증가, 지원기관 인지율은 답보 상태

### [분석 결과]

-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률은 2016년 조사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다만,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2018년 대비 0.8%p 증가함.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인 청소년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가출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2016년 이후 인지율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26】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학교급별



【그림 II-27】 가출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쉼터 인지율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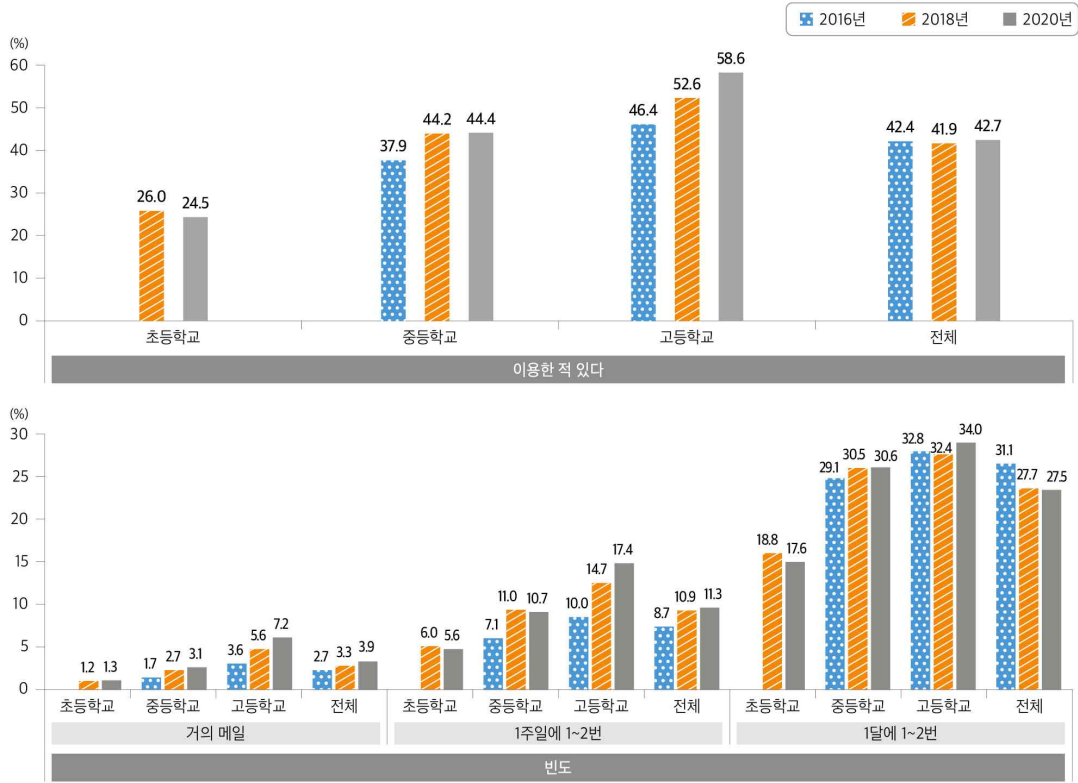
- 가출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로 볼 수 있으나,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가출과 관련한 위기상황 발생 시 문제에 대처하고, 전문지원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율 제고를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을 홍보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홍보 콘텐츠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약물 영역

#### ① 고등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이용 증가와 교육의 실효성 증대

##### [분석 결과]

- 최근 1개월 간 고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를 보면 거의 매일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이 '16년 3.6%, '18년 5.6%에 이어 '20년에는 7.2%로 증가하였음. 일주일에 1~2번 마신다는 응답도 증가함
- 일주일에 1~2번 고카페인 음료 이용 : ('16년) 10.0% → ('18년) 14.7% → ('20년) 17.4%



【그림 11-28】 고카페인 경험률

-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률은 30.7%로 '16년(23.7%)과 '18년(24.0%)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5%(고등학생은 39.3%)로 도움 정도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청소년들 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32.8%, 그중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38.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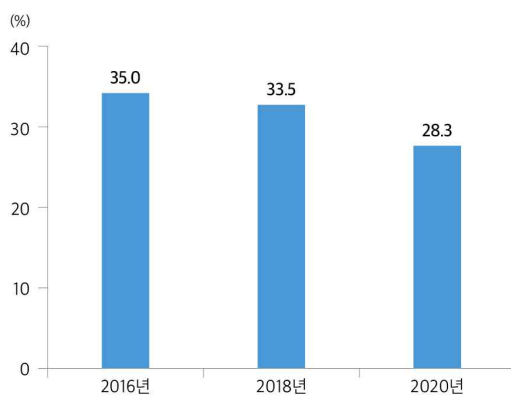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고등학생들의 고카페인 섭취가 증가세를 보이는 바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성장 및 휴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판매 및 구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청소년기 카페인 섭취에 대한 교육이 교육정보지 배포 등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카페인 섭취 경향이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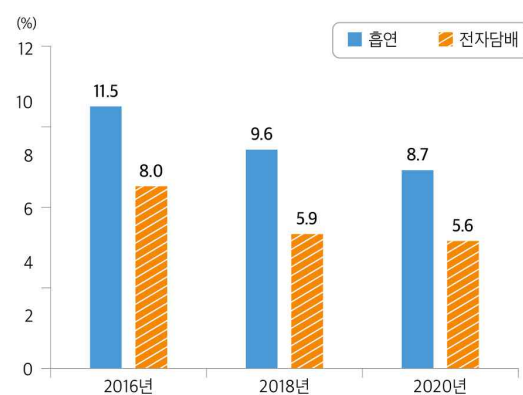
## ②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경험 감소

### [분석 결과]

- 청소년들의 생애 음주 경험률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임
  - 생애 음주 경험률 : ('16년) 35.0% → ('18년) 33.5% → ('20년) 28.3%
- 청소년들의 생애 흡연 경험률 역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생애 흡연 경험률 : ('16년) 11.5% → ('18년) 9.6% → ('20년) 8.7%
- 청소년들의 생애 흡연 경험률 감소에 따라 전자담배 경험률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생애 전자담배 경험률 : ('16년) 8.0% → ('18년) 5.9% → ('20년) 5.6%



【그림 II-29】 생애 음주 경험률



【그림 II-30】 생애 흡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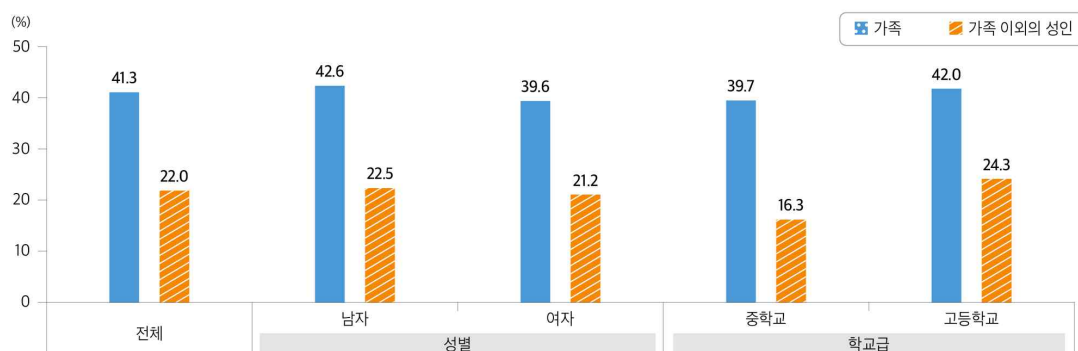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생애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유해물질에 대한 꾸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청소년의 유해물질 접근성 차단에 대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음주·흡연 생애 경험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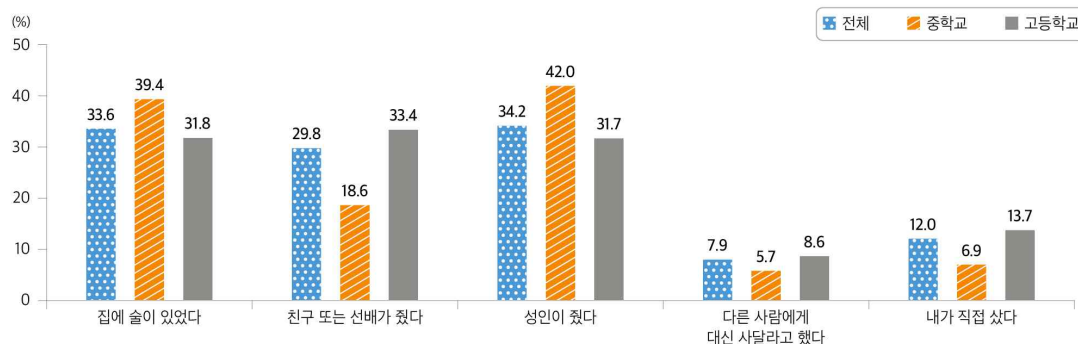
### ③ 청소년들의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 성인의 권유 및 강요

#### [분석 결과]

-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족 이외 성인의 권유·강요(22.0%)보다는 가족의 권유·강요(41.3%)에 따른 음주 경험이 더 높았음.
- 같은 맥락에서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음주 경로는 성인이 준 술을 마시는 것(‘성인이 줬다’ 34.2%)과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집에 술이 있었다’ 33.6%)임.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에게서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나 선배(33.4%)가 준 술을 마신 경우가 더 많았음.



【그림 11-31】 성인의 권유 및 강요에 의해 술을 마신 경험



【그림 11-32】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자의 술을 구한 방법(중복응답)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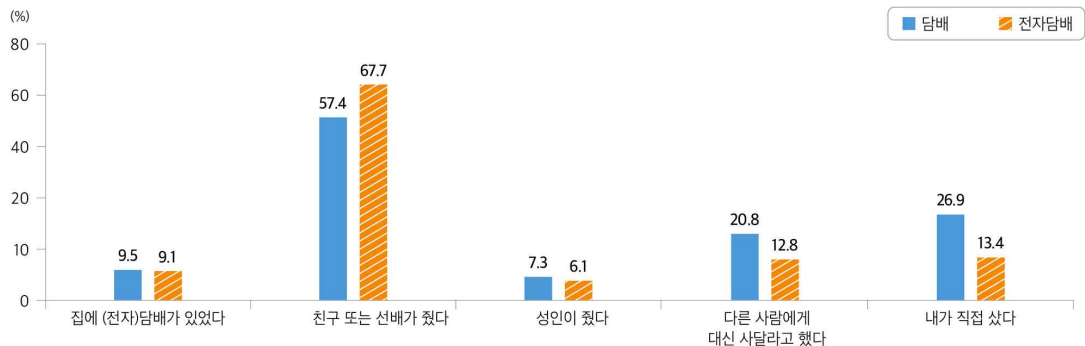
-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관습의 영향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성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가족 안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술자리에 청소년을 동석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및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4 청소년들의 주요 담배 구입 경로: 또래

##### [분석 결과]

-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담배 습득 경로는 ‘친구 또는 선배’(57.4%)이며 이는 전자담배(‘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67.7%)에서도 마찬가지임.
-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흡연 습관이 형성되면 담배를 직접 사거나(26.9%)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한 경우(20.8%)도 적지 않음. 전자담배의 경우도 직접 샀다는 응답은 13.4%,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한 경우는 12.8%로 나타남.
- 집에 있는 담배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 각각 증가함.
  - 집에 있는 담배 흡연 : (‘16년) 5.3% → (‘18년) 5.6% → (‘20년) 9.5%
  - 집에 있는 전자담배 흡연 : (‘16년) 7.7% → (‘18년) 4.9% → (‘20년) 9.1%



【그림 11-33】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자의 담배 구입 경로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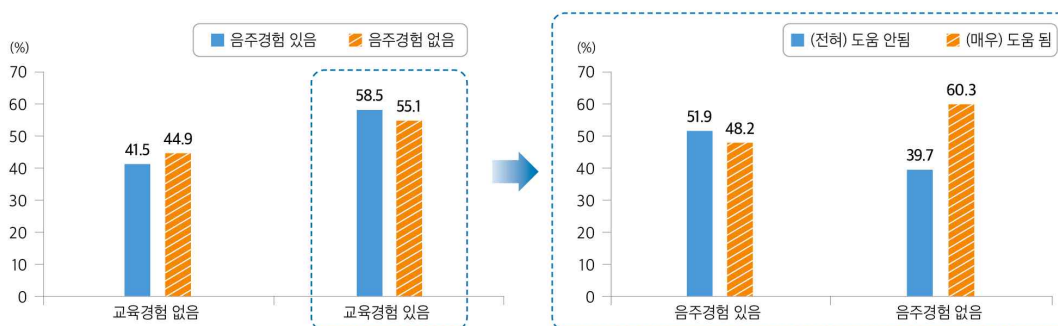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주된 담배 습득 경로는 친구나 선배로, 또래 간 흡연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또래를 통한 흡연 형성과정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흡연 습관이 형성되면 담배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흡연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5 음주·흡연 관련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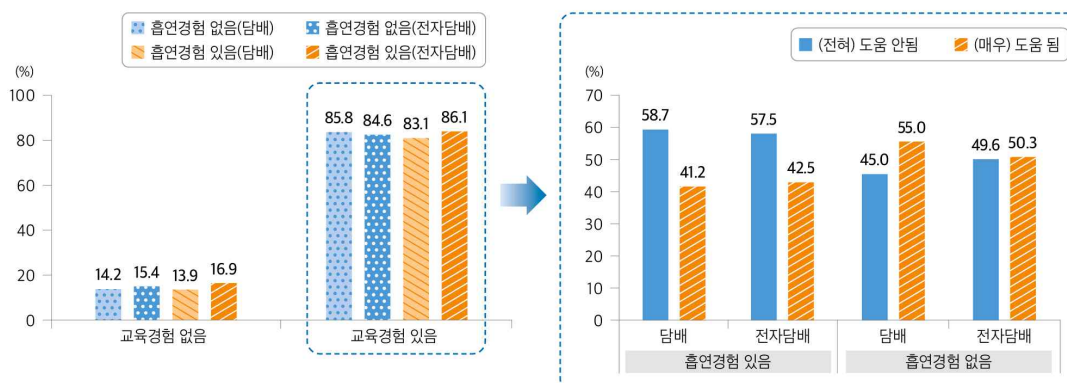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8.5%가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들의 51.9%는 음주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60.3%)가 음주 유경험자(4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그림 11-34】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최근 한 달간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83.1%가 예방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교육이 도움 되었다는 응답은 41.2%임.
- 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86.1%는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교육이 도움 되었다는 응답은 42.5%임.
-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담배 55.0%, 전자담배 50.3%)가 흡연 유경험자(담배 41.2%, 전자담배 4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그림 11-35】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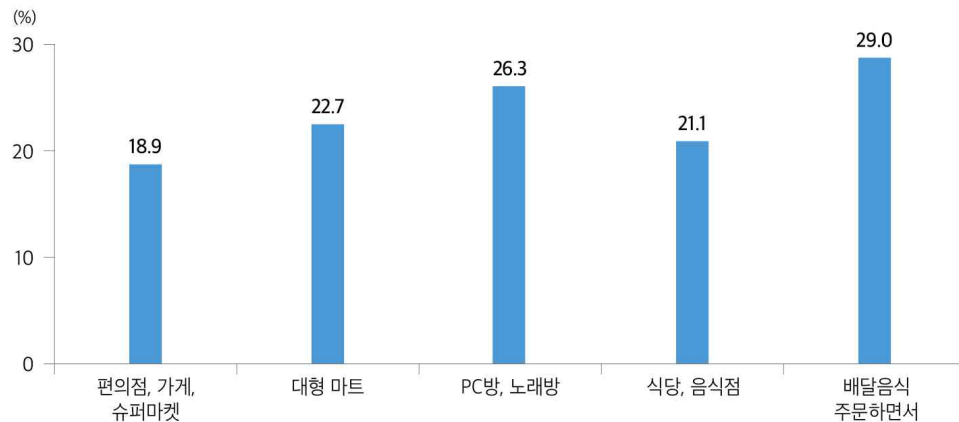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청소년기 음주 및 흡연 관련 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음주 및 흡연 경험자에 대한 교육 효과는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보다 다소 낮음. 따라서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없는 저연령부터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미 음주 및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강의식 집체 교육에서 탈피하여 참여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이후 금주·금연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실제 금주·금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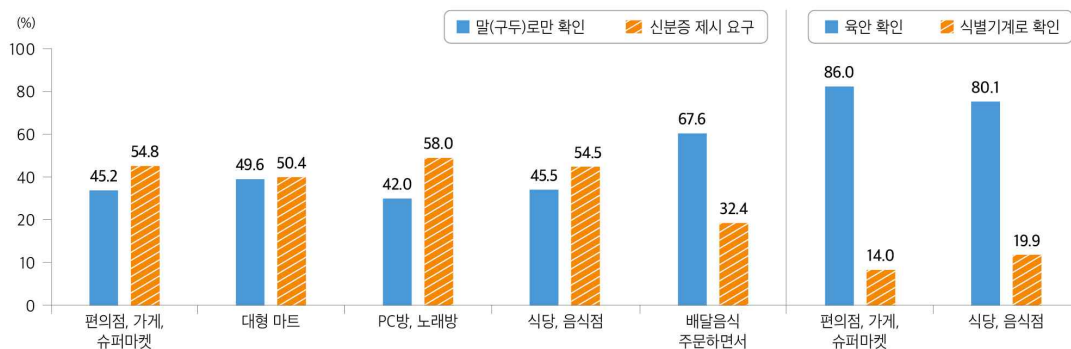
### [6] 술·담배 구매 시 성인인증 방법 부실

#### [분석 결과]

- 술 구매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구매 시 성인인증을 위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응답률은 실내체육시설(54.0%)을 제외하고 모두 10~30% 정도에 그침. 확인을 한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 요구는 대개 절반 정도를 상회하며 나머지는 구두확인으로만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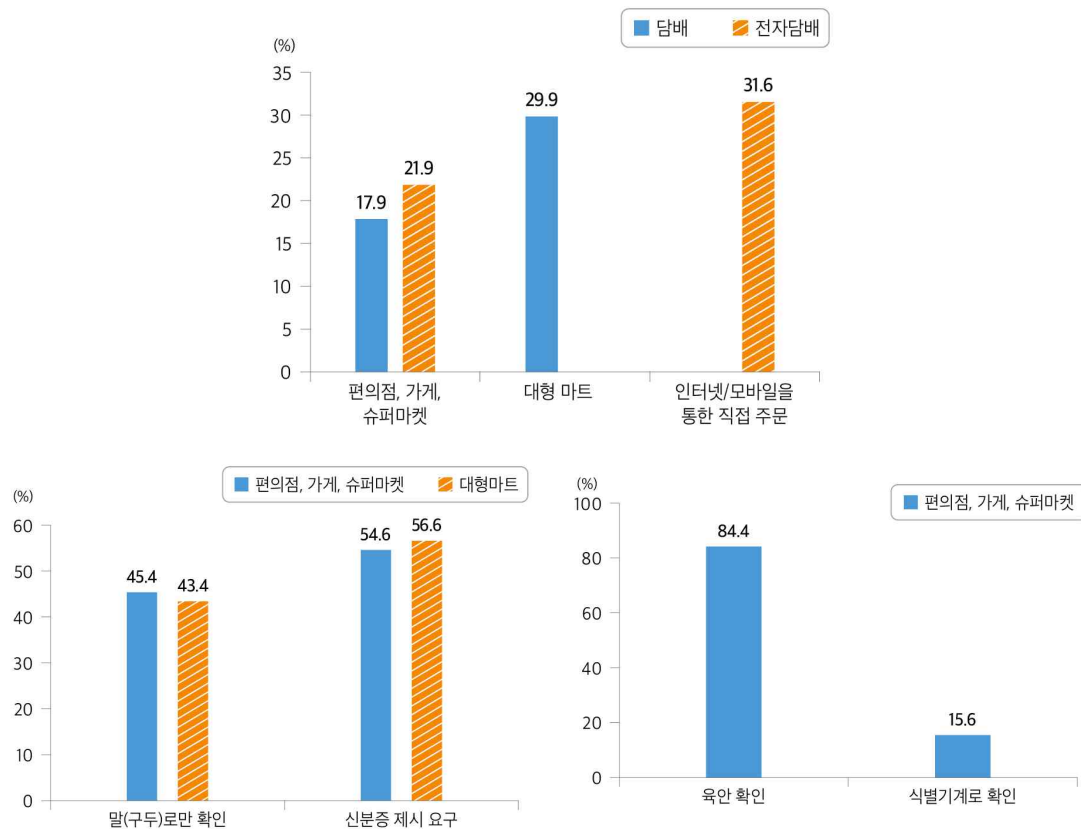


\* 주: 총 사례수가 10사례 미만인 항목(실내체육시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은 제외함.



【그림 II-36】 술 구매 시 성인 확인 여부 및 성인 확인 방법

- 담배 및 전자담배 구입 시에도 성인인증을 위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응답률은 사례수가 적은 곳(10사례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30% 초반 이하임. 확인을 한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 요구는 술 구매 시와 마찬가지로 대개 절반 정도를 상회하였음.



\* 주: 총 사례수가 10사례 미만인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그에 따라 성인 확인 방법에서 전자담배는 제외됨.

【그림 11-37】 담배 구매시 성인 확인 여부 및 성인 확인 방법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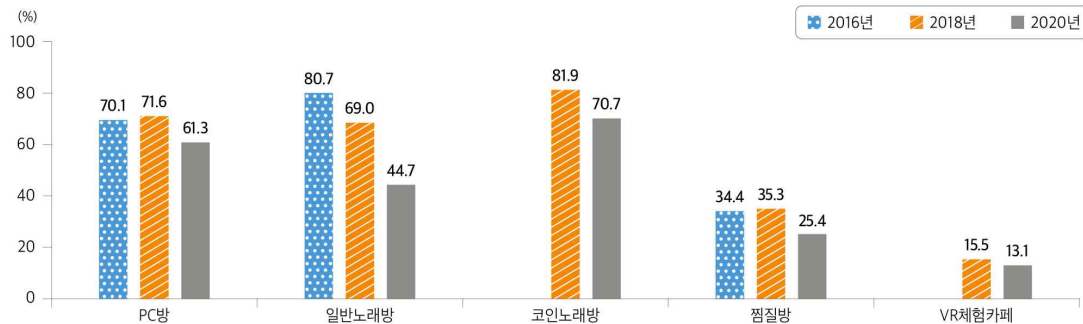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직접 술·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비록 적다고 하여도 구매 시 성인 확인 여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확인을 한다 하여도 구두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또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청소년 구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는 청소년 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술·담배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부터 슈퍼마켓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연합뉴스, 2020.11.21).

## 4. 업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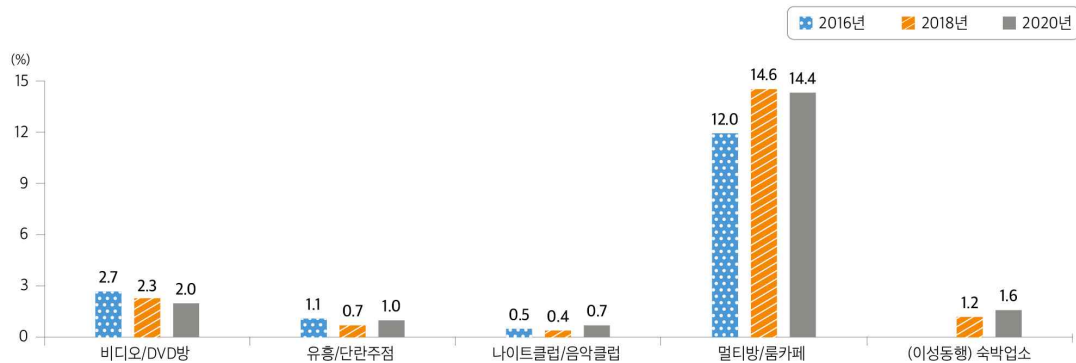
### ①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이용률은 대체로 감소

#### [분석 결과]

-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의 경우 '18년 대비 모든 업소에서 청소년 이용률이 감소하였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경우 비디오/DVD방,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 이에 비해 유흥/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음악클럽,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는 '18년 대비 이용률이 증가함.



【그림 II-38】 연도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률



【그림 II-39】 연도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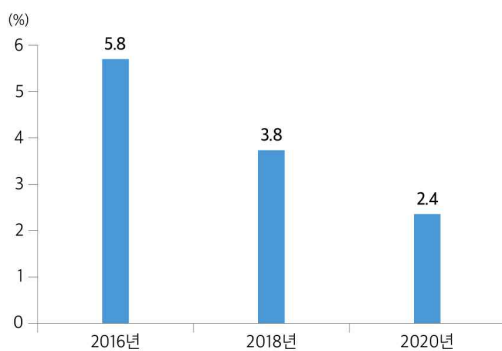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2020년 COVID-19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명령이 지자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의 업소 이용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정상영업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예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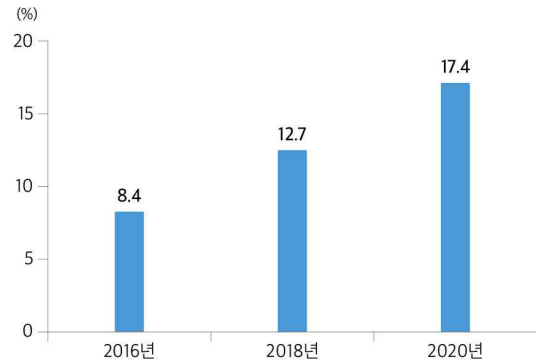
##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감소, 나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증가

### [분석 결과]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조사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II-40】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그림 II-41】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시 나이 미확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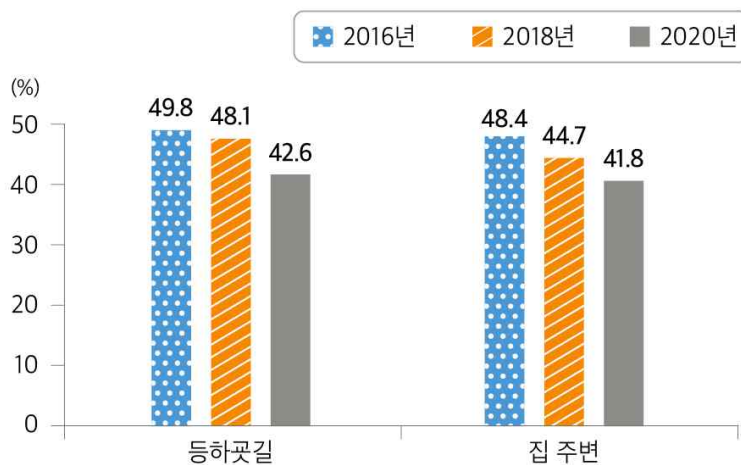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한 결과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감소의 영향인지, 시기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제도·단속 및 업주의 자정노력 영향으로 인한 감소 추세인지 변별하기 어려움.
- 다만,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에게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생 고용 시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활동 및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③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환경 소폭 감소

#### [분석 결과]

- 조사 대상 청소년의 42.6%는 등하굣길에, 41.8%는 집 주변에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업소 등 유해업소가 '있다'고 응답함.
- 청소년들이 등하굣길과 집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6년 조사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생활환경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마주하고 있음.



【그림 11-42】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환경 분포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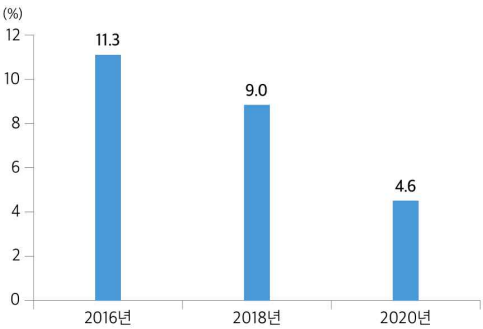
- 본 조사의 결과에서 유해업소 이용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율이 2018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10명 중 4명 이상은 등하굣길과 집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학교 주변 유해환경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환경인 등하굣길과 집 주변의 유해업소의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주기적인 점검 및 정화활동, 그리고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5. 근로보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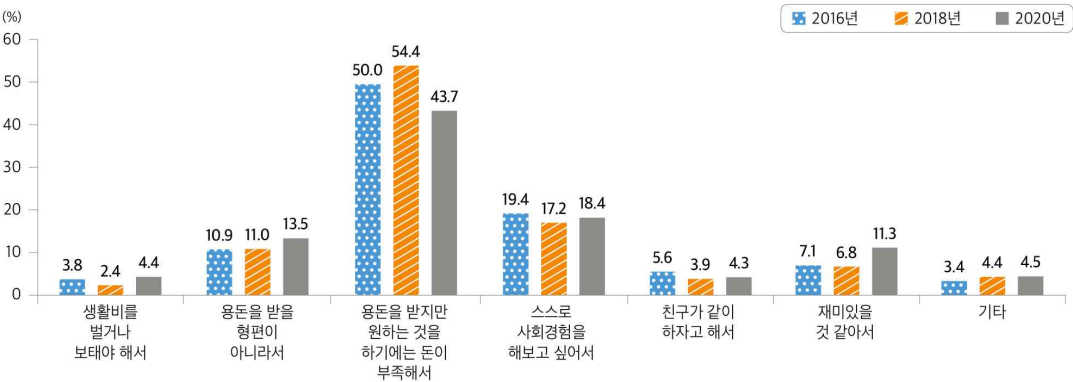
### 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위축

#### [분석결과]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16) 11.3% → ('18) 9.0% → ('20) 4.6%
-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을 받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7%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7.9%(‘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4.4%+‘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3.5%)로 예년 대비 증가함.
  - 가정형편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 ('16) 14.7% → ('18) 13.4% → ('20) 17.9%



【그림 II-43】 연도별 아르바이트 경험률



【그림 II-44】 연도별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 [시사점 및 제언]

- 전반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가정형편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및 근로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

##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의 변화: COVID-19의 영향

### [분석결과]

○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37.2%)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과거에 비해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뷔페·웨딩홀·연회장’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크게 증가함.

- 음식점·식당·레스토랑: ('16) 41.6% → ('18) 45.9% → ('20) 37.2%
- 뷔페·웨딩홀·연회장: ('16) 17.9% → ('18) 14.1% → ('20) 6.4%
- 배달·운전: ('16) 1.1% → ('18) 0.5% → ('20) 15.2%

표 II-1 연도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위 5개 업종 비교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6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41.6%)	뷔페·웨딩홀· 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 푸드점 (6.1%)	편의점 (5.5%)
2018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45.9%)	뷔페·웨딩홀· 연회장 (14.1%)	전단지 배포 (7.8%)	패스트 푸드점 (6.5%)	편의점 (6.2%)
2020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37.2%)	배달·운전 (15.2%)	편의점/ 소형마트 (7.4%)	뷔페·웨딩홀· 연회장 (6.4%)	패스트 푸드점 (6.2%)

\* 주: 1) '16년 및 '18년은 '편의점'으로 질의하였고, '20년에는 '편의점/소형마트'로 질의하였음.

### [시사점 및 제언]

○ 배달·운전 업종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이 취약하며, 편의점/소형마트는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가 미흡하였음.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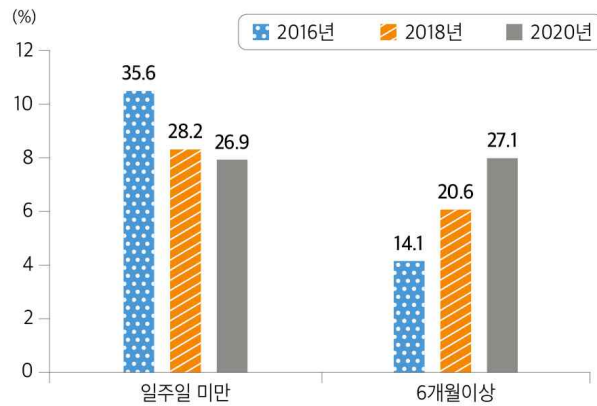


### ③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상시적 장기화 경향성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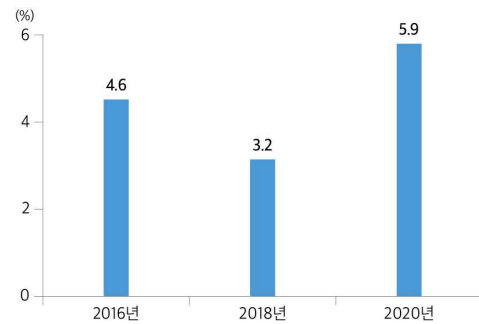
#### [분석결과]

○ 아르바이트 근속 기간은 길어지고, 주당 평균 시간은 증가하였음.

-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 비율: ('16) 14.1% → ('18) 20.6% → ('20) 27.1%
- 주당 평균 근로시간: ('16) 17.2시간 → ('18) 15.7시간 → ('20) 16.8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40시간) 초과 비율: ('16) 4.6% → ('18) 3.2% → ('20) 5.9%



【그림 11-45】 연도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그림 11-46】 연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40시간 초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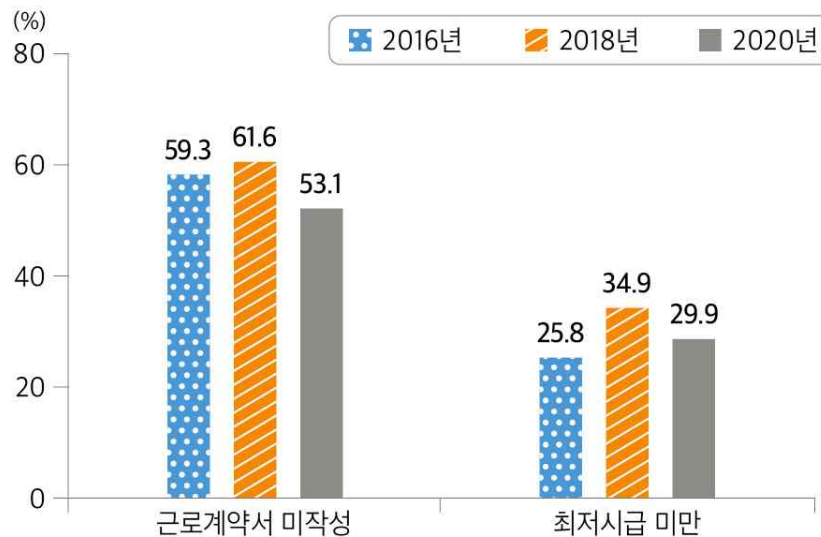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는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단기간 근로가 아닌, 상시적·장기간 근로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함.
- 상시적 근로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권익침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풍토 확산 및 근로권익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며,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등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준수되도록 근로감독 및 사업주 계도가 이루어져야 함.

#### ④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청소년 대상 기초고용질서 여전히 미흡

##### [분석결과]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로,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반을 차지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16) 59.3% → ('18) 61.6% → ('20) 53.1%
  -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교부받은 비율: ('18) 58.0% → ('20) 54.6%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약 3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시급 미만 임금을 지급받은 비율: ('16) 25.8% → ('18) 34.9% → ('20) 29.9%



【그림 11-47】 연도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만 지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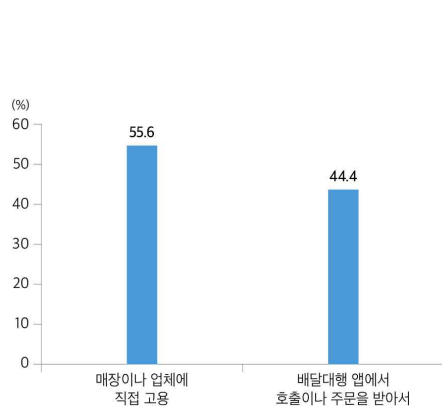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는 기초고용질서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 기준법 준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습적·반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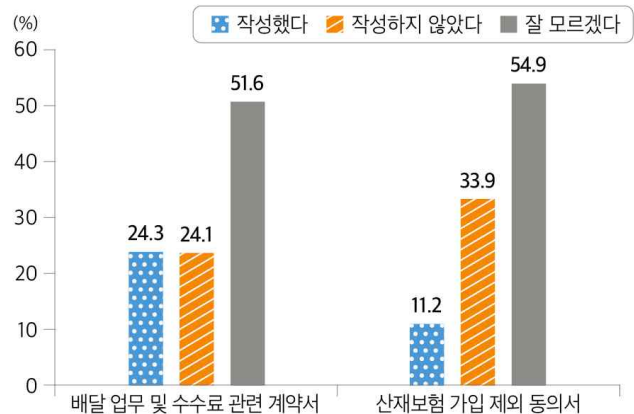
## 5 배달 아르바이트, 근로권익보호의 사각지대

### [분석결과]

- 오토바이 배달이나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44.4%가 플랫폼 노동자임.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 ‘매장이나 업체 직접 고용’ 55.6%,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개인사업자)’ 44.4%로 나타남.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 배달 업무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24.3%,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11.2%임.



【그림 11-48】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



【그림 11-49】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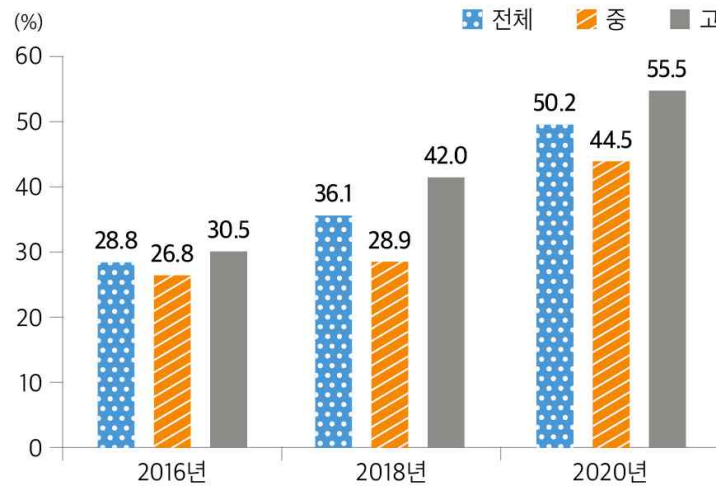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제언]

-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이 중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배달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플랫폼 가입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권익보호에 매우 취약함.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시장은 확장되고 있어, 향후 배달·운전 업종으로 청소년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근로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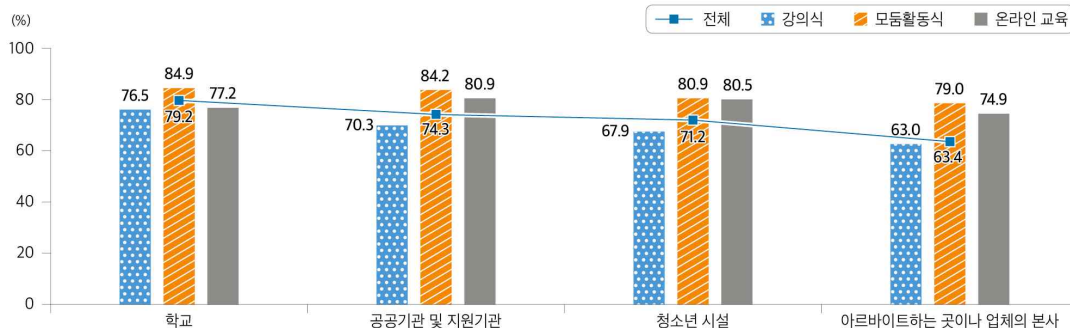
## 6] 근로권익교육의 지속적 확대 및 온라인 교육의 급증

### [분석결과]

-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의 50.2%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경험률: ('16) 28.8% → ('18) 36.1% → ('20) 50.2%
- 근로권익교육 방식은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증가함.
- 교육방식에 따라 근로권익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모둠활동식 수업'이 가장 높았고, '강의식 수업'의 체감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II-50】 연도별 학교급별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그림 II-51】 교육장소 및 교육방식별 근로권익교육 효과 긍정적 응답 비율

###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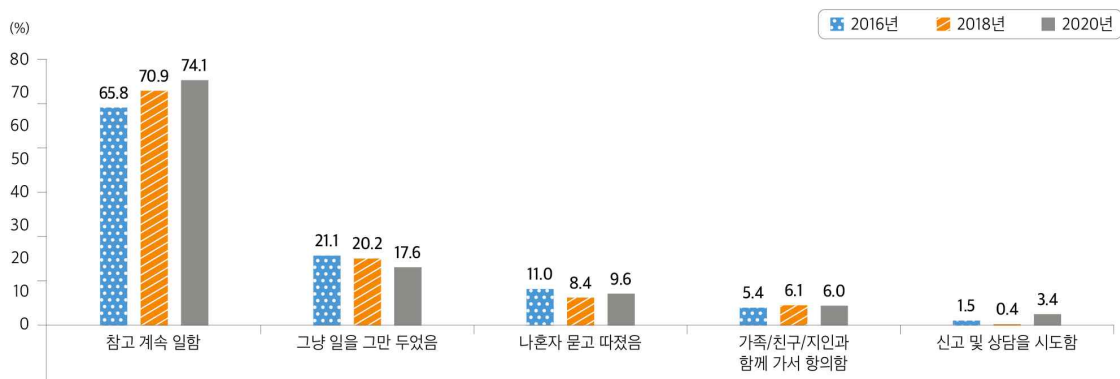
- 근로권익교육 경험률은 증가세를 보이거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권리보호에 취약한 중학생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중학생의 근로권익교육 확대가 요구됨.

- 교육방식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효과 측면에서 모둠활동식 수업이 가장 바람직하나, 온라인 교육의 효과가 강의식 수업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추후 근로권익교육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둠활동식 수업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7] 부당행위 및 처우 문제, 제도적 해결보다는 개인적 대처로 접근

##### [분석결과]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체불을 경험함.
  - 임금체불 경험률: ('16) 19.6% → ('18) 21.7% → ('20) 18.9%
-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양한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했을 때, 상담·신고를 통한 제도적 해결보다는 개인적 희생이나 대처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부당행위 및 처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조사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17.6%임.
  - 선생님/ 인터넷 알바 사이트 노무 상담/ 노동상담센터 도움 요청/ 고용노동부·고용지청·경찰 신고 비율: ('16) 1.5% → ('18) 0.4% → ('20) 3.4%



\* 주: 1) '신고 및 상담을 시도함'에는 "선생님에게 알렸다",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노무상담을 통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았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를 합산한 수치임.

[그림 II-52] 연도별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 [시사점 및 제언]

- 부당행위 및 처우 등 근로권의 침해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90.0%를 상회하며, 제도적 대응을 시도한 응답 비율은 0.5~3.5% 수준에 머무는 결과는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개인적 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중재·해결 지원제도 홍보 및 노동인권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방증함.



## 제 III 장

# 조사 결과 분석

1. 매체 영역
2. 행위 영역
3. 약물 영역
4. 업소 영역
5. 근로·보호 영역
6. 생활 일반





# 제 III 장

## 조사 결과 분석

### 1. 매체 영역

#### 1-1. 매체 이용 실태

##### ① 매체종류별 이용률

- 청소년의 94.6%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함.
- 청소년의 93.6%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함.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최근 1년 동안 매체별 이용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9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률이 93.6%, ‘지상파 TV’ 이용률 88.0%, ‘지상파 제외 TV’ 이용률 84.7% 순이었음.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위주로 매체를 활용함.
  - ’18년 조사 결과 대비, ‘지상파 TV’ 이용률은 4.6%p, ‘지상파 제외 TV’ 이용률은 6.3%p 감소한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률은 1.1%p,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률도 1.2%p 증가함.
  -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는 청소년의 59.3%가 이용한 적이 있으며 남학생(53.4%)보다는 여학생(65.8%)의 이용률이 다소 높음.
- 시계열 비교 결과, 종이신문, 잡지/책 등 인쇄 매체가 포함된 전통적 매체 이용률은 점차 감소 추이를 보임.
  - ‘종이신문’의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13.4%로 그중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11.9%, 중학생은 11.0%가 이용한 것으로 보고됨.
  - 반면, ‘인터넷 신문’ 이용률은 초등학생 34.9%, 중학생 49.2%, 고등학생 60.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률도 가파르게 증가함.

표 III-1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만화(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2016	94.9	86.9	-	26.3	54.4	63.3	55.2	81.5	26.0	92.5	91.7	78.9	34.3
	2018	92.6	91.0	-	20.3	56.3	63.6	51.7	76.3	19.8	93.5	92.4	74.3	24.6
	2020	88.0	84.7	59.3	13.4	45.3	56.6	48.3	71.2	21.6	94.6	93.6	73.2	26.3
성별	남자	2016	93.0	84.2	-	26.6	55.0	59.0	48.1	21.4	92.6	89.3	74.6	38.5
		2018	91.0	89.9	-	20.8	55.5	58.4	45.6	17.2	93.6	90.6	69.5	28.8
		2020	84.3	81.1	53.4	13.5	43.8	52.1	42.5	18.2	93.7	91.8	67.4	22.9
	여자	2016	97.1	89.8	-	26.0	53.9	68.1	62.9	31.0	92.4	94.2	83.5	29.7
		2018	94.3	92.2	-	19.8	57.1	69.1	58.2	22.6	93.4	94.4	79.4	20.0
		2020	92.0	88.7	65.8	13.2	47.0	61.5	54.5	25.3	95.5	95.6	79.5	29.9
학교급	초등학교	2016	95.9	81.5	-	27.0	77.5	69.7	34.1	69.6	22.7	92.2	82.7	56.1
		2018	92.8	85.6	-	20.3	78.7	71.3	31.4	59.8	18.9	91.4	83.6	44.5
		2020	88.9	81.4	55.3	17.1	68.4	66.1	34.9	56.4	21.0	91.3	85.5	45.5
	중학교	2016	95.5	88.9	-	23.1	53.9	61.6	55.4	86.6	26.4	94.4	96.2	88.0
		2018	93.1	93.0	-	19.3	54.3	61.3	51.5	81.3	19.3	95.2	96.6	86.2
		2020	89.1	87.6	61.2	11.0	41.3	53.9	49.2	78.3	20.7	96.9	98.0	85.1
	고등학교	2016	93.7	89.2	-	28.6	37.5	60.1	70.7	86.0	28.2	91.2	94.4	88.0
		2018	92.0	93.6	-	21.1	40.1	59.3	67.9	85.5	20.9	93.8	95.9	88.2
		2020	86.1	85.3	61.5	11.9	26.7	50.1	60.3	78.9	23.1	95.5	97.4	89.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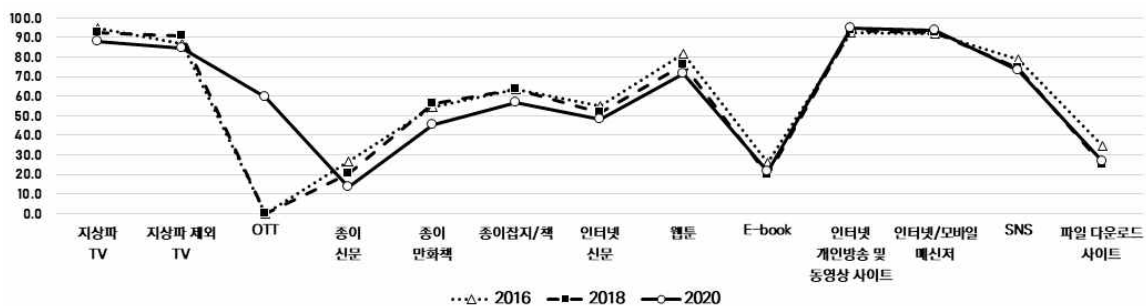
2) '20년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함.

3)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팍콘TV, 팍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6)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중복응답)

## ② 매체별 이용 빈도

-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로, 청소년의 80.7%가 거의 매일 이용함.
-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77.2%)이 ‘지상파 TV’(33.1%)나 ‘지상파 제외 TV’(29.1%)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보다 더 많았음.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의 80.7%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90.4%가 1주일에 1회 이상(‘거의 매일’ 80.7%+‘주1~2회’ 9.7%) 사용함.
  -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초등학생(78.9%)보다 중학생(96.4%)및 고등학생(95.9%)에게서 높음.
  - 시계열 조사 결과, 성별 및 학교급별로 ’16년부터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77.2%로, ‘지상파 TV’(33.1%)나 ‘지상파 제외 TV’(29.1%)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시계열 조사 결과,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82.8% → ’18년 88.2% → ’20년 90.7%로 4년 새 7.9%p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간의 증가폭(’18) 88.2% → (’20) 90.7%, 2.5%p)은 다소 둔화됨.
- ‘인터넷만화(웹툰)’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16년 71.0% → ’18년 64.2% → ’20년 58.1%로 감소 추이를 보이며, ‘인터넷 신문’(’18) 35.2% → (’20) 28.4%)과 ‘SNS 이용률’(’18) 66.7% → (’20) 65.0%)도 최근 2년간 감소함.
- ‘지상파 TV’(72.0%)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16년 85.9% → ’18년 80.3% → ’20년 72.0%로 최근 2년간 감소폭이 더 커짐.

표 III-2 최근 1년 간 매체별 '거의 매일' 이용 비율

(단위: 명,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OTT)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만화 (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E-book)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2016	50.6	33.4	-	3.7	6.6	12.1	17.9	49.2	4.1	54.9	76.1	58.7	3.4	
	2018	42.0	34.7	-	2.5	8.0	13.2	14.7	43.1	3.1	68.0	77.4	54.3	2.0	
	2020	33.1	29.1	17	1.5	5.2	10.3	10.4	38.5	3.6	77.2	80.7	52.2	2.2	
성별	남자	2016	47.6	31.9	-	3.9	8.1	12.5	16.7	49.2	3.9	58.7	71.5	53.9	4.5
		2018	40.6	32.0	-	3.0	10.1	12.6	14.8	38.8	3.2	69.1	72.5	48.2	2.8
		2020	31.3	25.3	15.6	1.7	6.2	10.4	10.8	36.1	3.6	77.9	77.2	45.1	2.3
	여자	2016	53.8	35.1	-	3.4	4.8	11.8	19.2	49.2	4.3	50.8	81.2	63.8	2.2
		2018	43.4	37.5	-	2.0	5.8	13.8	14.6	47.7	3.1	66.8	82.8	60.8	1.2
		2020	35.1	33.2	18.6	1.3	4.1	10.3	10.0	41.1	3.7	76.4	84.4	60.0	2.1
학교급	초·중·고교	2016	55.0	29.3	-	4.8	15.7	21.5	6.1	29.9	2.6	55.4	54.4	25.5	2.1
		2018	45.7	32.1	-	2.9	19.6	24.1	4.6	23.4	2.2	58.7	56.6	19.4	1.4
		2020	39.3	29.2	14.3	2.3	12.2	19.8	5.6	21.6	2.7	66.0	60.9	18.0	1.8
	중·고교	2016	56.6	40.4	-	3.0	4.4	10.9	16.5	57.3	4.1	61.7	85.7	71.8	3.1
		2018	46.4	40.3	-	2.2	4.1	11.5	13.0	48.9	3.2	76.3	85.5	67.4	1.9
		2020	35.0	32.2	18.6	1.0	2.3	7.3	8.9	45.7	3.6	84.0	90.4	64.5	2.3
	고·대·원	2016	41.8	30.3	-	3.4	1.5	6.2	27.9	56.6	5.1	48.6	84.0	72.0	4.6
		2018	35.3	32.1	-	2.4	2.1	6.1	24.1	54.0	3.9	68.5	87.2	71.2	2.6
		2020	25.5	26.0	18.2	1.1	1.2	3.9	16.5	48.1	4.6	81.6	90.7	73.9	2.7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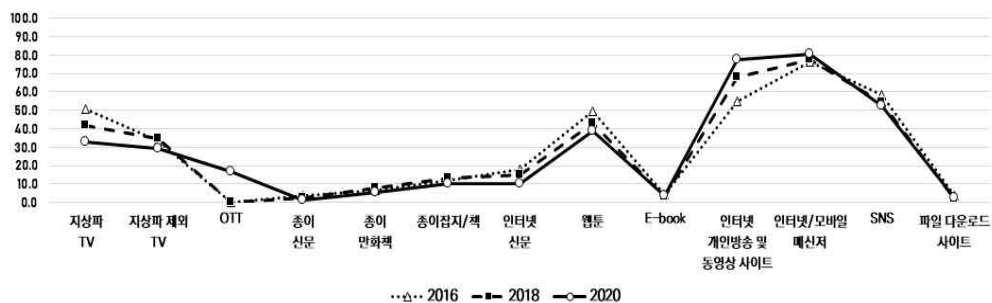
2) '20년에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함.

3)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6)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2】 최근 1년 간 매체별 '거의 매일' 이용 비율

표 III-3 최근 1년 간 매체별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 비율

(단위: 명,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OTT)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만화 (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E-book)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2016	85.9	73.3	-	8.7	21.1	32.4	39.1	71.0	12.1	82.8	88.0	71.3	13.4
	2018	80.3	76.8	-	6.6	22.8	34.5	35.2	64.2	8.4	88.2	89.4	66.7	7.8
	2020	72.0	69.2	38.1	3.6	16.2	28.7	28.4	58.1	8.9	90.7	90.4	65.0	8.6
성별	남자	2016	82.9	70.7	-	9.2	24.7	32.2	34.2	69.6	10.5	84.5	66.8	16.1
		2018	78.2	74.5	-	7.4	26.2	33.6	32.1	59.3	7.7	88.6	61.1	9.8
		2020	67.6	64.3	34.3	4.0	17.8	27.9	26.3	53.6	7.9	89.8	58.0	7.2
	여자	2016	89.1	76.1	-	8.1	17.2	32.6	44.5	72.5	13.9	80.9	76.1	10.4
		2018	82.5	79.2	-	5.8	19.2	35.4	38.5	69.4	9.2	87.7	72.6	5.7
		2020	76.8	74.6	42.4	3.3	14.5	29.6	30.6	63.0	10.1	91.5	72.7	10.2
학교급	초등학교	2016	87.2	65.9	-	10.1	44.9	49.2	18.0	52.3	9.5	81.2	42.3	9.2
		2018	81.4	71.1	-	6.9	48.0	52.2	15.8	42.8	7.6	83.2	32.6	6.9
		2020	75.6	65.6	33.2	5.0	34.4	45.2	16.3	39.6	8.0	84.8	32.0	6.1
	중학교	2016	88.8	78.0	-	6.8	16.8	30.9	38.3	78.4	11.9	86.8	83.0	11.6
		2018	82.4	80.4	-	5.9	16.7	32.0	33.4	70.1	7.9	91.5	79.8	7.0
		2020	74.1	73.4	40.5	2.8	9.9	25.4	28.3	66.3	8.9	94.5	78.6	9.6
	고등학교	2016	82.3	74.8	-	9.3	6.9	21.0	55.8	78.5	14.1	80.4	82.7	18.1
		2018	77.7	78.3	-	6.9	8.0	22.7	52.1	76.4	9.5	89.4	82.8	9.3
		2020	66.8	68.6	40.7	3.0	4.6	15.6	40.1	68.3	10.0	92.7	84.4	10.4

\* 주: 1)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거의 매일' 및 '1주 1~2회'를 합산한 결과임.

2) '20년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함.

3)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팍콘TV, 팍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6)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③ 주로 이용하는 기기

- TV방송을 제외하면,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매체를 접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위주로 한 매체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매체를 접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92.9%)를 이용할 때임.
- ‘인터넷 만화’(91.6%),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1.2%)도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률은 특히 여학생(94.4%)과 중학생(94.9%)에게서 다소 높았음.
  -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는 82.1%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PC/노트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0.3%에 그침.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를 받는 경우도 44.0%로 적지 않음을 새롭게 확인함.
- 매체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음.

표 III-4 최근 1년 간 매체별 주로 이용하는 기기

(단위: 명, %)

매체 종류			사례수			주요 이용 기기											
						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TV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1) 지상파 TV방송(KBS, MBC, SBS, EBS)	전체		14,696	14,283	12,454	4.5	4.6	5.5	15.4	18.0	18.6	1.5	1.5	2.1	78.6	75.9	73.8
	성별	남자	7,505	7,260	6,173	5.3	5.7	7.2	13.1	15.3	16.4	1.1	1.1	1.7	80.5	77.9	74.7
		여자	7,191	7,023	6,282	3.6	3.5	3.8	17.9	20.8	20.7	1.8	1.9	2.5	76.6	73.8	72.9
	학교급	초등학교	4,237	4,345	4,180	3.3	3.0	4.4	12.3	13.7	14.5	1.2	1.8	2.5	83.2	81.5	78.6
		중학교	4,973	4,531	4,054	4.0	4.8	5.2	14.9	19.6	17.6	0.8	0.9	1.2	80.3	74.8	76.0
		고등학교	5,486	5,408	4,221	5.9	5.7	6.8	18.4	20.2	23.5	2.3	1.8	2.6	73.4	72.3	67.0
2) 지상파를 제외한 TV방송(tvN, Mnet, OCN, JTBC 등)	전체		13,418	13,352	11,865	4.5	4.7	5.1	14.1	15.9	19.8	1.5	1.4	2.6	79.9	78.0	72.5
	성별	남자	6,773	6,665	5,870	5.0	5.5	5.8	12.3	12.9	16.9	1.3	1.1	1.9	81.3	80.5	75.4
		여자	6,645	6,687	5,995	3.9	3.9	4.5	15.9	18.9	22.6	1.8	1.6	3.2	78.5	75.5	69.7
	학교급	초등학교	3,584	3,803	3,756	2.4	2.6	3.2	8.4	8.4	10.6	1.1	1.0	2.4	88.2	88.0	83.8
		중학교	4,625	4,323	3,941	3.7	4.3	4.3	12.8	15.5	17.8	0.8	0.7	1.7	82.7	79.5	76.3
		고등학교	5,210	5,225	4,167	6.6	6.7	7.8	19.1	21.6	30.0	2.5	2.2	3.5	71.7	69.5	58.7
3) 온라인동영상	전체		-	-	8,211	-	-	18.3	-	-	44.0	-	-	11.5	-	-	26.1
	성	남자	-	-	3,805	-	-	19.0	-	-	42.6	-	-	7.8	-	-	30.7

매체 종류			사례수			주요 이용 기기											
						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TV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제공서비스 (OTT) (IPTV, 넷플릭스, WAVVE, tving 등)	별	여자	-	-	4,406	-	-	17.7	-	-	45.3	-	-	14.7	-	-	22.2
	학교급	초등학교	-	-	2,495	-	-	15.5	-	-	29.0	-	-	12.3	-	-	43.1
		중학교	-	-	2,726	-	-	19.0	-	-	46.3	-	-	9.9	-	-	24.8
		고등학교	-	-	2,989	-	-	20.0	-	-	54.5	-	-	12.3	-	-	13.1
4) 인터넷 신문	전체		8,354	7,662	6,376	16.5	13.8	13.8	78.6	82.1	81.0	3.8	2.5	2.6	1.1	1.6	2.6
	성별	남자	3,796	3,481	2,869	22.8	19.2	19.1	71.5	76.8	75.5	4.2	2.4	2.4	1.4	1.6	3.0
		여자	4,557	4,181	3,507	11.2	9.3	9.5	84.5	86.6	85.4	3.4	2.5	2.7	0.9	1.6	2.3
	학교급	초등학교	1,451	1,384	1,457	23.6	16.7	16.1	68.5	73.4	70.8	4.2	3.8	5.0	3.8	6.2	8.1
		중학교	2,814	2,375	2,095	16.5	13.3	13.4	80.7	84.6	84.0	1.6	1.3	0.9	1.2	0.9	1.7
		고등학교	4,089	3,902	2,825	14.0	13.1	13.0	80.8	83.8	84.0	5.1	2.8	2.6	0.2	0.4	0.4
5) 인터넷 만화(웹툰)	전체		12,420	11,478	9,910	10.2	7.1	5.1	86.1	89.8	91.6	2.9	2.2	2.5	0.8	0.9	0.8
	성별	남자	6,299	5,507	4,705	12.7	9.6	6.5	83.6	87.3	90.0	2.8	2.1	2.5	0.9	1.0	1.1
		여자	6,121	5,971	5,205	7.6	4.8	3.9	88.7	92.1	93.1	3.1	2.3	2.5	0.7	0.8	0.5
	학교급	초등학교	2,997	2,709	2,566	14.1	9.5	7.8	80.9	83.9	85.2	2.6	3.7	4.3	2.4	3.0	2.7
		중학교	4,426	3,839	3,516	8.3	5.8	3.6	89.7	92.8	95.1	1.5	1.0	1.2	0.5	0.4	0.1
		고등학교	4,997	4,932	3,828	9.4	6.9	4.6	86.1	90.6	92.8	4.4	2.3	2.4	0.1	0.2	0.1
6)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E-book)	전체		3,986	2,761	2,900	16.9	17.5	17.6	73.5	66.8	66.0	8.0	14.1	14.2	1.5	1.6	2.2
	성별	남자	1,701	1,180	1,244	23.2	22.9	21.1	66.9	61.9	63.2	7.7	13.6	12.9	2.2	1.7	2.8
		여자	2,285	1,581	1,656	12.2	13.6	15.1	78.5	70.5	68.1	8.3	14.5	15.2	0.9	1.5	1.7
	학교급	초등학교	988	829	892	23.6	24.9	24.3	59.3	46.7	48.9	12.5	24.3	20.9	4.7	4.1	5.9
		중학교	1,366	823	900	15.8	18.0	18.0	76.9	69.6	72.3	6.6	11.6	9.0	0.6	0.8	0.7
		고등학교	1,632	1,109	1,108	13.9	11.7	12.0	79.3	79.7	74.6	6.6	8.3	13.0	0.2	0.3	0.4
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팝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	전체		14,130	14,261	12,834	12.5	8.8	10.3	81.8	85.3	82.1	4.3	4.0	5.3	1.5	1.9	2.3
	성별	남자	7,359	7,339	6,490	15.2	11.8	14.0	79.0	82.1	78.1	4.1	4.0	5.1	1.8	2.1	2.8
		여자	6,771	6,922	6,343	9.6	5.7	6.6	84.8	88.8	86.1	4.5	3.9	5.5	1.1	1.6	1.8
	학교급	초등학교	3,978	4,190	3,986	15.5	9.5	12.1	76.3	79.2	72.2	4.2	6.6	9.5	3.9	4.7	6.2
		중학교	4,840	4,581	4,277	11.4	8.1	9.7	85.6	89.2	87.2	2.3	1.5	2.2	0.7	1.1	0.9
		고등학교	5,311	5,492	4,571	11.2	8.9	9.4	82.4	86.8	86.0	6.1	4.0	4.4	0.3	0.3	0.2
8)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전체		14,024	14,084	12,723	3.2	3.0	7.1	95.0	95.6	91.2	1.7	1.3	1.4	0.2	0.1	0.3
	성별	남자	7,101	7,118	6,358	4.2	4.3	11.7	93.9	94.0	86.5	1.8	1.5	1.3	0.2	0.2	0.4
		여자	6,923	6,966	6,365	2.2	1.6	2.5	96.1	97.2	95.8	1.5	1.2	1.4	0.2	0.1	0.2
	학교급	초등학교	3,567	3,812	3,726	2.4	1.8	4.1	95.9	96.1	92.9	1.4	1.8	2.2	0.3	0.3	0.7
		중학교	4,942	4,646	4,325	2.9	2.9	8.7	96.0	96.5	90.6	0.8	0.5	0.5	0.3	0.1	0.2



매체 종류			사례수			주요 이용 기기											
						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TV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디스코드 등)		고등학교	5,515	5,628	4,672	3.9	3.8	8.0	93.5	94.5	90.3	2.5	1.7	1.5	0.1	0.0	0.2
9)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프로필, 밴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전체		12,093	11,274	10,074	6.4	4.7	5.1	91.3	93.7	92.9	2.1	1.4	1.8	0.2	0.2	0.2
	성별	남자	5,946	5,415	4,719	8.3	6.4	6.9	89.4	91.9	91.2	2.0	1.4	1.7	0.3	0.2	0.3
		여자	6,147	5,859	5,356	4.7	3.2	3.4	93.1	95.3	94.4	2.1	1.3	2.0	0.1	0.2	0.1
	학교급	초등학교	2,426	2,012	2,006	9.0	5.5	6.2	88.8	92.2	89.3	1.7	1.6	3.9	0.5	0.7	0.6
		중학교	4,518	4,119	3,767	5.5	3.8	4.4	93.4	95.3	94.9	0.9	0.8	0.7	0.2	0.2	0.0
		고등학교	5,149	5,144	4,301	6.1	5.2	5.1	90.6	93.0	92.8	3.3	1.8	1.9	0.1	0.0	0.2
10)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	전체		5,276	3,551	3,594	36.6	38.9	31.4	59.1	57.4	63.8	3.8	3.0	3.9	0.5	0.7	0.8
	성별	남자	3,079	2,116	1,602	39.4	41.6	42.9	57.0	54.6	53.2	3.0	3.0	3.0	0.6	0.8	1.0
		여자	2,197	1,435	1,992	32.6	34.8	22.1	62.1	61.5	72.4	4.9	3.1	4.7	0.4	0.5	0.7
	학교급	초등학교	996	746	834	24.4	23.2	22.8	71.6	71.9	68.2	2.9	3.3	6.3	1.1	1.6	2.7
		중학교	1,657	1,018	1,281	36.0	34.4	32.1	62.2	63.7	65.4	1.2	1.4	2.2	0.5	0.5	0.3
		고등학교	2,623	1,788	1,479	41.6	48.0	35.6	52.5	47.8	60.0	5.7	3.8	4.1	0.2	0.4	0.2

\* 주: 1) 해당 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20년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함.

4)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6)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7)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표 III-5>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주된 이용 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20년도 이용률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4.6%) >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3.6%) > '지상파 TV방송'(88.0%) > '지상파를 제외한 TV방송'(84.7%) > 'SNS'(73.2%) > '인터넷만화'(7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도 이용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80.7%)>'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77.2%) > 'SNS'(52.2%)>'인터넷 만화(웹툰)'(38.5%) 순이었음.
- 매체를 접하는 주된 이용기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방송 이외에 대부분의 매체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표 III-5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 이용 빈도 및 이용 기기

(단위: %)

매체 종류		이용률	이용 빈도				주요 이용 기기			
			거의 매일	주 1~2회	월 1~2회	연 3~4회	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TV
1) 지상파 TV방송	2016	94.9	50.6	35.3	7.3	1.8	4.5	15.4	1.5	78.6
	2018	92.6	42.0	38.3	9.5	2.8	4.6	18.0	1.5	75.9
	2020	88.0	33.1	38.9	12.0	3.4	5.5	18.6	2.1	73.8
2) 지상파를 제외한 TV방송	2016	86.9	33.4	39.9	10.9	2.7	4.5	14.1	1.5	79.9
	2018	91.0	34.7	42.1	11.1	2.6	4.7	15.9	1.4	78.0
	2020	84.7	29.1	40.1	11.9	2.9	5.1	19.8	2.6	72.5
3)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2016	-	-	-	-	-	-	-	-	-
	2018	-	-	-	-	-	-	-	-	-
	2020	59.3	17.0	21.1	14.4	5.7	18.3	44.0	11.5	26.1
4) 종이 신문	2016	26.3	3.7	5.0	8.9	8.7	-	-	-	-
	2018	20.3	2.5	4.1	5.8	7.4	-	-	-	-
	2020	13.4	1.5	2.1	3.2	6.4	-	-	-	-
5) 종이 만화책	2016	54.4	6.6	14.5	19.0	14.3	-	-	-	-
	2018	56.3	8.0	14.8	19.3	13.6	-	-	-	-
	2020	45.3	5.2	11.0	15.3	13.3	-	-	-	-
6) 종이 잡지 또는 책	2016	63.3	12.1	20.2	21.7	9.2	-	-	-	-
	2018	63.6	13.2	21.3	20.2	8.2	-	-	-	-
	2020	56.6	10.3	18.4	18.5	8.8	-	-	-	-
7) 인터넷 신문	2016	55.2	17.9	21.3	12.3	3.7	16.5	78.6	3.8	1.1
	2018	51.7	14.7	20.5	12.1	4.0	13.8	82.1	2.5	1.6
	2020	48.3	10.4	18.0	13.9	5.3	13.8	81.0	2.6	2.6
8) 인터넷 만화(웹툰)	2016	81.5	49.2	21.8	7.1	3.4	10.2	86.1	2.9	0.8
	2018	76.3	43.1	21.1	8.2	3.7	7.1	89.8	2.2	0.9
	2020	71.2	38.5	19.6	8.3	4.3	5.1	91.6	2.5	0.8
9)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2016	26.0	4.1	8.0	8.9	5.0	16.9	73.5	8.0	1.5
	2018	19.8	3.1	5.3	5.7	4.2	17.5	66.8	14.1	1.6
	2020	21.6	3.6	5.3	6.5	5.3	17.6	66.0	14.2	2.2
10)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2016	92.5	54.9	27.9	8.2	1.6	12.5	81.8	4.3	1.5
	2018	93.5	68.0	20.2	4.3	1.0	8.8	85.3	4.0	1.9
	2020	94.6	77.2	13.5	2.7	0.7	10.3	82.1	5.3	2.3
11)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2016	91.7	76.1	11.9	2.8	0.8	3.2	95.0	1.7	0.2
	2018	92.4	77.4	12.0	2.4	0.6	3.0	95.6	1.3	0.1
	2020	93.6	80.7	9.7	2.2	0.6	7.1	91.2	1.4	0.3

매체 종류		이용률	이용 빈도				주요 이용 기기			
			거의 매일	주 1~2회	월 1~2회	연 3~4회	PC/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TV
12) 인터넷소셜네트워크 서비스	2016	78.9	58.7	12.6	5.6	1.9	6.4	91.3	2.1	0.2
	2018	74.3	54.3	12.4	5.4	1.9	4.7	93.7	1.4	0.2
	2020	73.2	52.2	12.8	5.2	2.4	5.1	92.9	1.8	0.2
13)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2016	34.3	3.4	10.0	13.6	7.3	36.6	59.1	3.8	0.5
	2018	24.6	2.0	5.8	9.7	6.0	38.9	57.4	3.0	0.7
	2020	26.3	2.2	6.4	10.2	6.8	31.4	63.8	3.9	0.8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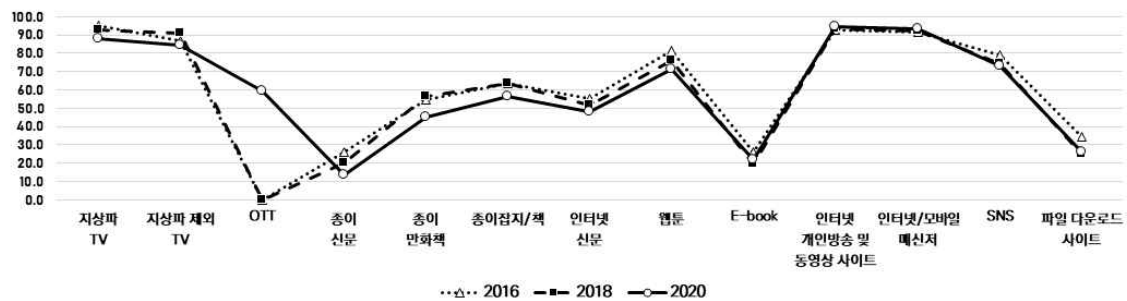
2) '20년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함.

3)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6)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3】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

## 1-2. 성인용 영상물

### ① 성인용 영상물 이용 여부

-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은 초·중·고생 전체 평균 37.4%였으며, 고등학생의 45.1%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음.
-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이며 특히 올해는 33.8%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년 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 이상 시청 가'로 표시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41.5% → '18년 39.4% → '20년 37.4%로 최근 감소세를 보임.
- 성별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 남학생 44.3%, 여학생 29.7%로, 남학생의 이용률이 14.6%p 높았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45.1%, 중학생의 32.2%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고, 초등학생(33.8%)이 중학생보다 1.6%p 높았음. '18년 19.6%에 비해서도 14.2%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들의 이용률(43.4%)이 눈에 띄게 높았음.

### ■ 시계열 비교

- '14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16년, '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임.
- '14년 조사와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해 초등학생 조사 대상을 5-6학년으로 한정된 결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14년 7.5% → '16년 16.1% → '18년 17.7% → '20년 29.3%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20년에 증가폭이 커짐.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4학년생들의 이용률이 특히 높음을 볼 때 관련 교육이 반드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될 필요가 있음.

표 III-6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14년-'20년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	-	-	7.5	41.7	65.7
2016	41.5	51.7	30.5	18.6 (5-6학년 16.1)	42.4	58.0
2018	39.4	48.7	29.4	19.6 (5-6학년 17.7)	41.6	53.3
2020	37.4	44.3	29.7	33.8 (5-6학년 29.3)	32.2	45.1

- \* 주: 1) '14년 결과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표시된 성인용 영상물(영화/비디오/동영상/방송 프로그램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에 대해, '한 번도 없다'를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2) '16년 결과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람불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영상물(TV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본 적 있나요?"에 대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3) '18년과 '20년 결과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TV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본 적 있나요?"에 대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4) 초등학교의 경우, '14년은 5-6학년을, '16년, '18년, '20년은 4-6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함.  
 5) '16년, '18년, '20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②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 청소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가장 많이 이용함.

-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23.9%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성인용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임을 알 수 있음. 한편, 청소년의 17.3%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함.
  -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나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심도있는 관리·감독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매체별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률이 높았음.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은 본 남학생은 31.3%로, 여학생(15.9%)보다 15.4%p 높았으며,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활용하였다는 응답은 남학생(19.9%)이 여학생(14.6%)보다 5.3%p 높았음.
-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 앱'(13.4%)이나 '인터넷/모바일 메신저'(12.6%)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2018년(11.0%)에 비해 올해 이용률(13.4%)이 다소 증가함. 단 SNS를 통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이임('16 18.1% → '18) 16.5% → ('20)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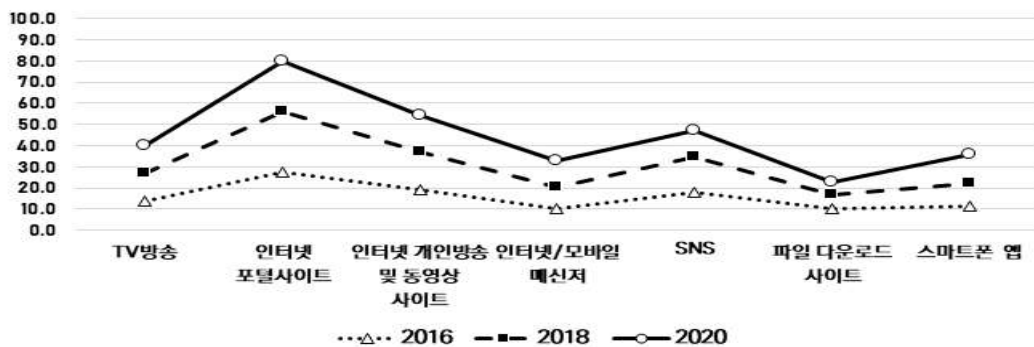
-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기 쉽고 영상물의 유해성도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매체 노출 여부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인 차단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표 III-7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중복응답) (단위: %)

구분		TV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138	129	135	276	282	239	191	177	173	100	105	126	181	165	128	104	6.6	5.7	112	110	134
성별	남자	163	152	145	374	375	313	216	208	199	124	129	136	198	187	128	152	9.4	6.9	151	140	147
	여자	11.1	104	125	170	182	159	163	142	146	7.3	8.0	11.6	162	141	128	5.0	3.6	4.4	6.9	7.9	11.9
학교 급	초등학교	100	9.5	161	103	106	194	131	138	216	9.8	103	184	7.1	6.2	11.1	3.2	2.6	6.9	104	112	185
	중학교	127	126	110	304	310	201	194	202	144	105	115	105	198	187	125	6.6	5.8	4.4	110	115	112
	고등학교	17.7	157	133	382	398	318	232	187	159	9.6	9.8	9.0	249	228	146	190	104	5.7	11.8	105	103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16년도 '성인용 영상물'의 용어를, '18년도와 '20년도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 '18년도 'TV방송(유선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을 '20년도는 'TV방송(자상파, 케이블, IPTV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팍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4】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중복응답)

### ③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요 경로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39.8%임.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할 때 나이를 확인하는 성인 인증 절차가 작동했는지 확인한 결과,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 비율은 ‘18년 대비 거의 모든 이용 경로에서 다소 상승함.
-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 비율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서 5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56.0%), ‘TV방송’(49.1%), ‘SNS’(40.1%), ‘인터넷 포털사이트’(36.2%) 순이었음.
-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주로 접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응답은 36.2%인데 비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8%로 더 높았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유보적 응답도 24.0%로 나타남.
  - ‘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 인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낮지 않아 관련 대책이 꾸준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SNS 서비스’도 성인용 영상물 유통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이지만 성인 인증을 거쳤다는 응답은 40.1%로 비슷한 이용률을 보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56.0%)나 ‘스마트폰 앱’(56.5%)에 비해 인증률이 낮음. 이에 SNS를 통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됨.
-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5.7%)은 낮은 편이지만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가 34.7%로 ‘인터넷포털 사이트’(36.2%)와 더불어 30%대에 그치고 있음. 이 두 경로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함.

표 III-8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단위: 명, %)

매체 종류	사례수			확인 했음			확인하지 않았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1) TV방송(지상파, 케이블, IPTV 등)	2,131	1,995	1,901	44.2	52.1	49.1	31.7	27.4	26.3	24.1	20.5	24.6
2)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구글, 네이버 등)	4,247	4,353	3,351	31.4	29.6	36.2	37.4	41.6	39.8	31.2	28.9	24.0
3)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	2,935	2,723	2,414	45.0	51.2	56.5	24.5	21.1	22.1	30.5	27.7	21.4
4)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	1,534	1,621	1,758	48.4	52.7	56.0	33.5	30.8	27.0	18.1	16.5	17.0
5)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텀블러,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2,784	2,552	1,792	26.0	30.8	40.1	55.4	49.0	39.3	18.5	20.2	20.6
6)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	1,598	1,011	798	43.8	38.5	34.7	36.2	43.2	41.2	20.0	18.3	24.1
7)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	1,721	1,705	1,865	49.4	52.5	56.5	30.1	27.8	23.1	20.6	19.7	20.5

\* 주: 1) 해당 매체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도 '성인용 영상물'의 용어를, '18년도와 '20년도'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8년도 'TV방송(유선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를 '20년도'는 'TV방송(지상파, 케이블, IPTV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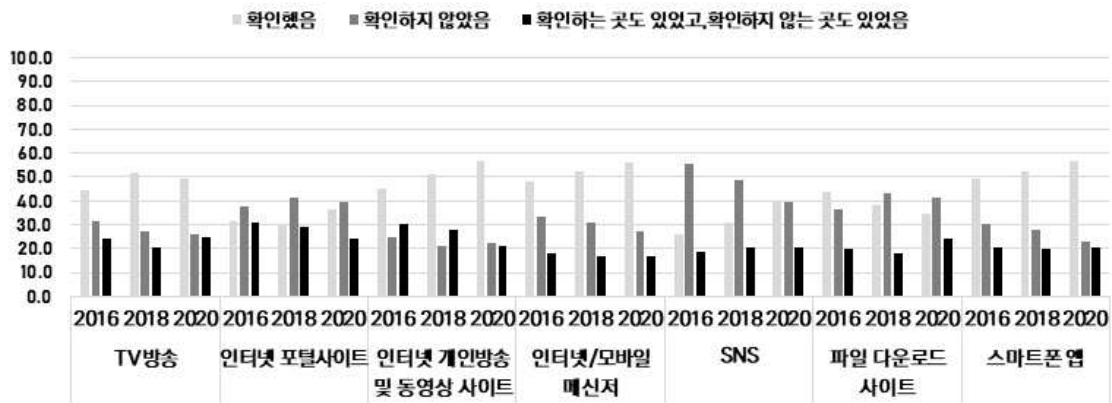
5)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6)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7) '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7)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Ⅲ-5】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④ 성인용 영상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초·중·고등학생의 18.1%는 ‘스스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된다’고 보고함.
-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12.8%는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된다고 응답함.

▶ 관련 정책: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 스스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1%가 동의함(‘그렇다’ 15.5%+‘매우 그렇다’ 2.6%).
- 특히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응답자 67.0%(‘그렇다’ 28.2%+‘매우 그렇다’ 38.8%) 중 12.8%(‘그렇다’ 10.7%+‘매우 그렇다’ 2.1%)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으나 성인용 영상물에 노출된다고 보고함.
  - 과거 조사에서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응답자 중 일상생활에서 성인용 영상물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19.5%, ‘18년에는 16.6%에 이어 올해 12.8%로 감소하여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예방 및 감시 장치는 꾸준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I-9 성인용 영상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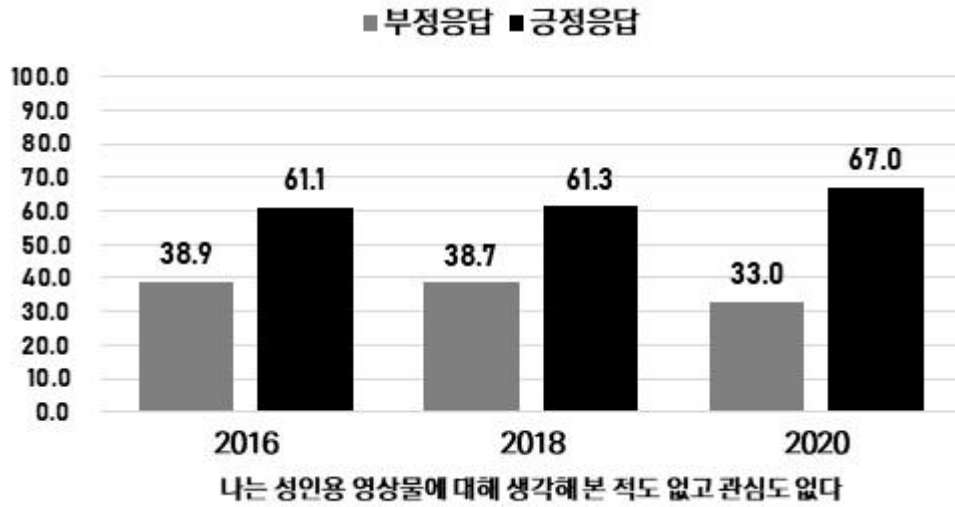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전체		15,497	15,579	14,433	11.0	11.5	10.6	27.9	27.2	22.4	29.5	28.4	28.2	31.6	32.9	38.8
	성 별	남자	8,060	8,075	7,485	16.0	15.9	14.6	33.2	32.2	28.5	24.5	23.9	25.3	26.4	28.0	31.6
		여자	7,437	7,504	6,949	5.6	6.7	6.3	22.1	21.8	15.8	34.9	33.1	31.4	37.3	38.3	46.5
	학 교 급	초등학교	4,448	4,738	4,834	8.9	8.8	10.9	7.6	7.3	7.3	19.8	19.8	19.9	63.7	64.1	61.9
		중학교	5,221	4,914	4,611	8.7	9.6	7.2	29.3	30.5	24.6	35.2	32.6	32.2	26.8	27.3	35.9
		고등학교	5,828	5,927	4,988	14.7	15.1	13.4	42.1	40.4	35.0	31.7	31.8	32.6	11.5	12.7	19.0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나 스스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응답자 전체 <sup>1)</sup>		15,491	15,583	14,432	41.7	44.6	53.2	31.5	31.0	28.7	23.3	21.1	15.5	3.5	3.3	2.6
	성인용 영상물 관심 없음 <sup>2)</sup>		9,468	9,550	9,645	53.3	56.3	62.9	27.2	27.0	24.3	16.7	14.6	10.7	2.8	2.0	2.1
	성별	남자	4,097	4,193	7,489	57.2	59.8	49.9	26.8	25.9	31.9	13.3	12.1	15.2	2.8	2.2	3.1
		여자	5,369	5,357	6,943	50.4	53.6	56.8	27.5	27.9	25.3	19.2	16.6	15.9	2.8	1.8	2.1
	학교급	초등학교	3,711	3,975	4,829	73.7	76.3	75.5	17.4	16.9	17.1	6.8	5.4	5.7	2.1	1.4	1.6
		중학교	3,235	2,941	4,612	47.0	50.8	51.3	31.6	31.0	30.5	18.4	15.9	15.3	3.0	2.2	2.9
		고등학교	2,521	2,635	4,991	31.5	32.4	33.4	35.9	37.9	38.2	28.9	27.2	25.2	3.6	2.5	3.2

\*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6】 성인용 영상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1-3. 성인용 간행물

#### ① 성인용 간행물 이용 여부

-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간행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24.9%로 나타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37.4%)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초등학생의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24.9%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용불가’, ‘19세 이상 이용 가’로 표시된 성인용 간행물(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학생(28.5%)이 여학생(20.9%)보다 7.6%p 높았음.
-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과 비교한 결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전체 37.4%, 남자 44.3%, 여자 29.7%)은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보다 12.5%p 높아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은 영상물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 시계열 비교

- '16년, '18년 자료와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의 이용률은 다소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과거 조사와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해 초등학생 조사 대상을 5~6학년으로 한정해 결과,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14년 2.6% → '16년 9.3% → '18년 10.6% → '20년 24.3%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임.
  - 성인용 간행물 뿐 아니라 앞서 성인용 영상물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인용 매체에 대한 이용연령이 하향화되는 경향이 엿보임.
  - 초등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성인용 매체 노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III-10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14년-'20년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	-	-	2.6	21.9	32.5
2016	22.0	25.8	17.8	11.8 (5-6학년 9.3)	22.5	29.1
2018	23.3	25.9	20.5	13.2 (5-6학년 10.6)	25.0	29.8
2020	24.9	28.5	20.9	27.7 (5-6학년 24.3)	22.0	24.9

- \* 주: 1) '14년 결과는 "19세 미만 이용불가로 표시된 성인용 간행물(만화/소설/잡지/사진 등)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에 대해, '한 번도 없다'를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2) '16년 결과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람불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간행물(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본 적 있나요?"에 대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3) '18년과 '20년 결과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본 적 있나요?"에 대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4) 초등학생의 경우, '14년은 5-6학년을, '16년, '18년, '20년은 4-6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함.  
 5) '16년, '18년, '20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②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로

- 초·중·고생의 16.0%는 성인용 간행물을 이용하는 주요 경로를 ‘인터넷 만화(웹툰)’로 보고함.
- 청소년은 전통적 매체인 인쇄물보다 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을 이용함.

-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유헤매체 모니터링 확대  
 1-1-2. 유헤매체물 생산·유헤(배포)·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이 성인용 간행물을 이용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0%가 인터넷 만화(웹툰)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여학생(13.2%)보다는 남학생(18.6%)에게서,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생 19.6% > 중학생 15.7% > 초등학생 12.6%) 인터넷 만화(웹툰)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성인용 웹툰에 대한 관리와 적극적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 만화책과 소설책을 통한 성인용 간행물을 접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접근양상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설책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전통적 방식인 인쇄 매체에 비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인용 간행물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인터넷만화(16.0%) > 책(8.9%) > 종이만화책(7.6%) > 인터넷소설(7.5%) > 인터넷신문과 전자사진집(3.6%) > 인터넷잡지(3.5%) 등의 순이었음.

표 III-11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중복응답)

(단위: %)

구분		신문		잡지		만화책		사진집(화보집)		소설책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종이 잡지	인터넷 잡지	종이 만화책	인터넷 만화 (웹툰)	종이 사진집 (화보 집)	전자 사진집 (화보 집)	책	인터넷 소설 (웹소설 팬픽 등)	전자책 (E-bo ok)		
전체	2016	1.4	3.1	1.8	2.3	5.2	17.8	1.8	3.8	2.5	-	3.1		
	2018	1.5	3.5	1.7	2.3	5.8	17.3	1.8	3.4	5.6	8.6	1.8		
	2020	1.3	3.6	3.1	3.5	7.6	16.0	3.1	3.6	8.9	7.5	3.3		
성 별	남자	2016	1.5	3.3	1.8	2.5	5.8	20.9	1.9	5.0	2.4	-	2.7	
		2018	1.8	3.8	2.1	2.8	6.2	19.7	2.1	4.7	5.4	6.5	2.1	
		2020	1.5	3.7	3.8	4.3	8.7	18.6	3.6	4.5	9.8	6.4	3.9	
	여자	2016	1.4	2.9	1.8	2.0	4.6	14.5	1.6	2.4	2.7	-	3.6	
		2018	1.1	3.0	1.2	1.8	5.5	14.7	1.4	2.1	5.8	10.8	1.5	
		2020	1.2	3.5	2.3	2.7	6.4	13.2	2.4	2.6	7.9	8.8	2.7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2.4	2.4	2.4	1.8	7.4	8.1	2.2	1.8	2.6	-	1.8
			2018	2.0	2.5	2.1	1.4	8.1	7.6	2.1	1.6	8.7	3.5	1.7
			2020	2.3	4.1	5.6	5.4	15.0	12.6	5.5	5.1	17.6	7.5	5.8
중 학교		2016	1.1	3.1	1.8	2.6	4.4	18.7	2.0	4.2	2.3	-	3.3	
		2018	1.4	4.2	1.5	2.9	5.6	19.1	1.9	3.5	5.0	10.9	1.6	
		2020	1.0	3.3	1.9	2.6	4.4	15.7	1.9	2.6	5.3	7.3	2.3	
고등 학교		2016	1.0	3.7	1.4	2.4	4.3	24.4	1.3	4.8	2.7	-	4.0	
		2018	1.1	3.6	1.5	2.5	4.2	23.6	1.4	4.8	3.7	10.7	2.0	
		2020	0.8	3.5	1.7	2.6	3.4	19.6	1.7	3.0	3.8	7.7	1.9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는 소설책의 구성 요인을 '서적과 전자책(eBook)'으로, '18년도와 '20년도는 '책, 인터넷소설(웹소설, 팬픽 등), 전자책(E-Book)'으로 제시함.

3) '18년도 '사진집'의 용어를, '20년도는 '사진집(화보집)'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7]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중복응답)

### ③ 성인용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 청소년들이 성인용 간행물을 가장 쉽게 접촉하는 경로인 인터넷 만화(웹툰)의 경우, 성인 인증을 위해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이용자의 44.6%,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4%, '나이를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남.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성인용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해 나이를 확인했는지 조사한 결과, 인터넷 만화(웹툰)를 이용할 때 나이 확인 절차가 작동했다는 응답 비율은 44.6%로 나타났고, 나이를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응답이 19.0%,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나, 성인 인증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과거 조사와 비교한 결과, 성인 인증 절차가 작동했다는 응답 비율이 '18년(39.4%)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16년(59.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인증절차의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대두됨.
- 종이 만화책, 인터넷 만화, 소설책, 인터넷 소설의 경우, 성인 인증을 확인했다는 응답률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네 가지 경우 인증절차는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그 외에 잡지와 사진집의 경우는 종이와 디지털 매체 모두에서 성인인증 확인율이 감소하였음.
  - 간행물 종류별 성인 인증 확인율에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잡지와 사진집 같이 확인율이 감소하는 간행물도 있다는 것은 성인 인증 절차의 작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경로별 인증절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표 Ⅲ-12 성인용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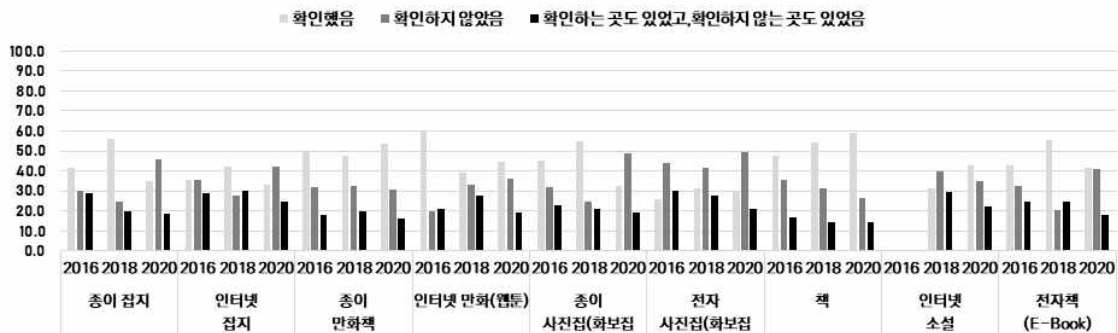
간행물 종류		사례수			확인했음			확인하지 않았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잡지	종이 잡지	269	257	425	41.4	55.8	35.1	29.9	24.5	46.0	28.7	19.7	18.8
	인터넷 잡지	337	334	483	35.7	42.4	32.8	35.6	27.5	42.3	28.7	30.1	24.9
만화책	종이 만화책	781	870	1,033	49.7	47.8	53.5	32.1	32.4	30.6	18.2	19.8	15.9
	인터넷 만화(웹툰)	2,712	2,625	2,206	59.5	39.4	44.6	19.6	33.1	36.4	20.9	27.5	19.0
사진집	종이 사진집	265	261	422	44.9	54.6	32.5	31.9	24.6	48.6	23.1	20.8	18.9
	전자 사진집	568	507	492	26.0	31.1	29.6	44.0	41.3	49.6	30.0	27.6	20.8
소설책	책	381	837	1,198	47.7	54.2	59.2	35.6	31.2	26.3	16.8	14.6	14.6
	인터넷소설 (웹소설, 팬픽 등)	-	1,302	1,039	-	31.1	42.9	-	39.7	34.8	-	29.2	22.3
	전자책(E-Book)	479	270	461	42.9	55.4	41.3	32.4	20.2	40.8	24.7	24.4	17.8

\* 주: 1) 각 간행물별로 성인물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도는 소설책의 구성 요인을 '서적과 전자책(eBook)'으로, '18년도와 '20년도는 '책, 인터넷소설(웹소설, 팬픽 등), 전자책(E-Book)'으로 제시함.

4) '18년도 '사진집'의 용어를, '20년도는 '사진집(화보집)'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Ⅲ-8】 성인용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④ 성인용 간행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16.3%는 스스로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된다고 응답함.
-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13.3%도 일상생활에서 성인용 간행물에 노출된다고 보고함.

▶ 관련 정책: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이 성인용 간행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나 스스로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조사함.
  - 전체 응답자의 16.3%가 동의(‘그렇다’ 13.6%+‘매우 그렇다’ 2.7%)하여 일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인용 간행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임.
-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응답자 76.3%(‘그렇다’ 27.9%+‘매우 그렇다’ 48.4%) 중에서 13.3%(‘그렇다’ 10.9%+‘매우 그렇다’ 2.4%)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성인용 간행물을 접하게 된다고 응답함.
  - 청소년들이 자의가 아닌 환경에 의해 성인용 간행물에 노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인용 간행물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응답자의 관심 여부에 상관없이 꾸준히 감소함. 성인용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예방 및 감시 장치가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13 성인용 간행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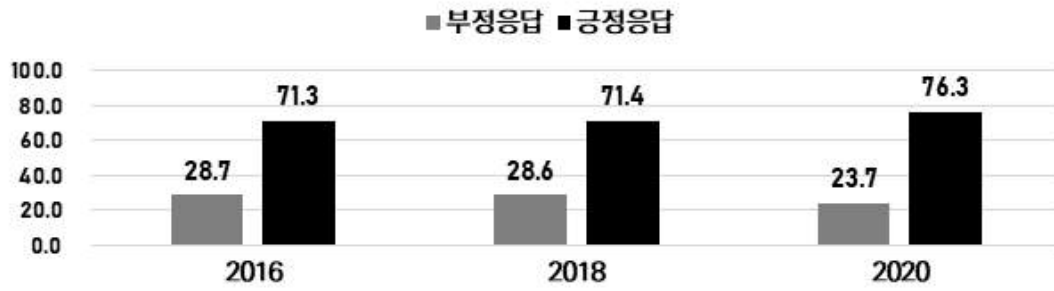
문항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나는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전체	15,539	15,582	14,369	8.5	8.8	9.2	20.2	19.8	14.5	32.6	30.9	27.9	38.7	40.5	48.4
	성별	남자	8,090	8,079	7,448	12.0	11.8	12.0	24.5	23.1	18.6	29.1	28.7	27.8	34.4	41.6
		여자	7,449	7,502	6,921	4.7	5.6	6.2	15.5	16.2	10.1	36.5	33.3	28.0	43.3	55.7
	학교급	초등학교	4,448	4,736	4,791	8.6	8.2	10.7	5.2	5.2	5.2	17.5	16.7	15.9	68.7	69.8
		중학교	5,223	4,913	4,595	7.6	8.5	7.0	21.1	21.5	15.2	36.5	34.3	30.7	34.8	47.1
		고등학교	5,869	5,933	4,982	9.2	9.6	9.9	30.8	29.9	22.8	40.7	39.4	36.8	19.3	30.5

문항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나 스스로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응답자 전체1)	15,539	15,585	14,359	47.4	49.5	58.5	29.7	29.6	25.2	19.9	17.9	13.6	3.0	3.0	2.7
	성인용 간행물 관심 없음2)	11,081	11,126	10,929	54.8	57.2	64.0	27.1	26.9	22.6	15.7	13.8	10.9	2.4	2.1	2.4
	성별	남자	5,135	5,259	7,447	58.8	60.1	57.2	26.3	27.1	27.6	12.7	10.9	12.7	2.2	2.0
		여자	5,946	5,867	6,912	51.4	54.6	60.0	27.8	26.7	22.6	18.2	16.4	14.6	2.6	2.2
	학교급	초등학교	3,832	4,096	4,781	77.3	79.2	79.2	14.9	14.6	14.7	6.1	4.7	4.5	1.7	1.5
		중학교	3,724	3,440	4,598	50.4	52.0	56.6	30.1	30.9	27.1	16.8	14.8	13.4	2.7	2.3
		고등학교	3,524	3,590	4,980	35.1	37.0	40.5	37.1	37.1	33.4	24.9	23.3	22.5	2.8	2.6

\*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나는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나는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나 스스로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그림 III-9】 성인용 간행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1-4. 신·변종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성인용 인터넷 게임, 도박성 게임 및 조건만남 메신저)

##### ① 신·변종 유해매체물 이용 여부

- 최근 1년 동안 남학생 24.1%는 성인용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음.
-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3.8%이었음.

-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유해매체 모니터링 확대  
 1-1-2. 유해매체물 생산·유통(배포)·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변종 유해매체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성인용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은 16.4%로 '18년 17.8%보다 1.4%p 감소하였으나 '16년 13.1%보다는 3.3%p 증가한 수치임.
  -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24.1%)이 여학생(8.1%)보다 16.0%p 높았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초등학생 9.8%, 중학생 17.5%, 고등학생 21.8%), 일반계고(20.5%)보다 직업계고(28.0%) 재학생이 성인용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였음.
-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온라인 고스톱, 포커, 경마 등)의 유경험률은 5.0%(남학생 7.0%, 여학생 2.8%)로 조사되었음. '초등학생의 유경험률(6.2%)은 중학생(3.4%)과 고등학생(5.2%)의 유경험률 뿐 아니라 2016년과 2018년 경험률(각각 2.7%, 2.1%)보다도 높게 나타남.
- 성인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영상파일을 본 경험에 대한 응답은 12.7%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 7.1%, 중학생 11.4%, 고등학생 19.2%) 성인용 영상파일을 이용한 경험이 많았음.
-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 유경험률은 3.8%(남학생 4.2%, 여학생 3.3%)로 나타나 모두 '16년과 '18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음.
- 대체로 중고등학생들의 신·변종 유해매체물 유경험률은 감소하거나 현상유지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초등학생들의 유경험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 신·변종 유해매체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경험률이 증가하는 요인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이 절실함.

표 III-14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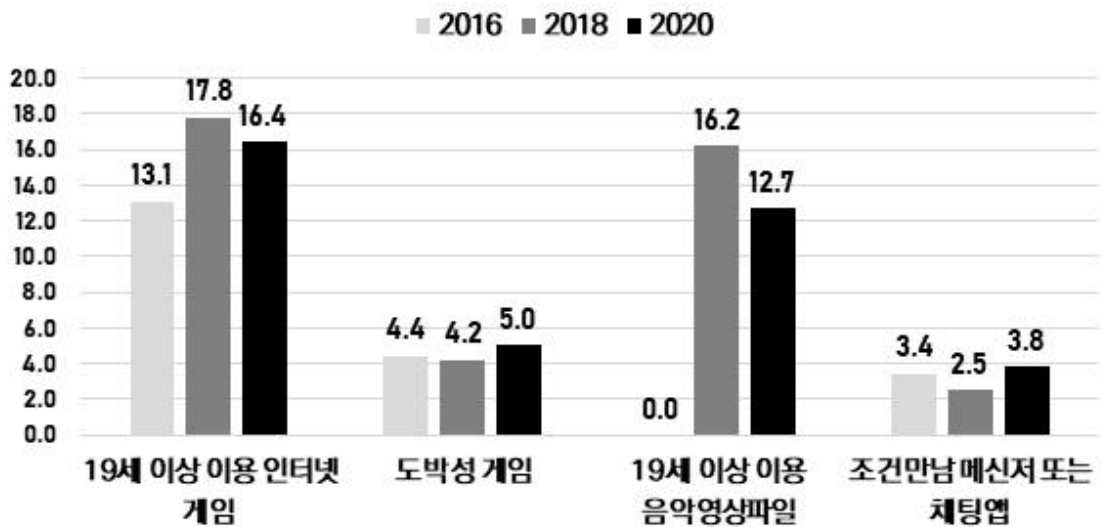
구분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			도박성 게임			19세 이상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13.1	17.8	16.4	4.4	4.2	5.0	-	16.2	12.7	3.4	2.5	3.8
성 별	남자	20.3	27.1	24.1	6.4	6.7	7.0	-	17.2	13.4	3.6	2.4	4.2
	여자	5.2	7.8	8.1	2.3	1.5	2.8	-	15.2	12.0	3.1	2.7	3.3
학 교 급	초등학교	9.5	5.3	9.8	2.7	2.1	6.2	-	2.4	7.1	2.7	1.3	5.5
	중학교	14.3	20.6	17.5	3.5	3.0	3.4	-	15.3	11.4	3.6	2.8	3.0
	고등학교	14.7	25.4	21.8	6.5	6.8	5.2	-	28.0	19.2	3.7	3.2	2.8
	└ 일반계고	13.8	24.2	20.5	6.2	6.0	4.8	-	28.8	19.8	3.5	3.1	2.7
	└ 직업계고	18.6	31.1	28.0	8.1	10.5	7.3	-	24.3	16.3	4.3	4.1	3.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는 '성인용 온라인 게임'을, '18년도와 '20년도는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3) '18년도에 '19세 이상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영상파일'의 이용 유무를 묻는 문항이 추가됨.

4) '18년도에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소개팅용 채팅 앱'을 '20년도에는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0】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중복응답)

### ■ 시계열 비교

- '14년, '16년, '18년 자료와 비교한 결과, 성인용 인터넷 게임 유경험률은 연도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함.
- 도박성 게임에서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경험률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경험률은 크게 증가함.

표 III-15 최근 1년간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 '14년~'20년 비교

(단위: %)

구분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			도박성 게임		
	초	중	고	초	중	고
2014	12.3	22.5	25.7	1.9	4.8	8.2
2016	9.5	14.3	14.7	2.7	3.5	6.5
2018	5.3	20.6	25.4	2.1	3.0	6.8
2020	9.8	17.5	21.8	6.2	3.4	5.2

\* 출처: '14년 자료는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주: 1) '18년과 '20년의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은 '14년에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표시된 성인용 음란/폭력성 게임을 한 경험', '16년 문항은 '성인용 온라인 게임 이용 경험'에 해당하는 문항임.

2) '도박성 게임' '14년 조사 문항은 '온라인 사행성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등)을 한 경험'이며, '16년 문항은 '돈 또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온라인 고스톱, 포커, 경마, 스포츠 토토 등) 이용 경험', '18년과 '20년 문항은 '돈 또는 포인트,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온라인 고스톱, 포커, 경마, 스포츠 토토 등) 이용 경험'임.

3) 초등학생의 경우, '14년 조사 대상은 5-6학년이며, '16년과 '18년, '20년 조사 대상은 4-6학년임.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② 신·변종 유해매체물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 성인용 인터넷 게임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62.7%임.
-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 이용 시, 나이 확인 절차가 작동했다는 응답은 27.7%임.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제가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한 결과, ‘성인용 인터넷 게임’ 이용 시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62.7%,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 이용 시 나이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40.3%이었음.
  - ‘16년, ‘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나이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청소년이 성인용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성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우려됨.
- ‘성인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파일’을 이용할 때,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49.6%, 확인하지 않았다는 30%, 확인하는 곳도 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응답이 20.5%이었음.
  - 학교급이 낮아질수록(초등학생 32.1%, 중학생 47.2%, 고등학생 57.0%)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어 이른 시기부터 성인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파일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청소년에 대한 폭력, 성범죄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 이용 시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27.7%에 불과하였음.
  - 특히, 여학생(49.4%)과 초등학생(54.2%)은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 또는 그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무리 없이 조건만남 메신저나 채팅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실태가 입증됨.



표 III-16

신·변종유해매체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단위: 명, %)

매체 종류			사례수			확인 했음			확인하지 않았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1)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	전체		2,026	2,756	2,317	76.1	69.2	62.7	13.6	18.3	21.3	10.3	12.5	16.0
	성별	남자	1,639	2,177	1,763	76.4	70.0	64.0	13.4	17.1	20.4	10.3	12.9	15.6
		여자	387	579	554	75.1	66.0	58.7	14.4	22.9	24.0	10.4	11.1	17.3
	학교급	초등학교	416	243	462	66.1	57.2	43.4	16.8	26.4	36.1	17.1	16.4	20.5
		중학교	743	1,010	788	71.1	63.4	64.6	17.8	24.5	20.4	11.1	12.1	15.0
		고등학교	866	1,503	1,067	85.3	75.0	69.8	8.3	12.8	15.5	6.4	12.2	14.7
2) 돈 또는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	전체		681	642	700	56.3	52.7	40.3	31.5	30.3	38.9	12.2	16.9	20.8
	성별	남자	514	534	509	56.7	54.0	42.3	32.1	29.8	37.2	11.3	16.2	20.5
		여자	167	108	191	55.3	46.3	34.9	29.6	33.2	43.3	15.0	20.5	21.7
	학교급	초등학교	116	97	295	59.1	57.8	33.2	30.5	26.1	45.3	10.4	16.1	21.4
		중학교	179	148	151	53.5	53.6	44.7	30.8	28.4	39.4	15.7	18.0	15.9
		고등학교	386	399	255	56.9	51.1	45.9	32.1	32.1	31.1	11.1	16.7	23.1
3) 19세 이상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 파일	전체		-	2,521	1,772	-	50.2	49.6	-	26.5	30.0	-	23.3	20.5
	성별	남자	-	1,387	963	-	55.3	50.1	-	25.2	33.2	-	19.5	16.7
		여자	-	1,134	810	-	43.8	48.9	-	28.1	26.1	-	28.1	25.0
	학교급	초등학교	-	113	331	-	39.8	32.1	-	35.5	45.7	-	24.7	22.2
		중학교	-	744	503	-	45.0	47.2	-	31.7	33.0	-	23.3	19.8
		고등학교	-	1,664	938	-	53.1	57.0	-	23.6	22.8	-	23.3	20.2
4)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	전체		522	383	530	31.1	32.3	27.7	49.9	47.5	50.4	19.0	20.2	22.0
	성별	남자	291	185	305	35.2	38.4	27.9	48.0	40.9	51.1	16.8	20.7	21.0
		여자	231	198	225	25.8	26.7	27.4	52.4	53.6	49.4	21.8	19.7	23.2
	학교급	초등학교	118	60	262	52.9	42.8	24.3	29.6	38.9	54.2	17.5	18.3	21.5
		중학교	188	137	133	29.5	30.0	28.5	51.0	51.0	47.5	19.5	19.0	23.9
		고등학교	216	185	136	20.6	30.7	33.3	60.1	47.6	45.7	19.3	21.7	21.0

\* 주: 1) 신·변종 유해매체별로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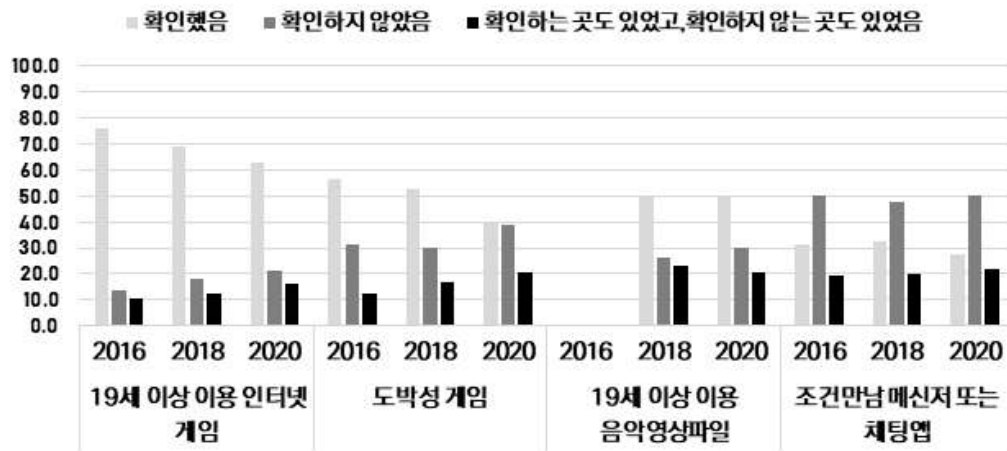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도에는 '성인용 온라인 게임'을, '18년도와 '20년도에는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6년도 '돈 또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을, '18년과 '20년 문항은 '돈 또는 포인트,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8년도에 '19세 이상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영상파일'의 이용 유무를 묻는 문항이 추가됨.

6) '18년도에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을 '20년도에는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1】 신·변종유해매체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1-5.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 집에 있는 기기에 대한 이용률은 '18년 대비 증가한 반면, 학교에 있는 기기를 이용한 비율은 감소함('18) 56.0% → ('20) 41.9%).
- COVID-19로 인한 등교 제한 조치 및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스마트폰에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나, '18년(25.1%) 대비 6.3%p 증가함.

▶ 관련 정책: 1-1-1. 신·변종 불법유해매체 효과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인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기기별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함.
- 학교 컴퓨터의 설치율(33.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31.4%), 집 태블릿 PC(24.0%), 집 컴퓨터(20.6%) 등의 순이었음.
- 학교 컴퓨터의 경우,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16년 51.0%, '18년 52.5%에 비해 '20년 33.8%로 낮게 나타남. 그에 비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과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함.
-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증가세를 보이니('18) 25.1% → ('20) 31.4%), 여전히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III-17

기기별 사용 여부 및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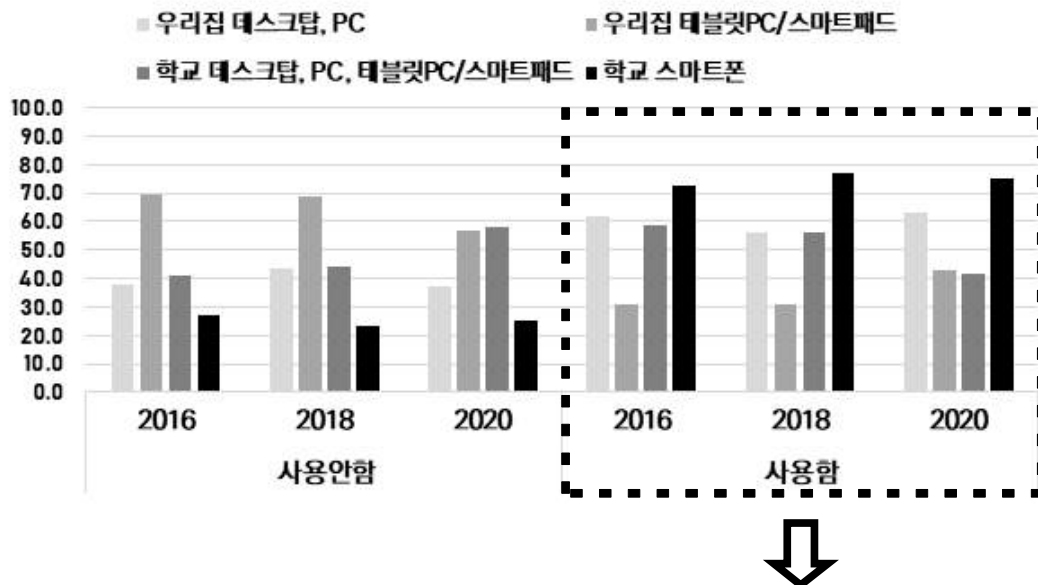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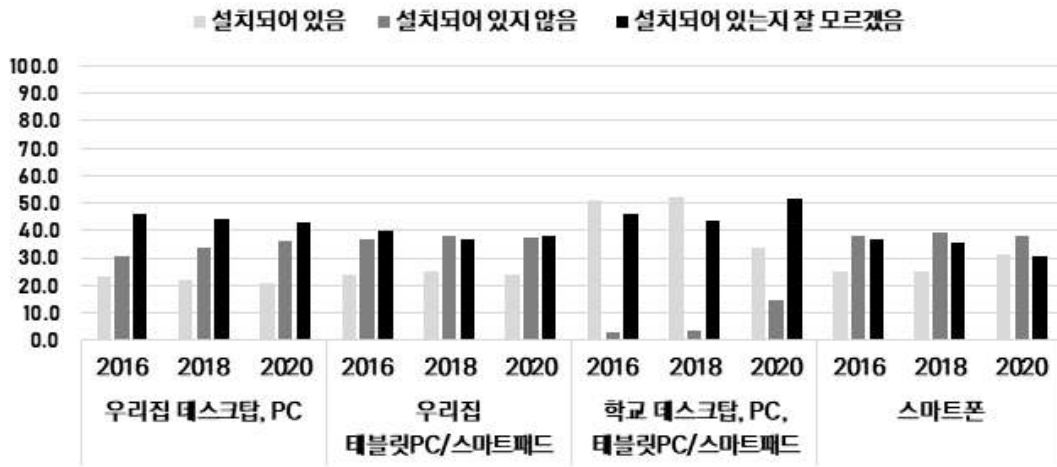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용함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설치되어 있음	설치되어 있지 않음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1) 우리 집 데스크탑 PC, 노트북	2016	15,618	62.0	23.2	30.9	45.8
	2018	15,628	56.4	22.3	33.7	44.1
	2020	14,407	62.9	20.6	36.2	43.2
2) 우리 집 태블릿PC/스마트패드	2016	15,599	30.8	23.8	36.6	39.6
	2018	15,621	31.0	24.8	38.3	36.9
	2020	14,380	43.1	24.0	37.7	38.3
3) 학교 데스크탑 PC, 노트북, 태블릿 PC/스마트패드	2016	15,594	58.8	51.0	2.9	46.1
	2018	15,611	56.0	52.5	3.8	43.7
	2020	14,329	41.9	33.8	14.5	51.7
4) 스마트폰	2016	15,609	72.6	25.4	37.8	36.8
	2018	15,637	76.7	25.1	39.2	35.7
	2020	14,416	74.9	31.4	37.9	30.7

\* 주: 1) 해당 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도 '스마트폰'을, '18년부터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되는 휴대전화)'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Ⅲ-12】 기기별 사용 여부 및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 시계열 비교

○ '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16년, '18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사용하는 휴대폰/스마트폰에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13) 13.4% → ('16) 25.4% → ('18) 25.1% → ('20) 31.4%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냄. 이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효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승세는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 ('13) 14.2% → ('16) 34.1% → ('18) 37.6% → ('20) 47.8%로 증가함.
- 그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경우,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설치율이 ('18) 16.7%, ('20) 19.1%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Ⅲ-18 사용하는 휴대폰/스마트폰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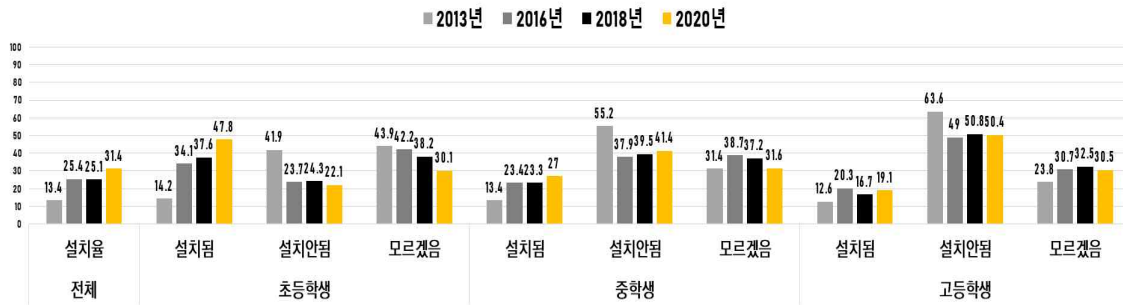
구분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설치율	설치됨	설치 안됨	모르겠음	설치됨	설치 안됨	모르겠음	설치됨	설치 안됨	모르겠음
2013	13.4	14.2	41.9	43.9	13.4	55.2	31.4	12.6	63.6	23.8
2016	25.4	34.1	23.7	42.2	23.4	37.9	38.7	20.3	49.0	30.7
2018	25.1	37.6	24.3	38.2	23.3	39.5	37.2	16.7	50.8	32.5
2020	31.4	47.8	22.1	30.1	27.0	41.4	31.6	19.1	50.4	30.5

\* 출처: '13년 자료는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주: 1) 제시된 결과는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응답자에 한함.

2) '13년 문항은 "현재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이용 제한(유해 콘텐츠나 사이트 차단 등) 프로그램이나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이며, '16년 이후의 문항은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사용한다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나요?"임.

3) '16년부터 '20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13】 사용하는 휴대폰/스마트폰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1-6.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경험

### ①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기

- 최근 1년 간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6%로 나타나, '18년 조사 대비 12.4%p 증가하였음.
-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에 주로 이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30.6%)으로 나타남.

▶ 관련 정책: 1-3-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 인터넷 게임 유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간 청소년의 47.6%가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18년(35.2%)에 비해 12.4%p 증가함.
  - 성별에 따라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유경험률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예년에 비해('18년 남학생 41.5%, 여학생 28.3%), '20년 조사에서는 남학생 51.2%, 여학생 43.7%로 여학생의 이용률도 크게 증가함.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중학생 56.0%, 고등학생 50.0%로 나타나, 중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 초등학생도 36.7%로 3명 중 1명이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때 청소년의 30.6%는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18년 대비 8.5%p 상승한 결과임.
  -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자를 기준으로 64.3%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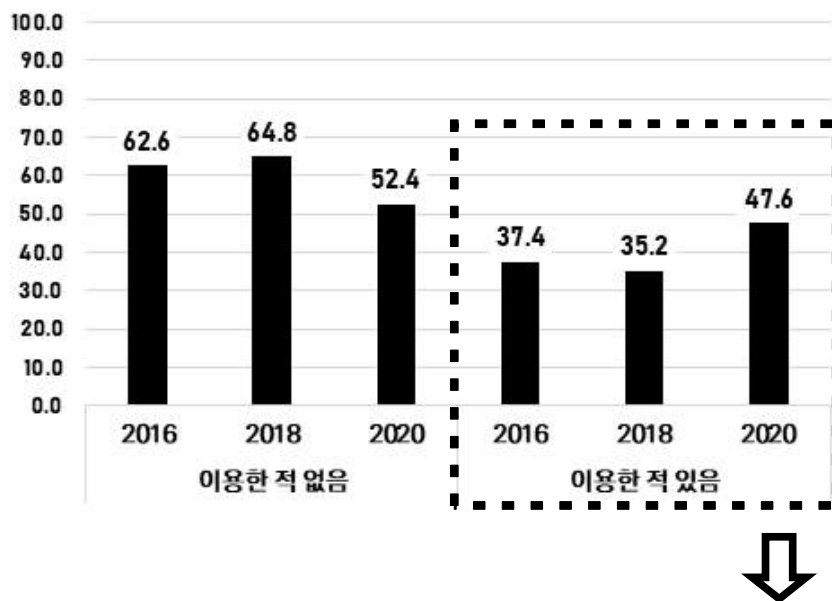
심야시간대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 및 주된 이용 기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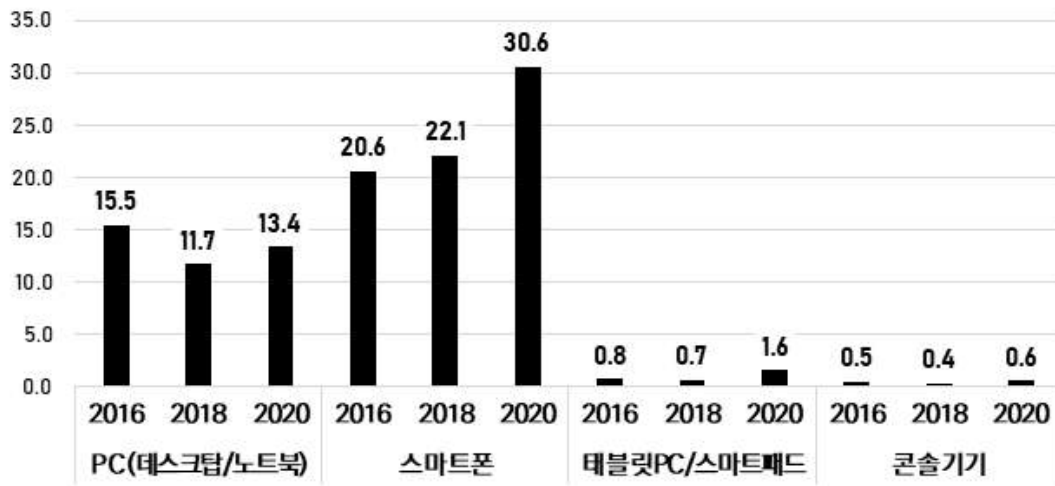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이용 기기			
				PC(데스크탑/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콘솔기기
전체	2016	15,519	37.4	15.5	20.6	0.8	0.5
	2018	15,618	35.2	11.7	22.1	0.7	0.4
	2020	14,216	47.6	13.4	30.6	1.6	0.6
성별	남자	2016	47.5	24.2	21.6	0.9	0.8
		2018	41.5	19.2	20.6	0.8	0.6
		2020	51.2	21.5	25.9	1.6	0.8
	여자	2016	26.4	5.9	19.5	0.6	0.2
		2018	28.3	3.7	23.7	0.6	0.1
		2020	43.7	4.7	35.7	1.6	0.3
학교급	초등학교	2016	26.8	4.1	21.0	0.9	0.6
		2018	23.4	2.2	19.7	0.9	0.4
		2020	36.7	3.4	28.0	2.5	0.8
	중학교	2016	41.6	15.2	25.4	0.4	0.5
		2018	44.4	11.1	31.9	0.6	0.4
		2020	56.0	13.6	39.9	1.1	0.5
	고등학교	2016	41.6	24.2	16.0	0.9	0.4
		2018	36.9	19.8	15.9	0.7	0.3
		2020	50.0	23.1	24.5	1.0	0.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 '온라인 게임'을, '18년도는 '인터넷 게임'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4】 심야시간대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 및 주된 이용 기기

## ②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빈도

- 1주일에 1회 이상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18) 19.2% → ('20) 26.8%로 증가함.

▶ 관련 정책: 1-3-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거의 매일'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11.6%였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26.8%('거의 매일' 11.6%+'1주일에 1~2회' 15.2%)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 비율은 '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임. 구체적으로, '18년 조사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19.2%('거의 매일' 7.5%+'1주일에 1~2회' 11.7%)였음.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주일에 1회 이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하는 청소년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18) 22.3% → ('20) 28.1%로 5.8%p 증가한 데 비해, 여학생은 ('18) 15.8% → ('20) 25.4%로 9.6%p 증가해, 여학생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학교급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응답자 비율이 초등학생 15.9%, 중학생 34.5%, 고등학생 30.2%로 나타나, 중학생에서 가장 높게 파악되었음.

표 III-20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이용 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주말, 공휴일에만
전체	2018	15,618	35.2	7.5	11.7	7.7	8.2
	2020	14,216	47.6	11.6	15.2	9.5	9.9
성별	남자	2018	8,113	41.5	8.0	14.3	9.5
		2020	7,412	51.2	11.5	16.6	10.6
	여자	2018	7,505	28.3	6.9	8.9	5.8
		2020	6,805	43.7	11.6	13.8	8.4
학교급	초등학교	2018	4,729	23.4	3.9	5.3	5.5
		2020	4,667	36.7	7.3	8.6	7.7
	중학교	2018	4,928	44.4	10.8	15.4	8.3
		2020	4,588	56.0	15.4	19.1	10.0
	고등학교	2018	5,961	36.9	7.6	13.7	9.0
		2020	4,961	50.0	12.1	18.1	10.9

\* 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III-21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 빈도('16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이용 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1년에 5~6회	1년에 1~2회
전체		15,519	37.4	5.4	11.0	9.1	4.7	7.2
성별	남자	8,101	47.5	6.5	13.8	12.0	6.3	9.0
	여자	7,417	26.4	4.2	7.9	6.0	3.0	5.2
학교급	초등학교	4,432	26.8	3.6	6.2	5.4	3.3	8.3
	중학교	5,211	41.6	6.6	13.1	9.7	4.7	7.4
	고등학교	5,875	41.6	5.7	12.7	11.3	5.8	6.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8년부터는 '인터넷 게임'으로 질의하였으나, '16년에는 '온라인 게임'으로 질의한 결과임.

3) '16년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1년에 5~6회', '1년에 1~2회'로 질의하였음.

○ 첫다운제 작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생을 제외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PC를 사용하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경험한 빈도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전체적으로 심야시간에 PC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8.4%로 나타나, '16년 10.3%에서 '18년 6.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년 8.4%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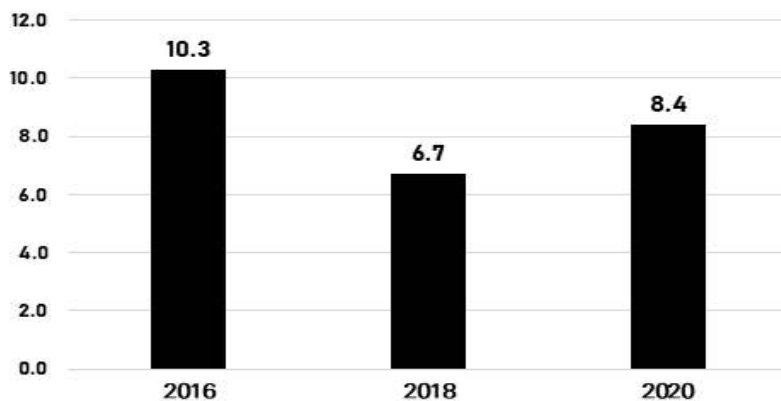
- '1주일에 1회 이상(거의 매일+1주일에 1~2회)' 주로 PC를 이용해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4.8('거의 매일' 1.9%+'1주일에 1~2회' 2.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1주일에 1회 이상' PC를 이용하여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학생(7.7%)이 여학생(1.6%)보다 4.8배가량 높았음.
- 학교급별로 나누어보면, PC를 이용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유경험자는 초등학교생 1.6%, 중학생 8.1%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III-22 PC를 이용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주로 PC를 이용한 심야시간 인터넷(온라인)게임 이용 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1년에 5~6회	1년에 1~2회	주말, 공휴일 에만	
전체		2016	9,627	10.3	1.2	3.0	2.6	1.3	2.2	-
		2018	9,612	6.7	1.2	2.3	1.2	-	-	1.9
		2020	9,466	8.4	1.9	2.9	1.6	-	-	1.9
성별	남자	2016	5,022	16.4	1.9	4.8	4.3	2.0	3.4	-
		2018	4,971	11.4	2.0	4.0	2.0	-	-	3.3
		2020	4,890	13.8	3.0	4.7	2.5	-	-	3.4
	여자	2016	4,604	3.4	0.4	1.0	0.7	0.5	0.8	-
		2018	4,641	1.7	0.3	0.5	0.4	-	-	0.5
		2020	4,576	2.5	0.6	1.0	0.6	-	-	0.4
학교급	초등 학교	2016	4,423	4.1	0.6	0.8	0.9	0.6	1.3	-
		2018	4,715	2.2	0.3	0.5	0.4	-	-	0.9
		2020	4,850	3.4	0.8	0.8	0.6	-	-	1.0
	중학교	2016	5,205	15.2	1.7	4.8	4.0	1.9	2.9	-
		2018	4,896	11.1	2.1	4.1	2.0	-	-	2.9
		2020	4,616	13.6	3.0	5.1	2.6	-	-	2.9

- \* 주: 1)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섯다운제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도에는 이용 빈도를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1년에 5~6회', '1년에 1~2회'로 구분, '18년도 이후에는 이용 빈도를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주말, 공휴일에만'으로 구분함.



【그림 III-15】 PC를 이용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률

## 1-7.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①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아이디(ID)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해서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로 나타남.

▶ 관련 정책: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4.3%로, '16년 10.4%, '18년 7.6%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의 유경험률(6.2%)이 여학생(2.2%)보다 약 3배 가량 높게 파악되었음. 다만 남학생의 유경험률이 '18년 11.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경험률도 상승하였음(초등학생 2.1%, 중학생 5.2%, 고등학생 5.5%). 가장 높은 유경험률을 나타낸 고등학생의 경우, '16년 13.0%에서 '18년 10.0%, '20년 5.5%로 파악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해서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로 파악되었고, 이는 '18년 2.2%에 비해 낮아진 수치임.

- 남학생의 유경험률(1.9%)이 여학생(0.7%) 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0.4%, 중학생 1.6%, 고등학생 1.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경험률도 높게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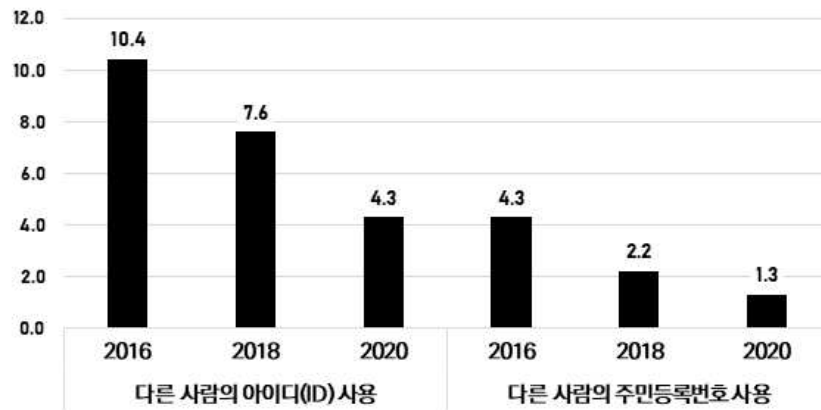
표 III-23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단위: %)

구분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10.4	7.6	4.3	4.3	2.2	1.3
성별	남자	15.8	11.2	6.2	6.3	3.4
	여자	4.5	3.7	2.2	2.1	1.0
학교급	초등학교	4.8	2.8	2.1	0.7	0.3
	중학교	12.2	9.3	5.2	4.2	2.2
	고등학교	13.0	10.0	5.5	7.1	3.8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 '온라인 게임'을, '18년도는 '인터넷 게임'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6】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6.4%의 청소년이 ‘정지, 분실, 대여 등으로 인해 내 계정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23.7%),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14.6%) 순으로 파악되었음.
- '18년 조사에서는 ‘여러 개의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파악되었으나, '20년 조사에서는 ‘정지, 분실, 대여 등으로 내 계정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파악된 점이 특징적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야시간(밤12시~새벽6시)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가 33.8%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음.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25.9%, ‘성인용 게임(청소년이용 불가등급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19.4%, ‘정지, 분실, 대여 등으로 내 계정이 없어서’ 17.1% 순으로 나타남.

표 III-24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성인용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밤12시~새벽6시) 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내 계정이 없어서 (정지, 분실, 대여 등)		기타	
		아이디 사용	주민 등록 번호 사용	아이디 사용	주민 등록 번호 사용	아이디 사용	주민 등록 번호 사용	아이디 사용	주민 등록 번호 사용	아이디 사용	주민 등록 번호 사용
전체	2018	14.9	28.2	13.6	33.8	45.0	27.6	19.8	4.2	6.7	6.2
	2020	6.2	19.4	14.6	33.8	23.7	25.9	46.4	17.1	9.0	3.8
성 별	남자	2018	13.5	25.5	14.1	36.3	48.1	28.5	18.0	3.8	6.4
		2020	5.6	17.0	16.4	37.1	29.5	27.5	39.9	15.7	8.6
	여자	2018	19.6	37.7	12.0	24.9	34.7	24.5	25.9	5.6	7.8
		2020	7.9	26.5	9.6	24.0	7.2	21.3	65.1	21.4	10.2
학 교 급	초등학교	2018	11.4	30.9	3.8	6.5	49.5	32.2	17.4	13.6	17.9
		2020	5.3	13.0	3.8	10.5	19.5	34.4	49.1	22.0	22.3
	중학교	2018	15.1	24.4	13.4	39.3	44.3	29.3	21.6	3.4	5.7
		2020	5.8	19.8	17.1	30.2	23.4	24.6	46.9	23.0	6.8
	고등학교	2018	15.6	29.8	15.9	32.9	44.5	26.6	19.0	4.0	5.0
		2020	6.9	20.2	16.4	40.6	25.6	25.5	45.0	11.8	6.1

\* 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② 인터넷 게임 외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 최근 1년 동안, 채팅, 검색, 동영상 이용 등 인터넷 게임을 제외한 여타 다른 목적으로 타인의 아이디(ID)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9%,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0.7%로 파악되었음.

▶ 관련 정책: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인터넷 게임 외에 인터넷 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9%로 나타남.
  -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유경험률(2.4%)이 여학생(1.3%) 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 중학생 2.0%, 고등학교 2.4%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경험률도 상승하였음.
-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인터넷 게임 외에 인터넷 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0.7%로 파악되었음.
  - 성별의 경우, 남학생(0.8%)과 여학생(0.6%)이 별다른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학교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0.3%, 중학생 0.7%, 고등학교 1.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증가함.

표 III-25 인터넷 게임 외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4,297	1.9	14,271	0.7
성별	남자	7,407	2.4	7,386	0.8
	여자	6,890	1.3	6,885	0.6
학교급	초등학교	4,781	1.2	4,764	0.3
	중학교	4,569	2.0	4,560	0.7
	고등학교	4,948	2.4	4,947	1.2

\* 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1-8. 매체이용 교육 경험 및 효과

### ① 매체이용 교육 경험

- 최근 1년 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은 73.5%로 높은 편이었으며,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경험률 51.2%, 온라인 피해 예방교육 경험률 48.4%로 나타남.

▶ 관련 정책: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청소년들의 매체이용 교육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73.5%로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음.
  - 시계열별로 '16년 72.0%, '18년 71.0%, '20년 73.5%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생(78.4%), 중학생(75.2%), 고등학생(67.1%)로 나타나, 낮은 학교급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냄.
-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청소년의 51.2%로 파악됨.
  - 시계열별로는 '16년에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18년 51.3%, '20년 51.2%로 답보 상태를 나타냄.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0.3%, 중학생 55.4%, 고등학생 48.3%가 최근 1년 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 추세가 관찰되는 데 비해 관련 교육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 초등학생 시기부터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48.4%로, '18년(36.5%)에 비해 11.9%p 증가하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7%, 고등학생 51.3%로 나타나,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참여 수준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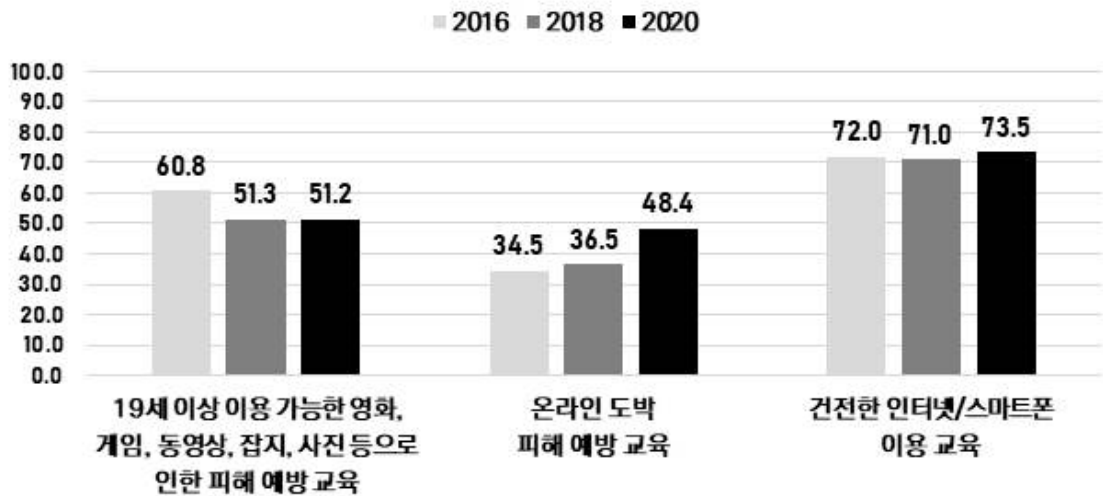
표 III-26 매체이용 교육 경험(중복응답)

(단위: %)

구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60.8	51.3	51.2	34.5	36.5	48.4	72.0	71.0	73.5
성별	남자	66.2	55.2	55.0	39.0	40.4	52.5	72.1	69.9	73.3
	여자	54.9	47.0	47.1	29.7	32.3	44.0	71.8	72.2	73.6
학교 급	초등학교	51.6	49.4	50.3	31.2	31.8	42.4	75.5	75.4	78.4
	중학교	67.6	59.2	55.4	35.6	38.2	51.7	74.6	73.6	75.2
	고등학교	61.7	46.1	48.3	36.1	38.8	51.3	66.9	65.4	67.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 '성인용 영상물 피해예방 교육'을, '18년도부터 구체적 예시를 넣은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7】 매체이용 교육 경험(중복응답)

## ②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 매체이용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대다수는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냄.
-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이 76.2%로 가장 높았고,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71.7%,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69.0%로 나타남.

▶ 관련 정책: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최근 1년 동안 매체이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성인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1.7%(도움이 됨 52.0%+매우 도움이 됨 19.7%)로 나타나 ’18년(67.7%)에 비해 4.0%p 상승하였음.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2%(도움이 됨 51.3%+매우 도움이 됨 24.9%)로 나타나 ’18년(73.0%)에 비해 3.2%p 증가하였음.
  -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9.0%(도움이 됨 50.9%+매우 도움이 됨 18.1%)로, ’18년(65.9%)에 비해 3.1%p 증가하였음.
- 학교급별 비교 결과,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은 효과가 발휘되는 기간이 길고, 그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매체이용 교육이 낮은 학교급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89.8%, 중학생 71.4%, 고등학생 54.2%로 나타났음.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초등학생 91.0%, 중학생 79.6%, 고등학생 61.2%로 나타남.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초등학생 87.3%, 중학생 66.7%, 고등학생 51.2%로 파악되었음.
  - 이처럼 교육의 종류를 불문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것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일 수 있으나, 청소년의 연령대별 특성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III-27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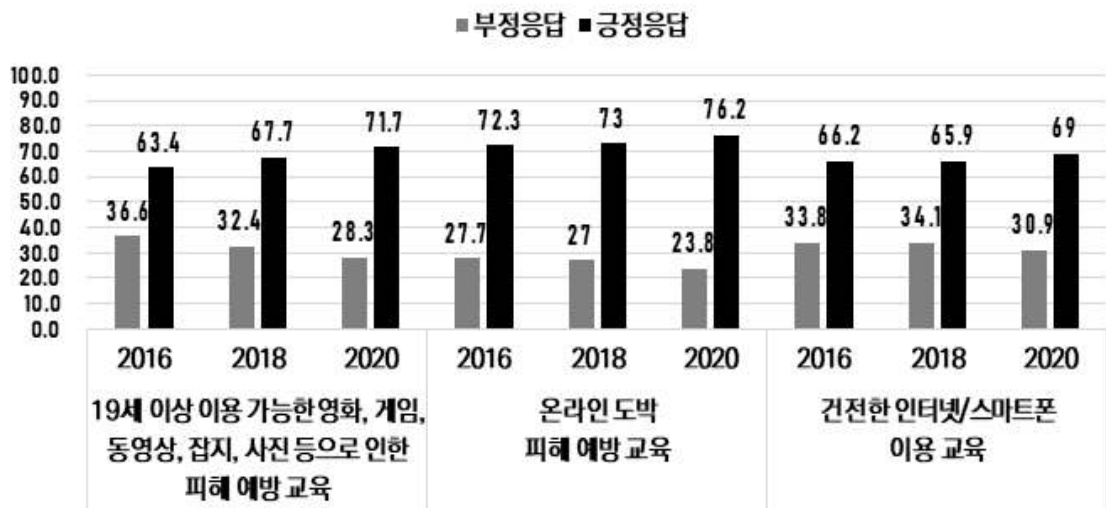
(단위: 명, %)

매체 종류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1)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전체		7,193	16.3	14.1	12.6	20.3	18.3	15.7	44.8	48.3	52.0	18.6	19.4	19.7
	성별	남자	3,988	19.5	17.8	17.0	19.5	17.6	15.8	42.2	45.5	48.6	18.7	19.0	18.7
		여자	3,205	12.0	9.3	7.1	21.4	19.0	15.6	48.3	51.8	56.3	18.3	19.8	21.1
	학교 급	초등학교	2,340	2.0	1.8	4.5	5.7	5.2	5.7	46.2	48.9	51.0	46.1	44.2	38.8
		중학교	2,506	13.9	13.1	11.9	21.5	20.4	16.8	50.9	54.0	57.1	13.7	12.5	14.3
		고등학교	2,347	27.5	25.5	21.4	28.4	27	24.5	38.2	41.9	47.6	6.0	5.6	6.6
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전체		6,763	14.5	12.8	11.4	13.2	14.2	12.4	44.8	47.5	51.3	27.5	25.5	24.9
	성별	남자	3,796	17.9	16.1	14.9	11.8	13.5	11.7	41.7	44.2	47.9	28.6	26.2	25.5
		여자	2,967	9.7	8.3	7.0	15.2	15.1	13.3	49.2	52.0	55.6	25.8	24.6	24.1
	학교 급	초등학교	1,958	2.0	1.8	4.7	3.7	3.8	4.3	40.9	42.2	46.5	53.4	52.3	44.5
		중학교	2,329	11.8	11.5	8.1	13.7	13.3	12.3	49.4	53.4	56.5	25.2	21.8	23.1
		고등학교	2,476	25.1	21.0	19.9	18.9	21.6	19.0	43.3	46.2	50.1	12.7	11.2	11.1
3)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교육	전체		10,246	14.8	13.7	12.8	19.0	20.4	18.1	47.2	47.4	50.9	19.0	18.5	18.1
	성별	남자	5,284	17.7	16.2	16.0	16.7	18.7	16.5	45.5	45.1	48.9	20.2	20.0	18.7
		여자	4,962	11.7	11.1	9.5	21.5	22.2	19.9	49.2	49.7	53.1	17.6	17.0	17.5
	학교 급	초등학교	3,607	2.9	2.6	3.9	7.4	7.7	8.8	50.3	51.6	54.8	39.4	38.1	32.5
		중학교	3,390	13.5	13.5	12.9	19.0	22.6	20.5	52.6	50.3	52.8	14.9	13.6	13.9
		고등학교	3,250	26.2	23.9	22.7	28.7	30.0	26.0	39.4	40.7	44.6	5.7	5.4	6.6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도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을, '18년도부터 구체적 예시를 넣은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8】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 ③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 매체 접촉 경험 및 자율적 보호능력 차이

- 매체 이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유해 매체 경험률이 낮았고, 유해 매체에 대한 자율적인 대응능력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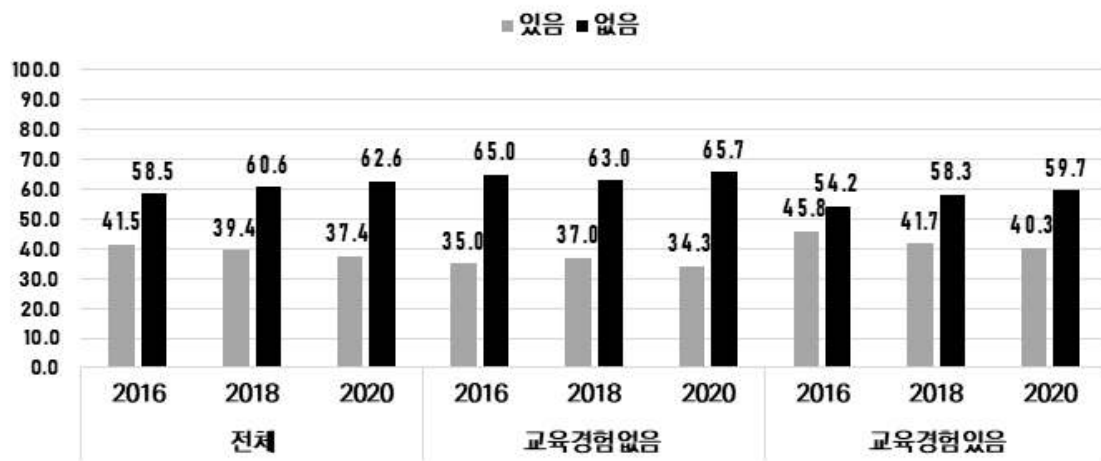
▶ 관련 정책: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라 유해 매체 접촉 경험과 유해 매체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구체적으로,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경험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및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유경험자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비율은 40.3%로, 교육 미경험자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비율(34.3%)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교육의 효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남.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비율은 33.7%로 전체 평균(37.4%)보다 3.7%p 더 낮게 나타남. 반면,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비율은 56.3%로 전체 평균(37.4%)보다 18.9% 더 높게 나타남.
- 교육 경험에 따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비교 결과,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유경험자 가운데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6%(‘그렇다’ 34.3%+‘매우 그렇다’ 46.3%), 교육 미경험자의 응답 비율은 77.7%(‘그렇다’ 33.2%+‘매우 그렇다’ 44.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그에 비해 교육 효과에 따른 차이는 눈에 띄게 나타남.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집단 중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2%(‘그렇다’ 31.8%+‘매우 그렇다’ 54.4%)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평균(79.1%)보다 7.1%p 높은 것이며,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집단의 응답 비율인 66.5%(‘그렇다’ 41.1%+‘매우 그렇다’ 25.4%)보다 약 20%p 높은 것임.
  - 특히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응답의 경우에는, 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집단(25.4%)에 비해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답한 집단(54.4%)의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구분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				
		있음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6	41.5	58.5	7.1	14.6	37.9	40.4
		2018	39.4	60.6	8.2	15.6	35.4	40.9
		2020	37.4	62.6	8.6	12.4	33.6	45.5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교육경험 없음	2016	35.0	65.0	8.5	13.6	35.5	42.4
		2018	37.0	63.0	8.7	17.1	34.7	39.5
		2020	34.3	65.7	9.4	12.9	33.2	44.5
	교육경험 있음	2016	45.8	54.2	6.2	15.3	39.4	39.1
		2018	41.7	58.3	7.6	14.2	36.0	42.2
		2020	40.3	59.7	7.6	11.8	34.3	46.3
	└ 도움 안 됨	2016	64.3	35.7	9.9	25.2	46.1	18.8
		2018	61.8	38.2	11.9	26.0	43.7	18.4
		2020	56.3	43.7	10.0	23.4	41.1	25.4
	└ 도움 됨	2016	35.1	64.9	4.2	9.6	35.5	50.7
		2018	32.1	67.9	5.5	8.5	32.5	53.5
		2020	33.7	66.3	6.5	7.4	31.8	54.4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 '성인용 영상물 피해예방 교육'을, '18년도부터 구체적 예시를 넣은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19】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성인용 영상물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청소년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31.7%로 나타나, 전체 평균(37.4%)보다 5.7%p 더 낮게 나타남.

- 성인용 인터넷 게임 이용 경험도 13.2%에 그쳐 전체 평균(16.4%)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인터넷 게임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도 3.1%로 전체 평균(4.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도움이 되는 양질의 매체 이용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이용에 유의미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시사함.

표 III-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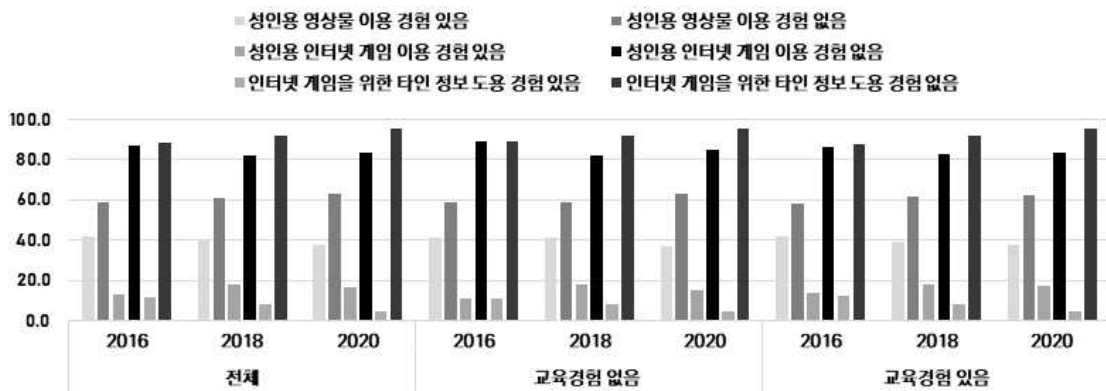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단위: %)

구분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성인용 인터넷 게임 이용 경험		인터넷 게임을 위한 타인 정보 도용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016	41.5	58.5	13.1	86.9	11.8	88.2
		2018	39.4	60.6	17.8	82.2	8.3	91.7
		2020	37.4	62.6	16.4	83.6	4.8	95.2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교육	교육 경험 없음	2016	41.3	58.7	10.8	89.2	10.9	89.1
		2018	41.3	58.7	18.2	81.8	8.1	91.5
		2020	36.8	63.2	15.0	85.0	4.5	95.5
	교육 경험 있음	2016	41.7	58.3	13.9	86.1	12.2	87.8
		2018	38.7	61.3	17.6	82.4	8.2	91.4
		2020	37.5	62.5	17.0	83.0	4.9	95.1
	└ 도움 안 됨	2016	58.3	41.7	19.1	80.9	18.2	81.8
		2018	55.7	44.3	27.6	72.4	13.2	86.8
		2020	50.1	49.9	25.4	74.6	8.3	91.7
	└ 도움 됨	2016	33.4	66.8	11.4	88.6	9.2	90.8
		2018	29.9	70.1	12.4	87.6	5.7	94.3
		2020	31.7	68.3	13.2	86.8	3.1	96.9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6년도 '온라인 게임'을, '18년도부터 '인터넷 게임'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20】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따른 유해매체 접촉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 2. 행위 영역

### 2-1. 청소년폭력

#### ①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

-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청소년폭력 피해율은 5.9%로, 초등학생(9.8%) > 중학생(5.3%) > 고등학생(2.8%)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음) 피해율이 4.1%로 가장 높았음.
- '16년 이후, 전체 피해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온라인(인터넷) 상의 폭력 피해율은 증가함.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18년 이후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증가함.

▶ 관련 정책: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율은 5.9%였으며,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경우)이 4.1%로 가장 많음.
  - 그 밖에 신체적 폭력(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치는 경우)(1.6%), 왕따(따돌림) 당한 경우(1.3%),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하는 경우와 온라인(인터넷)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각 1.1%), 금품갈취(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0.7%), 강제 심부름(빵서틀, 와이파이어틀, 게임서틀 등을 당하는 경우)(0.3%) 순이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청소년폭력 피해율이 높음(남자청소년 6.3%, 여자청소년 5.4%).
  - 하위 7가지 폭력 유형도 대체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피해율이 높았음.
  - 다만, 왕따(따돌림)와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여자청소년의 피해율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폭력 피해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5.3%), 고등학생 (2.8%) 순이었음.
  - 대부분의 하위 폭력 유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남.
- 지난 2016,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청소년폭력 피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6) 8.6% → ('18) 8.5% → ('20) 5.9%



-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어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하는 경우)과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제외한 5개 폭력 유형의 피해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온라인(인터넷) 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16년 0.8% → '18년 0.9% → '20년 1.1%).
- 남자청소년의 경우 2016년 이후 청소년폭력 피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2018년에 증가하였다 2020년에 다시 감소하였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폭력 피해율은 2016년에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의 폭력 피해율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2020년에 감소하였음.
-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2018년 이후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증가하였음('16년 0.9% → '18년 0.9% → '20년 1.8%).
-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폭력 유형에 대한 피해율이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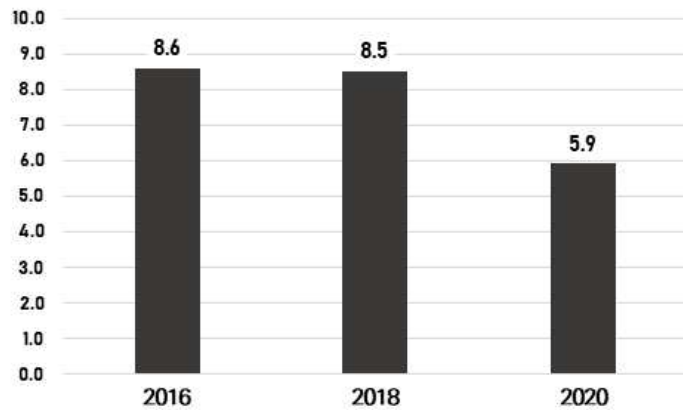
표 III-30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폭력 피해율 <sup>1)</sup>	청소년폭력 유형별 피해율(중복응답)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음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때리거나 괴롭히겠다 고 위협을 당함	왕따 (따돌림)을 당함	강제 심부름 (방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	온라인 (인터넷) 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전체		2016	15,633	8.6	6.9	2.9	1.0	1.8	1.6	0.5	0.8
		2018	15,629	8.5	6.9	2.4	1.0	1.6	1.6	0.2	0.9
		2020	13,796	5.9	4.1	1.6	0.7	1.1	1.3	0.3	1.1
성별	남자	2016	8,152	10.1	8.4	4.0	1.4	2.7	1.7	0.6	0.9
		2018	8,112	9.4	7.8	3.5	1.3	2.2	1.2	0.4	0.6
		2020	7,212	6.3	4.7	2.0	0.8	1.4	0.9	0.3	1.0
	여자	2016	7,482	6.9	5.3	1.8	0.6	0.8	1.6	0.3	0.8
		2018	7,518	7.5	5.9	1.3	0.6	1.1	1.9	0.1	1.3
		2020	6,584	5.4	3.5	1.1	0.7	0.8	1.8	0.2	1.2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4,460	10.5	7.9	4.3	1.1	2.6	2.6	0.3	0.9
		2018	4,737	9.9	7.3	3.1	1.1	2.2	2.7	0.2	0.9
		2020	4,494	9.8	6.5	3.1	1.1	1.9	2.3	0.4	1.8
	중학교	2016	5,253	8.0	6.6	2.7	1.2	1.5	1.4	0.3	0.7
		2018	4,930	9.7	8.1	2.9	1.1	1.6	1.3	0.3	1.3
		2020	4,435	5.3	3.9	1.2	0.7	1.1	1.2	0.2	1.0
	고등 학교	2016	5,920	7.6	6.5	2.0	0.8	1.5	1.1	0.7	0.9
		2018	5,963	6.4	5.6	1.5	0.8	1.2	0.9	0.3	0.7
		2020	4,866	2.8	2.2	0.5	0.5	0.5	0.6	0.2	0.6

\* 주: 1)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1】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 ■ 관련 통계

- 교육부가 실시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2013년 2.3%에서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19년 기준으로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5.3건, 스토킹과 사이버 괴롭힘, 신체폭행이 각 2건, 금품갈취 1.4건, 강제심부름 1.1건, 성추행·성폭력 0.9건으로 나타남.

표 III-31 피해응답률 및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단위: %, 건)

구분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피해 응답률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	금품 갈취	성추행/ 성폭력	강제 심부름
2013년 1차	2.3	13.6	6.6	3.7	3.6	4.7	4.0	1.3	2.4
2014년 1차	1.4	9.4	4.6	3.0	2.5	3.1	2.2	1.0	1.3
2015년 1차	1.1	6.8	3.6	2.6	1.9	2.4	1.5	0.9	0.9
2016년 1차	0.9	6.2	3.3	2.0	1.7	2.2	1.2	1.2	0.8
2017년 1차	0.9	6.3	3.1	2.3	1.8	2.2	1.2	0.9	0.7
2018년 1차	1.3	8.7	4.3	3.0	2.7	2.5	1.6	1.3	1.0
2019년 1차	1.6	8.1	5.3	2.0	2.0	2.0	1.4	0.9	1.1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 1)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임.

## ② 청소년폭력 피해 장소

- 청소년폭력 피해자의 45.9%가 주로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16년 조사 이후 '학교 교실 안'과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등 학교 내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증가함.

▶ 관련 정책: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청소년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어디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학교 교실 안'에서 당했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온라인(인터넷) 공간이 26.7%,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 내 폭력 피해 경험률(학교 교실 안+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은 45.9%임.
-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 교실 안'(남자청소년 28.1%, 여자청소년 35.7%)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인터넷) 공간'(남자청소년 24.9%, 여자청소년 29.1%)임.
  - 여자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실 안'과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등 학교 내에서 폭력 피해 경험률과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교 주변 공터/골목',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공원/지하도/야산' 등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34.4%)과 고등학생(52.1%)의 경우 '학교 교실 안'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초등학생 23.1%).
  - 초등학생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음(중학생 32.7%, 고등학생 26.4%).
  - 초등학생의 경우 '동네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등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6.0%로 중학생(4.2%), 고등학생(1.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전체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전체 초·중·고 학생들 중 2.3%가 교내에서(학교 교실 안 1.6%+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0.7%)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전체 남자청소년 중 2.2%가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여자청소년의 2.4%가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한 적이 있음.
  - 학교급별로는 전체 초등학생의 3.1%가 교내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은

2.2%, 고등학생은 1.7% 순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교내에서의 폭력경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16년, '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 교실 안'과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등 학교 내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16년 75.7% → '18년 71.3% → '20년 45.9%).
- 한편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16년 이후 증가함('16년 7.7% → '18년 10.7% → '20년 26.7%).
-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실 안'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이 '16년 이후 크게 감소(29.9%p)한 반면,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이 크게 증가함('16년 6.0% → '18년 4.8% → '20년 24.9%).
- 학교급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16년에 비해 25.0%p 증가함.

표 III-32

청소년폭력 피해를 주로 경험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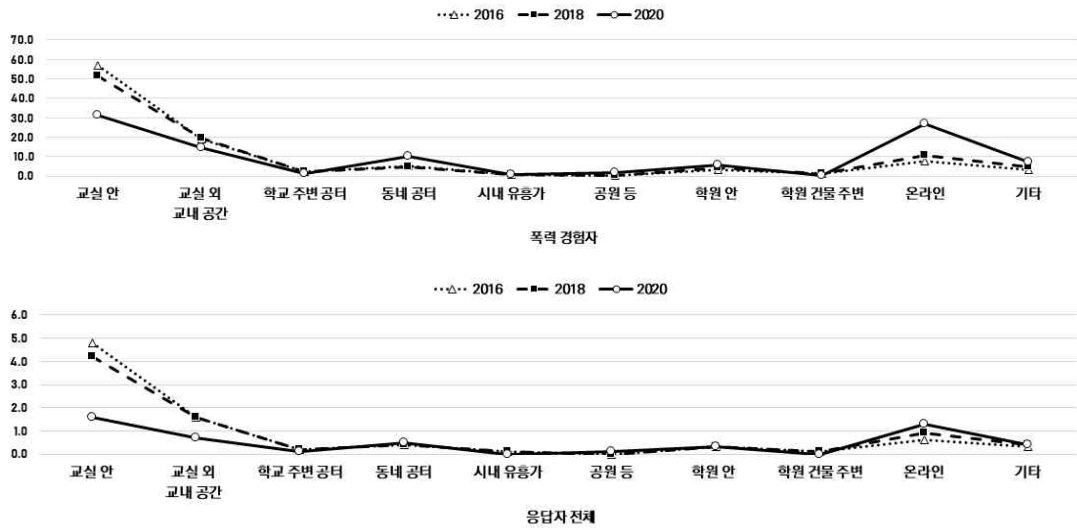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교실 안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학교주변공터/골목	동네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시내 유흥가/번화가	공원/지하도/야산 등	학원 안	학원 건물 주변	온라인 (인터넷) 공간	기타		
경험자 1)	전체		2016	1,307	56.8	18.9	2.5	5.3	0.8	0.4	3.1	1.2	7.7	3.1	
			2018	1,276	51.6	19.7	2.2	4.7	0.6	0.5	4.1	1.2	10.7	4.6	
			2020	726	31.4	14.5	1.5	10.0	1.0	1.7	5.8	0.2	26.7	7.2	
	성별	남자		2016	797	56.5	18.6	2.5	6.6	1.0	0.6	3.6	1.2	6.0	3.5
				2018	731	58.0	17.6	2.5	4.7	0.6	0.8	4.3	1.4	4.8	5.2
				2020	413	28.1	12.6	1.9	13.4	0.7	2.8	5.9	0.2	24.9	9.4
		여자		2016	509	57.3	19.3	2.6	3.2	0.6	0.2	2.4	1.4	10.4	2.6
				2018	545	43.0	22.6	1.8	4.7	0.6	0.2	3.8	0.9	18.5	3.9
				2020	312	35.7	17.1	1.0	5.6	1.3	0.3	5.7	0.1	29.1	4.3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59	44.9	19.6	3.8	10.1	1.1	1.2	6.0	2.2	6.3	4.8
				2018	447	41.3	21.5	3.3	9.2	0.5	0.5	7.4	2.2	7.5	6.6
				2020	389	23.1	15.8	2.0	16.0	0.0	2.3	7.5	0.3	23.6	9.6
		중학교		2016	411	63.9	16.9	1.7	2.9	0.7	0.0	2.5	0.3	7.7	3.3
				2018	464	51.5	22.6	0.5	1.6	0.6	0.8	2.7	0.7	14.7	4.2
				2020	212	34.4	12.4	1.6	4.2	2.8	1.8	4.2	0.0	32.7	5.9
		고등학교		2016	437	62.8	19.9	1.9	2.5	0.6	0.0	0.8	1.1	9.1	1.2
				2018	365	64.3	13.9	3.0	3.1	0.8	0.3	1.8	0.5	9.4	2.8
				2020	125	52.1	14.2	0.0	1.3	0.8	0.0	3.3	0.0	26.4	1.9
응답자 전체 2)	전체		2016	15,600	4.8	1.6	0.2	0.4	0.1	0.0	0.3	0.1	0.6	0.3	
			2018	15,657	4.2	1.6	0.2	0.4	0.1	0.0	0.3	0.1	0.9	0.4	
			2020	14,536	1.6	0.7	0.1	0.5	0.0	0.1	0.3	0.0	1.3	0.4	
	성별	남자		2016	8,129	5.5	1.8	0.2	0.7	0.1	0.1	0.4	0.1	0.6	0.3
				2018	8,129	5.2	1.6	0.2	0.4	0.1	0.1	0.4	0.1	0.4	0.5
				2020	7,560	1.5	0.7	0.1	0.7	0.0	0.2	0.3	0.0	1.4	0.5
		여자		2016	7,472	3.9	1.3	0.2	0.2	0.0	0.0	0.2	0.1	0.7	0.2
				2018	7,528	3.1	1.6	0.1	0.3	0.0	0.0	0.3	0.1	1.3	0.3
				2020	6,976	1.6	0.8	0.0	0.2	0.1	0.0	0.3	0.0	1.3	0.2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50	4.6	2.0	0.4	1.1	0.1	0.1	0.6	0.2	0.7	0.5
				2018	4,747	3.9	2.0	0.3	0.9	0.0	0.0	0.7	0.2	0.7	0.6
				2020	4,883	1.8	1.3	0.2	1.3	0.0	0.2	0.6	0.0	1.9	0.8
		중학교		2016	5,243	5.0	1.3	0.1	0.2	0.1	0.0	0.2	0.0	0.6	0.3
				2018	4,943	4.8	2.1	0.1	0.2	0.1	0.1	0.3	0.1	1.4	0.4
				2020	4,640	1.6	0.6	0.1	0.2	0.1	0.1	0.2	0.0	1.5	0.3
		고등학교		2016	5,907	4.8	1.6	0.2	0.4	0.1	0.0	0.3	0.1	0.6	0.3
				2018	5,967	3.9	0.9	0.2	0.2	0.0	0.0	0.1	0.0	0.6	0.2
				2020	5,013	1.3	0.4	0.0	0.0	0.0	0.0	0.1	0.0	0.7	0.0

\* 주: 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임.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22】 청소년폭력 피해를 주로 경험한 장소

#### ■ 관련 통계

○ 교육부가 실시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비율이 69.5%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교실 안’이 30.6%로 가장 높았고, ‘복도’ 14.5%, ‘운동장’ 9.9%, ‘급식실 및 매점’ 8.7% 순이었음.

표 Ⅲ-33 청소년폭력 피해 주 경험장소: '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구분	학교 안 (69.5)							학교 밖 (30.5)						기타
	교실안	복도	운동장	급식실 매점	화장실	특별실	기숙사	놀이터	온라인 공간	학원 주변	학교밖 체험	집	PC 노래방	
전체	30.6	14.5	9.9	8.7	3.5	1.9	0.4	5.6	5.4	4.2	5.0	3.2	0.9	6.2
초	29.3	14.2	11.5	7.7	3.4	1.8	0.2	6.7	3.9	5.0	5.5	3.7	0.7	6.4
중	34.0	16.0	4.9	11.8	3.8	2.0	0.5	2.2	10.3	1.9	3.6	1.8	2.1	5.3
고	37.0	14.0	3.7	12.6	4.0	2.6	2.2	1.7	10.5	1.3	2.8	1.2	1.3	5.2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 1)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임.

### ③ 청소년폭력 가해자 유형

- 주된 가해자 유형으로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72.1%로 가장 많았음.
-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84.8%로 가장 높았음.
- ’18년에 비해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증가함.

▶ 관련 정책: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청소년폭력의 주된 가해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10.3%,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이 각각 7.6% 등의 순이었음.
- 여자청소년의 경우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78.0%로 남자청소년(67.1%)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2.3%로 여자청소년(7.9%)보다 높음.
-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84.8%로 가장 높음(초등학생 68.3%, 중학생 70.9%).
- ’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주된 가해자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14.8%p 감소함.
  -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나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18년에 비해 증가함.
  - 성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I-34 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2016	1,315	84.8	6.9	1.8	5.0	1.5	
	2018	1,289	86.9	5.1	0.8	3.9	3.2	
	2020	698	72.1	10.3	7.6	7.6	2.4	
성별	남자	2016	804	83.3	7.0	1.8	6.3	1.7
		2018	733	87.6	3.6	0.5	4.5	3.8
		2020	382	67.1	12.3	8.3	10.0	2.2
	여자	2016	511	87.4	6.7	1.8	2.8	1.3
		2018	556	86.0	7.2	1.3	3.1	2.4
		2020	316	78.0	7.9	6.8	4.7	2.6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60	81.3	7.1	1.7	7.6	2.3
		2018	449	82.5	6.8	1.0	5.1	4.6
		2020	362	68.3	9.3	9.9	8.9	3.6
	중학교	2016	412	86.1	8.8	1.5	2.1	1.5
		2018	470	90.1	4.3	0.7	2.6	2.2
		2020	211	70.9	14.0	6.1	7.4	1.6
	고등학교	2016	442	87.4	4.9	2.1	4.9	0.8
		2018	370	88.2	4.2	0.7	4.1	2.8
		2020	124	84.8	7.1	3.7	4.4	0.0

\* 주: 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3】 폭력 가해자 유형



#### ④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렸다는 비율은 62.4%임.
- '16년 이후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 정책: 4-3-1.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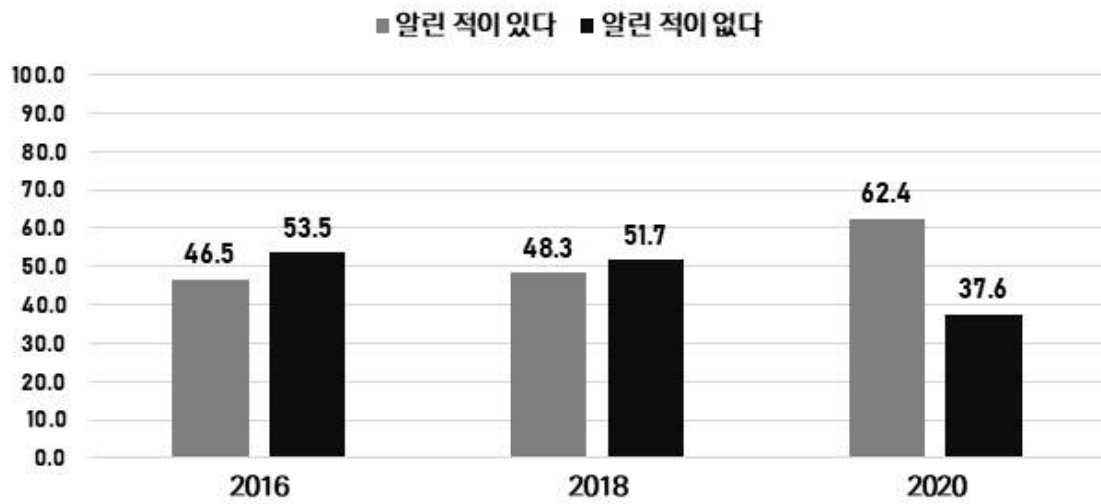
- 폭력 피해자 중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적인 있다는 응답은 62.4%로 알린 적이 없다는 응답 37.6%보다 24.8%p 높았음.
  - 남자청소년이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은 55.2%로 여자청소년(71.4%)보다 16.2%p 낮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사실 알림 비율이 70.9%로 가장 높고, 중학생 57.0%, 고등학생 44.6% 순임.
- '16년 이후,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16년 46.5% → '18년 48.3% → '20년 62.4%).
  -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린 비율은 '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Ⅲ-35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린 적이 있다	알린 적이 없다		
전체	2016	1,306	46.5	53.5		
	2018	1,299	48.3	51.7		
	2020	765	62.4	37.6		
성별	남자	2016	800	39.5	60.5	
		2018	739	41.0	59.0	
		2020	426	55.2	44.8	
	여자	2016	507	57.6	42.4	
		2018	560	57.9	42.1	
		2020	339	71.4	28.6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458	60.7	39.3
			2018	451	63.9	36.1
2020			410	70.9	29.1	
중학교		2016	409	38.8	61.2	
		2018	472	46.8	53.2	
		2020	226	57.0	43.0	
고등 학교		2016	440	38.9	61.1	
		2018	377	31.4	68.6	
		2020	128	44.6	55.4	

\* 주: 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4】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⑤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은 주로 가족(71.4%), 선생님(36.4%), 친구나 선후배(35.6%)임.
- 학교폭력 지원기관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은 4.0%로 낮았으며,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관련 정책: 4-3-1.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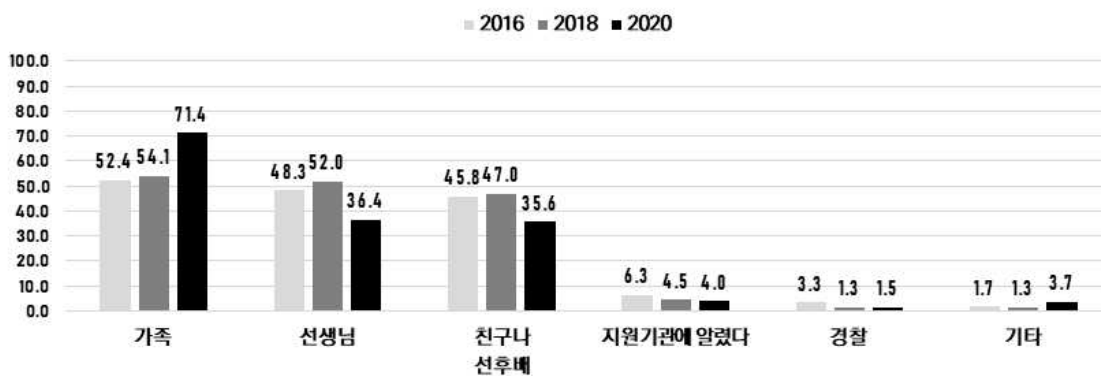
- 폭력 피해 사실을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36.4%), 친구나 선후배(35.6%)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많았음.
  - 청소년폭력 지원기관(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알렸다는 응답은 4.0%, 경찰(112)에 알렸다는 응답은 1.5%임.
-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과 친구에게 알렸다는 응답 비율이 4.4%p 높게 나타남(여자청소년 73.6%, 남자청소년 69.2%).
- 학교급이 높을수록 가족에게 알렸다는 비율이 낮고, 친구나 선후배(초등학생 25.0%, 중학생 46.4%, 고등학생 65.5%) 혹은 청소년폭력 지원기관(초등학생 0.7%, 중학생 7.2%, 고등학생 13.9%)에 알렸다는 비율이 증가함.
  -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80.5%,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25.0%임.
  -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42.5%,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65.5%임.
-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점차 증가('16년 52.4% → '18년 54.1% → '20년 71.4%)하였고, 청소년폭력 지원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16년 6.3% → '18년 4.5% → '20년 4.0%)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폭력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기관에 도움을 받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III-36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에게 알렸다	선생님에게 알렸다	친구나 선후배 에게 알렸다	지원기관에 알렸다 (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경찰 (112)에 알렸다	기타	
전체	2016	606	52.4	48.3	45.8	6.3	3.3	1.7	
	2018	627	54.1	52.0	47.0	4.5	1.3	1.3	
	2020	477	71.4	36.4	35.6	4.0	1.5	3.7	
성 별	남자	2016	316	48.5	46.1	34.6	7.0	4.0	1.5
		2018	303	50.0	54.5	35.7	3.7	1.1	2.4
		2020	235	69.2	34.1	24.0	4.0	2.1	4.0
	여자	2016	291	56.6	50.7	58.0	5.6	2.6	1.9
		2018	324	58.0	49.7	57.6	5.2	1.6	0.3
		2020	242	73.6	38.5	46.9	4.0	1.0	3.4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277	62.7	48.4	33.8	5.6	1.6	2.5
		2018	288	63.1	46.6	36.0	2.2	0.3	1.9
		2020	291	80.5	31.3	25.0	0.7	0.8	4.8
	중학교	2016	159	50.2	49.5	56.7	5.9	4.0	0.5
		2018	221	50.3	62.2	52.3	6.1	1.7	1.0
		2020	129	63.8	45.5	46.4	7.2	3.8	3.0
	고등 학교	2016	171	37.7	47.0	55.2	7.9	5.4	1.5
		2018	118	39.5	46.3	63.9	6.8	3.2	0.4
		2020	57	42.5	41.5	65.5	13.9	0.0	0.0

\* 주: 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5】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 ⑥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된 정도

-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74.8%임.
- '18년에 비해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소폭(2.0%p) 감소함.
- 반면, 남자청소년과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음.

▶ 관련 정책: 4-3-1.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4-3-2. 폭력 피해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응답자 중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74.8%로 나타남.
  -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7.0%,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8%로 나타남.
  -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응답은 7.3%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는 응답도 17.9%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은 높고, 부정적인 반응은 낮게 나타남.
  -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남자청소년(34.0%) > 여자청소년(20.1%)
  -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여자청소년(7.7%) > 남자청소년(6.9%)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감소함.
  -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초등학생(29.4%) > 중학생(24.7%) > 고등학생(19.9%).
-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응답은 2018년에 비해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 응답이 '1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특성을 고려하여 폭력 피해 학생들이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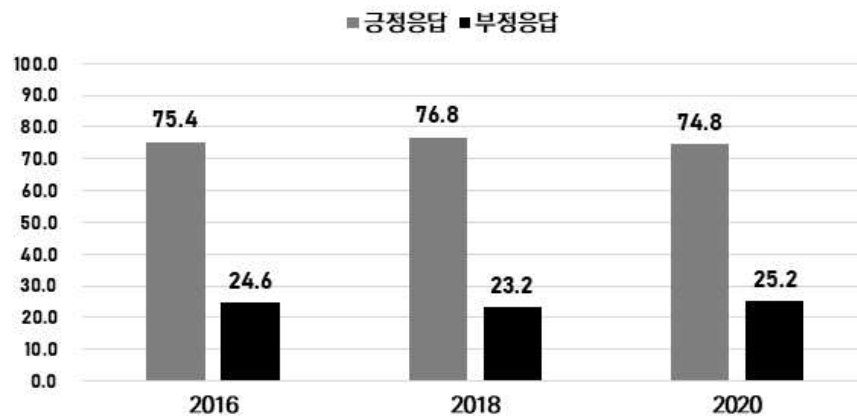
표 III-37

피해 사실 알린 것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	
전체		2016	601	29.7	45.7	7.9	16.7
		2018	624	26.4	50.4	8.9	14.3
		2020	466	27.0	47.8	7.3	17.9
성별	남자	2016	314	37.4	37.3	7.7	17.6
		2018	300	32.8	45.3	7.5	14.3
		2020	231	34.0	42.6	6.9	16.5
	여자	2016	287	21.2	55.0	8.0	15.8
		2018	323	20.5	55.0	10.2	14.3
		2020	235	20.1	52.8	7.7	19.3
학교급	초등학교	2016	273	33.5	44.7	8.3	13.5
		2018	287	30.6	49.3	7.8	12.3
		2020	281	29.4	47.7	7.6	15.3
	중학교	2016	158	27.9	49.6	6.1	16.4
		2018	218	25.3	54.2	8.5	12.1
		2020	128	24.7	49.8	4.9	20.5
	고등학교	2016	170	25.2	43.8	8.7	22.2
		2018	118	18.3	45.9	12.5	23.3
		2020	57	19.9	43.7	11.1	25.2

\* 주: 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6】 피해 사실 알린 것의 도움 정도

## 7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41.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6.3%로 높게 나타남.
- ’16년 이후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관련 정책: 4-3-1.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4-3-2. 폭력 피해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6.3%,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10.0%,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9.9%,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가장 높았으나, 여자청소년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남자청소년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청소년은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등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가 상이함을 볼 수 있음.
- 학교급에 따라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 초등학생, 중학생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등의 순인 반면, 고등학생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등의 순임.
- ’16년, ’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등의 응답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16년 7.7% → ’18년 8.0% → ’20년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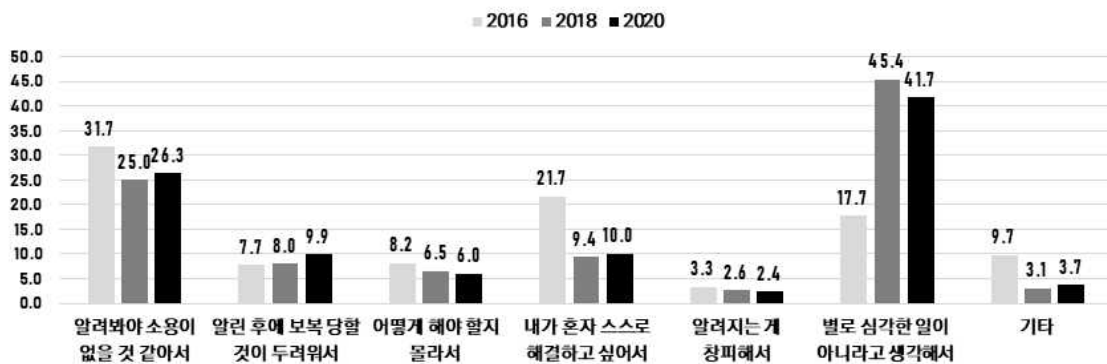
표 III-38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2016	692	31.7	7.7	8.2	21.7	3.3	17.7	9.7	
	2018	664	25.0	8.0	6.5	9.4	2.6	45.4	3.1	
	2020	261	26.3	9.9	6.0	10.0	2.4	41.7	3.7	
성 별	남자	2016	480	28.0	7.3	8.7	21.7	3.7	19.8	10.7
		2018	431	23.0	5.9	7.4	8.4	3.1	49.3	2.9
		2020	175	21.4	7.1	6.9	12.2	2.5	44.9	5.0
	여자	2016	212	39.9	8.6	7.2	21.7	2.3	13.0	7.3
		2018	233	28.7	11.9	4.7	11.3	1.7	38.3	3.4
		2020	86	36.3	15.6	4.2	5.5	2.1	35.3	1.1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178	29.8	8.6	13.7	22.7	5.1	9.8	10.3
		2018	161	30.7	10.0	10.4	12.4	3.9	30.5	2.2
		2020	107	20.5	13.3	8.5	10.9	0.4	40.0	6.4
	중학 교	2016	246	30.4	8.6	7.7	20.1	3.6	20.5	9.1
		2018	247	20.0	10.8	6.5	8.4	2.8	49.6	2.0
		2020	85	23.4	11.0	6.1	9.6	3.5	45.6	0.8
	고등 학교	2016	268	34.1	6.4	5.1	22.5	1.9	20.4	9.7
		2018	256	26.3	4.1	4.0	8.5	1.6	50.8	4.7
		2020	69	38.9	3.3	1.9	9.1	4.0	39.6	3.2

\* 주: 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7]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 ⑧ 청소년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함. 여자청소년과 중학생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4-3-1.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4-3-2. 폭력 피해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청소년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8%였음.
  - 남자청소년의 경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7.0%로, 여자청소년(23.4%)보다 6.4%p 낮게 나타남.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21.5%)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20.9%), 초등학생(18.5%)의 순으로 나타남.
  - '16년, '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16년 14.3% → '18년 14.7% → '20년 19.8%)를 보이며, 특히 '18년에 비해서는 5.1%p 증가함.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여자청소년과 초등학생, 중학생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남자청소년과 고등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라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음.
  - 그 밖에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 20.3%,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15.3%, '학교폭력신고센터(117)' 11.5% 등의 순임.
  - 여자청소년의 경우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86.0%로 남자청소년(60.8%)에 비해 25.2%p 높았음.
  -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다음으로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19.2%로 높은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남.
  - '16년 이후로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16년 7.6% → '18년 2.8% → '20년 2.2%).

표 III-39

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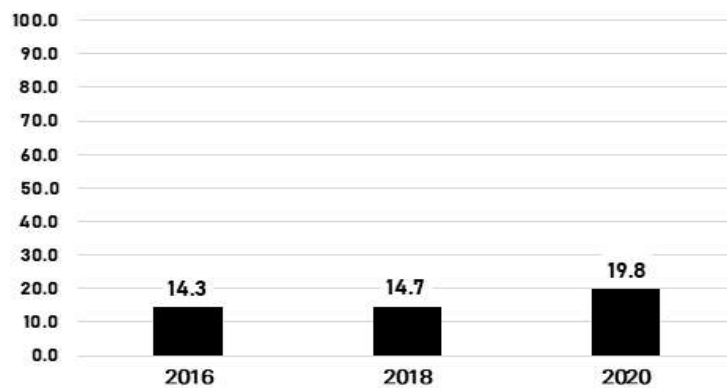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도움 받은 적 있음	도움을 받은 지원기관(중복응답) <sup>1)</sup>						
				학교(Wee 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기타	
전체	2016	1,283	14.3	75.6	14.8	20.4	-	7.6	3.7	
	2018	1,291	14.7	81.9	8.4	15.3	-	2.8	4.6	
	2020	710	19.8	74.2	15.3	20.3	11.5	2.2	0.0	
성별	남자	2016	787	13.4	71.4	19.2	17.4	-	6.3	2.3
		2018	732	11.7	72.0	9.8	15.0	-	2.9	8.4
		2020	395	17.0	60.8	21.8	18.4	16.6	0.0	0.0
	여자	2016	496	15.7	81.3	9.0	24.4	-	9.3	5.7
		2018	560	18.8	90.0	7.3	15.6	-	2.8	1.6
		2020	315	23.4	86.0	9.7	22.0	7.1	4.2	0.0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56	17.1	72.0	12.7	13.7	-	6.9	7.3
		2018	449	17.5	80.4	5.4	10.4	-	1.9	7.8
		2020	377	18.5	63.0	19.2	17.6	12.7	0.0	0.0
	중학교	2016	398	13.7	78.5	11.7	25.4	-	9.7	0.0
		2018	469	17.3	85.7	6.4	15.3	-	2.6	3.2
		2020	212	21.5	83.8	12.0	23.4	11.2	6.7	0.0
	고등학교	2016	429	11.8	78.0	21.5	25.3	-	6.4	2.3
		2018	374	8.2	75.8	21.4	28.4	-	5.9	0.0
		2020	121	20.9	85.5	11.7	21.6	8.8	0.0	0.0

\* 주: 1)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올해 처음 조사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8】 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9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92.9%이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7.1%였음.
- '16년 이후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임.
-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92.0%였으나, 중학생은 77.6%, 고등학생은 61.6%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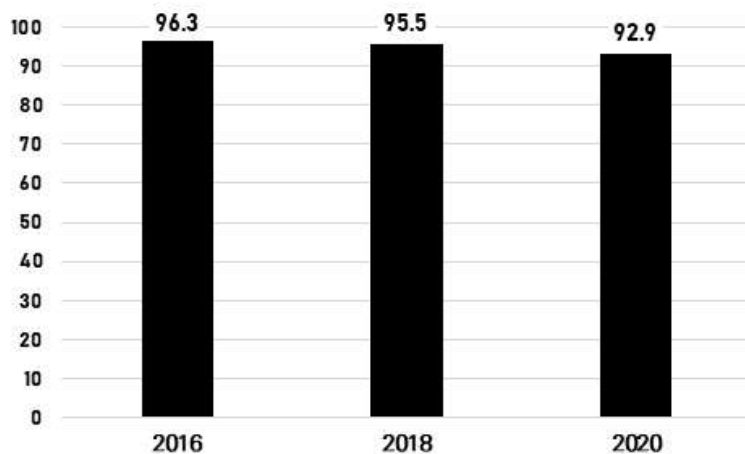
▶ 관련 정책: 4-2-1. 폭력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4-2-2. 가해피해 학생 대상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9%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여자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94.1%로 남자청소년(91.8%)에 비해 2.3%p 높음.
  -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16년 96.3 % → '18년 95.5% → '20년 92.9%)이며, 모든 성별, 학교급 집단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77.1%로 나타남('매우 도움이 되었다' 25.0%+'도움이 되었다' 52.1%).
  -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초등학생의 경우 92.0%였으나, 중학생은 77.6%, 고등학생의 경우 61.6%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짐.
  -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적절한 예방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16년, '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게서, 그리고 고등학생에게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구분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학교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sup>1)</sup>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2016	96.3	11.5	16.4	48.2	23.9
		2018	95.5	10.7	16.0	49.1	24.2
		2020	92.9	8.6	14.3	52.1	25.0
성 별	남자	2016	95.5	13.5	14.4	47.0	25.1
		2018	94.8	12.5	13.8	48.6	25.1
		2020	91.8	10.8	12.7	50.8	25.6
	여자	2016	97.1	9.3	18.6	49.4	22.6
		2018	96.2	8.9	18.3	49.6	23.2
		2020	94.1	6.4	16.0	53.4	24.3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97.3	2.3	5.1	42.1	50.5
		2018	96.3	1.8	5.0	43.1	50.1
		2020	94.1	2.5	5.4	45.6	46.4
	중학교	2016	97.3	10.7	15.2	54.9	19.2
		2018	96.4	11.3	16.2	54.0	18.5
		2020	94.4	7.6	14.8	57.1	20.5
	고등 학교	2016	94.6	19.3	26.3	46.8	7.6
		2018	94.0	17.5	24.8	49.8	7.9
		2020	90.4	15.7	22.7	53.6	8.0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9】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 2-2. 청소년 성폭력

### ① 성폭력 피해 경험

-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경험한 성폭력 피해율 조사 결과, 전체 성폭력 피해율은 1.8%임.
-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힘’이 0.9%로 가장 많았음.
- 여자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율이 2.5%로 남자청소년 1.2%보다 1.3%p 높았음.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전체 성폭력 유형에 대한 피해율은 2018년에 비해 1.0%p 감소하였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 항목이 2016년 이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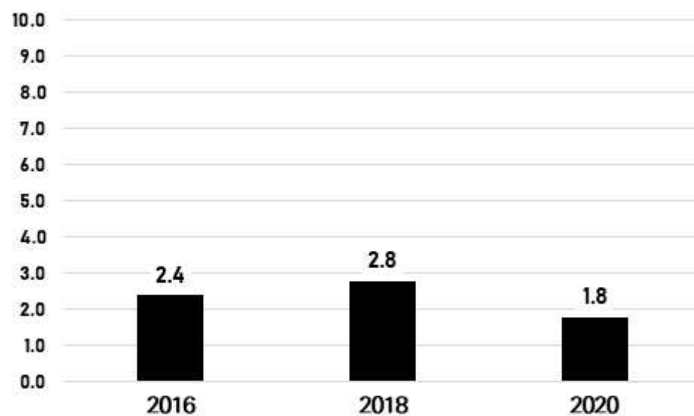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성폭력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성폭력 피해율은 1.8%임.
  - 유형별로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이 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 등의 순임.
  -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율이 2.5%로 남자청소년 1.2%보다 1.3%p 높았음.
  - 학교급별로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의 성폭력 피해율이 2.6%로 가장 높음(중학생 1.6%, 고등학생 1.3%).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전체 성폭력 유형에 대한 피해율은 '18년에 비해 1.0%p 감소하였음.
  - 유형별로는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당함’(0.1%p),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0.8%p),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0.7%p) 등의 항목이 '18년 이후 감소함.
  - 올해 신규 조사한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신체촬영 강요, 성적 이미지 합성 및 유포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함’의 응답률은 0.2%였음.
  -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 항목은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안 또는 강요받음’의 항목은 '18년 신규조사 이후 0.1%p 증가함.
  - 학교급별로는 성폭력 피해율이 '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 피해율과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항목이 '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구분		사례수	청소년 성폭력 피해율 <sup>1)</sup>	성폭력 유형별 피해율(중복응답)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 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당함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온라인 (인터넷, 채팅앱) 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피해 를 당함	온라인 (인터넷, 채팅앱) 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안 또는 강요 받음	온라인 (인터넷, 채팅앱) 에서 신체촬영 강요, 성적이미지 합성 및 유포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함
전체	2016	15,623	2.4	0.4	1.4	1.0	0.1	0.5	-	-
	2018	15,604	2.8	0.4	1.7	1.0	0.1	0.6	0.2	-
	2020	13,761	1.8	0.3	0.9	0.3	0.1	0.6	0.2	0.2
성 별	남자	2016	8,147	2.4	0.6	1.3	1.4	0.2	0.3	-
		2018	8,089	2.4	0.4	1.5	1.2	0.1	0.4	0.2
		2020	7,190	1.2	0.3	0.6	0.3	0.1	0.3	0.1
	여자	2016	7,476	2.5	0.3	1.5	0.6	0.1	0.7	-
		2018	7,514	3.1	0.4	1.9	0.8	0.2	0.8	0.2
		2020	6,571	2.5	0.4	1.1	0.2	0.2	1.0	0.3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4,460	3.2	0.6	1.8	1.4	0.1	0.2	-
		2018	4,732	2.7	0.3	1.8	0.8	0.2	0.5	0.2
		2020	4,492	2.6	0.6	1.5	0.5	0.1	0.5	0.1
	중학 교	2016	5,247	2.4	0.3	1.4	1.0	0.1	0.6	-
		2018	4,921	3.2	0.4	1.8	1.2	0.1	0.6	0.2
		2020	4,420	1.6	0.2	0.7	0.2	0.1	0.7	0.3
	고등 학교	2016	5,917	1.8	0.4	1.0	0.8	0.2	0.5	-
		2018	5,951	2.5	0.4	1.5	1.0	0.1	0.7	0.2
		2020	4,849	1.3	0.2	0.4	0.1	0.1	0.7	0.1

\* 주: 1) 제시된 성폭력 유형에 대해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0】 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

## ② 성폭력 피해 장소

-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교실 안’에서의 피해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율은 여자청소년(58.4%), 중학생(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주로 어디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피해 장소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당했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음.
- 그 밖에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16.5%, ‘학교 교실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6.0%로 성폭력 피해자의 32.5%가 학교 내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은 ‘학교 교실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28.0%,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23.8%, ‘온라인(인터넷) 공간’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고,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12.4%,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학교 안(학교 교실 안+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율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중학생 62.0% > 고등학교 55.7% > 초등학교 27.5%)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 교실 안’에서의 피해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학교주변 공터/골목’, ‘학원 안’에서의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에서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모든 성별과 학교급에서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율은 '1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 안(학교 교실 안 0.3% +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0.3%)’에서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자청소년은 ‘학교 안(학교 교실 안 0.3% +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0.3%)’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인터넷) 공간’(0.2%) 등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인터넷) 공간’(1.2%)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 안(학교 교실 안 0.2% +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0.3%)’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은 ‘학교 안(학교 교실 안 0.5% +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0.4%)’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온라인(인터넷) 공간’(0.6%)의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 안(학교 교실 안+학교 교실 외 교내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6년 조사 이후 전반적으로 ‘학교 교실 안’, ‘학교 주변 공터/골목’, ‘시내 유흥가/번화가’, ‘학원 안’, ‘학원 건물 주변’ 등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I-42 청소년 성폭력 피해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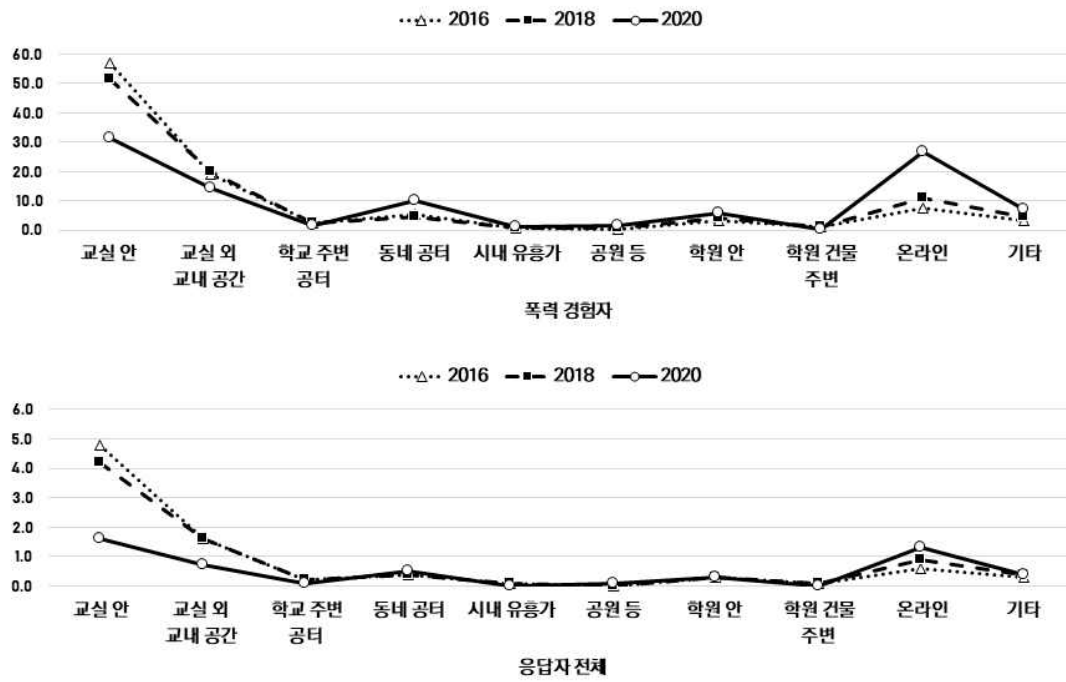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교실 안	학교교실 외교내공간	학교 주변 공터/골목	동네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시내유흥가/변화가	공원/지하도/야산등	학원 안	학원건물주변	온라인(인타넷)공간	기타
폭력 경험자 <sup>1)</sup>	전체	2016	373	43.9	19.7	3.1	5.3	3.4	0.6	4.0	2.3	13.8	3.7
		2018	420	38.5	24.3	2.0	7.9	1.2	0.9	3.0	0.6	17.1	4.5
		2020	229	16.0	16.5	1.7	10.7	1.8	0.0	2.6	1.1	44.7	4.8
	성별	남자	2016	191	60.1	18.8	3.6	3.2	2.0	2.2	1.6	2.9	4.9
			2018	188	46.6	24.6	3.2	8.4	0.7	4.1	0.6	8.3	3.2
			2020	82	28.0	23.8	2.8	11.3	2.2	4.6	2.2	19.8	5.2
		여자	2016	182	27.1	20.7	2.6	7.5	4.9	5.9	3.0	25.2	2.5
			2018	231	31.9	24.2	0.9	7.6	1.6	2.1	0.6	24.2	5.6
			2020	148	9.4	12.4	1.1	10.4	1.7	1.5	0.5	58.4	4.6
	학교급	초등학교	2016	141	45.4	22.1	6.1	7.3	0.0	7.0	3.8	4.0	3.5
			2018	126	33.3	20.3	3.7	12.6	0.6	6.2	0.8	15.0	6.9
			2020	105	21.5	19.9	2.1	18.0	0.0	3.3	1.7	27.5	6.0
		중학교	2016	125	50.1	21.0	1.2	2.9	3.0	2.2	0.0	17.0	2.8
			2018	152	41.7	27.8	0.9	4.6	0.9	2.6	0.0	17.5	3.0
			2020	66	11.5	15.7	2.7	0.0	1.8	3.8	1.1	62.0	1.3
		고등학교	2016	108	35.0	15.2	1.5	5.5	8.4	2.2	3.0	23.1	5.1
			2018	141	39.7	24.2	1.6	7.3	2.2	0.6	1.0	18.4	3.9
			2020	59	11.4	11.2	0.0	9.9	5.2	0.0	0.0	55.7	6.7
응답자 전체 <sup>2)</sup>	전체	2016	15,617	1.0	0.5	0.1	0.1	0.1	0.0	0.1	0.1	0.3	0.1
		2018	15,657	1.0	0.7	0.1	0.2	0.0	0.0	0.1	0.0	0.5	0.1
		2020	14,536	0.3	0.3	0.0	0.2	0.0	0.0	0.0	0.0	0.7	0.1
	성별	남자	2016	8,145	1.4	0.4	0.1	0.1	0.0	0.0	0.0	0.1	0.1
			2018	8,129	1.1	0.6	0.1	0.2	0.0	0.1	0.0	0.2	0.1
			2020	7,560	0.3	0.3	0.0	0.1	0.0	0.0	0.0	0.2	0.1
		여자	2016	7,473	0.7	0.5	0.1	0.2	0.1	0.1	0.1	0.6	0.1
			2018	7,528	1.0	0.7	0.0	0.2	0.1	0.1	0.0	0.7	0.2
			2020	6,976	0.2	0.3	0.0	0.2	0.0	0.0	0.0	1.2	0.1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57	1.4	0.7	0.2	0.2	0.0	0.2	0.1	0.1	0.1
			2018	4,747	0.9	0.5	0.1	0.3	0.0	0.2	0.0	0.4	0.2
			2020	4,883	0.5	0.4	0.0	0.4	0.0	0.1	0.0	0.6	0.1
		중학교	2016	5,245	1.2	0.5	0.0	0.1	0.1	0.1	0.0	0.4	0.1
			2018	4,943	1.3	0.9	0.0	0.1	0.0	0.1	0.0	0.5	0.1
			2020	4,640	0.2	0.2	0.0	0.0	0.0	0.1	0.0	0.9	0.0
		고등학교	2016	5,915	0.6	0.3	0.0	0.1	0.2	0.0	0.1	0.4	0.1
			2018	5,967	0.9	0.6	0.0	0.2	0.1	0.0	0.0	0.4	0.1
			2020	5,013	0.1	0.1	0.0	0.1	0.1	0.0	0.0	0.7	0.1

\* 주: 1)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성폭력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임.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1】 청소년 성폭력 피해 장소

### ③ 성폭력 가해자 유형

-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47.4%로 가장 많았음.
- 여자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고, 남자청소년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64.2%로 가장 많음.
- '16년 조사 이후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람'이나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모든 성별 및 학교급에서 '18년에 비해 증가함.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해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33.3%,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고, 여자청소년(38.2%)의 경우보다 26.0%p 높음.
  - 한편, 여자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고, 남자청소년(23.3%)의 경우에 비해 15.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잘 모르는 사람'(50.5%)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6년 조사 이후,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잘 모르는 사람',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이나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16년 이후 여자청소년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은 남자 및 여자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경험은 모든 성별과 중, 고등학교에서 '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년에 증가하였음.

표 III-43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2016	373	73.7	6.8	3.8	15.1	0.6	
	2018	424	73.5	7.5	6.2	10.7	2.1	
	2020	221	47.4	9.1	9.9	33.3	0.2	
성별	남자	2016	191	86.2	5.0	0.9	6.6	1.2
		2018	193	83.9	5.0	4.3	4.3	2.5
		2020	79	64.2	7.6	4.1	23.3	0.7
	여자	2016	182	60.6	8.7	6.8	23.9	0.0
		2018	231	64.8	9.6	7.8	16.1	1.6
		2020	143	38.2	9.8	13.2	38.8	0.0
학교급	초등학교	2016	139	85.2	5.0	1.0	7.1	1.7
		2018	126	75.6	8.2	6.1	9.2	0.9
		2020	97	64.3	8.6	5.4	21.7	0.0
	중학교	2016	125	75.3	3.1	4.9	16.7	0.0
		2018	152	77.8	5.6	6.3	10.3	0.0
		2020	66	39.1	6.4	18.6	35.1	0.8
	고등학교	2016	109	57.1	13.5	6.0	23.4	0.0
		2018	145	67.1	8.9	6.2	12.6	5.2
		2020	59	29.0	12.9	7.6	50.5	0.0

\* 주: 1)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유형

#### ④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성폭력 피해자 중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비율은 65.3%임.
  - 남자청소년(66.4%)의 경우 여자청소년(64.7%)에 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이 1.7%p 높음.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비율이 낮아짐.
- '16년 이후 중학생 피해자가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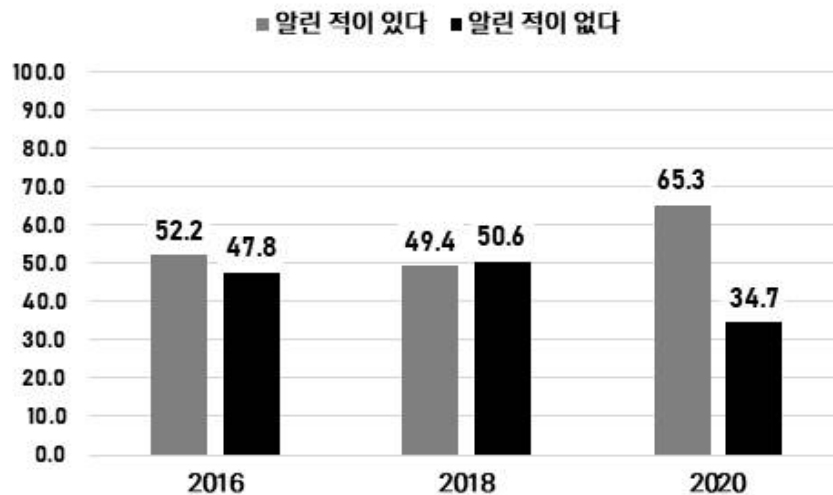
- 최근 1년 간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은 6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은 66.4%로 여자청소년(64.7%)보다 1.7%p 높음.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비율이 낮아짐(초등학생 73.6% > 중학생 60.5% > 고등학생 55.9%).
- '16년 조사 이후 '18년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은 다소 감소하다가, '20년에 다시 증가하였음('16년 52.2% → '18년 49.4% → '20년 65.3%).
  -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은 '18년에 감소하다가 '20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6년 이후 중학생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이 '18년에 감소하다가 '20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I-44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성별·학교급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린 적이 있다	알린 적이 없다	
전체		2016	369	52.2	47.8
		2018	428	49.4	50.6
		2020	240	65.3	34.7
성별	남자	2016	187	40.3	59.7
		2018	195	36.8	63.2
		2020	84	66.4	33.6
	여자	2016	182	64.6	35.4
		2018	233	59.9	40.1
		2020	155	64.7	35.3
학교급	초등학교	2016	137	63.6	36.4
		2018	126	57.2	42.8
		2020	109	73.6	26.4
	중학교	2016	123	41.9	58.1
		2018	155	55.0	45.0
		2020	69	60.5	39.5
	고등학교	2016	108	49.7	50.3
		2018	147	36.8	63.2
		2020	62	55.9	44.1

\* 주: 1)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3】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 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은 주로 가족(62.4%), 친구나 선후배(44.6%), 선생님(28.1%) 등의 순임. 지원기관(8.2%)이나 경찰(5.6%)에 알렸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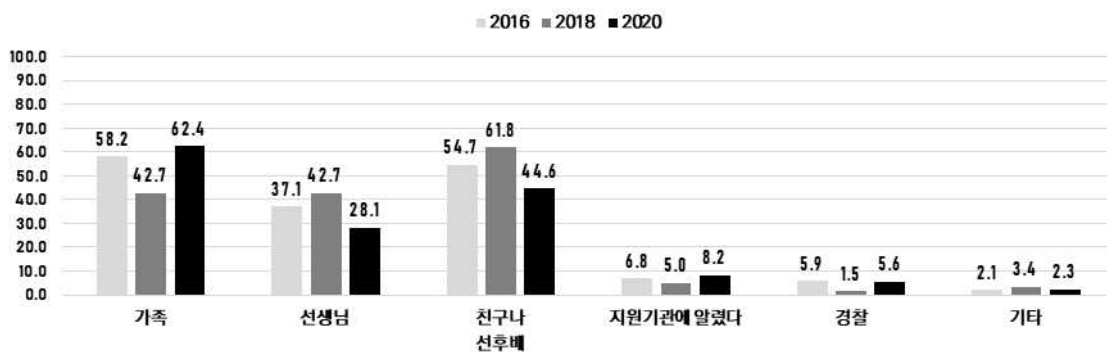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62.4%)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44.6%), 선생님(2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기관(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 성폭력상담소 등)(8.2%)이나 경찰(112)(5.6%)에 알렸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남자청소년은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이 가족(69.1%), 선생님(36.2%), 친구나 선후배(23.8%), 지원기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가족(58.7%), 친구나 선후배(56.2%), 선생님(23.5%), 경찰(8.6%), 지원기관(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학생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6년 조사 이후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족, 지원기관, 경찰에 알렸다는 비율은 '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년에 증가하였음.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원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이 201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이나 관련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III-45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에게 알렸다	선생님에게 알렸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지원기관에 알렸다 (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성폭력상담소 등)	경찰 (112)에 알렸다	기타
전체	2016	193	58.2	37.1	54.7	6.8	5.9	2.1
	2018	211	42.7	42.7	61.8	5.0	1.5	3.4
	2020	154	62.4	28.1	44.6	8.2	5.6	2.3
성별	남자	2016	75	64.3	50.0	33.4	1.8	4.8
		2018	72	45.2	55.2	34.1	6.0	1.3
		2020	55	69.1	36.2	23.8	14.3	0.0
	여자	2016	117	54.3	28.8	68.4	10.0	6.5
		2018	140	41.4	36.3	76.0	4.6	1.6
		2020	99	58.7	23.5	56.2	4.8	8.6
학교급	초등학교	2016	87	77.3	37.7	41.5	5.2	1.2
		2018	72	57.5	44.9	40.3	6.5	0.0
		2020	80	77.8	35.0	33.9	4.6	0.9
	중학교	2016	52	42.6	47.9	56.2	8.8	2.7
		2018	85	32.9	50.1	69.2	4.9	0.0
		2020	40	51.5	22.6	41.6	12.1	7.6
	고등학교	2016	54	42.3	25.7	74.6	7.5	16.4
		2018	54	38.4	28.1	78.8	3.4	5.9
		2020	35	39.7	18.5	72.8	12.0	13.8

\* 주: 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4】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린 대상(중복응답)



## ⑥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된 정도

-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68.8%임.
-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3.9%에 이르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66.0%로 남자청소년에 비해 7.9%p 낮음. 다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응답도 14.1%에 달함.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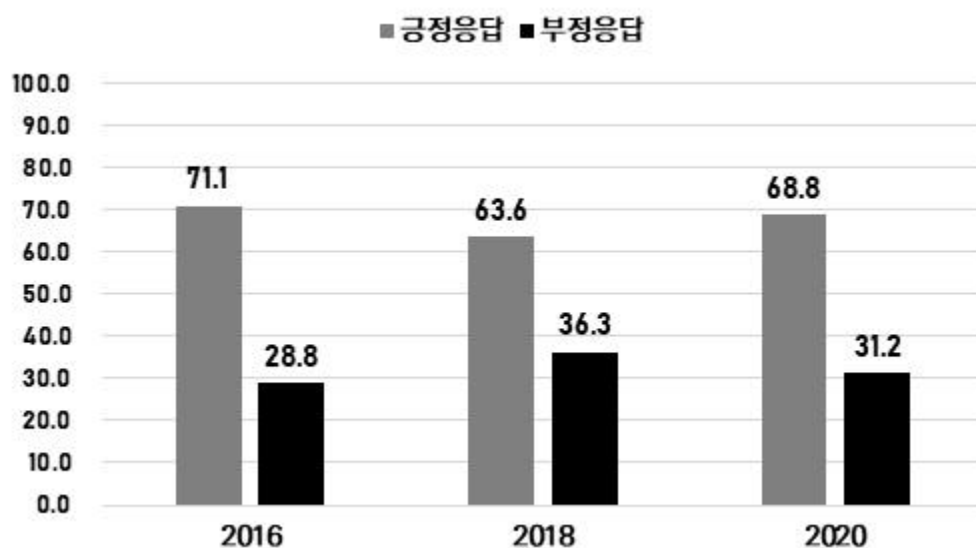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3.0%,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5.8%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68.8%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3.9%에 이르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66.0%로 남자청소년에 비해 7.9%p 낮음.
-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14.1%로 여자청소년(6.5%)에 비해 7.6%p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들에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69.5%), 고등학생(62.8%)의 순임.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13.1%로 중학생(4.1%), 고등학생(6.3%)에 비해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2차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보호와 추후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 ‘16년 이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은 ‘18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년에 다시 증가함.
-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I-46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	
전체	2016	190	27.9	43.2	9.1	19.7	
	2018	211	16.1	47.5	12.0	24.3	
	2020	152	23.0	45.8	9.2	22.0	
성 별	남자	2016	74	34.4	37.4	14.4	13.8
		2018	72	26.7	46.4	21.1	5.8
		2020	53	24.5	49.4	14.1	12.0
	여자	2016	115	23.8	47.0	5.7	23.6
		2018	140	10.7	48.1	7.4	33.8
		2020	98	22.1	43.9	6.5	27.4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85	27.2	42.3	12.4	18.1
		2018	72	21.8	54.3	13.8	10.1
		2020	79	22.0	47.5	13.1	17.4
	중학교	2016	52	38.2	36.3	8.6	16.8
		2018	85	15.3	43.9	13.7	27.1
		2020	41	24.2	48.0	4.1	23.7
	고등 학교	2016	53	19.2	51.4	4.2	25.3
		2018	54	9.9	44.3	7.0	38.7
		2020	32	23.9	38.9	6.3	30.9

\* 주: 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5】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도움이 된 정도

## 7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청소년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음.
- ‘16년 이후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임.

▶ 관련 정책: 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단속 강화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중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3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5.5%),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13.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10.5%),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9.7%),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7.8%) 등의 순임.
  - 이는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민감성을 높이고,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남자청소년의 경우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여자청소년(5.0%)의 응답에 비해 23.8%p 높았음.
  - 여자청소년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7%로 남자청소년(22.2%)의 응답에 비해 15.5%p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46.1%)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이에 비해 초등학생(31.7%)과 중학생(42.2%)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6년 조사 이후,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16년 이후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16년 5.5% → ‘18년 6.4% → ‘20년 13.3%)인 반면,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16년 16.4% → ‘18년 11.3% → ‘20년 7.8%)임.
  -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에게서 ‘16년 이후 증가 추세임. 반면,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자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서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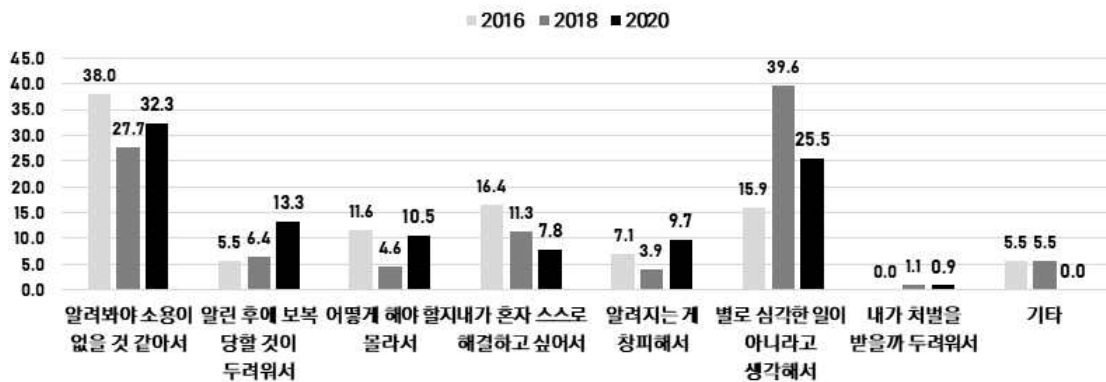
표 III-47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려지는 게 창피 해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기타	
전체	2016	176	38.0	5.5	11.6	16.4	7.1	15.9	-	5.5	
	2018	212	27.7	6.4	4.6	11.3	3.9	39.6	1.1	5.5	
	2020	74	32.3	13.3	10.5	7.8	9.7	25.5	0.9	0.0	
성별	남자	2016	112	34.2	6.0	12.1	18.7	6.2	16.8	-	6.1
		2018	122	25.5	6.3	4.6	11.7	1.9	42.2	0.0	7.8
		2020	26	22.2	28.8	3.2	12.3	11.0	19.8	2.7	0.0
	여자	2016	64	44.8	4.7	10.8	12.4	8.5	14.3	-	4.5
		2018	90	30.7	6.5	4.6	10.7	6.6	36.0	2.6	2.3
		2020	48	37.7	5.0	14.4	5.4	8.9	28.6	0.0	0.0
학교급	초등학교	2016	50	31.0	10.5	26.3	17.2	4.3	4.8	-	6.0
		2018	54	35.0	9.6	9.3	13.0	2.2	25.2	1.8	3.9
		2020	24	31.7	20.7	15.5	9.5	10.8	11.7	0.0	0.0
	중학교	2016	72	39.4	2.2	9.2	12.6	9.0	21.8	-	5.8
		2018	67	24.8	8.9	5.2	5.3	1.8	48.8	0.0	5.1
		2020	27	42.2	12.7	5.6	5.2	12.2	19.4	2.6	0.0
	고등학교	2016	55	42.7	5.3	1.4	20.5	7.1	18.4	-	4.6
		2018	91	25.5	2.7	1.5	14.6	6.4	41.2	1.5	6.7
		2020	24	21.4	6.7	11.1	9.1	5.5	46.1	0.0	0.0

\* 주: 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6】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 ⑧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함.
- '16년 조사 이후 초등학생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

▶ 관련 정책: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4-3-2. 폭력 피해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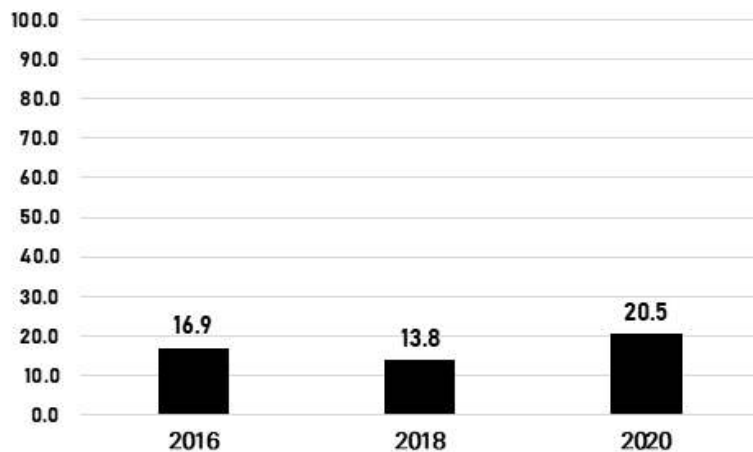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 특히, 남자청소년(27.8%)에 비해 여자청소년(16.3%)들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5%p 낮았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13.1%),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18.2%), 초등학생(26.4%)의 순으로 나타남.
  - '16년 조사 이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년에 증가하였음. '16년 이후 초등학생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
- 도움을 받은 지원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가 60.0%로 가장 많았고,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이 30.5%,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23.1%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은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와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는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와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와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은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와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6년 조사 이후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증가함.

구분	사례수	도움 받은 적 있음	도움을 받은 지원기관(중복응답) <sup>1)</sup>							
			학교 (Wee 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병원/보건소 등 의료 기관	전문상담 기관(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학교폭력신고 센터 (117)	청소년 시설(청소년쉘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단체·기관 등)	기타	
전체	2016	364	16.9	78.3	6.5	23.0	-	10.5	5.7	1.5
	2018	426	13.8	70.3	14.7	17.1	-	5.2	3.2	2.7
	2020	225	20.5	60.0	23.1	30.5	20.1	6.2	7.8	0.0
성별	남자	2016	186	14.7	83.4	10.1	14.3	-	9.2	3.4
		2018	194	12.0	72.3	12.8	15.8	-	9.6	2.9
		2020	82	27.8	43.9	23.8	40.7	19.4	0.0	0.0
	여자	2016	179	19.3	74.2	3.6	30.1	-	11.6	0.0
		2018	232	15.3	69.0	16.0	18.0	-	2.2	3.8
		2020	144	16.3	76.1	22.3	20.3	20.7	12.4	6.8
학교급	초등학교	2016	138	18.1	78.9	5.7	15.4	-	8.6	0.0
		2018	126	18.3	65.7	25.8	8.3	-	5.1	0.0
		2020	104	26.4	51.3	23.0	16.3	19.0	0.0	8.9
	중학교	2016	121	19.6	74.2	0.0	22.9	-	6.2	6.1
		2018	153	15.7	83.7	3.6	24.4	-	3.3	0.0
		2020	66	13.1	77.6	41.2	58.8	23.0	23.0	0.0
	고등학교	2016	105	12.3	84.5	19.7	37.9	-	22.1	16.1
		2018	147	8.1	52.0	15.8	19.3	-	9.1	15.8
		2020	55	18.2	68.1	7.4	43.6	20.5	8.1	11.7

\* 주: 1)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올해 처음 조사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7】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⑨ 성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최근 1년 간 청소년의 89.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8.3%였음. 2016년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증가하였으나, 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감소함.
- 조사대상 청소년의 61.1%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77.2%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조사대상 청소년의 78.1%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78.6%는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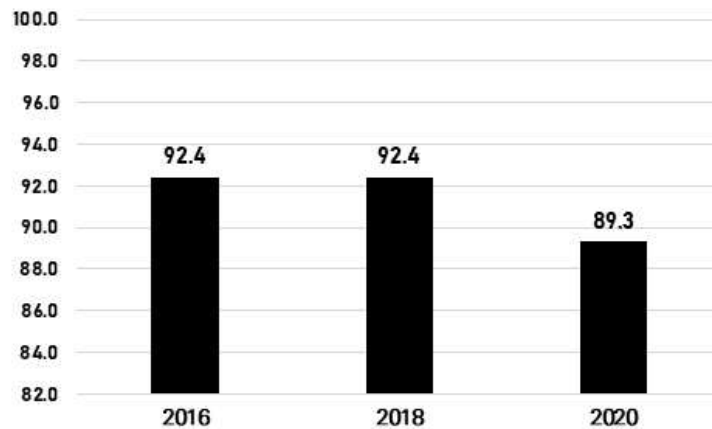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89.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남자청소년(88.7%)에 비해 여자청소년(89.9%)이 1.2%p 높았음.
  - 학교급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중학생이 가장 높음(중학생 91.0% > 초등학교 89.7% > 고등학교 87.3%).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남자청소년과 초등학교, 중학생에게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8.3%(‘매우 도움이 됨 25.5% + 도움이 됨 52.8%)로 나타남.
  -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초등학교가 93.3%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8.8%, 고등학교 63.0%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감소함.
  - '16년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증가함('16년 73.7% → '18년 75.4% → '20년 78.3%).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도 동일한 추세로 나타남.

구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sup>1)</sup>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2016	92.4	11.2	15.1	48.9	24.8		
	2018	92.4	10.6	14.1	50.3	25.1		
	2020	89.3	9.1	12.7	52.8	25.5		
성별	남자	2016	92.4	13.2	14.1	47.4	25.4	
		2018	91.7	12.0	12.5	49.8	25.7	
		2020	88.7	11.3	11.1	51.7	25.9	
	여자	2016	92.4	9.0	16.3	50.5	24.2	
		2018	93.1	9.1	15.8	50.7	24.4	
		2020	89.9	6.7	14.4	53.8	25.1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92.3	1.9	4.6	41.3	52.1
			2018	91.6	1.8	4.0	42.4	51.8
			2020	89.7	2.3	4.4	46.8	46.5
중학교		2016	94.7	10.4	14.4	55.5	19.7	
		2018	94.1	11.0	13.8	55.9	19.3	
		2020	91.0	8.0	13.3	57.7	21.1	
고등 학교		2016	90.5	19.0	23.9	48.5	8.7	
		2018	91.5	17.3	22.3	51.7	8.7	
		2020	87.3	16.9	20.1	53.7	9.3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8】 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61.1%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

-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은 남자청소년(62.5%)이 여자청소년(59.6%)에 비해 2.9%p 높았음.
- 교급별로는 고등학생(70.8%)이 중학생(63.3%)에 비해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이 높았으며,



올해 처음 조사한 초등학생은 48.7%로 가장 낮았음.

- '18년 조사에 비해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은 대체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이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고등학생의 경우 2020년에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이 다소 증가하였음('18년 67.7% → '20년 70.8%).

○ 성매매 예방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 24.2% + '도움이 되었다' 53.0%)는 응답은 77.2%임.

- 성매매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남자청소년(75.5%)에 비해 여자청소년(79.2%)이 3.7%p 높았음.
- 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초등학생 92.7% > 중학생 79.8% > 고등학생 65.1%)
- '18년 조사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8년 67.6%에서 '20년 77.2%로 9.6%p 증가함. 이는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초등학생에게서 성매매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III-50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	성매매 예방교육 도움 정도 <sup>1)</sup>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2018	66.3	15.2	17.2	52.9	14.7	
	2020	61.1	10.4	12.3	53.0	24.2	
성별	남자	2018	69.5	17.9	14.6	50.9	16.6
		2020	62.5	13.3	11.1	50.5	25.0
	여자	2018	62.8	11.9	20.3	55.3	12.5
		2020	59.6	7.2	13.6	55.8	23.4
학교 급	초등학 교 <sup>2)</sup>	2018	-	-	-	-	-
		2020	48.7	3.3	3.9	44.2	48.5
	중학교	2018	64.5	11.7	12.8	54.4	21.2
		2020	63.3	8.5	11.7	57.8	22.0
	고등 학교	2018	67.7	17.9	20.7	51.8	9.6
		2020	70.8	16.7	18.2	54.8	10.3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률 및 도움 정도의 경우 '18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이에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를 '18년 자료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78.1%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은 남자청소년(77.7%)에 비해 여자청소년(78.6%)이 0.9%p 높았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2.1%)이 고등학생(79.8%)과 초등학생(72.6%)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8.6%('매우 도움이 됨' 24.7% + '도움이 됨' 53.9%)로 나타남.
-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남자청소년(77.1%)에 비해 여자청소년(80.2%)에게서 높게 나타남.
  - 학교급이 낮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초등학생 92.0% > 중학생 80.6% > 고등학생 65.2%).

표 III-5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움 정도 <sup>1)</sup>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78.1	9.1	12.2	53.9	24.7
성별	남자	77.7	11.8	11.1	51.2	25.9
	여자	78.6	6.3	13.4	56.8	23.4
학교급	초등학교	72.6	2.7	5.2	45.7	46.3
	중학교	82.1	7.5	11.9	59.5	21.1
	고등학교	79.8	16.3	18.5	55.7	9.5

- \* 주: 1) 본 문항은 올해 처음 조사함.  
 2)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10 성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최근 1년 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9.5%임.
- 성교육이 성(性)에 대해 아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8.6%(초등학생 92.0% > 중학생 80.6% > 고등학생 65.2%)였음.
- '16년 이후 성교육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교육이 성(性)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점차 증가함.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 최근 1년 간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79.5%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78.8%)이 여자청소년(80.3%)에 비해 성교육을 받은 경험률이 1.5%p 낮았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8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80.5%), 초등학교(73.8%)의 순으로 나타남.
-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이 성(性)에 대해 아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8.6%(매우 도움이 됨 24.7% + 도움이 됨 53.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77.1%)이 여자청소년(80.2%)에 비해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p 낮았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80.6%, 고등학교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낮을수록 성교육이 성(性)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적합한 성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16년 이후 성교육 경험률은 감소('16년 85.4% → '18년 84.6% → '20년 79.5%)하고 있는 반면, 성교육이 성(性)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점차 증가('16년 72.9% → '18년 74.4% → '20년 78.6%)함.
  - 성교육 경험률은 2016년 이후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게서,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비해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 응답률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게서,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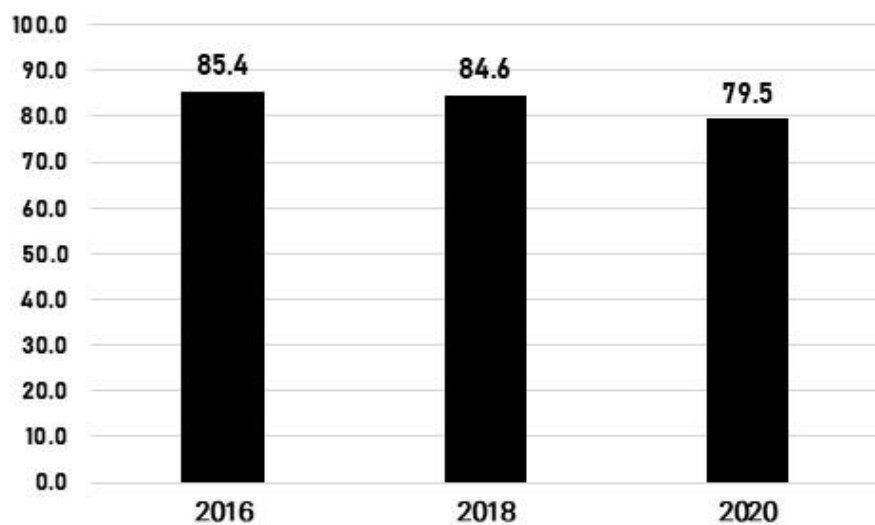
표 III-52 성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성교육 경험률	성교육 도움 정도 <sup>1)</sup>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2016	15,608	85.4	11.1	16.1	51.5	21.4
		2018	15,600	84.6	9.3	16.3	53.8	20.6
		2020	14,080	79.5	9.1	12.2	53.9	24.7
성 별	남자	2016	8,132	84.8	13.2	15.2	49.3	22.4
		2018	8,089	83.3	10.7	15.1	52.6	21.6
		2020	7,280	78.8	11.8	11.1	51.2	25.9
	여자	2016	7,476	86.1	8.8	17.1	53.9	20.3
		2018	7,512	86.0	7.8	17.6	55.0	19.6
		2020	6,800	80.3	6.3	13.4	56.8	23.4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4,446	81.7	2.2	4.9	49.2	43.7
		2018	4,729	77.0	1.8	5.9	49.7	42.6
		2020	4,601	73.8	2.7	5.2	45.7	46.3
	중학교	2016	5,246	90.7	10.0	15.9	56.8	17.3
		2018	4,918	90.0	8.9	16.2	57.4	17.5
		2020	4,542	84.3	7.5	11.9	59.5	21.1
	고등 학교	2016	5,916	83.6	18.7	24.5	48.1	8.8
		2018	5,953	86.2	14.9	23.8	53.5	7.8
		2020	4,936	80.5	16.3	18.5	55.7	9.5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9】 성교육 경험

## 2-3. 가출

### ① 가출 고민 경험

-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0.2%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1.9% > 고등학생 11.2% > 초등학생 7.4% 순임.
  - '16년 이후 가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모든 성별과 학교급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함.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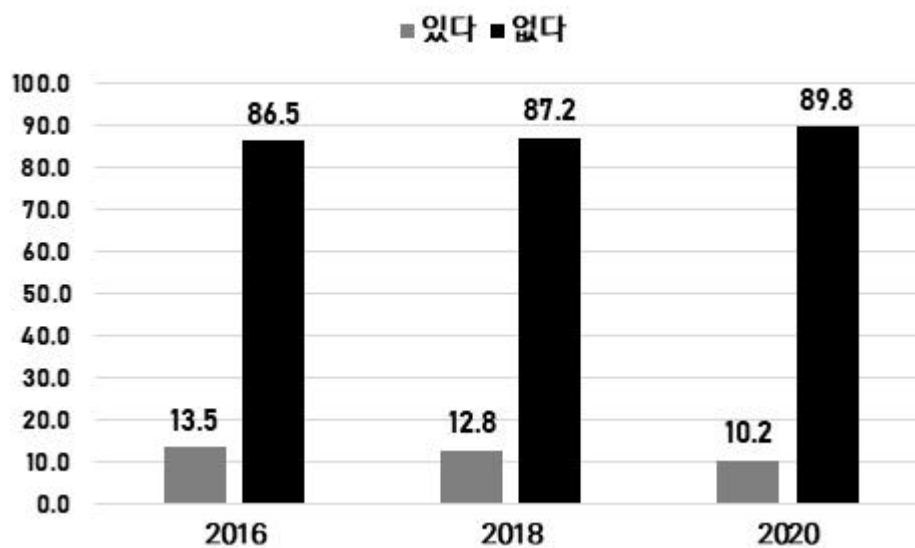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10.2%가 가출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0%로 남자청소년(9.4%)에 비해 1.6%p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에게서 가출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11.2%, 초등학생 7.4%의 순으로 나타남.
  - '16년, '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모든 성별과 학교급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함.

표 III-53 가출을 고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016	15,624	13.5	86.5
		2018	15,640	12.8	87.2
		2020	14,308	10.2	89.8
성별	남자	2016	8,147	13.1	86.9
		2018	8,117	11.0	89.0
		2020	7,400	9.4	90.6
	여자	2016	7,477	13.9	86.1
		2018	7,523	14.8	85.2
		2020	6,908	11.0	89.0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54	9.5	90.5
		2018	4,744	8.4	91.6
		2020	4,715	7.4	92.6
	중·고등학교	2016	11,170	15.1	84.9
		2018	10,896	14.7	85.3
		2020	9,594	11.5	88.5
	└ 중학교	2016	5,249	16.7	83.3
		2018	4,932	15.5	84.5
		2020	4,599	11.9	88.1
	└ 고등학교	2016	5,921	13.7	86.3
		2018	5,964	14.1	85.9
		2020	4,995	11.2	88.8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0】 가출을 고민한 경험

## ② 가출 경험

-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5%임.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출 횟수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1회 가출했다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음.
-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률은 '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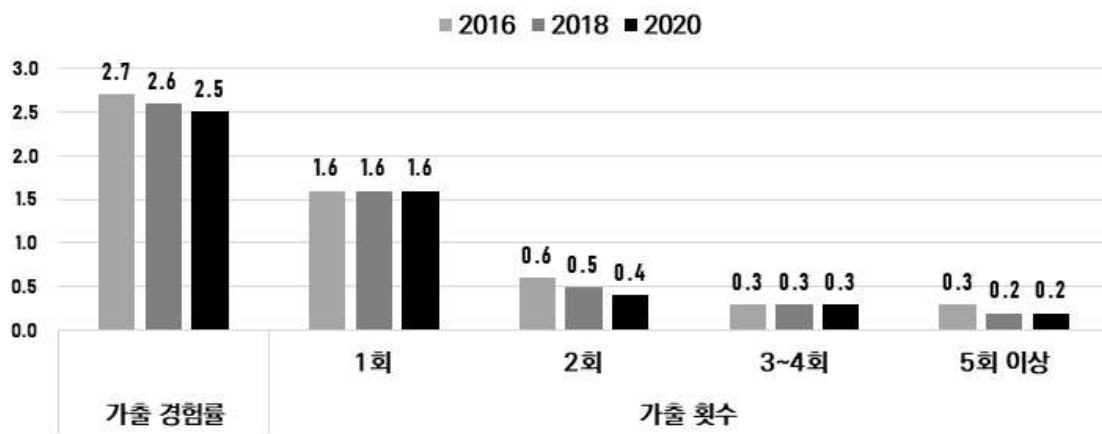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5%임.
  - 남자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2.6%, 여자청소년 2.3%로 남자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이 0.3%p 높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등학생 2.6%, 초등학생 2.1%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가출 횟수를 살펴보면, 1회 가출했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1.6%), 2회 0.4%, 3~4회 0.3%, 5회 이상 0.2%로 나타나 가출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짐을 볼 수 있음.
- '16년 이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률은 '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16년 2.7% → '18년 2.6% → '20년 2.5%).
  - 남자청소년의 경우 2016년 이후 감소('16년 3.3% → '18년 2.7% → '20년 2.6%)하는 추세임.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2018년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출은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가출은 증가하였음.
- 전체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2019년 교육통계연보의 전국 초(초4 이상)·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은 약 10만 1천명(101,581명)으로 예측됨.
  - 성별로 살펴보면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약 5만 4천명(54,795명)이며, 여자청소년은 약 4만 4천명(44,982명)으로 추정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약 2만 8천명(28,515명), 중학생 약 3만 4천명(34,948명), 고등학생 약 3만 6천명(36,687명)이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I-54 가출 경험률 및 가출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출 경험률	가출 횟수			
				1회	2회	3~4회	5회 이상
전체	2016	14,973	2.7	1.6	0.6	0.3	0.3
	2018	15,452	2.6	1.6	0.5	0.3	0.2
	2020	14,431	2.5	1.6	0.4	0.3	0.2
성별	남자	2016	3.3	1.9	0.7	0.4	0.3
		2018	2.7	1.5	0.6	0.4	0.2
		2020	2.6	1.6	0.5	0.2	0.2
	여자	2016	2.1	1.2	0.4	0.3	0.2
		2018	2.5	1.7	0.4	0.3	0.2
		2020	2.3	1.6	0.3	0.3	0.2
학급	초등학교	2016	1.6	1.0	0.4	0.2	0.0
		2018	1.3	0.9	0.1	0.1	0.0
		2020	2.1	1.4	0.4	0.2	0.1
	중·고등학교	2016	3.2	1.8	0.6	0.4	0.3
		2018	3.2	1.9	0.6	0.4	0.3
		2020	2.7	1.7	0.5	0.3	0.2
	└ 중학교	2016	3.6	2.0	0.6	0.6	0.4
		2018	3.4	2.0	0.6	0.5	0.3
		2020	2.7	1.7	0.5	0.2	0.2
	└ 고등학교	2016	2.8	1.7	0.6	0.2	0.3
		2018	3.1	1.8	0.7	0.4	0.2
		2020	2.6	1.7	0.4	0.3	0.1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1】 가출 경험률 및 가출 횟수



### ③ 가출 원인

-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 74.1%로 가장 높음.
-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고등학생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 최근 1년 간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에게 가출하게 된 주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였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7.8%), '공부에 대한 부담감'(4.8%), '가출에 대한 호기심'(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71.1%)에 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8.4%), '가출에 대한 호기심'(6.8%), '공부에 대한 부담감'(3.6%) 등이 주요 이유인 것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77.7%)에 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7.0%), '공부에 대한 부담감'(6.2%),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2.8%) 등이 주요 이유였음.
- 학교급별로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응답이 고등학생이 77.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7.4%, 초등학생 65.6%의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응답이 80.4%로 직업계고의 70.8%에 비해 9.6%p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6년 이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가출에 대한 호기심',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학교 다니기 싫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음.
  - '16년 이후 남자청소년들은 '가출에 대한 호기심',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반면, '학교 다니기 싫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출했다는 응답은 감소함. 이에 비해 여자청소년들은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반면, '가출에 대한 호기심', '학교 다니기 싫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은 감소함.
  - '16년 이후로 초등학생들은 '가족과의 갈등',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가출했다는 응답이

감소함. 중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 ‘학교 다니기 싫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응답이 감소함. 고등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 ‘학교 다니기 싫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출했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가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출했다는 응답은 증가함.

표 III-55

가출 원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출에 대한 호기심	가족과 의 갈등	어려운 가정 형편	학교 다니기 싫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후배 권유	자유롭 게 살고 싶어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기타	
전체	2016	403	1.8	74.8	1.2	4.7	6.1	1.2	8.0	0.3	1.9	
	2018	403	2.7	70.0	0.8	3.2	3.9	0.7	7.1	0.5	11.1	
	2020	347	4.3	74.1	1.3	1.2	4.8	0.9	7.8	1.8	3.8	
성 별	남자	2016	258	1.8	73.0	1.8	4.8	6.1	1.9	7.1	0.5	3.0
		2018	217	3.9	69.1	0.9	4.2	3.9	0.7	7.0	0.9	9.3
		2020	191	6.8	71.1	1.8	1.4	3.6	0.7	8.4	1.1	5.2
	여자	2016	145	1.7	78.0	0.0	4.4	6.2	0.0	9.7	0.0	0.0
		2018	186	1.3	71.1	0.7	2.0	3.9	0.8	7.2	0.0	13.1
		2020	156	1.3	77.7	0.7	1.0	6.2	1.3	7.0	2.8	2.1
학 교 급	초등학교	2016	68	3.4	69.5	1.7	3.2	9.6	2.7	6.5	0.3	3.1
		2018	58	1.4	66.8	0.0	4.6	7.4	1.7	10.9	0.0	7.2
		2020	101	5.7	65.6	1.9	0.0	7.4	1.0	9.7	4.6	4.1
	중학교	2016	179	1.3	73.8	2.0	5.3	5.8	0.7	8.4	0.0	2.6
		2018	165	3.8	66.1	1.2	2.8	3.5	0.9	6.3	0.0	15.4
		2020	118	2.7	77.4	0.5	2.6	5.6	0.0	6.0	1.4	3.7
	고등학교	2016	155	1.6	78.3	0.0	4.5	5.0	1.1	8.3	0.7	0.5
		2018	180	2.1	74.7	0.7	3.1	3.2	0.3	6.5	1.0	8.4
		2020	128	4.8	77.6	1.5	0.8	1.9	1.8	7.9	0.0	3.6
	└ 일반계고	2016	119	0.9	81.4	0.0	3.1	5.5	1.5	7.6	0.0	0.0
		2018	144	1.4	76.0	0.9	3.3	3.7	0.0	5.8	1.3	7.7
		2020	91	4.7	80.4	1.0	0.0	2.3	1.0	5.9	0.0	4.8
	└ 직업계고	2016	36	4.2	68.0	0.0	9.1	3.2	0.0	10.3	2.8	2.3
		2018	36	5.1	69.4	0.0	2.3	1.1	1.5	9.4	0.0	11.1
		2020	37	5.1	70.8	2.8	2.8	1.1	3.9	12.8	0.0	0.7

\* 주: 1)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2】 가출 원인

#### ④ 가출 기간

-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가장 최근 가출 기간 조사 결과, ‘하루’는 63.3%, ‘2~5일’은 20.4%, ‘한 달 이상’ 8.0%의 순으로 나타남.
- 하루 동안의 가출 경험과 한 달 이상의 가출 경험 비율 모두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러한 비율이 점차 낮아짐.
- '16년 이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하루’ 동안의 가출 경험과 ‘10~30일’ 동안의 가출 경험은 증가하고, ‘2~5일’ 간의 단기 가출 경험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 최근 1년 간 가출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가출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가 6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5일’ 20.4%, ‘한 달 이상’ 8.0%의 순으로 나타남.
  - 여자청소년의 경우 ‘하루’ 동안 가출했다는 응답이 66.6%로 남자청소년 60.5%에 비해 6.1%p 높게 나타남. 또한 ‘한 달 이상’ 가출한 경우는 남자청소년이 10.1%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이 5.6%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장기간의 가출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교급별로는 ‘하루’ 동안 가출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72.6%로 가장 많고, 중학생 65.7%, 고등학생 54.2%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높아질수록 ‘하루’ 동안 가출한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음. ‘한 달 이상’ 가출한 비율 역시 초등학생이 10.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중학생 8.2%, 고등학생 6.0%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한 달 이상’ 가출한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음.
  - '16년 이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하루’ 동안의 가출 경험('16년 60.2% → '18년 62.8% → '20년 63.3%)과 ‘10~30일’ 동안의 가출 경험('16년 2.2% → '18년 3.7% → '20년 4.5%)은 증가하고, ‘2~5일’ 간의 단기 가출 경험('16년 26.9% → '18년 21.0% → '20년 20.4%)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남자청소년의 경우 '16년 이후 ‘하루’ 동안의 단기 가출 경험과 ‘한 달 이상’의 장기 가출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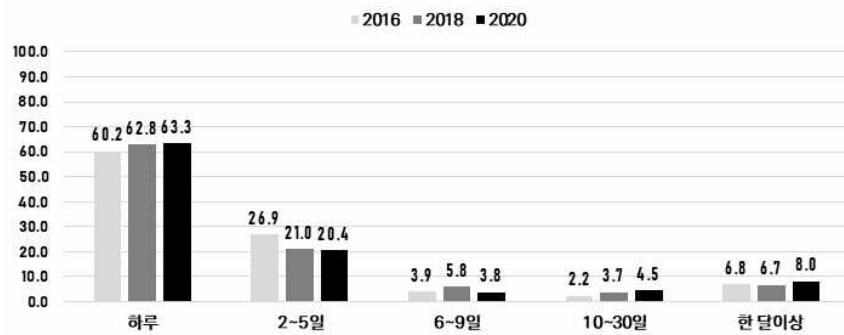
가출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하루	2~5일	6~9일	10~30일	한 달이상	
전체	2016	402	60.2	26.9	3.9	2.2	6.8	
	2018	402	62.8	21.0	5.8	3.7	6.7	
	2020	345	63.3	20.4	3.8	4.5	8.0	
성 별	남자	2016	255	56.7	29.5	3.7	2.6	7.5
		2018	215	57.0	22.8	6.5	5.3	8.5
		2020	187	60.5	21.2	3.1	5.0	10.1
	여자	2016	147	66.3	22.3	4.2	1.6	5.5
		2018	187	69.5	19.1	5.0	1.9	4.5
		2020	159	66.6	19.4	4.5	3.9	5.6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68	77.7	12.0	2.7	1.8	5.7
		2018	58	82.1	5.2	1.7	7.3	3.7
		2020	94	72.6	13.1	0.0	3.7	10.7
	중학교	2016	177	59.5	28.9	3.0	2.9	5.8
		2018	165	58.2	23.3	5.6	4.5	8.4
		2020	123	65.7	20.2	3.9	2.0	8.2
	고등 학교	2016	157	53.5	31.1	5.4	1.6	8.4
		2018	179	60.8	24.1	7.3	1.8	6.0
		2020	129	54.2	25.8	6.4	7.5	6.0

\* 주: 1)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3】 가출 기간

#### ⑤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6.4%에 불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9.3%에 그침.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을 지원하는 보호/상담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의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였음.
  -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청소년(45.2%)이 남자청소년(34.9%)에 비해 높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고등학교 51.6% > 중학교 42.1% > 초등학교 25.4%).
  -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이용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2%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6.4%는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39.8%가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가출 경험이 있고 ‘청소년 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들 중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3%로,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의 이용률이 다소 저조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조사대상의 45.0%였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청소년(51.6%)이 남자청소년(38.9%)에 비해 높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짐(고등학교 54.2% > 중학교 48.6% > 초등학교 31.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 중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2.9%였음.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6.4%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8%로 나타남.
  -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률이 13.8%인데 비해 가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용률이 2.6%였음.
-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조사대상의 55.0%였음.
  -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청소년(62.4%)이 남자청소년(48.1%)에 비해 높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짐(고등학교 66.6% > 중학교 58.6% > 초등학교 39.3%).
-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는 청소년 중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1.6%에 불과함.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1.6%는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청소년전화1388’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0%로 나타남.
-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전화1388’ 이용률이 8.0%인데 비해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이용률이 1.5%에 불과함.

○ 전반적으로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III-57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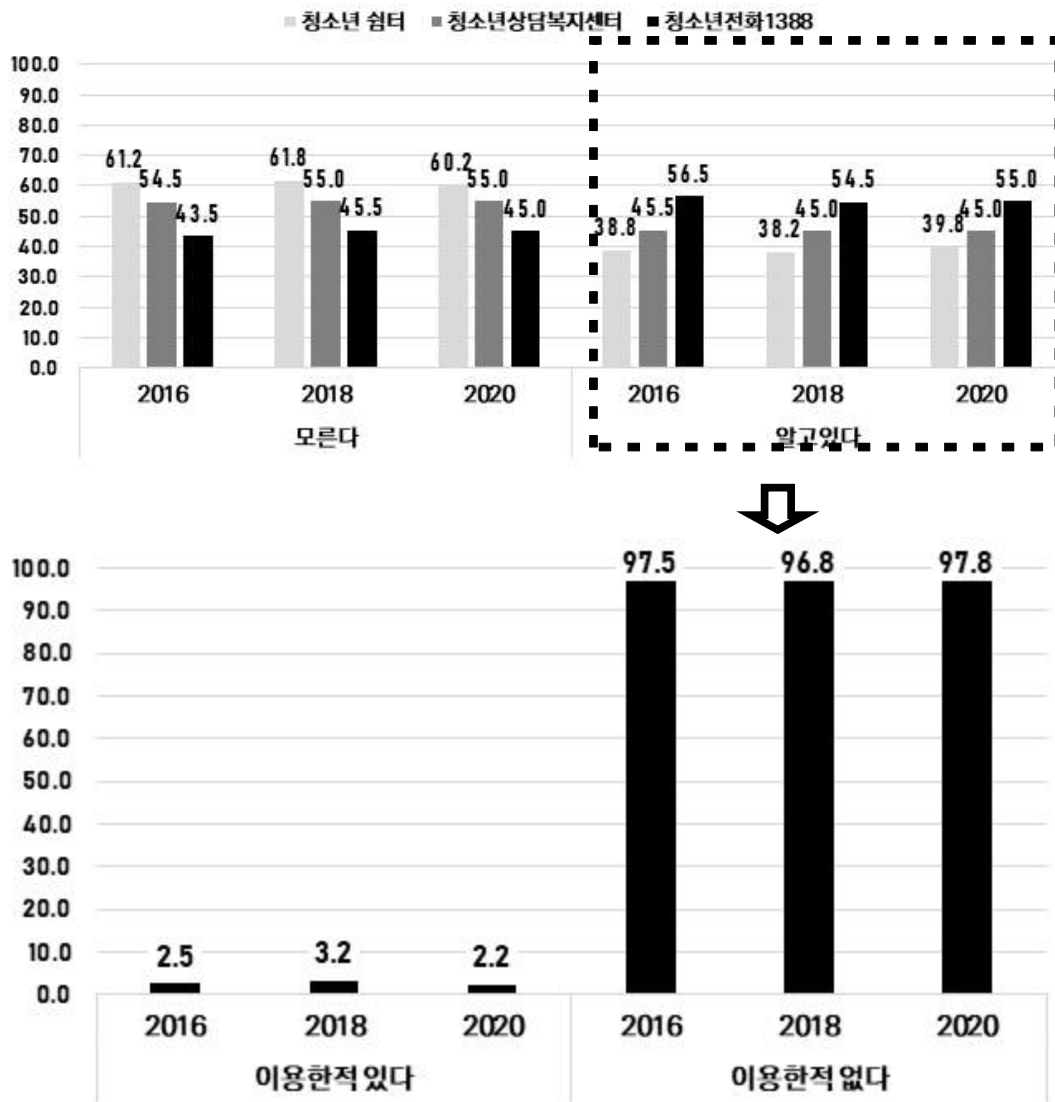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모른다	알고 있다	이용 여부 <sup>1)</sup>			
						이용한 적 있다	이용한 적 없다		
1) 청소년 쉼터	전체		2016	15,542	61.2	38.8	2.5	97.5	
			2018	15,594	61.8	38.2	3.2	96.8	
			2020	14,032	60.2	39.8	2.2	97.8	
	성별	남자	2016	8,097	64.9	35.1	3.1	96.9	
			2018	8,091	66.7	33.3	3.9	96.1	
			2020	7,304	65.1	34.9	3.0	97.0	
		여자	2016	7,444	57.2	42.8	2.0	98.0	
			2018	7,503	56.5	43.5	2.5	97.5	
			2020	6,729	54.8	45.2	1.6	98.4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41	79.0	21.0	3.5	96.5
				2018	4,732	81.7	18.3	4.7	95.3
				2020	4,669	74.6	25.4	3.3	96.7
	중학교		2016	5,226	58.8	41.2	2.6	97.4	
			2018	4,920	61.2	38.8	3.7	96.3	
			2020	4,490	57.9	42.1	1.7	98.3	
	고등학교		2016	5,874	49.9	50.1	2.2	97.8	
			2018	5,942	46.4	53.6	2.4	97.6	
			2020	4,874	48.4	51.6	2.1	97.9	
	가출 경험	없음	2016	14,500	61.4	38.6	2.2	97.8	
			2018	15,012	61.9	38.1	2.7	97.3	
			2020	13,661	60.2	39.8	2.1	97.9	
		있음	2016	409	52.3	47.7	9.7	90.3	
			2018	405	55.2	44.8	14.7	85.3	
			2020	285	53.6	46.4	9.3	90.7	
2) 청소년 상담복지	전체		2016	15,540	54.5	45.5	2.4	97.6	
			2018	15,600	55.0	45.0	2.7	97.3	
			2020	14,020	55.0	45.0	2.9	97.1	

구분				사례수	모른다	알고 있다	이용 여부 <sup>1)</sup>	
							이용한 적 있다	이용한 적 없다
센터	성별	남자	2016	8,096	59.8	40.2	3.0	97.0
			2018	8,091	60.4	39.6	2.5	97.5
			2020	7,295	61.1	38.9	3.3	96.7
		여자	2016	7,444	48.7	51.3	2.0	98.0
			2018	7,509	49.2	50.8	2.8	97.2
			2020	6,725	48.4	51.6	2.5	97.5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41	66.7	33.3	3.0	97.0
			2018	4,735	70.8	29.2	3.4	96.6
			2020	4,664	68.1	31.9	3.6	96.4
		중학교	2016	5,224	50.0	50.0	2.4	97.6
			2018	4,923	52.0	48.0	2.5	97.5
			2020	4,483	51.4	48.6	2.3	97.7
		고등학교	2016	5,874	49.2	50.8	2.2	97.8
			2018	5,943	44.8	55.2	2.4	97.6
			2020	4,874	45.8	54.2	2.9	97.1
	가출 경험	없음	2016	14,498	54.5	45.5	2.1	97.9
			2018	15,015	54.8	45.2	2.4	97.6
			2020	13,649	55.0	45.0	2.6	97.4
		있음	2016	409	54.0	46.0	12.3	87.7
			2018	404	59.2	40.8	12.8	87.2
			2020	284	53.6	46.4	13.8	86.2
3) 청소년 전화 1388	전체		2016	15,536	43.5	56.5	1.5	98.5
			2018	15,599	45.5	54.5	1.7	98.3
			2020	14,020	45.0	55.0	1.6	98.4
	성별	남자	2016	8,093	50.1	49.9	1.2	98.8
			2018	8,088	52.5	47.5	1.2	98.8
			2020	7,295	51.9	48.1	1.3	98.7
		여자	2016	7,443	36.4	63.6	1.7	98.3
			2018	7,511	37.9	62.1	2.1	97.9
			2020	6,724	37.6	62.4	1.9	98.1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38	62.5	37.5	1.1	98.9
			2018	4,732	68.8	31.2	1.6	98.4
			2020	4,663	60.7	39.3	1.4	98.6
		중학교	2016	5,226	41.0	59.0	1.3	98.7
			2018	4,925	41.0	59.0	1.1	98.9
			2020	4,485	41.4	58.6	0.9	99.1
		고등학교	2016	5,872	31.4	68.6	1.8	98.2
			2018	5,943	30.7	69.3	2.2	97.8
			2020	4,872	33.4	66.6	2.3	97.7
	가출 경험	없음	2016	14,497	43.3	56.7	1.4	98.6
			2018	15,013	45.4	54.6	1.5	98.5
			2020	13,649	44.8	55.2	1.5	98.5
있음		2016	408	47.8	52.2	4.2	95.8	
		2018	403	47.5	52.5	9.1	90.9	
		2020	285	48.4	51.6	8.0	92.0	

\* 주: 1) 이용 여부는 해당 기관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4】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 ⑥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상담 및 정보’(70.8%)와 ‘잠시 쉴 공간과 간식’(34.4%)으로 나타남.
- ’16년 이후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생필품,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은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 정책: 4-2-1.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및 자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잠시 쉴 공간과 간식’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34.4%, ‘필요한 물품’ 11.3%, ‘하루 이상의 의식주’ 6.6% 순이었음.

- 성별에 관계없이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잠시 쉴 공간과 간식’, ‘필요한 물품’, ‘하루 이상의 의식주’ 등의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은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81.1%였고, 남자청소년들은 59.2%였음.
- 학교급에 관계없이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높았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잠시 쉴 공간과 간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은 비율은 다소 낮아짐.

○ ’16년 이후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생필품,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은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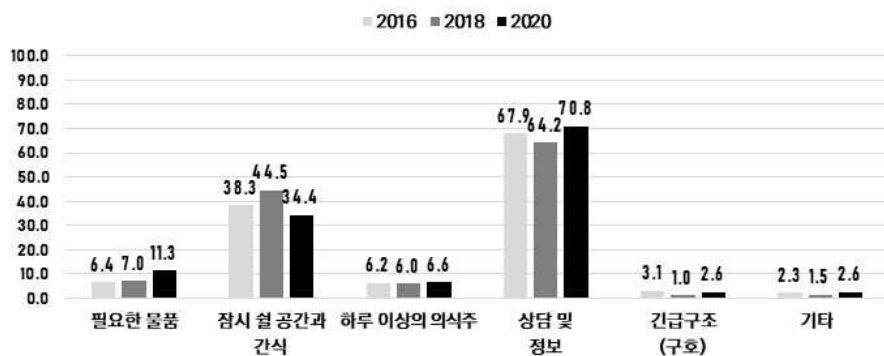
-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16년 이후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들은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I-58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한 물품(생필품, 의약품 등)	잠시 쉴 공간과 간식	하루 이상의 의식주	상담 및 정보	긴급구조 (구호)	기타
전체	2016	322	6.4	38.3	6.2	67.9	3.1	2.3
	2018	385	7.0	44.5	6.0	64.2	1.0	1.5
	2020	295	11.3	34.4	6.6	70.8	2.6	2.6
성 별	남자	2016	152	6.6	44.0	9.1	61.6	3.6
		2018	151	8.2	56.6	11.0	48.3	1.9
		2020	138	16.0	39.9	7.7	59.2	3.1
	여자	2016	170	6.3	33.2	3.7	73.6	2.7
		2018	233	6.2	36.6	2.8	74.5	0.4
		2020	157	7.1	29.6	5.6	81.1	2.2
학 교 급	초등 학교	2016	52	10.6	45.9	12.4	55.7	6.3
		2018	65	7.2	50.2	5.7	51.0	1.4
		2020	71	17.1	39.3	5.3	52.5	1.3
	중학교	2016	112	6.2	38.4	3.0	67.3	2.1
		2018	134	7.3	52.8	5.1	56.3	1.1
		2020	80	14.8	35.5	8.6	79.0	4.3
	고등 학교	2016	158	5.2	35.7	6.5	72.4	2.8
		2018	186	6.8	36.5	6.8	74.5	0.8
		2020	144	6.4	31.4	6.1	75.5	2.4
	└ 일반 계고	2016	128	5.0	39.0	5.5	70.5	2.3
		2018	139	6.8	34.4	7.8	78.4	0.0
		2020	106	3.7	23.9	3.9	81.1	2.0
	└ 직업 계고	2016	30	6.1	21.7	10.4	80.5	4.8
		2018	47	6.8	42.7	3.7	62.8	3.0
		2020	38	13.9	52.3	12.4	59.6	3.5

\* 주: 1) 가출청소년지원 보호/상담기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5】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중복응답)

### 3. 약물 영역

#### 3-1. 고카페인 음료, 피우는 비타민 및 정서 저해 식품 이용

##### ① 고카페인 음료 이용 경험

- 최근 1개월 동안 ‘고카페인(에너지) 음료’를 먹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2.7%임.
-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이용률은 고등학생(58.6%)이 가장 높았음.

▶ 관련 정책: 2-1-1. 신·변종 유해약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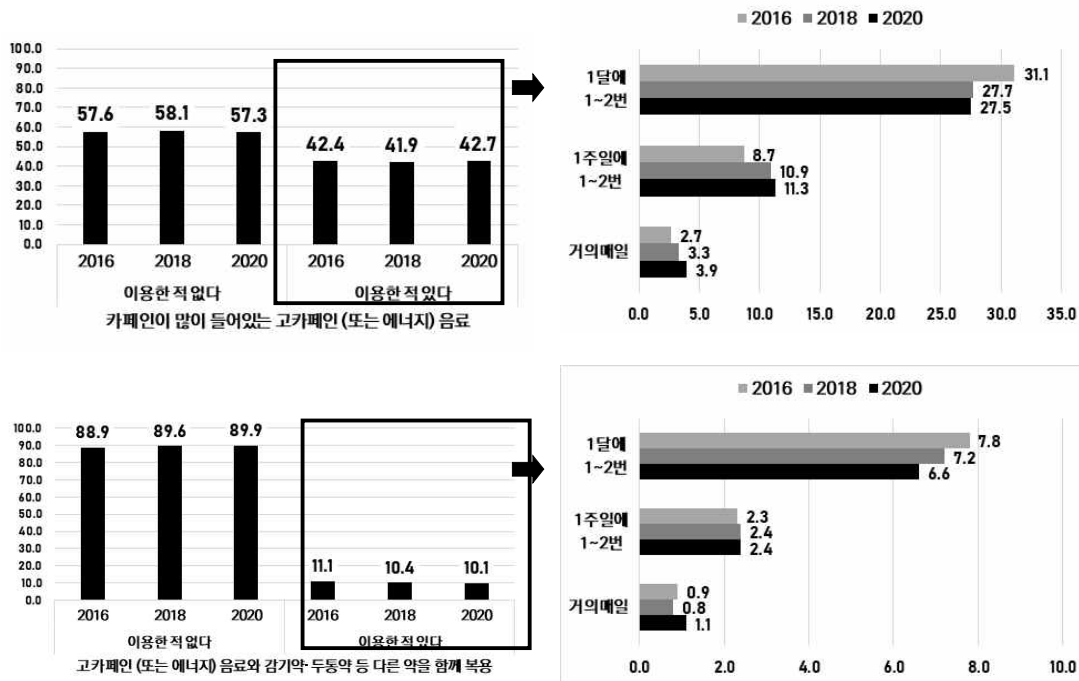
- 최근 1개월 동안 42.7%가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음.
  - 고카페인 음료는 남학생(43.0%)과 여학생(42.4%)간 이용 경험률의 차이가 매우 낮음.
  - 중학생의 44.4%,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58.6%)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카페인 음료와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10.1%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의 13.6%, 중학생의 8.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의 유경험률도 7.5%임.
- 고카페인 음료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2번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11.3%,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3.9%였음.
  - 특히 고등학생의 24.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매일 이용한다 7.2%+일주일에 1~2번 17.4%)하여 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표 III-59 최근 1개월 간 고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

(단위: 명, %)

약물 종류			사례수	이용한 적 있다			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고카페인 (또는 에너지) 음료	전체		14,379	42.4	41.9	42.7	2.7	3.3	3.9	8.7	10.9	11.3	31.1	27.7	27.5
	성별	남자	7,458	43.5	43.3	43.0	2.5	3.2	3.6	9.0	11.7	11.7	32.0	28.4	27.7
		여자	6,922	41.3	40.4	42.4	2.9	3.5	4.3	8.3	10.0	10.9	30.1	26.9	27.2
	학교급	초등학교	4,785	-	26.0	24.5	-	1.2	1.3	-	6.0	5.6	-	18.8	17.6
		중학교	4,601	37.9	44.2	44.4	1.7	2.7	3.1	7.1	11.0	10.7	29.1	30.5	30.6
		고등학교	4,993	46.4	52.6	58.6	3.6	5.6	7.2	10.0	14.7	17.4	32.8	32.4	34.0
고카페인 (또는 에너지)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전체		14,338	11.1	10.4	10.1	0.9	0.8	1.1	2.3	2.4	2.4	7.8	7.2	6.6
	성별	남자	7,433	11.4	10.0	9.2	1.0	0.7	1.2	2.4	2.3	2.1	8.1	6.9	5.9
		여자	6,904	10.7	10.9	11.0	0.8	0.9	0.9	2.3	2.5	2.8	7.6	7.5	7.3
	학교급	초등학교	4,763	-	8.4	7.5	-	0.5	0.7	-	1.9	1.6	-	6.0	5.2
		중학교	4,584	10.1	10.5	8.8	0.6	0.6	0.9	2.3	2.3	1.8	7.2	7.5	6.1
		고등학교	4,991	11.9	12.0	13.6	1.2	1.2	1.5	2.3	3.0	3.8	8.4	7.9	8.3

\* 주: 1) '16년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8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6】 최근 1개월 간 고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

■ 관련 통계

-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에너지(또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중고생의 31.0%가 일주일에 1번 이상 에너지(또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였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섭취한 경우는 12.3%로 나타남.

표 III-60 에너지(또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 연도별 비교 (단위: %)

구분	거의 안 먹음	먹음	이용 빈도					
			주 1~2번	주 3~4번	주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2014	88.0	12.0	8.7	1.8	0.6	0.4	0.2	0.3
2015	88.1	11.9	8.6	1.8	0.6	0.4	0.1	0.3
2016	86.2	13.8	9.9	2.2	0.8	0.5	0.2	0.2
2017	76.1	23.9	15.9	4.8	1.4	1.0	0.4	0.4
2019	69.1	31.0	18.7	6.8	2.3	1.8	0.7	0.7

\*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4~2019년.

\* 주: 1) 최근 1주일 동안의 경험을 조사함.

2) '18년에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 ② 피우는 비타민 및 정서 저해 식품 이용 경험

- 최근 1개월 동안 ‘피우는 비타민’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6%임.
- 최근 1개월 동안 ‘정서 저해 식품’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12.1%임.

- ▶ 관련 정책: 2-1-1. 신·변종 유해약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 최근 1개월 간, 13.6%가 피우는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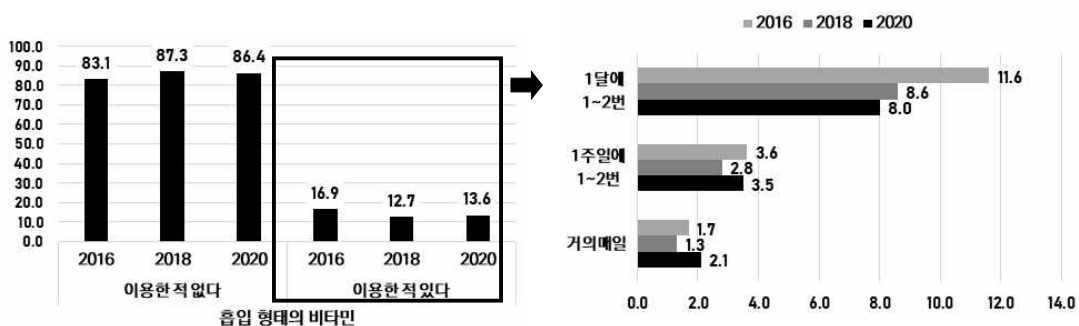
- '16년과 비교하여 피우는 비타민 이용률은 감소하였으나 '18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12.8%)보다 여학생(14.4%)의 이용 경험률이 더 높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피우는 비타민 이용 경험률이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61 최근 1개월 간 피우는 비타민 이용 실태

(단위: 명, %)

약물 종류			사례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한 적 있다			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흡입 형태의 비타민	전체		14,326	83.1	87.3	86.4	16.9	12.7	13.6	1.7	1.3	2.1	3.6	2.8	3.5	11.6	8.6	8.0
	성별	남자	7,433	84.3	88.0	87.2	15.7	12.0	12.8	2.0	1.2	2.2	3.5	2.8	3.2	10.3	8.0	7.4
		여자	6,893	81.9	86.4	85.5	18.1	13.6	14.4	1.4	1.4	2.1	3.7	2.8	3.7	12.9	9.3	8.6
	학교급	초등학교	4,759	-	84.3	83.3	-	15.7	16.8	-	1.3	2.9	-	3.4	4.1	-	11.0	9.8
		중학교	4,579	86.3	89.5	87.2	13.7	10.5	12.9	0.9	0.9	1.7	3.0	2.3	3.2	9.9	7.4	8.0
		고등학교	4,988	80.4	87.7	88.7	19.6	12.3	11.2	2.5	1.7	1.8	4.1	2.8	3.1	13.1	7.8	6.3

\* 주: 1) '16년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8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7】 최근 1개월 간 피우는 비타민 이용 실태

○ 정서 저해 식품의 최근 1개월 간 이용률은 12.1%로 나타남.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정서 저해 식품 이용률은 감소함(초등학생 15%, 중학생 12%, 고등학생 8.9%).

표 III-62 최근 1개월 간 정서 저해 식품 이용 실태 (단위: 명, %)

약물 종류		사례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한 적 있다	빈도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담배모양, 술병모양, 술컵 모양의 형태를 지닌 사탕, 젤리, 과자류	전체	14,348	88.0	12.1	0.9	2.6	8.6	
	성별	남자	7,443	88.0	12.1	1.0	2.7	8.4
		여자	6,905	88.1	11.9	0.7	2.4	8.8
	학교급	초등학교	4,775	84.9	15.0	1.0	3.8	10.2
		중학교	4,587	88.0	12.0	0.7	2.2	9.1
		고등학교	4,986	91.0	8.9	0.8	1.6	6.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③ 고카페인 음료 건강 교육 경험 및 교육 만족도

- 고카페인 음료 건강 교육 경험은 30.7%이며, 교육 받은 사람 중 32.5%는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관련 정책: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률은 30.7%로 2016년(23.7%)과 2018년(24%)에 비해 증가함.

○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32.5%는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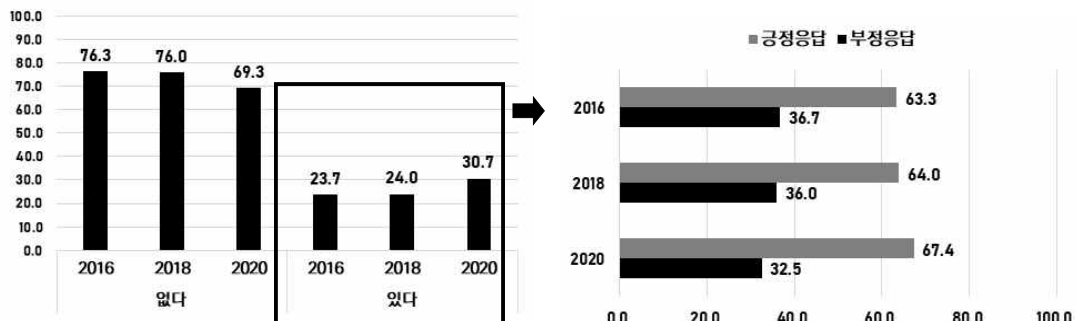
-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률은 고등학생(39.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63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 <sup>1)</sup>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에 대한 만족도 <sup>2)</sup>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488	23.7	24.0	30.7	19.8	21.6	18.0	16.9	14.4	14.5	48.5	49.3	50.8	14.8	14.7	16.6
성별	남자	4,930	26.7	27.5	33.8	23.8	24.2	22.3	14.7	12.0	14.0	44.3	47.8	46.7	17.2	16.1	17.1
	여자	4,557	20.4	20.2	27.2	14.0	17.7	12.4	20.2	18.0	15.2	54.5	51.6	56.3	11.3	12.6	16.1
학교급	중학교	4,568	23.5	23.7	28.6	13.0	16.0	11.5	13.6	10.9	12.8	51.6	52.7	51.6	21.9	20.5	24.1
	고등학교	4,920	23.8	24.3	32.6	25.7	26.1	23.4	19.9	17.3	15.9	45.9	46.6	50.1	8.6	10.0	10.6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48】 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 중 32.8%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사람들 중 건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61.1%는 관련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8.9%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표 III-64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 이용 경험에 따른 관련 교육 및 교육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sup>1)</sup>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에 대한 만족도 <sup>2)</sup>			
			무	유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고카페인 음료	마신 적 있음	4,882	67.2	32.8	21.3	17.6	48.3	12.8
	마신 적 없음	4,553	71.6	28.4	13.8	10.8	54.1	21.3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 3-2. 음주 경험

## ① 음주 생애 경험

- 중·고등학생의 28.3%는 음주 경험이 있고, 특히 고등학생은 37.8%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생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41.3%는 가족이 음주를 권유, 강요 및 말리지 않은 경험이 있으며, 남학생(42.6%)과 고등학생(42.0%)의 경험률이 높음.
- 생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22.0%는 가족 외 성인으로부터 음주를 권유, 강요 및 말리지 않은 경험이 있으며, 남학생(22.5%)과 여학생(21.2%)간 차이는 크지 않음.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2-2-2. 유해약물 예방 대국민 캠페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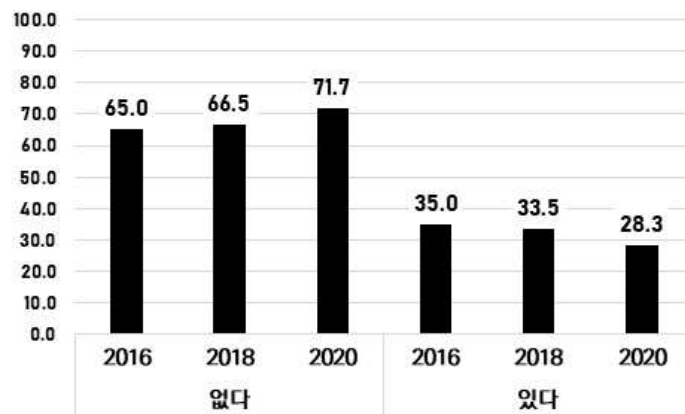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의 28.3%는 지금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음.
  -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생애 음주 경험률(31.1%)이 여학생(25.1%)보다 높음.
  -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생의 생애 음주 경험률(37.8%)이 중학생(17.7%)보다 2배 이상 높음.
  - 생애 음주 경험률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임('16년 35% → '18년 33.5% → '20년 28.3%).

표 III-65 음주 생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432	65.0	66.5	71.7	35.0	33.5	28.3
성별	남자	4,929	61.5	64.5	68.9	38.5	35.5	31.1
	여자	4,503	68.8	68.6	74.9	31.2	31.4	25.1
학교급	중학교	4,484	79.6	79.6	82.3	20.4	20.4	17.7
	고등학교	4,948	52.0	55.7	62.2	48.0	44.3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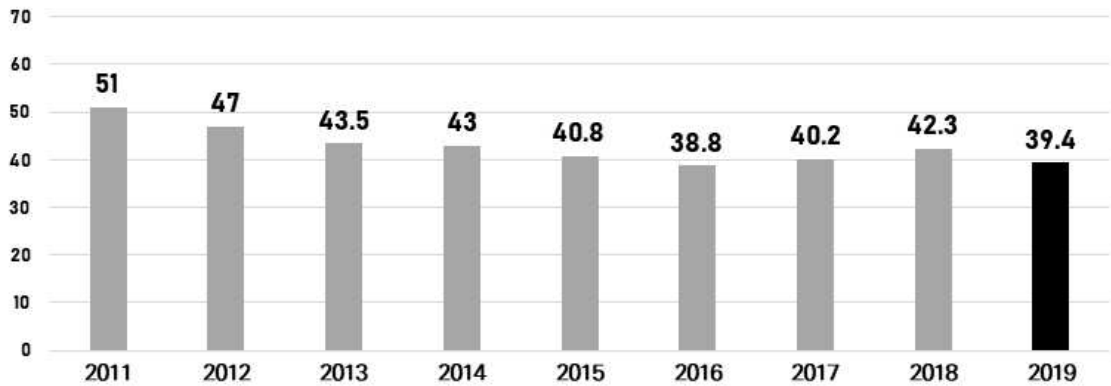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9】 음주 생애 경험

##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생애 음주 경험률이 '11년 51.0%에서 '16년 38.8%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7년(40.2%)과 '18년(42.3%)에 다소 증가, 이후 '19년 39.4%로 다시 감소하였음.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그림 Ⅲ-50】 음주 생애 경험률

- 생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성인이 음주를 권유, 강요 또는 말리지 않아 술을 마신 경험은 가족 외 성인(22.0%)보다 가족(41.3%)에 의해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험률이 다소 높아 가족에 의한 경험에서의 성차는 3.0%p, 가족 외 성인에 의한 경험에서의 성차는 1.3%p로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가족에 의한 경험률이 가족 외 성인에 의한 경험률보다 더 높았는데 특히 중학생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23.4%p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가족에 의한 권유가 강요가 음주 경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표 Ⅲ-66 성인의 권유, 강요 등에 따른 음주 경험

(단위: 명, %)

구분		가족			가족 이외의 성인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2,636	41.3	58.7	2,571	22.0	78.0
성별	남자	1,517	42.6	57.4	1,474	22.5	77.5
	여자	1,119	39.6	60.4	1,097	21.2	78.8
학교급	중학교	784	39.7	60.3	740	16.3	83.7
	고등학교	1,852	42.0	58.0	1,831	24.3	75.7

\* 주: 1) 제시된 질문은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함께 간 성인이 여러분에게 술 마실 것을 권유한다거나 마시라고 강요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을 말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의 선배, 생일이 빠른 친구, 아는 사람 등)임.  
2) 생애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②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

-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1.6%이며,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16.8%임.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은 11.6%로 나타남.

- 올해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은 과거('16년 18%, '18년 14.5%)에 비해 감소하였음.
- 성별에 따른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을 보면 남학생 12.3%, 여학생 10.8%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러한 성차의 폭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좁혀짐('16년 4.3%p → '18년 2.6%p → '20년 1.5%p).
- 학교급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16.8%)이 중학교의 음주 경험률(5.9%)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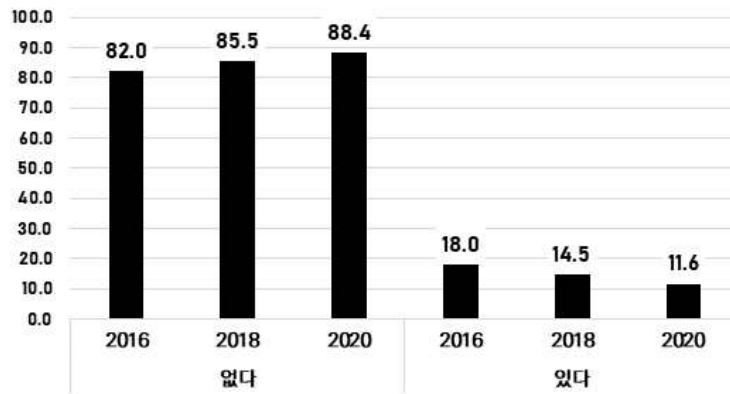
표 Ⅲ-67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516	82.0	85.5	88.4	18.0	14.5	11.6
성별	남자	4,960	79.9	84.2	87.7	20.1	15.8	12.3
	여자	4,556	84.2	86.8	89.2	15.8	13.2	10.8
학교급	중학교	4,557	90.9	92.8	94.2	9.1	7.2	5.9
	고등학교	4,959	74.0	79.4	83.2	26.0	20.6	16.8
학년	중1	1,517	93.5	96.4	97.5	6.5	3.6	2.6
	중2	1,566	91.2	91.7	93.7	8.8	8.3	6.3
	중3	1,475	88.2	90.3	91.1	11.8	9.7	8.9
	고1	1,465	77.6	83.8	87.2	22.4	16.2	12.8
	고2	1,664	72.8	79.2	84.3	27.2	20.8	15.7
	고3	1,829	71.4	76.1	79.0	28.6	23.9	21.0

\* 주: 1)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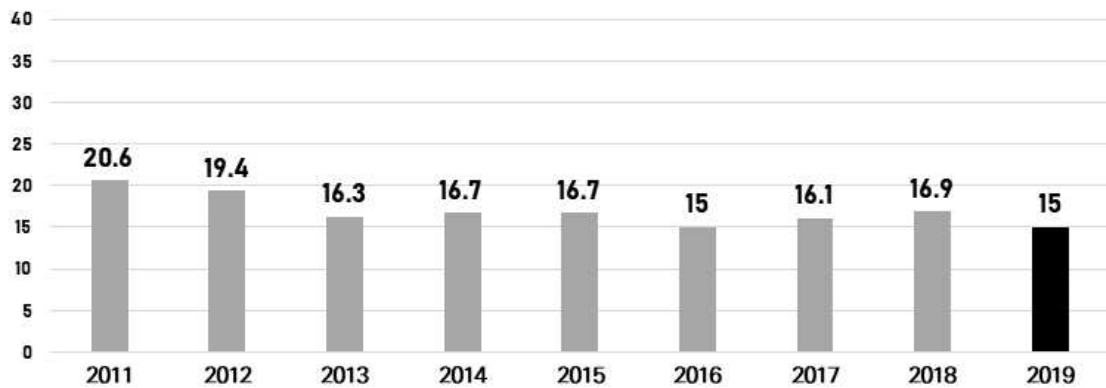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51】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

####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13년~'19년 사이에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은 15~16% 사이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그림 III-52】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률

### ③ 주류 획득 경로

-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2.0%가 술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구매율은 7.9%임.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음주 경로는 성인이 준 술을 마시는 것(‘성인이 줬다’ 34.2%)과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집에 술이 있었다’ 33.6%)임.
- 과거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성인이 줬다’는 응답은 크게 증가(‘16년 17.1% → ’18년 15.2% → ’20년 34.2%)한 반면 다른 경로는 모두 감소함.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성인이 줬다’(33.1%),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32.2%), ‘집에 술이 있었다’(28.9%) 순인 반면 여학생은 ‘집에 술이 있었다’(39.5%), ‘성인이 줬다’(35.5%),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26.9%) 순이었음.
  -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는 응답은 여학생에게서, ‘내가 직접 샀다’는 응답은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주로 성인이 주거나(42%) 집에 있는 술(39.4%)을 마셨으며 고등학생은 친구나 선배(33.4%)가 준 술을 마신 경우가 집에 있는 술(31.8%)이나 성인이 준 술(31.7%)을 마신 경우보다 많았음.
  - 고등학생의 경우 술을 ‘직접 구매’(13.7%)한 비율이 중학생(6.9%)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III-68 술을 구한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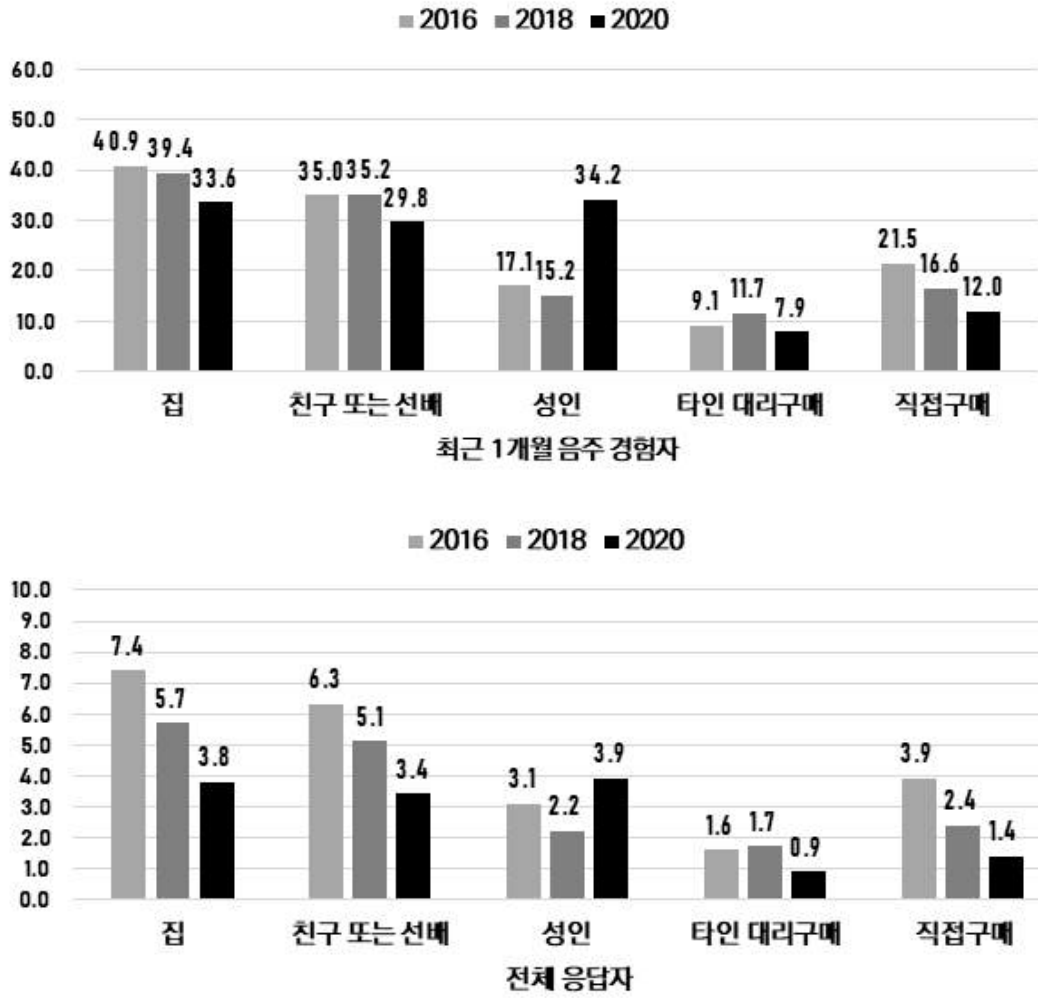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집에 술이 있었다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성인이 줬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			내가 직접 샀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최근 1개월 음주 경험자 <sup>2)</sup>	전체	1,091	40.9	39.4	33.6	35.0	35.2	29.8	17.1	15.2	34.2	9.1	11.7	7.9	21.5	16.6	12.0
	성별																
	남자	603	38.3	37.7	28.9	35.3	34.5	32.2	19.0	15.8	33.1	7.1	11.8	5.8	21.7	17.9	13.5
	여자	488	44.6	41.5	39.5	34.6	36.1	26.9	14.4	14.4	35.5	11.8	11.6	10.5	21.2	14.8	10.3
	학교급																
전체 응답자 <sup>3)</sup>	중학교	264	57.7	51.2	39.4	21.3	26.4	18.6	22.8	18.2	42.0	4.5	7.2	5.7	10.4	8.1	6.9
	고등학교	827	35.7	35.9	31.8	39.2	37.8	33.4	15.3	14.3	31.7	10.5	13.0	8.6	25.0	19.0	13.7
	전체	9,642	7.4	5.7	3.8	6.3	5.1	3.4	3.1	2.2	3.9	1.6	1.7	0.9	3.9	2.4	1.4
	성별																
	남자	5,041	7.7	5.9	3.5	7.1	5.4	3.9	3.8	2.5	4.0	1.4	1.9	0.7	4.4	2.8	1.6
	여자	4,601	7.0	5.5	4.2	5.4	4.8	2.9	2.3	1.9	3.8	1.9	1.5	1.1	3.3	2.0	1.1
	학교급																
	중학교	4,636	5.2	3.7	2.2	1.9	1.9	1.1	2.1	1.3	2.4	0.4	0.5	0.3	0.9	0.6	0.4
	고등학교	5,006	9.3	7.4	5.2	10.2	7.8	5.5	4.0	3.0	5.2	2.7	2.7	1.4	6.5	3.9	2.3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4) '18년도 '우리집에서 얻었다',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었다', '성인에게 얻었다'의 용어를, '20년도에는 각각 '집에 술이 있었다',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성인이 줬다'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53】 술을 구한 방법(중복응답)



#### ④ 술을 직접 구입한 장소

- 최근 1개월 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직접 술을 구입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94.1%가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식당, 음식점’, ‘대형마트’, ‘배달음식 주문 시’ 등도 주요 구입 경로 중 하나임.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최근 1개월 간 술을 직접 구매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주류 구매 장소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94.1%)임.
- 그 외에 ‘식당, 음식점’(46.1%), ‘대형마트’(28.1%), ‘배달음식 주문’(20.1%), ‘PC방, 노래방’(15.3%) 등에서도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PC방, 노래방’, ‘식당, 음식점’ 등에서 술을 구입한 비율이 높음.
-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보다 ‘식당, 음식점’에서 구입한 비율이 크게 높고(중학생 29.7%, 고등학생 48.7%)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 비율(중학생 7.9%, 고등학생 5.3%)이 더 높음.

표 III-69

술을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대형마트	PC방, 노래방	식당, 음식점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라켓볼링장, 스크린야구장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직거래, 심부름앱 등)
최근 1개월 주류 구입 자 <sup>2)</sup>	전체	2016	94.8	36.2	14.5	43.6	29.6	-	6.0
		2018	92.4	36.5	17.5	44.4	32.2	10.4	6.0
		2020	94.1	28.1	15.3	46.1	20.1	7.4	5.7
	성 별	남 자	2016	96.4	39.8	16.8	47.2	30.2	6.8
			2018	92.7	40.2	22.4	48.2	15.7	8.4
			2020	95.3	27.6	8.9	37.9	19.9	6.9
		여 자	2016	92.6	31.1	11.3	38.4	28.6	4.8
			2018	91.9	30.6	10.0	38.7	22.5	2.3
			2020	92.0	29.0	25.2	58.9	20.4	3.8
	학 교 구 단	중·고 교	2016	95.1	26.1	21.9	22.9	38.1	-
			2018	80.9	21.3	4.6	18.3	25.8	4.6
			2020	96.1	25.4	13.3	29.7	15.3	7.9
		고·대 학	2016	94.8	37.5	13.6	46.1	28.5	-
			2018	93.8	38.3	19.1	47.5	33.0	11.1
			2020	93.8	28.6	15.6	48.7	20.9	7.3
전체 응답 자 <sup>3)</sup>	전체	2016	3.6	1.4	0.6	1.7	1.1	-	0.2
		2018	2.2	0.9	0.4	1.1	0.8	0.2	0.1
		2020	0.8	0.2	0.1	0.4	0.2	0.1	0.0
	성 별	남 자	2016	4.1	1.7	0.7	2.0	1.3	-
			2018	2.6	1.1	0.6	1.3	1.1	0.4
			2020	1.0	0.3	0.1	0.4	0.2	0.1
		여 자	2016	3.1	1.0	0.4	1.3	0.9	-
			2018	1.8	0.6	0.2	0.8	0.4	0.0
			2020	0.6	0.2	0.2	0.4	0.1	0.0
	학 교 구 단	중·고 교	2016	0.9	0.2	0.2	0.2	0.3	-
			2018	0.5	0.1	0.0	0.1	0.1	0.0
			2020	0.4	0.1	0.0	0.1	0.1	0.0
		고·대 학	2016	6.1	2.4	0.9	3.0	1.8	-
			2018	3.6	1.5	0.7	1.8	1.3	0.4
			2020	2.1	0.6	0.3	1.0	0.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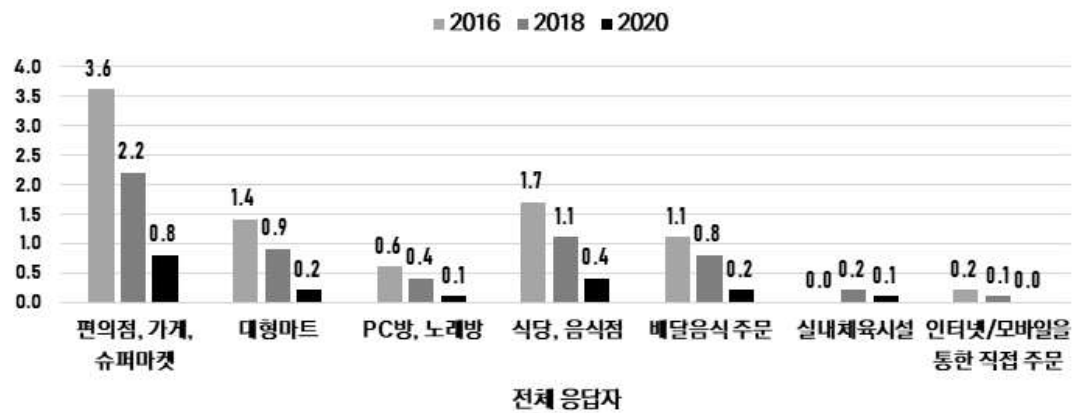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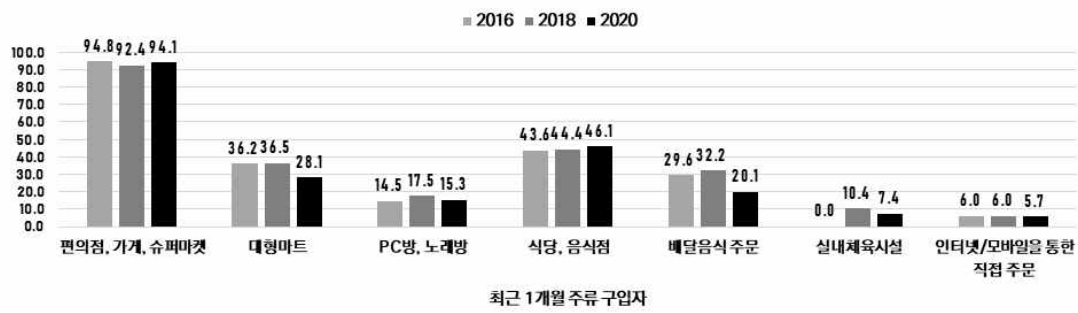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4) 실내 체육시설(라켓볼링장, 스크린야구장 등)은 '18년도에 추가된 항목이며 '18년도 '실내체육장'의 용어를 '20년도에는 '실내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8년도 '인터넷/모바일 주문'의 용어를 '20년도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54】 술을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⑤ 주류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 본인이 직접 주류를 구입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주류 구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주류를 구입하는 경로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도 나이 및 본인을 확인했다는 응답은 18.9%에 불과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본인이 직접 주류를 구입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을 위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실내체육시설(54%)을 제외하고 모두 10~30% 정도에 그침.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시 확인율(10.5%)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식당, 음식점'(21.1%), '대형 마트'(22.7%) 순으로 나타남.
  -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율(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확인하지 않았음)을 살펴 본 결과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이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이 81.2%로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실내 체육시설'(46%)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그 비율이 모두 70%를 상회함.
- '16년과 '18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에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율이 감소하였음. 한편 'PC방/노래방', '배달음식 주문 시'에서는 '18년에 비해 확인율이 높아졌음.

표 III-70

주류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확인했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확인하지 않았음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2016	403	24.7	41.8	33.5
	2018	240	19.3	30.9	49.8
	2020	117	18.9	51.6	29.6
2) 대형 마트	2016	154	36.2	27.6	36.2
	2018	93	24.8	25.2	50.0
	2020	30	22.7	37.7	39.6
3) PC방, 노래방	2016	61	45.3	22.7	32.0
	2018	45	21.0	28.5	50.5
	2020	18	26.3	43.7	30.0
4) 식당, 음식점	2016	185	25.6	36.6	37.8
	2018	115	21.2	38.4	40.4
	2020	54	21.1	42.9	36.0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2016	125	18.3	18.0	63.7
	2018	82	10.4	68.2	21.5
	2020	24	29.0	22.4	48.6
6) 실내체육시설(탁볼릭장, 스크린 야구장 등)	2016	-	-	-	-
	2018	27	22.8	43.3	33.9
	2020	9	54.0	41.6	4.4
7)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직거래, 심부름앱 등)	2016	-	-	-	-
	2018	-	-	-	-
	2020	6	10.5	21.0	68.4

\* 주: 1)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구두확인 및 신분증 제시방법이 혼용됨.

- ‘배달음식 주문’에서는 나이를 말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67.6%에 이름.

○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함.

- 식별기계 사용률은 ‘PC방, 노래방’이 32.4%로 가장 높았고 ‘배달음식 주문’(25.8%), ‘실내체육 시설’(20%), ‘식당, 음식점’(19.9%) 순이었으나 각 항목 당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III-71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말(구두)로만 확인	신분증 제시 요구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 <sup>3)</sup>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78	45.2	54.8
	2) 대형 마트	17	49.6	50.4
	3) PC방, 노래방	10	42.0	58.0
	4) 식당, 음식점	32	45.5	54.5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10	67.6	32.4
	6) 실내체육시설(라볼릭장, 스크린 야구장 등)	8)	40.7	59.3

\* 주: 1) '확인했음/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구분		사례수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기로 확인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sup>4)</sup>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39	86.0	14.0
	2) 대형 마트	9	93.3	6.7
	3) PC방, 노래방	6	67.6	32.4
	4) 식당, 음식점	18	80.1	19.9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3	74.2	25.8
	6) 실내체육시설(라볼릭장, 스크린 야구장 등)	3	80.0	20.0

\* 주: 1) 최근 1개월 간 해당 장소에서 술을 직접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확인했음/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4) '신분증 제시 요구'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 ⑥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57.2%가 음주 예방 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71.0%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8.5%가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들의 51.9%는 음주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최근 한 달 이내에 음주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5.1%는 음주 예방 교육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60.3%는 음주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관련 정책: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2-3-1.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 치료지원 연계 강화

- 전체 중고등학생의 57.2%가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주예방 교육을 받은 71%가 음주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남학생의 음주 예방 교육 경험률(58.9%)이 여학생(55.4%)보다 높으나 음주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에게서 다소 높게(남학생 69.9%, 여학생 72.4%) 나타남.
- 중학생의 음주예방 교육 비율(58.8%)이 고등학생(55.7%)보다 높으며, 음주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고등학생(62.2%)보다 중학생(80.0%)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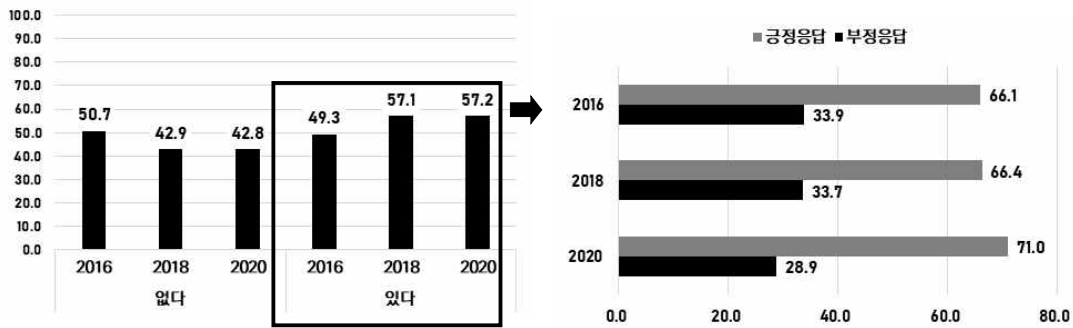
표 Ⅲ-72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음주 예방교육 경험			음주 예방 교육 만족도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493	49.3	57.1	57.2	15.5	15.4	13.2	18.4	18.3	15.7	51.7	52.6	54.5	14.4	13.8	16.5
성별	남자	4,935	50.7	58.8	58.9	17.7	17.8	15.9	15.7	15.6	14.2	49.1	51.2	52.4	17.4	15.4	17.5
	여자	4,558	47.7	55.2	55.4	12.9	12.5	10.1	21.5	21.4	17.5	54.7	54.2	57.0	11.0	11.8	15.4
학교급	중학교	4,571	53.0	60.1	58.8	9.9	11.2	8.0	13.3	14.0	12.0	55.9	55.4	56.9	20.9	19.4	23.1
	고등학교	4,922	45.9	54.6	55.7	21.2	19.1	18.4	23.5	22.2	19.4	47.4	50.0	52.1	7.8	8.6	10.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Ⅲ-55】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최근 한 달 이내에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8.5%가 음주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절반 이상(51.9%)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음주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중 음주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3%임.

표 Ⅲ-73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음주 예방 교육 <sup>1)2)</sup>		음주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 <sup>3)</sup>			
			무	유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음주 경험	있음	1,072	41.5	58.5	31.3	20.6	43.3	4.9
	없음	1,408	44.9	55.1	18.0	21.7	47.2	13.1

\* 주: 1)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 여부에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 3-3. 흡연 경험

## ① 흡연 생애 경험

- 중·고등학생의 8.7%는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고, 그중 남자청소년의 흡연 경험률은 11.7%, 고등학생의 경험률은 11.9%임.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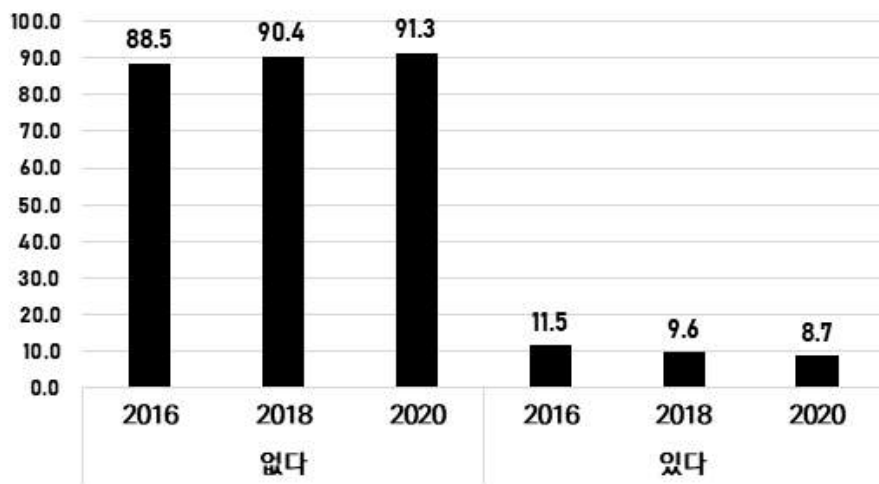
- 흡연의 생애 경험률을 확인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8.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자청소년의 흡연 생애 경험이 11.7%로 여자청소년(5.4%)보다 6.3%p 높으며, 고등학생의 흡연 생애 경험률(11.9%)은 중학생(5.1%)보다 6.8%p 높음.
  - 청소년의 흡연 생애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16년 11.5% → '18년 9.6% → '20년 8.7%).

표 Ⅲ-74 흡연 생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전체	9,467		88.5	90.4	91.3	11.5	9.6
성별	남자	4,951	82.5	85.9	88.3	17.5	14.1
	여자	4,516	95.2	95.3	94.6	4.8	4.7
학교급	중학교	4,519	94.1	94.3	94.9	5.9	5.7
	고등학교	4,949	83.6	87.2	88.1	16.4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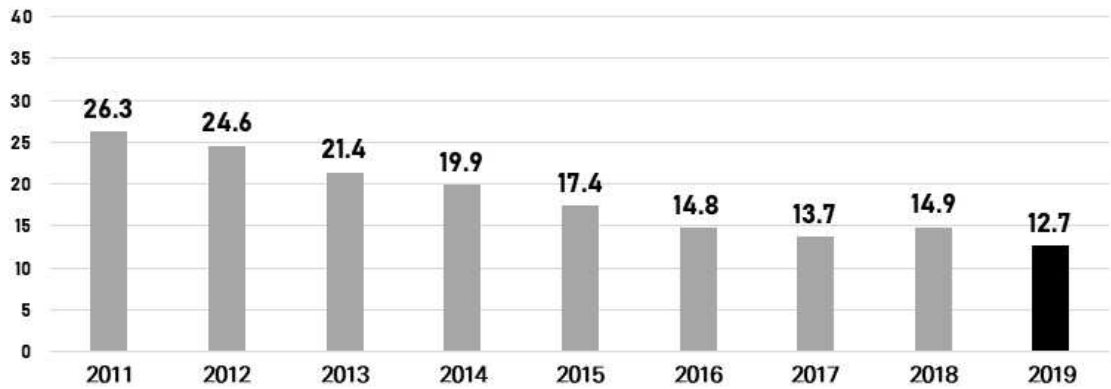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56】 흡연 생애 경험

###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생애 경험률이 '18년(14.9%)에 다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11년(26.3%)부터 '19년(12.7%)까지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그림 III-57】 흡연 생애 경험률

## ②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

- 최근 1개월 간 담배를 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6%이며, 직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율(10.3%)이 상대적으로 높음.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 전체 중고등학생의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률은 4.6%로 나타남.

-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6.0%)이 여학생(3.0%)보다, 고등학생(6.7%)이 중학생(2.3%)보다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직업계고 학생의 경험률(10.3%)이 일반계고(5.9%)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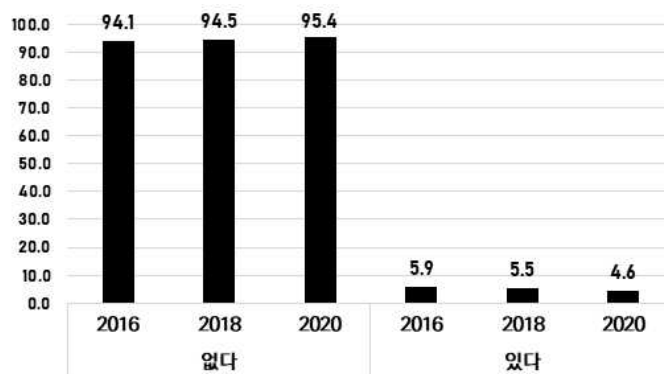
표 III-75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전체	9,651		94.1	94.5	95.4	5.9	5.5
성별	남자	5,045	90.7	91.7	94.0	9.3	8.3
	여자	4,607	97.8	97.5	97.0	2.2	2.5
학교급	중학교	4,638	97.0	96.8	97.7	3.0	3.2
	고등학교	5,013	91.6	92.5	93.3	8.4	7.5
	└ 일반계고	4,152	92.8	93.9	94.1	7.2	6.1
	└ 직업계고	861	86.4	85.9	89.7	13.6	14.1
학년	중1	1,544	98.5	99.1	99.3	1.5	0.9
	중2	1,603	96.5	96.0	97.6	3.5	4.0
	중3	1,492	95.9	95.3	96.1	4.1	4.7
	고1	1,490	93.4	93.5	94.7	6.6	6.5
	고2	1,676	90.9	91.9	94.3	9.1	8.1
	고3	1,847	90.4	92.3	91.4	9.6	7.7

\* 주: 1)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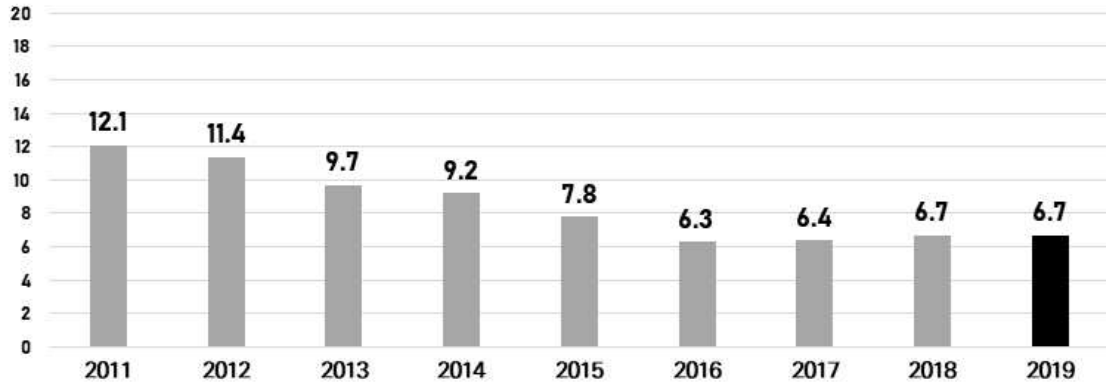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58】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1년~'19년 사이의 결과를 보면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률은 '11년 12.1%에서 '16년(6.3%)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17년 6.4% 이후 '19년 6.7%까지 답보상태임.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그림 III-59】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률

### ③ 최근 1개월 간 피워 본 담배 종류

- 청소년들 중 일반담배 피워 본 청소년은 4.3%임.
  - 전자담배 중 액상형 전자담배(1.5%)가 껴련형 전자담배(0.9%)보다 더 많이 사용됨.
-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 청소년들 중 4.3%는 최근 1개월 간 일반담배(껴련형)를 사용한 경험이 있음.
- 전자담배 경험률은 일반담배(껴련형) 경험률보다 다소 낮아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험률은 1.5%, 껴련형 전자담배의 경험률은 0.9%임.

표 III-76 최근 1개월 간 피워본 담배 종류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담배 (껴련)	액상형 전자담배	껴련형 전자담배	기타
전체		9,645	4.3	1.5	0.9	0.1
성별	남자	5,040	5.7	2.0	1.1	0.1
	여자	4,605	2.9	1.0	0.6	0.0
학교급	중학교	4,638	2.1	0.8	0.3	0.0
	고등학교	5,007	6.3	2.2	1.4	0.1
	└ 일반계고	4,148	5.6	1.9	1.3	0.1
	└ 직업계고	859	9.8	3.4	2.1	0.0
학년	중1	1,543	0.5	0.3	0.1	0.0
	중2	1,602	2.3	0.5	0.1	0.0
	중3	1,493	3.7	1.7	0.6	0.0
	고1	1,490	5.1	2.0	1.1	0.1
	고2	1,673	5.5	1.6	0.9	0.0
	고3	1,844	8.1	2.9	2.2	0.2

\* 주: 1)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④ 담배 습득 경로

-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6.9%가 담배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음.
- 최근 1개월 간 흡연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27.6%가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최근 1개월 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담배 습득 경로는 '친구 또는 선배'(57.4%)임.
- 직접 사거나(26.9%)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한 경우(20.8%)도 적지 않음.
- 집에 있는 담배로 흡연을 하는 경우는 9.5%로 과거('16년 5.3%, '18년 5.6%)에 비해 증가함.
  - 특히 여학생(13.8%)과 중학생(14.6%)의 비율이 남학생(7.5%)과 고등학생(7.9%)에 비해 높음.

표 III-77 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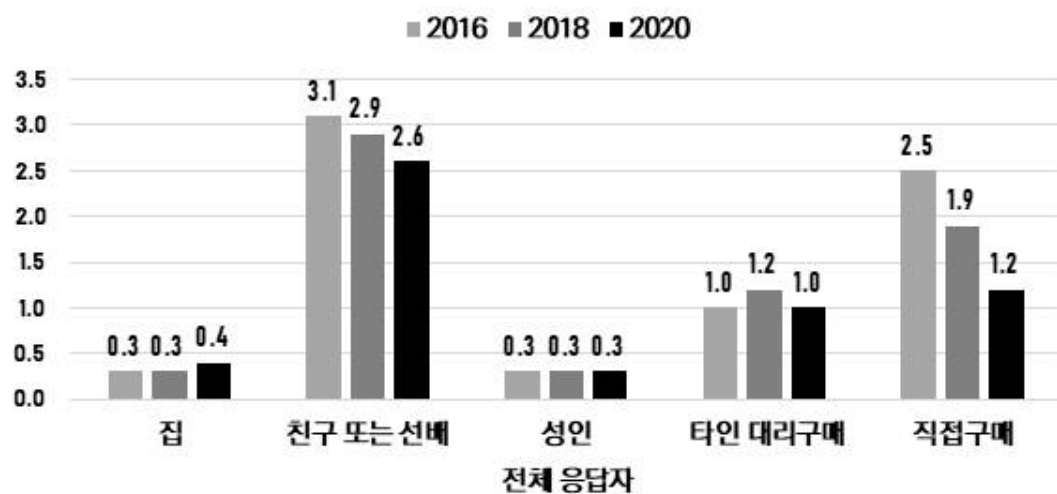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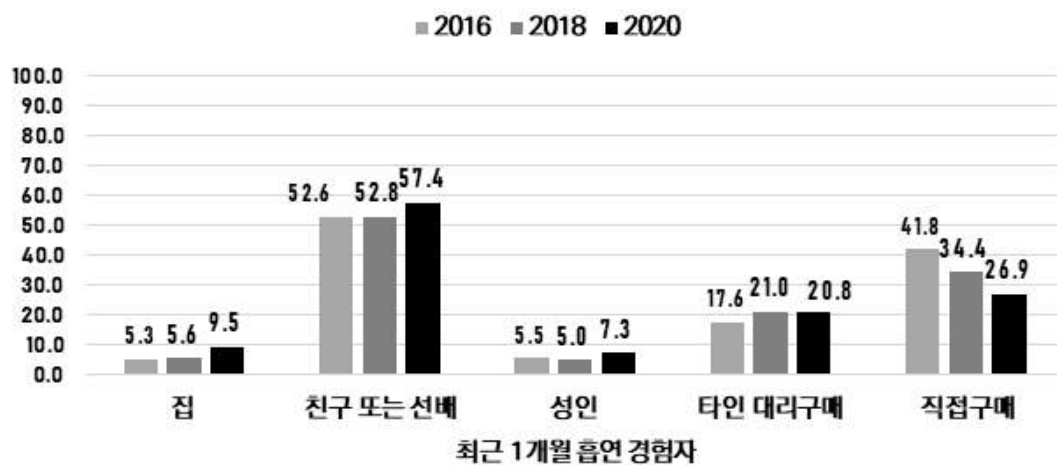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집에 담배가 있었다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성인이 줬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			내가 직접 샀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최근 1개월 흡연 경험자 <sup>2)</sup>	전체		440	5.3	5.6	9.5	52.6	52.8	57.4	5.5	5.0	7.3	17.6	21.0	20.8	41.8	34.4	26.9	
	성별	남자	301	4.6	5.0	7.5	51.9	50.7	60.6	5.4	4.1	6.6	17.5	21.1	20.6	42.3	36.3	25.0	
		여자	139	8.8	7.6	13.8	55.8	60.2	50.7	5.9	8.3	8.8	18.0	20.7	21.4	39.5	27.7	31.0	
	학교급	중학교	106	9.8	9.0	14.6	66.7	63.1	63.1	4.6	6.4	4.3	13.9	22.5	14.7	26.2	16.7	24.7	
		고등학교	334	3.8	4.4	7.9	48.0	49.1	55.6	5.8	4.5	8.2	18.8	20.5	22.8	46.8	40.6	27.6	
전체 응답자 <sup>3)</sup>	전체		9,649	0.3	0.3	0.4	3.1	2.9	2.6	0.3	0.3	0.3	1.0	1.2	1.0	2.5	1.9	1.2	
	성별	남자	5,042	0.4	0.4	0.4	4.8	4.2	3.6	0.5	0.3	0.4	1.6	1.7	1.2	3.9	3.0	1.5	
		여자	4,607	0.2	0.2	0.4	1.2	1.5	1.5	0.1	0.2	0.3	0.4	0.5	0.6	0.8	0.7	0.9	
	학교급	중학교	4,637	0.3	0.3	0.3	2.0	2.0	1.4	0.1	0.2	0.1	0.4	0.7	0.3	0.8	0.5	0.6	
		고등학교	5,012	0.3	0.3	0.5	4.0	3.7	3.7	0.5	0.3	0.5	1.6	1.5	1.5	3.9	3.0	1.8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최근 1개월 동안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4) '18년도 '우리집에서 얻었다',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었다', '성인에게 얻었다'의 용어를, '20년도는 각각 '집에 담배가 있었다',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성인이 줬다'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60】 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 ⑤ 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

- 본인이 직접 담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중학생 흡연자의 97.3%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음.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담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담배 구입처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97.2%)임.

- '대형 마트'(22.3%)에서 구매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5.8%), '식당, 음식점'(5%), 'PC방, 노래방'(4.2%), '배달음식 주문 시'(3.1%), '실내체육 시설'(2.3%)은 모두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구매 경로는 그 비율이 감소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식당, 음식점', '배달음식 주문', 'PC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을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남.

표 III-78 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대형 마트			PC방, 노래방			식당, 음식점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라크링장, 스크린야구장 등)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직거래, 심부름앱 등)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최근 1개월 담배 구입 경험자 <sup>2)</sup>	전체	99.2	95.7	97.2	39.7	37.6	22.3	13.2	13.5	4.2	11.1	10.7	5.0	9.8	8.1	3.1	-	6.3	2.3	8.0	6.4	5.8	
	성별	남자	99.6	96.0	95.5	41.7	38.3	22.3	15.0	14.3	3.6	12.4	12.8	5.5	9.9	9.6	3.8	-	7.4	2.6	9.5	6.1	6.2
		여자	97.0	94.2	100.0	29.5	34.3	22.4	4.2	10.0	5.3	5.0	1.4	4.2	9.6	1.4	1.8	-	1.4	1.8	0.0	7.9	5.0
	학교급	중학교	97.8	97.1	97.3	26.0	36.3	17.7	20.4	7.9	5.5	15.5	10.2	9.6	13.2	10.2	5.5	-	5.0	5.5	14.9	5.0	5.5
		고등학교	99.4	95.5	97.1	42.2	37.8	23.6	11.9	14.3	3.9	10.4	10.8	3.7	9.2	7.8	2.4	-	6.5	1.4	6.7	6.6	5.9
전체 응답자 <sup>3)</sup>	전체	2.4	1.8	0.8	1.0	0.7	0.2	0.3	0.3	0.0	0.3	0.2	0.0	0.2	0.1	0.0	-	0.1	0.0	0.2	0.1	0.0	
	성별	남자	3.9	2.9	1.0	1.6	1.1	0.2	0.6	0.4	0.0	0.5	0.4	0.1	0.4	0.3	0.0	-	0.2	0.0	0.4	0.2	0.1
		여자	0.8	0.7	0.6	0.2	0.2	0.1	0.0	0.1	0.0	0.0	0.0	0.0	0.1	0.0	0.0	-	0.0	0.0	0.0	0.1	0.0
	학교급	중학교	0.8	0.5	0.5	0.2	0.2	0.1	0.2	0.0	0.0	0.1	0.1	0.1	0.1	0.1	0.0	-	0.0	0.0	0.1	0.0	0.0
		고등학교	3.9	2.9	1.8	1.6	1.1	0.4	0.5	0.4	0.1	0.4	0.3	0.1	0.4	0.2	0.0	-	0.2	0.0	0.3	0.2	0.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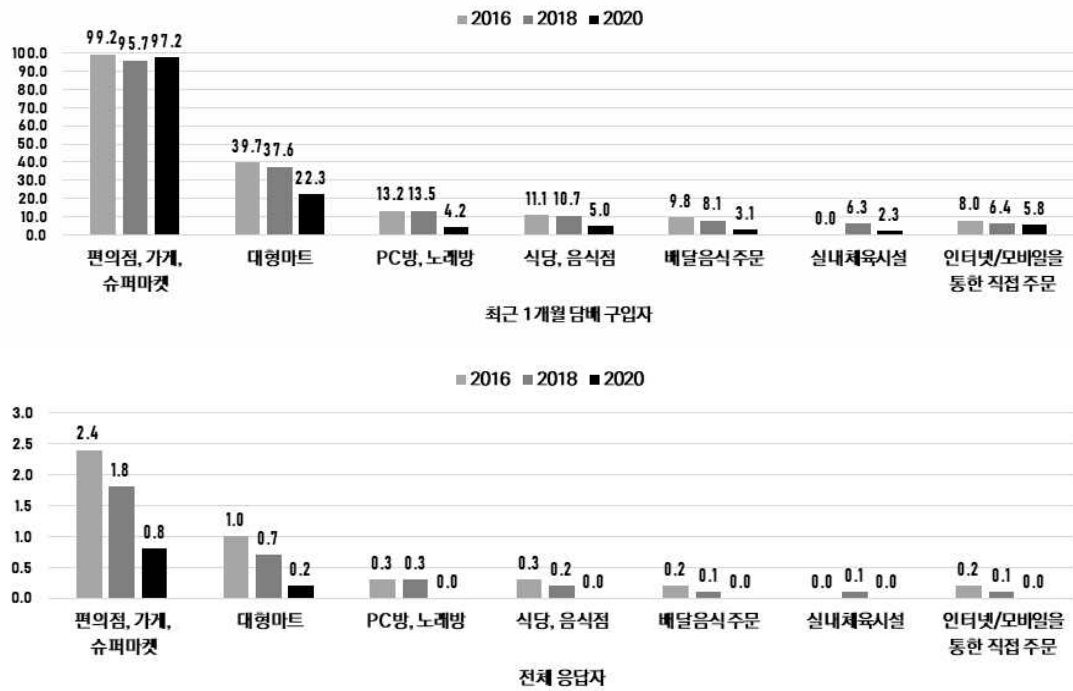
2)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4) 실내 체육시설(라크링장, 스크린야구장 등)은 '18년도에 추가된 항목이며 '18년도 '실내체육장'의 용어를 '20년도에는 '실내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8년도 '인터넷/모바일 주문'의 용어를 '20년도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61】 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⑥ 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중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한 경우는 17.9%에 불과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본인이 직접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 중 담배를 구입할 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 조사한 결과, ‘확인했다’는 응답 비율은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이 17.9%로 가장 낮게 파악됨.
  - ‘대형 마트’(29.9%)에서도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경우가 많지 않음.
  - 그 외의 구입 경로에서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16년과 ’18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에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율이 감소하였음.

표 III-79 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확인했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확인하지 않았음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2016	270	25.7	43.2	31.1
	2018	195	20.5	49.6	29.9
	2020	113	17.9	46.8	35.3
2) 대형 마트	2016	105	38.1	31.2	30.7
	2018	76	30.6	46.8	22.7
	2020	23	29.9	42.9	27.2
3) PC방, 노래방	2016	34	41.7	30.9	27.4
	2018	26	20.1	46.8	33.1
	2020	4	74.0	26.0	0.0
4) 식당, 음식점	2016	30	48.4	27.8	23.8
	2018	21	18.5	37.0	44.5
	2020	5	55.7	0.0	44.3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2016	26	35.1	23.3	41.6
	2018	16	35.1	24.9	40.0
	2020	2	100.0	0.0	0.0
6) 실내체육시설(라켓볼장, 스크린 야구장 등)	2016	-	-	-	-
	2018	13	37.8	28.7	33.4
	2020	2	100.0	0.0	0.0
7)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직거래, 심부름앱 등)	2016	-	-	-	-
	2018	-	-	-	-
	2020	6	56.0	4.5	39.5

\* 주: 1)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담배를 판매한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을 확인한 결과 구두확인과 신분증 제시 요구가 혼용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

○ 담배구입 시 나이 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 확인 방법을 확인 결과, 대부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수의 사례이므로 일반화하에는 한계가 있음.

표 III-80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말(구두)로만 확인	신분증 제시 요구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 <sup>3)</sup>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68	45.4	54.6
	2) 대형 마트	15	43.4	56.6
	3) PC방, 노래방	4	45.2	54.8
	4) 식당, 음식점	3	25.9	74.1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2	35.0	65.0
	6) 실내체육시설(라켓볼링장, 스크린 야구장 등)	2	53.9	46.1

\* 주: 1) '확인했음/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구분		사례수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계로 확인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sup>4)</sup>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36	84.4	15.6
	2) 대형 마트	7	100.0	0.0
	3) PC방, 노래방	1	100.0	0.0
	4) 식당, 음식점	1	100.0	0.0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1	100.0	0.0
	6) 실내체육시설(라켓볼링장, 스크린 야구장 등)	1	100.0	0.0

\* 주: 1) 최근 1개월 간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확인했음/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4) '신분증 제시 요구'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 ☐ 흡연 예방 교육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흡연 예방 교육 경험률은 83.5%로 나타났으며,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는 74.0%로 나타남.
- 고등학생의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65.8%로 중학생(82.4%)보다 약 16.6%p 낮음.
- 최근 한 달간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83.1%가 예방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58.7%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관련 정책: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2-3-1.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 치료지원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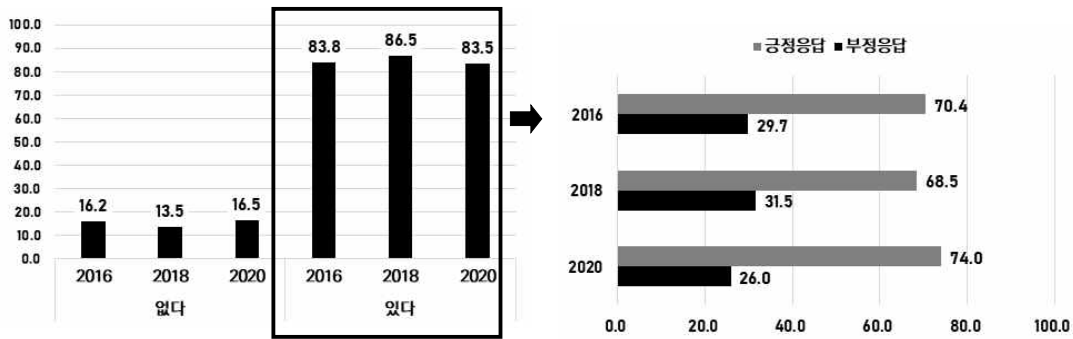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의 83.5%가 흡연 예방 교육 경험이 있음.
-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74%가 도움이 되었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73.1%)보다는 여학생(75%)에게서, 고등학생(65.8%)보다는 중학생(82.4%)에게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I-81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교육 만족도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496	83.8	86.5	83.5	13.9	15.1	11.9	15.8	16.4	14.1	52.1	51.8	55.0	18.3	16.7	19.0
성별	남자	4,935	83.4	84.7	82.6	16.8	17.9	14.4	14.2	13.5	12.5	49.2	49.8	52.3	19.8	18.8	20.8
	여자	4,561	84.1	88.4	84.4	10.7	12.1	9.3	17.6	19.4	15.7	55.2	53.8	57.8	16.6	14.6	17.2
학교급	중	4,575	86.8	89.2	85.9	8.4	10.8	7.0	11.3	12.5	10.6	55.2	53.8	55.7	25.0	22.9	26.7
	고	4,921	81.1	84.2	81.2	19.0	18.8	16.8	20.1	19.8	17.5	49.1	50.0	54.3	11.8	11.4	11.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62】 흡연 예방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흡연 예방 교육 경험률(83.1%)은 비흡연 중·고등학생(85.8%)보다 다소 낮음.
-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최근 한 달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집단의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55.0%)가 최근 한 달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학생들(41.2%)보다 높게 나타남.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58.7%는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표 III-82 흡연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흡연 예방 교육 <sup>1)2)</sup>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 <sup>3)</sup>			
			무	유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흡연 경험	있음	437	16.9	83.1	34.0	24.7	38.0	3.2
	없음	372	14.2	85.8	25.7	19.3	46.8	8.2

\* 주: 1)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 여부에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 3-4. 전자담배 이용 경험

#### ① 전자담배 생애 경험

- 중·고등학생의 5.6%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음.
- 남학생의 생애 경험률은 7.9%로, 여학생(3.1%)보다 4.8%p 높음.

▶ 관련 정책: 2-1-2. 유해악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 청소년의 전자담배 생애 경험률은 5.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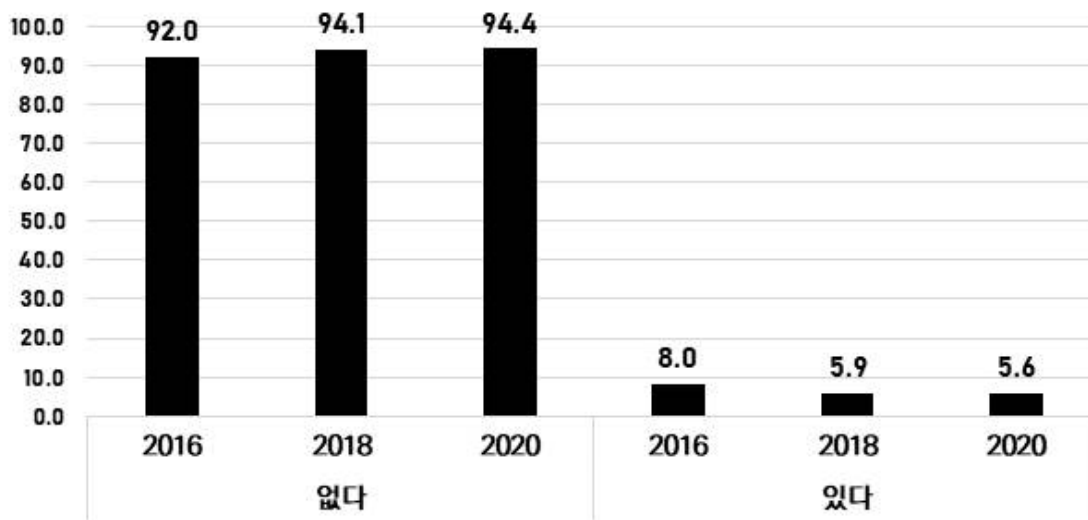
- 남학생의 전자담배 생애 경험률은 7.9%로 여학생(3.1%)보다 4.8%p 높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생애 경험률이 7.8%로 나타남.
- 과거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전자담배의 생애 경험률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III-83 전자담배 생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480	92.0	94.1	94.4	8.0	5.9	5.6
성별	남자	4,955	86.8	90.4	92.1	13.2	9.6	7.9
	여자	4,526	97.8	98.1	96.9	2.2	1.9	3.1
학교급	중학교	4,522	96.4	97.4	96.9	3.6	2.6	3.1
	고등학교	4,958	88.1	91.3	92.2	11.9	8.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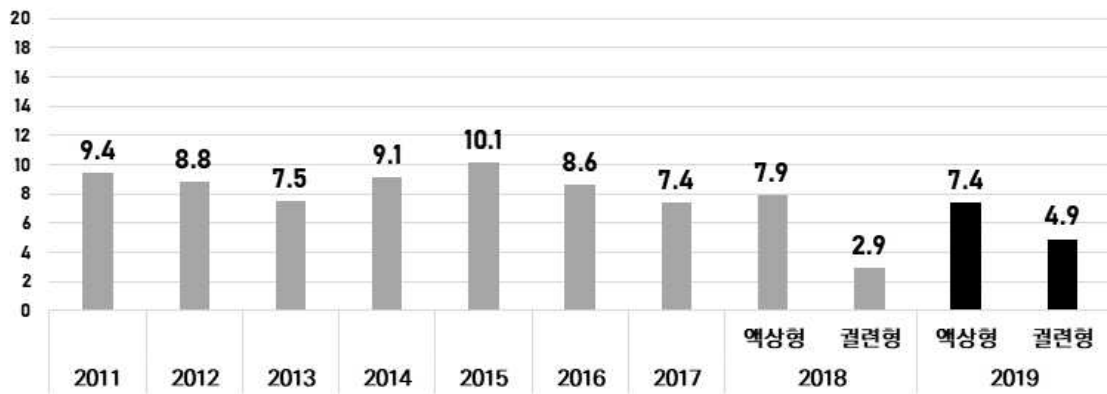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63】 전자담배 생애 경험

###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에서 조사된 청소년의 전자담배(액상형) 생애 경험률은 '15년 10.1%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여 '19년은 7.4%로 나타남.
- 껌련형 전자담배의 경험률은 '18년 첫 조사에서 2.9%였으나 '19년에는 4.9%로 증가함.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그림 III-64】 전자담배 생애 경험률

## ②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이용 경험

-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5%이며,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의 흡연률(5.7%)이 상대적으로 높음.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단속·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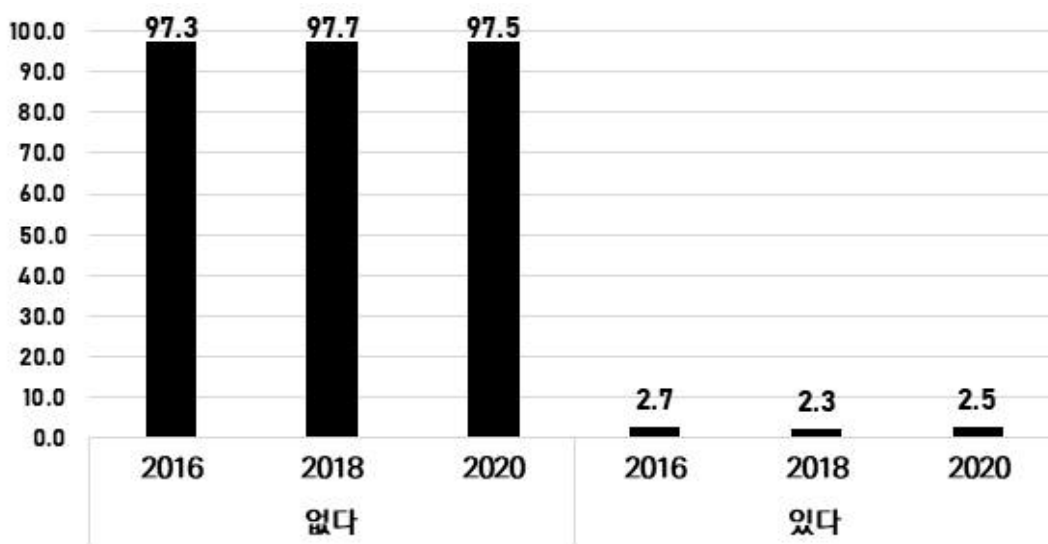
- 전체 중고등학생 중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임.
-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여학생(1.4%)보다는 남학생(3.5%)의 이용률이, 중학생(1.4%)보다는 고등학생(3.6%)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특히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이용률(5.7%)이 높았음.

표 Ⅲ-84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651	97.3	97.7	97.5	2.7	2.3	2.5
성별	남자	5,044	95.6	96.2	4.4	3.8	3.5
	여자	4,607	99.3	99.3	0.7	0.7	1.4
학교급	중학교	4,638	98.6	98.9	1.4	1.1	1.4
	고등학교	5,013	96.2	96.6	3.8	3.4	3.6
	└ 일반계고	4,152	96.7	97.4	3.3	2.6	3.2
	└ 직업계고	861	94.0	93.0	6.0	7.0	5.7
학년	중1	1,544	99.7	99.7	0.3	0.3	0.3
	중2	1,602	98.7	98.9	1.3	1.1	1.3
	중3	1,492	97.4	98.2	2.6	1.8	2.5
	고1	1,490	97.0	97.0	3.0	3.0	3.2
	고2	1,676	96.1	96.0	3.9	4.0	2.8
	고3	1,847	95.5	96.9	4.5	3.1	4.6

\* 주: 1)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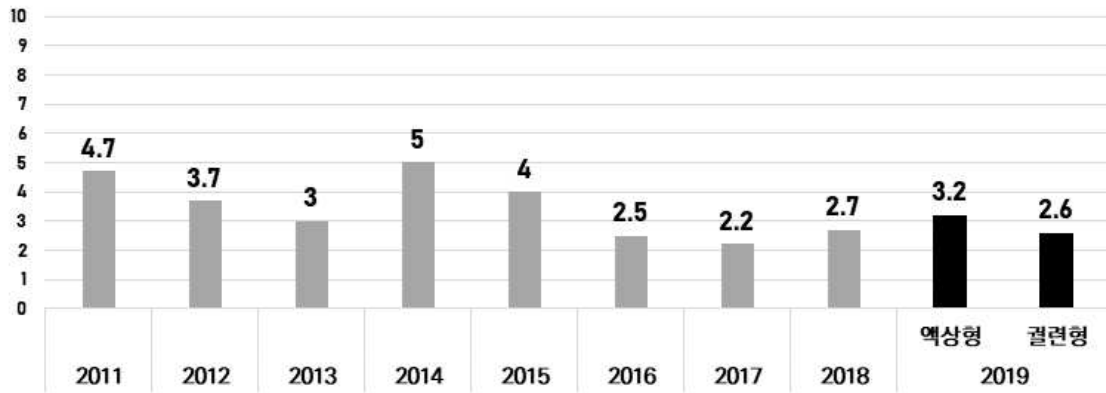


【그림 Ⅲ-65】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경험률



###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로 시계열 비교를 실시한 결과, '11~'16년 사이 전자담배 이용률(액상형)은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한편 껌련형 전자담배의 현재 사용률은 '19년 첫 조사에서 2.6%로 나타남.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그림 III-66】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 경험률

### ③ 전자담배 획득 경로

-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 또는 선배’(67.7%)가 준 것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
- 전자담배를 직접 구매해서 이용한 비율은 전자담배 유경험자의 13.4%를 차지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최근 1개월 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를 구한 경로는 ‘친구 또는 선배’가 67.7%로 가장 많음. ‘본인 직접 구매’한 경우는 13.4%,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의 경우 12.8%로 나타났음.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경우도 9.1%였음.
- 집에 있는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우(9.1%)는 ’16년(7.7%)과 ’18년(4.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15.0%)이 여학생(8.9%)보다 ‘직접구매’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한 비율이 높음.

표 III-85 전자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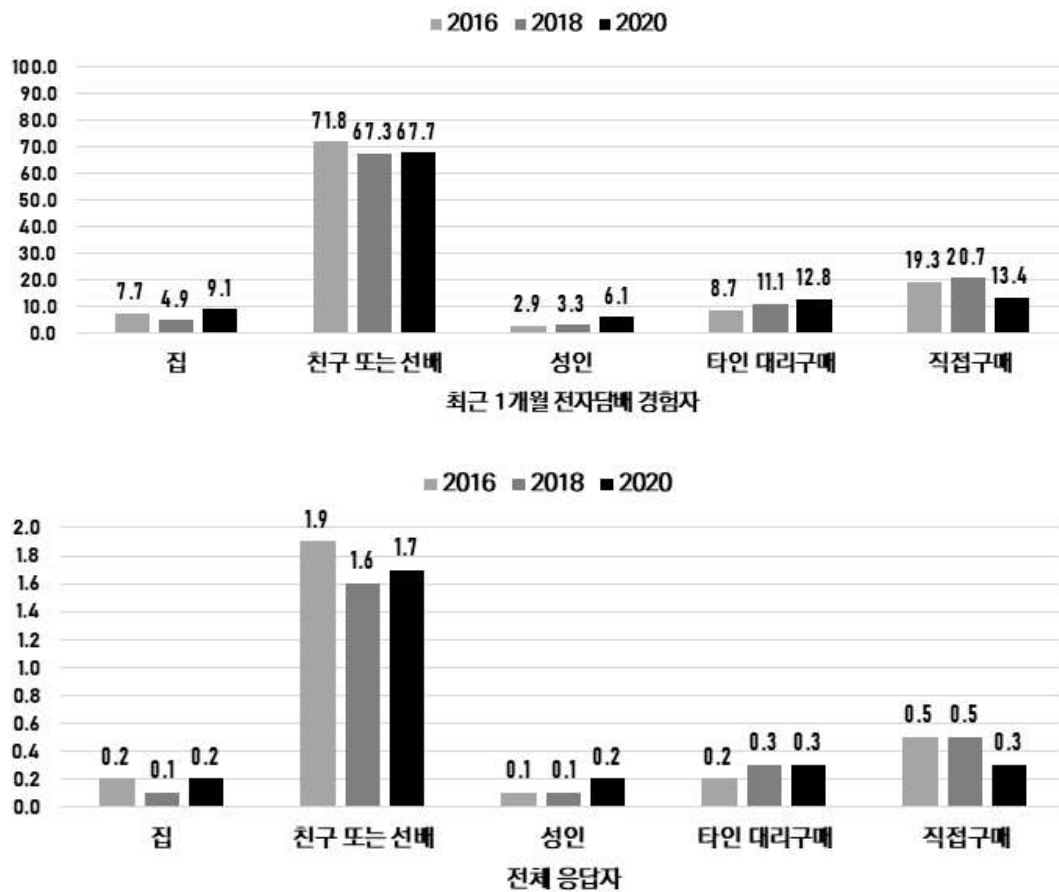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집에 전자담배가 있었다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성인이 줬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			내가 직접 샀다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최근 1개월 전자담배 경험자 <sup>2)</sup>	전체		243	7.7	4.9	9.1	71.8	67.3	67.7	2.9	3.3	6.1	8.7	11.1	12.8	19.3	20.7	13.4	
	성별	남자	177	6.5	3.4	8.2	72.2	67.1	66.8	3.2	3.0	6.8	9.4	12.2	12.4	19.7	22.0	15.0	
		여자	66	16.1	14.1	11.6	69.6	68.5	70.3	0.5	5.0	4.2	3.8	4.6	13.9	16.3	12.8	8.9	
	학교급	중학교	63	13.6	8.6	8.2	70.2	60.0	67.3	2.6	1.4	6.1	7.3	4.5	9.0	16.6	30.6	14.5	
		고등학교	180	5.8	4.0	9.4	72.4	69.2	67.8	3.0	3.8	6.2	9.1	12.9	14.2	20.1	18.1	13.0	
전체 응답자 <sup>3)</sup>	전체		9,652	0.2	0.1	0.2	1.9	1.6	1.7	0.1	0.1	0.2	0.2	0.3	0.3	0.5	0.5	0.3	
	성별	남자	5,044	0.3	0.1	0.3	3.2	2.6	2.3	0.1	0.1	0.2	0.4	0.5	0.4	0.9	0.8	0.5	
		여자	4,607	0.1	0.1	0.2	0.5	0.5	1.0	0.0	0.0	0.1	0.0	0.0	0.2	0.1	0.1	0.1	
	학교급	중학교	4,640	0.2	0.1	0.1	1.0	0.7	0.9	0.0	0.0	0.1	0.1	0.0	0.1	0.2	0.3	0.2	
		고등학교	5,012	0.2	0.1	0.3	2.7	2.3	2.4	0.1	0.1	0.2	0.3	0.4	0.5	0.8	0.6	0.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최근 1개월 동안 전자담배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4) '18년도 '우리집에서 얻었다',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었다', '성인에게 얻었다'의 용어를, '20년도는 각각 '집에 전자담배가 있었다',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성인이 줬다'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67】 전자담배를 구한 방법(중복응답)

#### ④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

-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7.9%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으로 구입하였으며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자담배 판매점’(37.5%)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구입장소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57.9%)임.

- ‘16년, ’18년과 비교하여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의 구입률이 꾸준히 증가하여(’16년 35% → ’18년 46.8% → ’20년 57.9%),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 경로 차단이 시급함.
- 반면 ‘전자담배 판매점’(37.5%)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16년 83.4% → ’18년 58.2% → ’20년 37.5%)하여 구입경로 차단 장치가 적절하고 꾸준히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주된 구입처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72.9%)이며, 남학생들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56.9%) 비율이 가장 높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중학생(11.3%)보다 고등학생(45.3%)의 구입률이 더 높으나 그 외에서는 중학생의 구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I-86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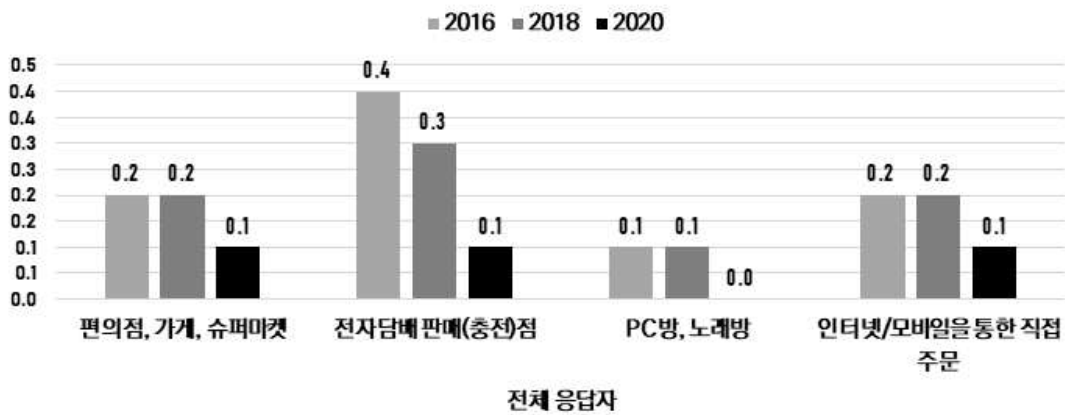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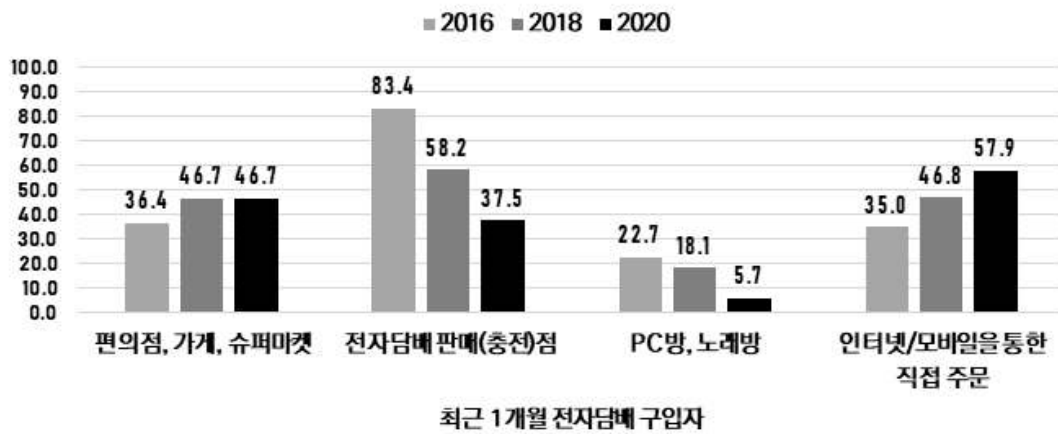
구분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전자담배 판매(충전)점			PC방, 노래방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직거래, 심부름앱 등)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최근 1개월 전자담배 구입 경험자 <sup>2)</sup>	전체	36.4	46.7	46.7	83.4	58.2	37.5	22.7	18.1	5.7	35.0	46.8	57.9
	성별												
	남자	37.4	43.8	39.6	84.7	60.1	34.4	24.2	18.8	3.6	39.2	47.9	56.9
	여자	27.6	74.4	72.9	72.4	39.9	49.1	10.2	11.0	14.0	0.0	36.6	63.1
	학교급												
전체 응답자 <sup>3)</sup>	중학교	32.2	45.6	59.8	67.5	56.5	11.3	14.4	24.7	11.3	19.6	72.9	64.7
	고등학교	37.6	47.2	42.6	87.8	58.9	45.3	25.1	15.2	3.9	39.3	34.8	55.1
	전체	0.2	0.2	0.1	0.4	0.3	0.1	0.1	0.1	0.0	0.2	0.2	0.1
	성별												
	남자	0.3	0.4	0.1	0.7	0.5	0.1	0.2	0.2	0.0	0.3	0.4	0.2
	여자	0.0	0.1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중학교	0.1	0.1	0.1	0.2	0.2	0.0	0.0	0.1	0.0	0.0	0.2	0.1
	고등학교	0.3	0.3	0.2	0.7	0.4	0.2	0.2	0.1	0.0	0.3	0.2	0.2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주문'의 용어를 '20년도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그림 III-68】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장소(중복응답)

## ⑤ 전자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청소년 중 전자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이를 확인한 경우는 30% 내외에 불과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청소년들에게 직접 구입하였을 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소수인 'PC방, 노래방'을 제외하고 본인 확인율이 가장 높은 경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이었으나 이마저도 31.6%에 불과함.
  - 나이 및 본인 확인율이 가장 낮은 경로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21.9%)임. 전자담배 구입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특히 나이 및 본인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주문'에 대한 경로 차단이 시급함.
- '16년, '18년의 전자 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율을 살펴보면,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이 각각 40.4%와 33.3%,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각각 43.1%와 24.6%로 나타났다.

표 Ⅲ-87 전자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확인했음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확인하지 않았음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2016	20	40.4	33.2	26.4
	2018	24	33.3	21.6	45.0
	2020	13	21.9	38.0	40.1
2) 전자담배 판매(충전)점	2016	48	43.1	24.9	32.0
	2018	29	24.6	29.7	45.7
	2020	8	30.0	17.2	52.9
3) PC방, 노래방	2016	12	49.5	8.8	41.7
	2018	9	57.2	20.3	22.5
	2020	1	100.0	0.0	0.0
4)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직거래, 심부름앱 등)	2016	20	44.5	32.3	23.2
	2018	-	-	-	-
	2020	18	31.6	11.5	56.9

\* 주: 1) 최근 1개월 동안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PC방, 노래방의 실제 사례수는 2명이며 가중치를 준 후의 수치는 1.146(≈1)임.

○ 전자담배 구입 시 나이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구두 확인보다는 신분증 제시 요구율이 훨씬 높았으나 ‘PC방, 노래방’에서는 구두확인이 65.3%로 신분증 확인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는 한계가 있음.

○ 전자담배 구입 시 본인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수의 사례이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표 III-88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말(구두)로만 확인	신분증 제시 요구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 <sup>3)</sup>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7	35.1	64.9
	2) 전자담배 판매(충전)점	4	21.1	78.9
	3) PC방, 노래방	1	65.3	34.7

\* 주: 1) ‘확인했음/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구분		사례수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계로 확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sup>4)</sup>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4	100.0	0.0
	2) 전자담배 판매(충전)점	3	100.0	0.0
	3) PC방, 노래방	0	100.0	0.0

\* 주: 1) 최근 1개월 간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확인했음/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4) ‘신분증 제시 요구’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함.

## ⑥ 전자담배 이용 경험 및 흡연 예방 교육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 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86.1%는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42.5%는 교육이 도움된 것으로 응답함.

▶ 관련 정책: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2-3-1.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 치료지원 연계 강화

- 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집단의 흡연 예방 교육 참여 경험은 86.1%로 전자담배 비이용 집단(84.6%)보다 다소 높음.
- 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57.5%는 흡연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18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74.3%)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치임.

표 III-89 전자담배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및 흡연 예방 교육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흡연 예방 교육 <sup>1)2)</sup>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 <sup>3)</sup>			
			무	유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자담배 흡연 경험	있음	239	13.9	86.1	35.6	21.9	39.9	2.6
	없음	279	15.4	84.6	27.0	22.6	40.9	9.4

\* 주: 1) 최근 1개월간 전자담배 경험 여부에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 3-5. 환각성 물질 경험

## ① 환각성 물질 경험률 및 획득 경로

○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0.4%로 파악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단속·강화

○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한 경험률은 0.4%로 나타남.

○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환각성 물질 주된 획득경로는 ‘집’(58.7%)으로 나타남.

- 그 외에 ‘편의점, 가게 직접 구입’(24%), ‘대형마트 직접 구입’(13.7%), ‘성인에게 얻어서’(12.4%), ‘인터넷/모바일 직접 주문’(7.3%), ‘친구 또는 선배’(7.2%)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는 비율이 남학생(3.0%)에 비해 여학생(17.1%)이 다소 높았음.
- 학교급별로 환각성 물질을 얻는 주된 경로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집’(69.6%)이며, 고등학생은 ‘편의점, 가게에서 직접 구입’(43.9%)으로 나타남.

표 III-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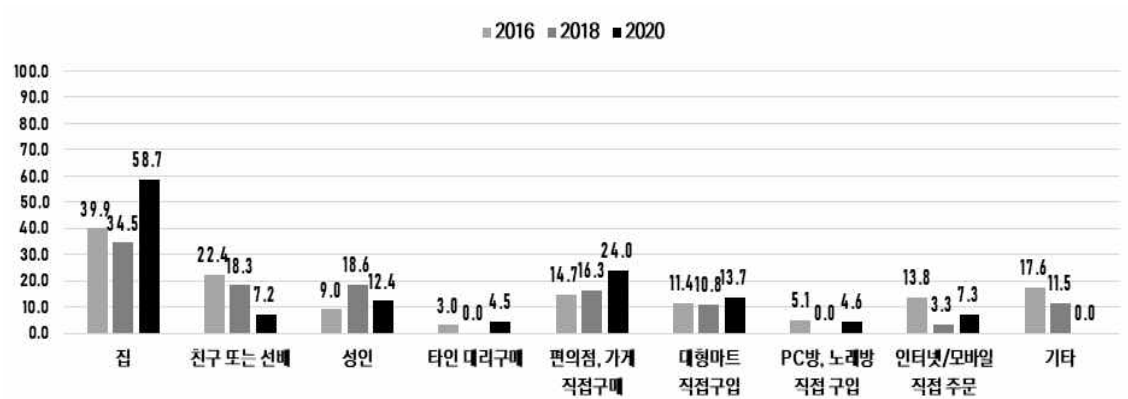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 및 획득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획득 경로(중복응답)									
				집에 있어서	친구/ 선배	성인에 게 얻어서	타인에게 대신 사달라고 부탁해서	편의점 , 가게 직접 구입	대형 마트 직접 구입	PC방, 노래방 직접 구입	인터넷 /모바일 직접 주문	기타	
전체	2016	11,161	0.4	39.9	22.4	9.0	3.0	14.7	11.4	5.1	13.8	17.6	
	2018	10,908	0.3	34.5	18.3	18.6	0.0	16.3	10.8	0.0	3.3	11.5	
	2020	9,428	0.4	58.7	7.2	12.4	4.5	24.0	13.7	4.6	7.3	0.0	
성 별	남 자	2016	5,825	0.5	32.3	22.9	8.5	4.5	17.3	13.1	7.6	20.7	21.7
		2018	5,682	0.5	23.9	21.2	21.7	0.0	14.9	13.7	0.0	4.8	11.5
		2020	4,922	0.6	55.5	3.0	11.1	0.0	20.3	12.3	3.5	7.4	0.0
	여 자	2016	5,336	0.3	54.9	21.6	10.1	0.0	9.6	8.0	0.0	0.0	9.6
		2018	5,226	0.2	57.0	12.0	12.0	0.0	19.3	4.8	0.0	0.0	11.4
		2020	4,506	0.2	66.4	17.1	15.4	15.1	32.9	17.1	7.2	7.2	0.0
학 교 급 단	중 학 교	2016	5,247	0.4	58.9	8.7	6.4	0.0	11.4	0.0	3.9	3.8	15.6
		2018	4,942	0.4	53.5	19.6	6.6	0.0	10.6	9.9	0.0	0.0	13.0
		2020	4,492	0.6	69.6	3.1	11.0	3.1	15.4	15.5	3.1	7.0	0.0
	고 등 학 교	2016	5,914	0.4	18.9	37.6	11.8	6.3	18.4	24.0	6.3	24.8	19.8
		2018	5,966	0.3	14.1	16.9	31.5	0.0	22.4	11.8	0.0	6.8	9.9
		2020	4,936	0.2	33.8	16.6	15.6	7.7	43.9	9.7	8.2	8.1	0.0

\* 주: 1) 획득 경로는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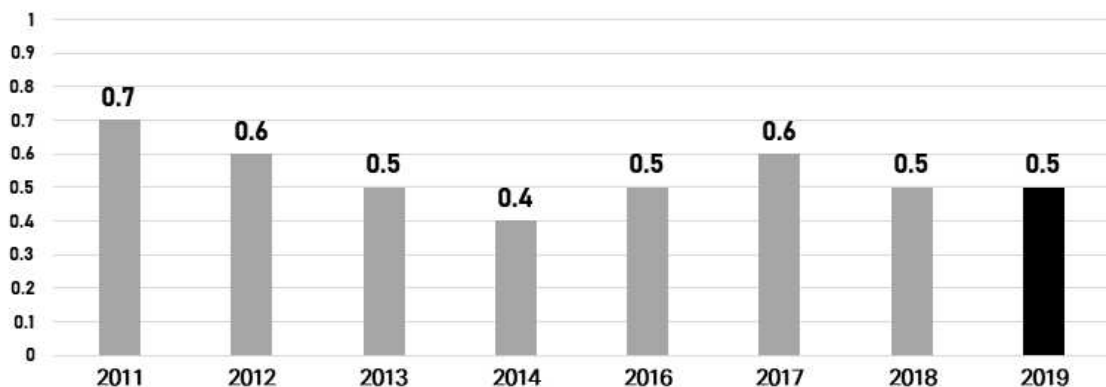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69】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 획득 경로(중복응답)

### ■ 관련 통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11년 0.7%에서 '14년에 0.4%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8년부터는 답보상태임.



\* 출처: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주: 1) '15년에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그림 III-70】 약물 생애 경험률

## ② 환각성 물질 예방 교육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환각성 물질 위험에 대한 교육 경험은 33.7%이며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73.6%임.
- 환각성 물질 유경험자 중 환각성 물질 위험에 대해 교육받은 청소년은 38.9%이며 그중 78.7%는 교육이 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 관련 정책: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2-3-1.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 치료지원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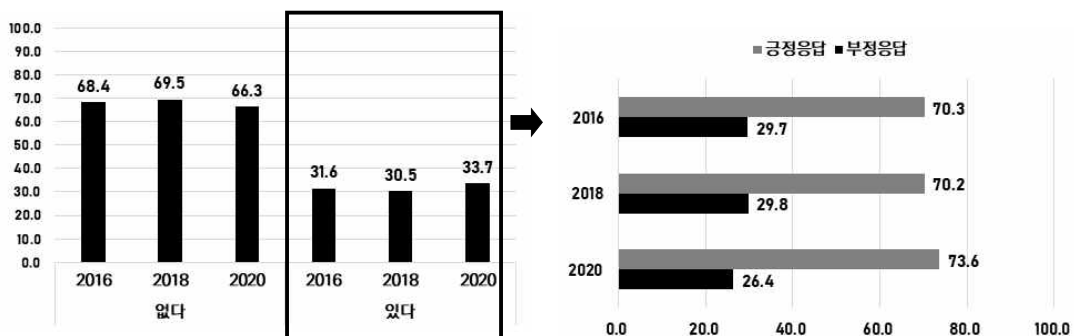
○ 환각성 물질 위험에 대한 교육 경험률은 33.7%이며 그중 73.6%는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표 Ⅲ-91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6	2018	2020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9,487	31.6	30.5	33.7	3,166	15.1	16.7	14.8	14.6	13.1	11.6	51.8	52.7	54.1	18.5	17.5	19.5
성별	남자	4,930	35.5	34.5	38.1	1,854	18.3	19.1	18.2	12.7	11.3	10.9	48.1	49.8	50.3	21.0	19.8	20.7
	여자	4,557	27.4	26.1	28.9	1,312	10.6	13.3	10.1	17.3	15.7	12.6	57.0	56.8	59.4	15.1	14.2	17.9
학교 급	중학 교	4,569	32.7	29.9	32.6	1,473	9.2	12.7	9.1	11.5	10.2	9.2	54.6	53.7	54.3	24.7	23.4	27.4
	고등 학교	4,918	30.7	30.9	34.7	1,693	20.6	19.9	19.8	17.5	15.5	13.7	49.1	51.8	53.8	12.7	12.8	12.7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환각성 물질 위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Ⅲ-71】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 환각성 물질 유경험자 중 환각성 물질 위험에 대해 교육받은 청소년은 38.9%에 불과하며 그중 21.2%만이 교육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하여, 환각물질 유경험자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III-92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및 만족도와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			
			무	유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있음	38	61.1	38.9	73.5	5.2	14.7	6.5
	없음	9,240	66.5	33.5	14.5	11.6	54.3	19.6

\* 주: 1)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에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3-6. 유해약물에 대한 접촉 환경

- 청소년들의 유해약물(술/담배/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감소함.
- 술·담배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 중 절반 정도가 술·담배를 구하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유해물질 노출(구입)의 용이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관련 정책: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2-2-2. 유해약물 대국민 캠페인 강화

○ 중고등학생의 26.3%는 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비율은 과거('16년 30.7%, '18년 33.4%)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술에 대한 관심이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중학생(18.5%)은 고등학생(33.6%)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경향을 보임.

○ 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응답자 중 49.4%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인식은 2018년(52.0%)에 비해서는 감소하였고 2016년도(49.8%)와는 비슷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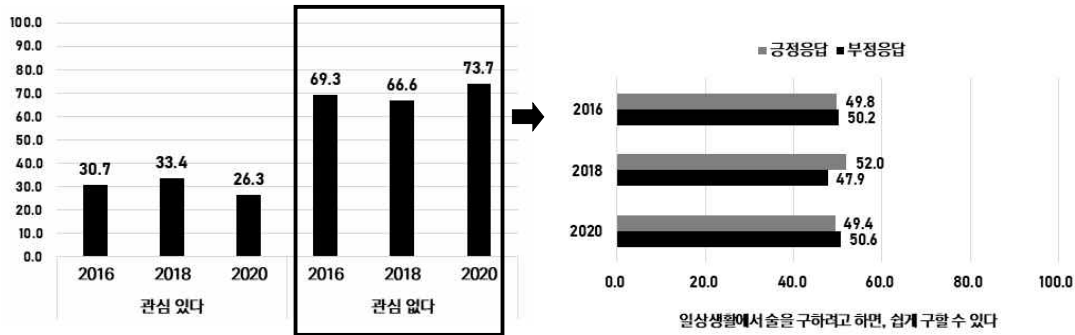
표 III-93 주류에 대한 접촉 환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sup>1)</sup>	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나 관심 있다	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나 관심 없다	일상생활에서 술을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sup>2)</su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6	11,115	30.7	69.3	23.2	27.0	39.9	9.9	
	2018	10,871	33.4	66.6	23.5	24.4	40.1	11.9	
	2020	9,613	26.3	73.7	25.8	24.8	38.0	11.4	
성별	남자	2016	5,800	30.4	69.6	27.5	26.1	36.3	10.1
		2018	5,659	32.4	67.6	26.5	25.1	36.3	12.1
		2020	5,021	26.7	73.3	29.0	26.2	34.1	10.7
	여자	2016	5,315	30.9	69.1	18.5	28.0	43.8	9.8
		2018	5,212	34.5	65.5	20.2	23.7	44.4	11.7
		2020	4,593	26.0	74.0	22.2	23.2	42.3	12.3
	학교급	중학교	2016	5,229	18.5	81.5	32.5	29.5	31.6
2018			4,922	23.6	76.4	32.5	25.8	32.9	8.8
2020			4,624	18.5	81.5	32.9	27.1	31.8	8.2
고등 학교		2016	5,886	41.4	58.6	11.8	24.1	50.1	14.1
		2018	5,949	41.5	58.5	13.8	22.9	48.0	15.3
		2020	4,989	33.6	66.4	17.6	22.2	45.0	15.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술에 대한 관심 여부에 따른 응답자 수임.

2) '술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72】 주류에 대한 접촉 환경

○ 담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10.7%로 술과 마찬가지로 과거('16년 12.2%, '18년 13.7%)에 비해 관심 정도가 다소 감소함.

- 하위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담배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7.5%)보다는 남학생(13.7%)에게서, 중학생(8.2%)보다는 고등학생(13.1%)에게서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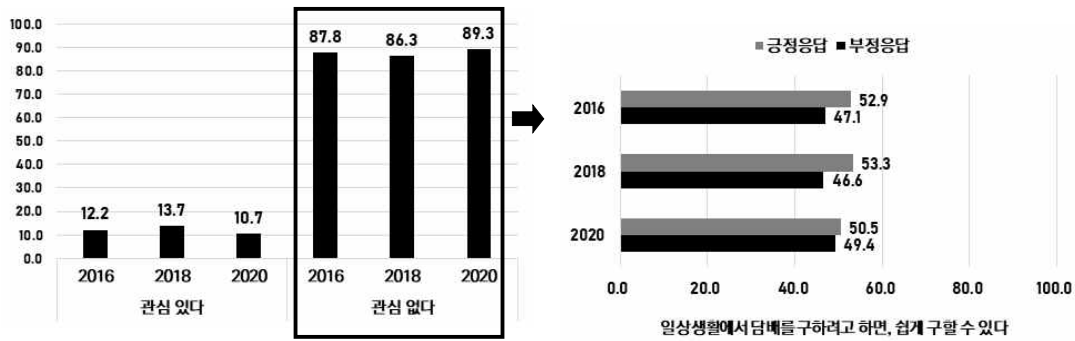
○ 담배에 관심이 없는 중고등학생 중 50.5%는 원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함.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과거('16년 52.9%, '18년 53.3%)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임.

표 III-94 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sup>1)</sup>	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나 관심 있다	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나 관심 없다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sup>2)</su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6	11,112	12.2	87.8	22.5	24.6	40.2	12.7	
	2018	10,872	13.7	86.3	23.0	23.6	40.0	13.3	
	2020	9,607	10.7	89.3	25.4	24.0	37.0	13.5	
성별	남자	2016	5,796	17.3	82.7	28.0	22.9	35.3	13.9
		2018	5,660	18.2	81.8	27.1	22.8	36.6	13.5
		2020	5,016	13.7	86.3	29.3	24.6	33.1	12.9
	여자	2016	5,316	6.6	93.4	17.3	26.2	44.9	11.6
		2018	5,212	8.8	91.2	19.1	24.4	43.4	13.1
		2020	4,590	7.5	92.5	21.4	23.4	41.1	14.0
학교급	중학교	2016	5,228	9.5	90.5	33.8	26.8	31.0	8.3
		2018	4,921	12.4	87.6	35.0	24.4	30.8	9.8
		2020	4,614	8.2	91.8	34.2	26.0	30.1	9.7
	고등학교	2016	5,884	14.6	85.4	11.9	22.4	48.0	16.9
		2018	5,951	14.8	85.2	12.9	23.0	47.8	16.3
		2020	4,992	13.1	86.9	16.8	22.1	43.9	17.2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담배에 대한 관심 여부에 따른 응답자 수임.  
2) '담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73】 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 중고등학생의 8.4%가 전자담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담배에 관심이 없는 중고등학생 중 39.9%는 일상생활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거('16년 43.7%, '18년 41.6%)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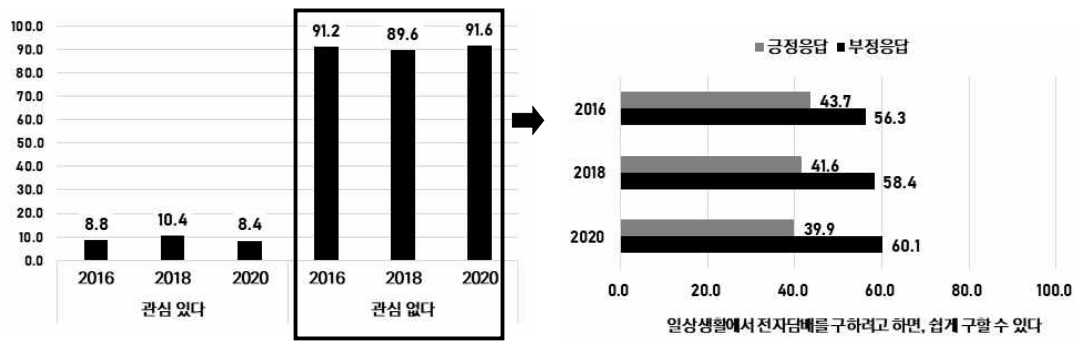
표 III-95 전자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sup>1)</sup>	전자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관심 있다	전자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관심 없다	일상생활에서 전자담배를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sup>2)</su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6	11,107	8.8	91.2	25.8	30.5	32.8	10.9
		2018	10,864	10.4	89.6	26.6	31.8	30.5	11.1
		2020	9,601	8.4	91.6	29.5	30.6	28.9	11.0
성 별	남자	2016	5,796	12.7	87.3	30.2	27.6	30.2	12.0
		2018	5,654	14.5	85.5	30.0	29.2	28.0	12.7
		2020	5,011	11.1	88.9	33.1	29.9	25.7	11.3
	여자	2016	5,312	4.6	95.4	21.5	33.4	35.3	9.8
		2018	5,210	5.9	94.1	23.2	34.2	33.0	9.6
		2020	4,590	5.5	94.5	25.7	31.4	32.1	10.7
학 교 급	중학교	2016	5,224	7.3	92.7	38.5	32.2	22.7	6.7
		2018	4,914	9.5	90.5	39.5	32.1	20.4	7.9
		2020	4,612	6.6	93.4	39.6	31.6	21.2	7.5
	고등학교	2016	5,883	10.2	89.8	14.2	29.0	42.1	14.8
		2018	5,950	11.1	88.9	15.7	31.4	39.0	13.8
		2020	4,988	10.1	89.9	19.7	29.7	36.2	14.4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전자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관심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74】 전자담배에 대한 접촉 환경



## 4. 업소 영역

### 4-1.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실태

#### ① 이용 경험

- 청소년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업소의 최근 1년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PC방'(71.8%) 이용률이, 여자청소년은 '코인 노래방'(79.4%)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8년에 비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업소의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며, COVID-19로 인한 업소 출입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 3-1-1.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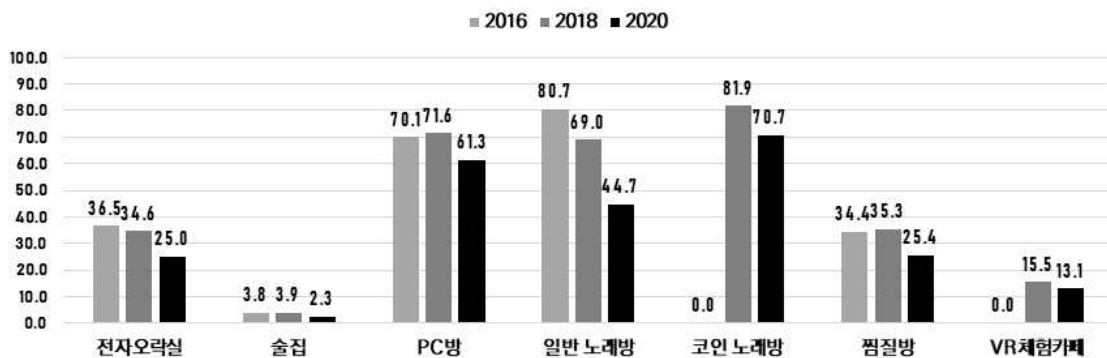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코인 노래방' 이용률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PC방'(61.3%), '일반노래방'(44.7%) 등의 순임.
- 남자청소년은 'PC방' 이용률(71.8%)이 가장 높고, 여학생은 '코인 노래방' 이용률(79.4%)이 가장 높음.
-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코인 노래방'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PC방', '일반노래방' 등의 순임.
- '16년 조사 이후 '전자오락실'과 '일반 노래방'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음. '18년에 비해 '20년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업소 이용률이 모든 성별과 학교급에서 감소하였음.
- COVID-19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코인 노래방, PC방, 일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됨.

표 III-96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자 오락실	술집 (소주방, 호프집)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 카페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전체	2016	36.5	3.8	70.1	80.7	-	34.4	-
	2018	34.6	3.9	71.6	69.0	81.9	35.3	15.5
	2020	25.0	2.3	61.3	44.7	70.7	25.4	13.1
성별	남자	2016	36.9	5.0	86.4	73.5	-	37.3
		2018	36.2	5.3	84.2	61.8	74.2	38.4
		2020	26.0	2.6	71.8	40.0	62.7	26.2
	여자	2016	36.1	2.6	52.1	88.5	-	31.1
		2018	32.9	2.5	57.8	76.8	90.2	32.0
		2020	24.0	1.9	49.8	49.8	79.4	24.4
학교급	중학교	2016	34.0	1.6	67.4	77.3	-	33.6
		2018	35.8	2.2	67.9	64.0	77.1	35.7
		2020	25.3	1.4	56.7	37.3	63.6	24.4
	고등학교	2016	38.7	5.9	72.4	83.7	-	35.0
		2018	33.6	5.4	74.6	73.1	85.8	35.0
		2020	24.8	3.1	65.6	51.2	77.1	26.2

\* 주: 1) 오락실, PC방, 노래방, 찜질방은 심야시간대 이용이 제한되며, 소주방·호프집은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 이용을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75]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중복응답)

## ② 심야시간 이용 경험 및 나이 확인 여부

-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을 시도한 경험률은 ‘코인 노래방’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PC방’, ‘일반 노래방’ 등의 순임.
- ’16년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심야시간에 이용하려고 시도한 경험률은 모든 업소, 성별, 학교급에서 감소함.
-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경우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시도한 청소년의 40.0% 이상이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정책: 3-1-1.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  
 3-2-1.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청소년보호 활성화  
 3-2-2. 민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및 신고의식 제고.

- 최근 1년 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를 심야시간(밤 10시 이후)에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코인 노래방’ 이용을 시도한 경험률(13.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PC방’(8.7%), ‘일반 노래방’(6.2%), ‘찜질방’(5.3%), ‘VR체험카페’(1.6%)의 순이었음.
-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코인 노래방’ 이용을 시도한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코인 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남자청소년의 이용 시도 경험률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았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코인 노래방’ 이용을 시도한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VR 체험카페’를 제외한 업소에서 고등학생의 이용 시도 경험률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음.
- ’16년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심야시간 이용하려고 시도한 경험률은 모든 업소, 성별, 학교급에서 감소함. 다만, ‘VR 체험카페’의 고등학생 이용 시도율은 2018년과 동일함.
-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를 이용하려고 한 청소년들 중 나이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입을 허용한 업소는 ‘코인 노래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찜질방’, ‘일반 노래방’, ‘PC방’, ‘VR체험카페’의 순이었음.
- 심야시간 출입허용 비율: 코인 노래방(60.3%) > 찜질방(58.5%) > 일반 노래방(54.8%) > PC방(39.1%) > VR체험카페(37.5%)
- \* 심야시간에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이용을 시도한 청소년 중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에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표 III-97>에 근거하여 단순 산출한 결과임.
-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은 ‘코인 노래방’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8.2%가 심야시간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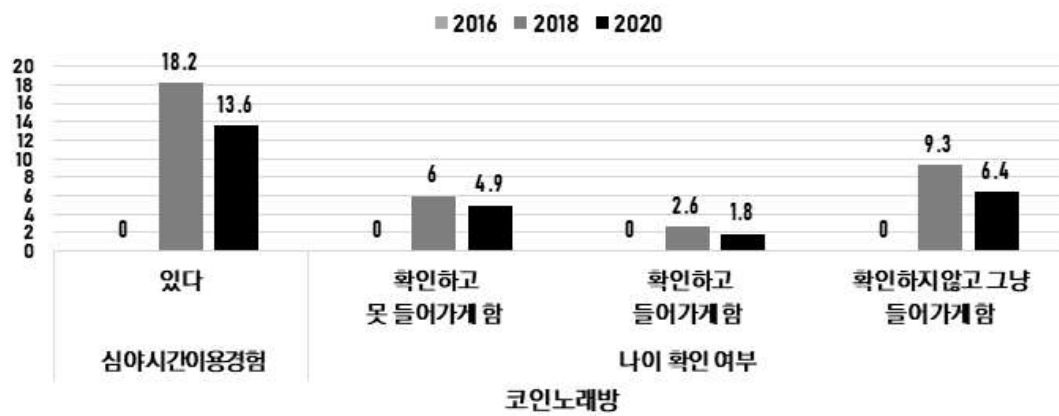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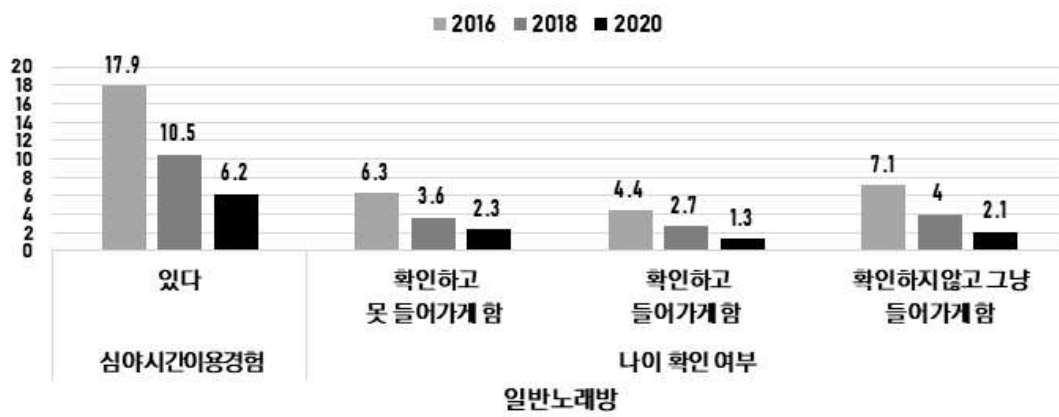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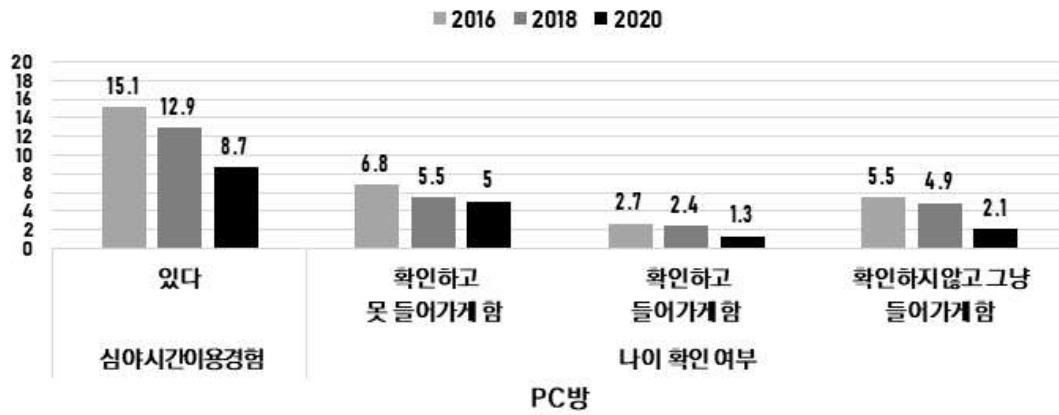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심야시간에 이용하려고 한 적 있다	나이 확인 여부 <sup>1)2)</sup>			
					확인하고 못들어 가게함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1) PC방	전체		2016	11,135	15.1	6.8	2.7	5.5
			2018	10,800	12.9	5.5	2.4	4.9
			2020	9,532	8.7	5.0	1.3	2.1
	성 별	남자	2016	5,813	22.4	10.3	4.0	8.1
			2018	5,631	19.3	8.1	3.8	7.2
			2020	4,996	11.6	7.0	1.6	2.7
		여자	2016	5,321	7.1	2.9	1.4	2.7
			2018	5,169	5.9	2.7	0.9	2.3
			2020	4,536	5.4	2.9	1.0	1.5
	학 교 급	중학교	2016	5,234	11.2	5.2	2.3	3.7
			2018	4,867	9.3	4.2	1.9	3.0
			2020	4,580	6.1	3.7	1.0	1.3
		고등 학교	2016	5,901	18.5	8.1	3.2	7.2
			2018	5,932	15.9	6.7	2.8	6.4
			2020	4,951	11.0	6.2	1.6	3.0
2) 일반 노래방 <sup>3)</sup>	전체		2016	11,137	17.9	6.3	4.4	7.1
			2018	10,575	10.5	3.6	2.7	4.0
			2020	9,256	6.2	2.3	1.3	2.1
	성 별	남자	2016	5,814	18.0	6.1	4.3	7.5
			2018	5,479	10.7	3.5	3.0	4.0
			2020	4,780	6.2	2.4	1.3	2.0
		여자	2016	5,323	17.8	6.5	4.5	6.7
			2018	5,096	10.4	3.7	2.5	4.1
			2020	4,476	6.1	2.3	1.3	2.2
	학 교 급	중학교	2016	5,236	12.5	3.5	3.9	4.9
			2018	4,719	8.3	2.4	2.5	3.2
			2020	4,413	4.9	1.7	1.1	1.7
		고등 학교	2016	5,901	22.6	8.7	4.8	9.0
			2018	5,856	12.3	4.6	3.0	4.6
			2020	4,843	7.3	2.9	1.5	2.5
3) 코인 노래방	전체		2016	-	-	-	-	-
			2018	10,748	18.2	6.0	2.6	9.3
			2020	9,487	13.6	4.9	1.8	6.4
	성 별	남자	2016	-	-	-	-	-
			2018	5,581	17.9	5.6	2.9	9.1
			2020	4,918	13.1	4.5	1.7	6.2
		여자	2016	-	-	-	-	-
			2018	5,166	18.6	6.4	2.3	9.6
			2020	4,569	14.1	5.3	2.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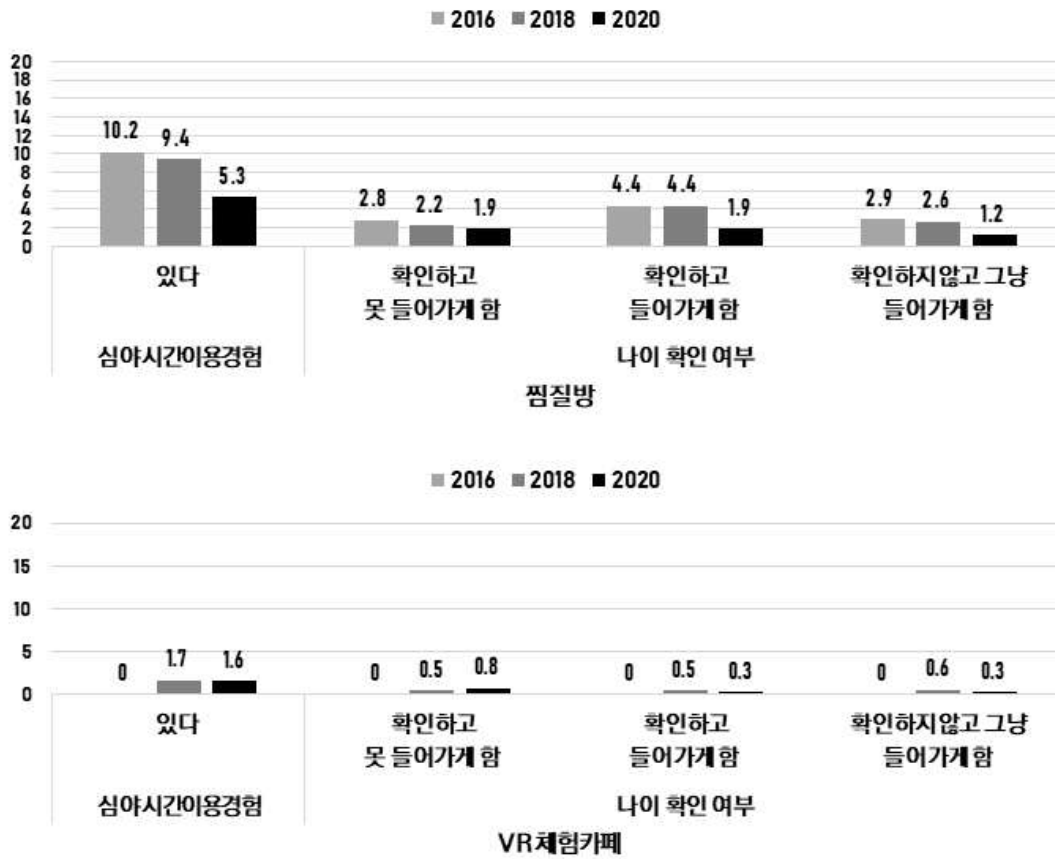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심야시간에 이용하려고 한 적 있다	나이 확인 여부 <sup>1)2)</sup>			
						확인하고 못들어 가게함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4) 찜질방	학 교 급	중학교	2016	-	-	-	-	-	
			2018	4,833	12.6	3.7	2.4	6.3	
			2020	4,542	8.2	2.5	1.4	4.0	
		고등 학교	2016	-	-	-	-	-	
			2018	5,915	22.8	7.9	2.8	11.9	
			2020	4,945	18.5	7.1	2.3	8.7	
	성별	전체	2016	11,130	10.2	2.8	4.4	2.9	
			2018	10,749	9.4	2.2	4.4	2.6	
			2020	9,336	5.3	1.9	1.9	1.2	
		남자	2016	5,509	13.2	3.4	6.1	3.6	
			2018	5,580	12.0	2.6	5.9	3.2	
			2020	4,841	6.5	2.5	2.3	1.3	
		여자	2016	5,319	6.8	2.2	2.5	2.1	
			2018	5,169	6.6	1.8	2.7	2.0	
			2020	4,495	4.0	1.3	1.5	1.1	
		학 교 급	중학교	2016	5,233	8.9	2.1	4.4	2.4
				2018	4,843	8.8	1.8	4.4	2.3
				2020	4,499	4.8	1.7	1.7	1.1
고등 학교	2016		5,896	11.2	3.4	4.4	3.4		
	2018		5,907	10.0	2.6	4.4	2.9		
	2020		4,836	5.9	2.1	2.1	1.3		
5) VR 체험카페	전체	2016	-	-	-	-	-		
		2018	10,707	1.7	0.5	0.5	0.6		
		2020	9,307	1.6	0.8	0.3	0.3		
	성별	남자	2016	-	-	-	-	-	
			2018	5,540	2.2	0.7	0.8	0.7	
			2020	4,821	1.6	0.9	0.3	0.2	
		여자	2016	-	-	-	-	-	
			2018	5,167	1.1	0.3	0.2	0.5	
			2020	4,486	1.6	0.6	0.4	0.5	
	학 교 급	중학교	2016	-	-	-	-	-	
			2018	4,812	1.9	0.6	0.6	0.7	
			2020	4,495	1.7	0.8	0.5	0.3	
		고등 학교	2016	-	-	-	-	-	
			2018	5,896	1.5	0.5	0.4	0.6	
			2020	4,812	1.5	0.7	0.2	0.4	

\* 주: 1)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 하였음.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16년 조사 시 노래방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림 III-76】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

## 4-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용 실태

### 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연간 이용률 및 나이 확인 여부

- 최근 1년 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 중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이 14.4%로 가장 높음.
- ‘16년 조사 이후 ‘비디오/DVD방’의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유흥/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음악클럽, ‘(이성이 동행한)숙박업소’의 이용률은 ‘1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멀티방/룸카페’는 전체 조사대상의 7.1%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했다’고 응답함.

- ▶ 관련 정책: 3-1-1.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  
 3-2-1.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청소년보호 활성화  
 3-2-2. 만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및 신고의식 제고.

-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이 14.4%로 가장 높고, 이어서 ‘비디오/DVD방’(2.0%), ‘(이성이 동행한)숙박업소’(1.6%) 등의 순임.
- ‘멀티방/룸카페’를 제외한 모든 업소의 이용률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이용률이 높았음.
- ‘16년 조사 이후 ‘비디오/DVD방’의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였음(‘16년 2.7% → ‘18년 2.3% → ‘20년 2.0%). 그러나 ‘유흥/단란주점’(0.3%p), ‘나이트클럽/음악클럽’(0.3%p), ‘(이성이 동행한)숙박업소’(0.4%p) 이용률은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소 이용 시 나이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비율은 ‘멀티방/룸카페’가 가장 높았음.
- 나이 미확인 비율: 멀티방/룸카페(49.3%) > 비디오/DVD방(35.0%) > 유흥/단란주점(30.0%) > 나이트클럽/음악클럽(28.6%) >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25.0%)
- \*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이용 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에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표 III-98>에 근거하여 단순 산출한 결과임.
-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이용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에게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소에) 들어가게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4.4%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멀티방/룸카페’는 전체 조사대상의 7.1%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했다’고 응답함.
- ‘멀티방/룸카페’, ‘비디오/DVD방’의 경우 이용 시 나이를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 비해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을 허용한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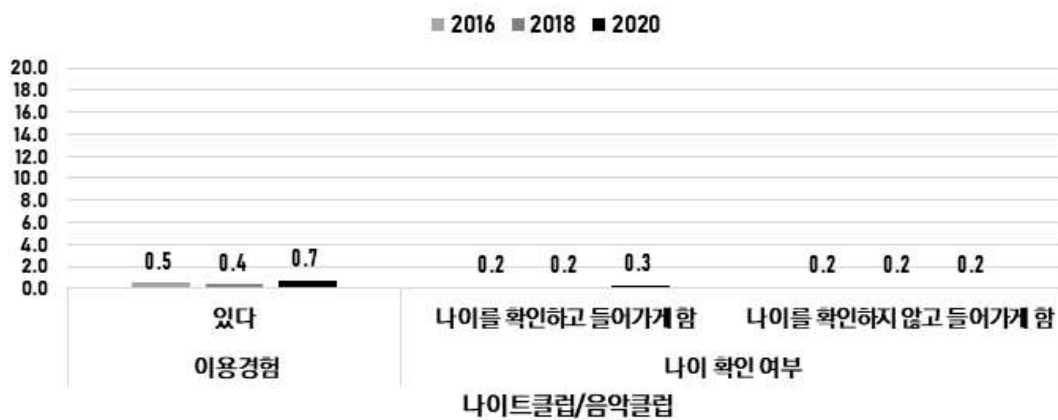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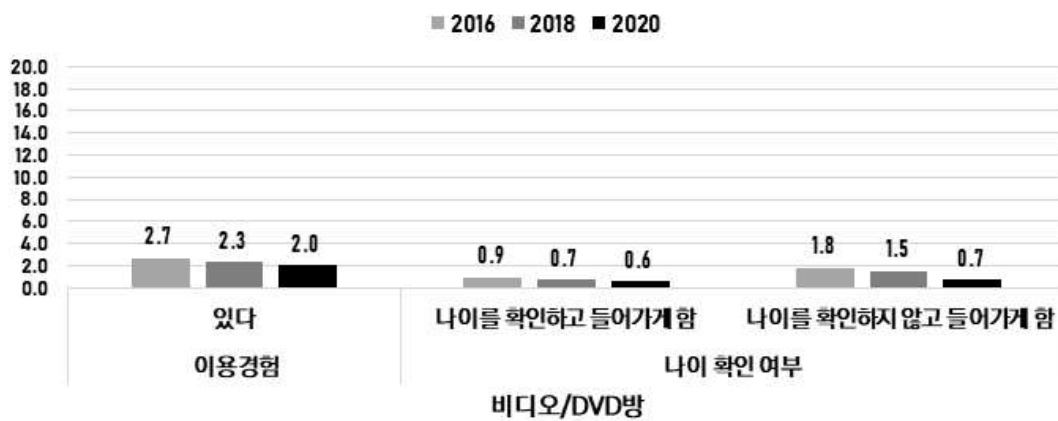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다	나이 확인 여부 <sup>3)</sup>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1) 비디오/DVD 방	전체		2016	11,065	2.7	0.9	1.8
			2018	10,863	2.3	0.7	1.5
			2020	9,536	2.0	0.6	0.7
	성별	남자	2016	5,775	2.8	0.9	1.8
			2018	5,648	2.4	0.8	1.5
			2020	4,971	2.0	0.7	0.6
		여자	2016	5,289	2.7	0.8	1.8
			2018	5,215	2.1	0.6	1.5
			2020	4,565	1.9	0.5	0.7
	학교급	중학교	2016	5,209	2.1	0.7	1.3
			2018	4,913	1.8	0.6	1.2
			2020	4,587	1.9	1.0	0.8
		고등학교	2016	5,855	3.3	1.0	2.2
			2018	5,950	2.6	0.8	1.7
			2020	4,949	2.0	0.7	1.2
2) 유흥/단란주점	전체		2016	11,060	1.1	0.5	0.6
			2018	10,859	0.7	0.3	0.4
			2020	9,532	1.0	0.3	0.3
	성별	남자	2016	5,773	1.4	0.7	0.6
			2018	5,646	1.1	0.4	0.7
			2020	4,968	1.2	0.4	0.3
		여자	2016	5,287	0.8	0.3	0.6
			2018	5,213	0.4	0.2	0.2
			2020	4,564	0.7	0.3	0.2
	학교급	중학교	2016	5,207	0.5	0.2	0.2
			2018	4,913	0.2	0.0	0.1
			2020	4,582	0.7	0.5	0.2
		고등학교	2016	5,853	1.7	0.8	0.9
			2018	5,946	1.2	0.5	0.7
			2020	4,950	1.2	0.6	0.6
3) 나이트클럽/음악 클럽	전체		2016	11,061	0.5	0.2	0.2
			2018	10,834	0.4	0.2	0.2
			2020	9,504	0.7	0.3	0.2
	성별	남자	2016	5,774	0.7	0.3	0.3
			2018	5,633	0.7	0.3	0.4
			2020	4,957	0.9	0.3	0.2
		여자	2016	5,288	0.2	0.1	0.1
			2018	5,201	0.2	0.1	0.0
			2020	4,547	0.5	0.2	0.1
	학교급	중학교	2016	5,208	0.2	0.1	0.1
			2018	4,899	0.3	0.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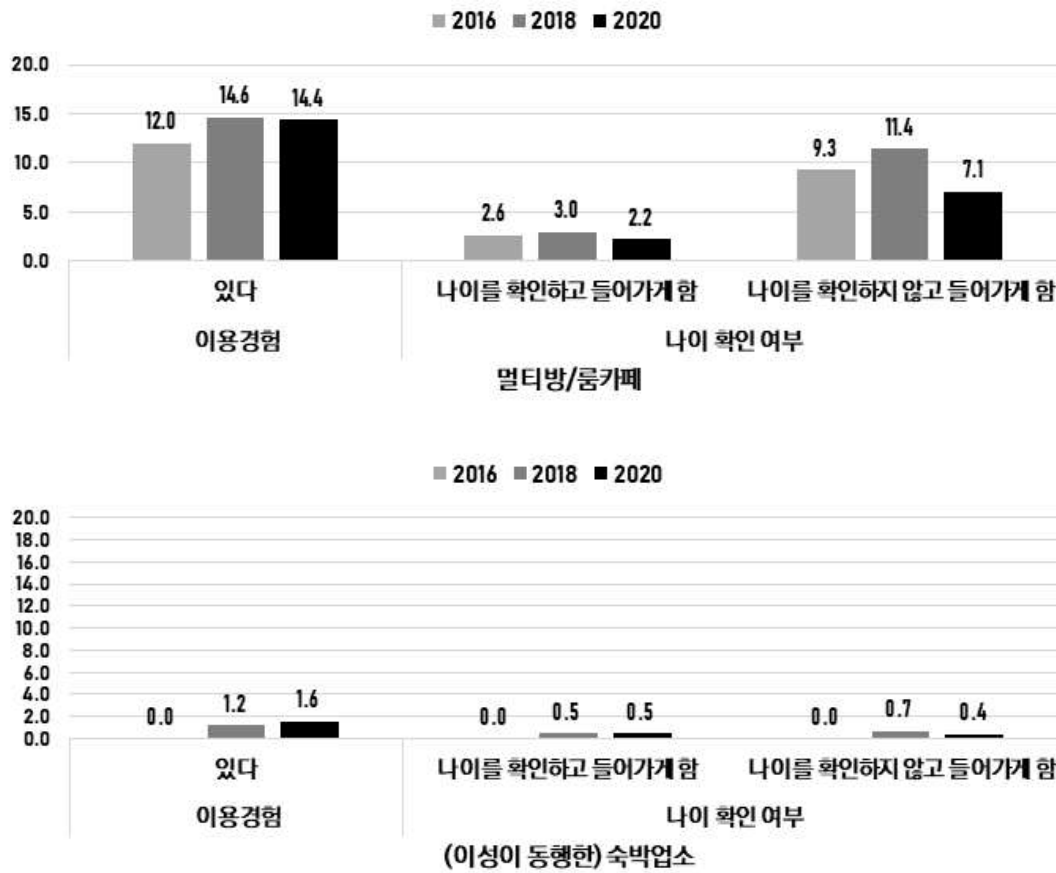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이용한 적 있다	나이 확인 여부 <sup>3)</sup>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고등학교	2020	4,571	0.6	0.4	0.1
			2016	5,853	0.7	0.4	0.3
			2018	5,935	0.6	0.3	0.2
			2020	4,934	0.8	0.4	0.3
4) 멀티방/룸카페 <sup>2)</sup>	전체		2016	11,063	12.0	2.6	9.3
			2018	10,842	14.6	3.0	11.4
			2020	9,510	14.4	2.2	7.1
	성별	남자	2016	5,774	6.3	1.8	4.4
			2018	5,639	6.9	2.1	4.8
			2020	4,955	7.7	1.6	3.3
		여자	2016	5,289	18.3	3.4	14.8
			2018	5,202	22.8	4.0	18.7
			2020	4,556	21.8	2.9	11.2
	학교급	중학교	2016	5,209	10.3	2.2	8.1
			2018	4,902	12.8	2.4	10.2
			2020	4,570	12.8	3.3	9.1
		고등학교	2016	5,854	13.5	3.0	10.5
			2018	5,940	16.0	3.5	12.4
			2020	4,940	16.0	3.4	12.1
	5)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	전체		2016	-	-	-
2018				10,861	1.2	0.5	0.7
2020				9,524	1.6	0.5	0.4
성별		남자	2016	-	-	-	-
			2018	5,649	1.5	0.6	0.9
			2020	4,966	1.8	0.6	0.5
		여자	2016	-	-	-	-
			2018	5,212	0.9	0.4	0.5
			2020	4,558	1.3	0.4	0.4
학교급		중학교	2016	-	-	-	-
			2018	4,912	0.6	0.2	0.4
			2020	4,581	1.0	0.7	0.3
		고등학교	2016	-	-	-	-
			2018	5,949	1.7	0.7	1.0
			2020	4,943	2.1	0.9	1.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지는 않음. 그러나 멀티방과 유사형태로 운영되어 '멀티방/룸카페'를 병기하여 조사하였음.

3)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그림 III-77】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연간 이용률 및 나이 확인 여부

##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임.
- '16년 조사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7.4%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16년 조사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 정책: 3-2-1.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청소년보호 활성화  
5-1-2.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청소년의 2.4%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3.0%, 여자청소년의 1.9%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3.5%)이 중학생(1.3%)에 비해, 직업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았음.
  - '16년 조사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고등학생(일반계고/직업계고)에게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1년 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시 나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7.4%였음.
  -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비율은 남자청소년(19.0%)이 여자청소년(14.6%)에 비해 높았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7.3%)이 고등학생(14.0%; 일반계고 18.2%, 직업계고 6.2%)에 비해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16년 조사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중학생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감소(5.1%p)하였지만, 여전히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비율이 27.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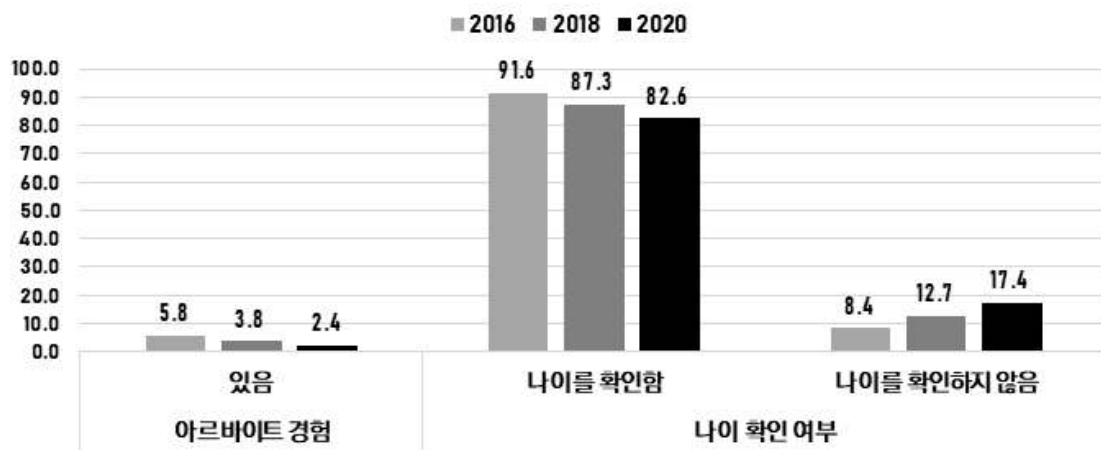
표 III-99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경험있음	아르바이트 시 나이 확인 여부		
				나이를 확인함	나이를 확인하지 않음	
전체		2016	11,174	5.8	91.6	8.4
		2018	10,878	3.8	87.3	12.7
		2020	9,600	2.4	82.6	17.4
성별	남자	2016	5,833	6.2	89.6	10.4
		2018	5,660	4.7	86.1	13.9
		2020	5,014	3.0	81.0	19.0
	여자	2016	5,341	5.4	94.1	5.9
		2018	5,218	2.9	89.4	10.6
		2020	4,586	1.9	85.4	14.6
학교급	중학교	2016	5,252	1.9	83.6	16.4
		2018	4,918	0.9	67.6	32.4
		2020	4,609	1.3	72.7	27.3
	고등학교	2016	5,921	9.4	93.0	7.0
		2018	5,960	6.3	89.4	10.6
		2020	4,991	3.5	86.0	14.0
	└ 일반계	2016	4,864	7.5	91.4	8.6
		2018	4,926	4.6	86.9	13.1
		2020	4,135	2.7	81.8	18.2
	└ 직업계	2016	1,058	17.8	95.9	4.1
		2018	1,033	14.3	93.2	6.8
		2020	856	7.1	93.8	6.2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청소년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78】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 ■ 시계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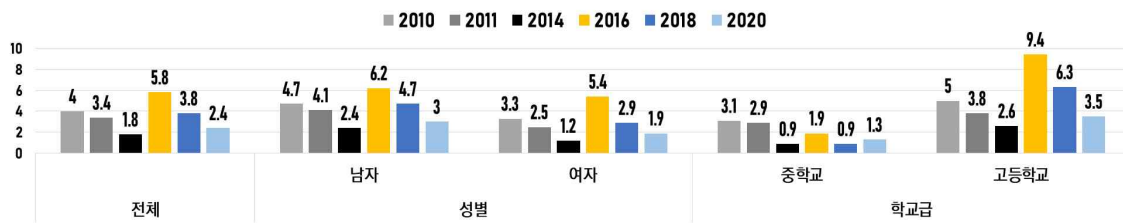
○ 시계열 비교 결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0년~2014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임.

표 III-100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률

(단위: 명, %)

	사례수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16,572	4.0	4.7	3.3	3.1	5.0
2011	15,412	3.4	4.1	2.5	2.9	3.8
2014	19,266	1.8	2.4	1.2	0.9	2.6
2016	11,174	5.8	6.2	5.4	1.9	9.4
2018	10,878	3.8	4.7	2.9	0.9	6.3
2020	9,600	2.4	3.0	1.9	1.3	3.5

\* 출처: 1) '10년~'14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 '16년, '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그림 III-79】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률

#### 4-3. 업소 이용방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①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청소년들이 이용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업소는 PC방, 코인 노래방, 일반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 등의 순임.
-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의 청소년 출입제한업소 이용방법 인지율이 높음.
-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이용방법은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지’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음.
- '16년 조사 이후 ‘인터넷’과 ‘길거리에 부착된 통행금지 표지판’을 통한 인지율은 증가하는 반면, ‘친구들’, ‘거리 캠페인, 홍보’를 통한 인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관련 정책: 3-2-1.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청소년보호 활성화  
3-2-2. 만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및 신고의식 제고

- 심야시간(밤 10시 이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업소의 이용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소는 ‘PC방’이었음.
- 이용방법 인지율: PC방(80.7%) > 코인 노래방(69.2%) > 일반 노래방(66.2%) > 찜질방(60.6%) > VR체험카페(40.3%)
-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VR체험카페’(48.8%)가 가장 높고, 이어서 ‘찜질방’,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PC방’의 순임. PC방을 제외하면 청소년 출입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20%를 상회함.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이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이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18년에 비해 ‘VR체험카페’와 ‘찜질방’의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증가하였으나, ‘PC방’,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의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다소 감소함.



표 III-101 청소년출입 제한적 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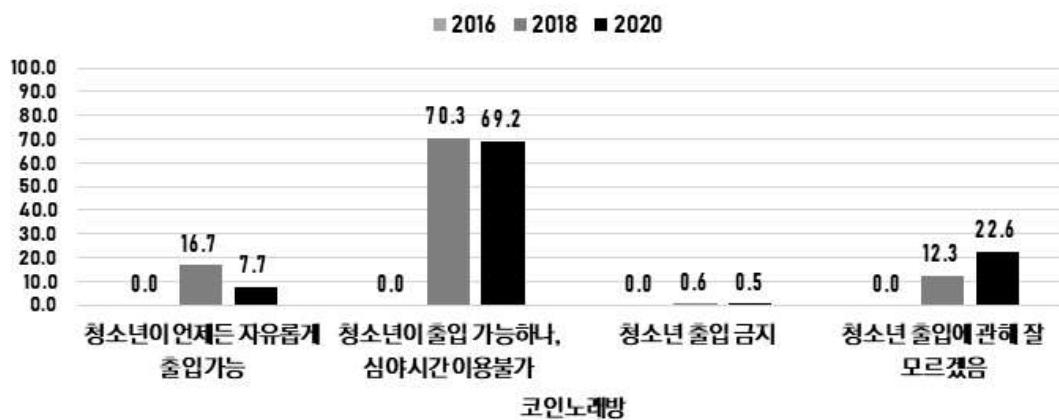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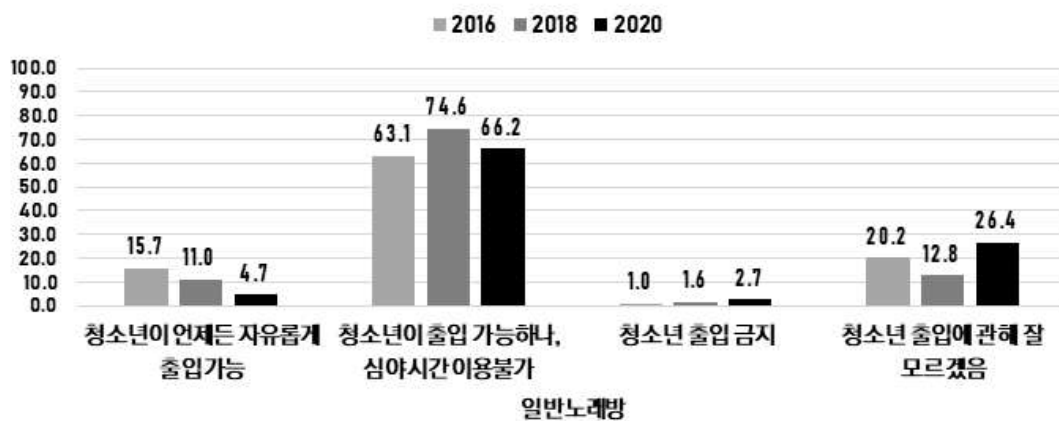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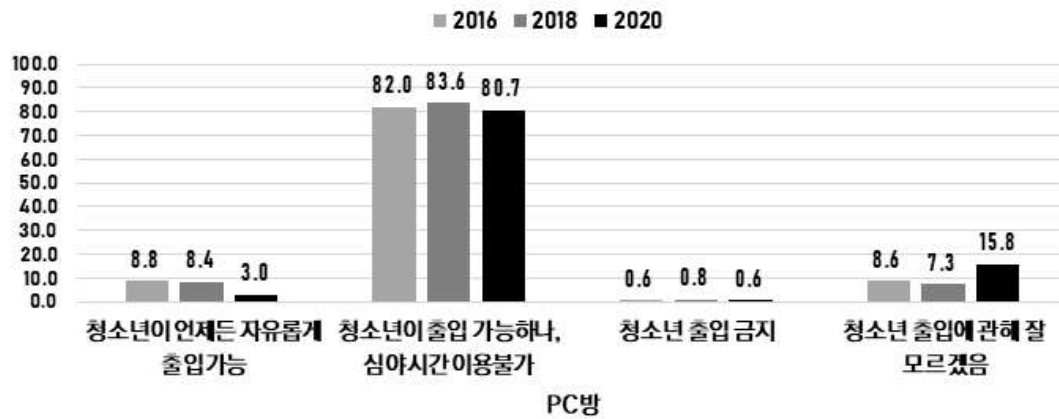
업소유형			사례수	청소년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가능	청소년이 출입 가능하나, 심야시간 (밤10시 이후)에는 이용불가 <sup>2)</sup>	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1) PC방	전체	2016	11,137	8.8	82.0	0.6	8.6	
		2018	10,878	8.4	83.6	0.8	7.3	
		2020	9,548	3.0	80.7	0.6	15.8	
	성별	남자	2016	5,809	7.3	83.7	0.8	8.1
			2018	5,660	8.8	82.2	0.9	8.1
			2020	4,996	3.2	77.5	0.8	18.5
		여자	2016	5,328	10.4	80.0	0.4	9.1
			2018	5,217	7.9	85.1	0.6	6.3
			2020	4,552	2.8	84.2	0.3	12.8
	학교급	중학교	2016	5,227	9.5	77.2	0.6	12.6
			2018	4,923	8.9	80.2	0.8	10.0
			2020	4,580	3.8	78.5	0.6	17.1
		고등학교	2016	5,910	8.1	86.1	0.6	5.1
			2018	5,955	7.9	86.4	0.7	5.0
			2020	4,969	2.2	82.7	0.5	14.6
2) 일반 노래방 <sup>3)</sup>	전체	2016	11,135	15.7	63.1	1.0	20.2	
		2018	10,877	11.0	74.6	1.6	12.8	
		2020	9,542	4.7	66.2	2.7	26.4	
	성별	남자	2016	5,810	16.1	57.6	1.3	25.0
			2018	5,658	11.3	69.6	1.8	17.2
			2020	4,990	4.8	59.1	2.9	33.3
		여자	2016	5,324	15.2	69.1	0.7	14.9
			2018	5,219	10.6	80.0	1.5	7.9
			2020	4,552	4.6	73.9	2.5	18.9
	학교급	중학교	2016	5,225	17.2	55.2	1.1	26.5
			2018	4,923	13.1	66.5	2.2	18.2
			2020	4,574	6.1	57.9	3.3	32.6
		고등학교	2016	5,909	14.4	70.0	0.9	14.6
			2018	5,954	9.2	81.3	1.2	8.3
			2020	4,967	3.4	73.8	2.1	20.7
3) 코인 노래방	전체	2016	-	-	-	-	-	
		2018	10,873	16.7	70.3	0.6	12.3	
		2020	9,539	7.7	69.2	0.5	22.6	
	성별	남자	2016	-	-	-	-	-
			2018	5,654	16.4	65.6	1.0	17.1
			2020	4,992	7.3	61.8	0.8	30.1
		여자	2016	-	-	-	-	-
			2018	5,219	17.1	75.4	0.3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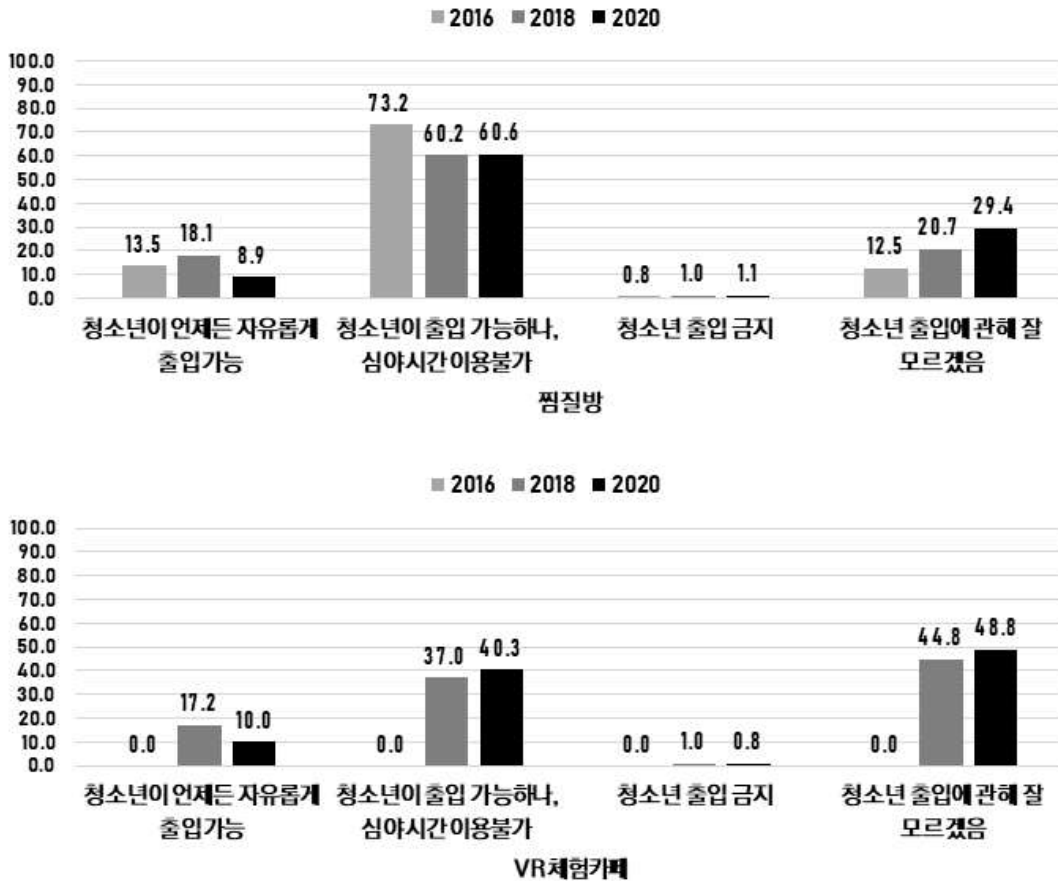
업소유형				사례수	청소년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가능	청소년이 출입 가능하나, 심야시간 (밤10시 이후)에는 이용불가 <sup>2)</sup>	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2020	4,547	8.1	77.4	0.2	14.3
	학교급	중학교	2016	-	-	-	-	-
			2018	4,919	19.1	63.0	0.7	17.2
			2020	4,571	9.8	61.9	0.5	27.7
		고등 학교	2016	-	-	-	-	-
			2018	5,954	14.8	76.3	0.6	8.3
			2020	4,968	5.7	76.0	0.5	17.9
4) 찜질방	전체		2016	11,135	13.5	73.2	0.8	12.5
			2018	10,879	18.1	60.2	1.0	20.7
			2020	9,535	8.9	60.6	1.1	29.4
	성별	남자	2016	5,809	11.4	69.9	1.3	17.4
			2018	5,659	19.9	55.1	1.3	23.6
			2020	4,989	9.5	54.1	1.4	35.1
		여자	2016	5,326	15.7	76.8	0.4	7.2
			2018	5,220	16.1	65.6	0.6	17.7
			2020	4,545	8.2	67.8	0.7	23.2
	학교급	중학교	2016	5,226	15.9	65.2	1.0	17.9
			2018	4,926	21.7	48.9	1.1	28.2
			2020	4,567	11.1	52.7	1.2	35.0
		고등 학교	2016	5,909	11.3	80.2	0.7	7.8
			2018	5,954	15.1	69.5	0.9	14.6
			2020	4,968	6.8	67.9	1.0	24.2
5) VR 체험카페	전체		2016	-	-	-	-	-
			2018	10,880	17.2	37.0	1.0	44.8
			2020	9,536	10.0	40.3	0.8	48.8
	성별	남자	2016	-	-	-	-	-
			2018	5,659	14.4	38.0	1.3	46.2
			2020	4,985	7.9	39.6	1.2	51.3
		여자	2016	-	-	-	-	-
			2018	5,222	20.1	36.0	0.6	43.3
			2020	4,551	12.2	41.2	0.5	46.1
	학교급	중학교	2016	-	-	-	-	-
			2018	4,925	15.4	34.3	1.4	48.9
			2020	4,573	10.3	36.7	0.9	52.1
		고등 학교	2016	-	-	-	-	-
			2018	5,955	18.6	39.3	0.6	41.5
			2020	4,963	9.7	43.7	0.8	45.8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해 이용할 수 있지만, 심야시간(밤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제시되었음.

3) 일반노래방의 '16년도 자료는 '노래방' 항목으로 조사된 결과임.





【그림 III-80】 청소년출입 제한적 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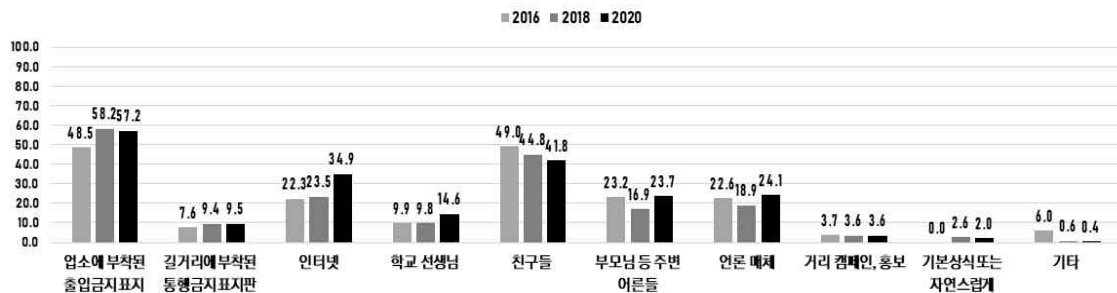
-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이용방법 인지 경로를 확인한 결과,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지’(57.2%)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들’(41.8%), ‘인터넷’(34.9%), ‘언론매체’(24.1%),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23.7%) 등의 순임.
- 성별이나 학교급에 관계없이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지’, ‘친구들’, ‘인터넷’에서 이용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다만, 남자청소년과 중학생들은 ‘언론매체’보다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로부터 이용방법을 알게 된 비율이 다소 높았음.
- ’16년 조사 이후 ‘인터넷’과 ‘길거리에 부착된 통행금지 표지판’을 통해 이용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반면, ‘친구들’, ‘거리 캠페인, 홍보’를 통한 인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I-102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 지 표지	길거리에 부착된 통행금지 표지판	인터넷	학교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	언론 매체	거리 캠페인 , 홍보	기본상 식 또는 자연스 럽게 <sup>3)</sup>	기타	
전체		2016	10,313	48.5	7.6	22.3	9.9	49.0	23.2	22.6	3.7	-	6.0
		2018	10,045	58.2	9.4	23.5	9.8	44.8	16.9	18.9	3.6	2.6	0.6
		2020	7,330	57.2	9.5	34.9	14.6	41.8	23.7	24.1	3.6	2.0	0.4
성 별	남자	2016	5,286	48.7	8.5	22.1	10.3	50.6	18.3	20.1	4.1	-	7.8
		2018	5,107	52.1	9.5	24.2	10.8	47.8	15.8	17.3	3.5	3.1	0.7
		2020	3,598	51.4	8.4	34.1	14.3	45.1	21.7	21.0	3.9	2.7	0.6
	여자	2016	5,028	48.3	6.7	22.6	9.6	47.4	28.4	25.2	3.3	-	6.3
		2018	4,938	64.6	9.3	22.8	8.7	41.7	18.1	20.6	3.7	2.2	0.5
		2020	3,732	62.8	10.7	35.6	14.9	38.6	25.7	27.2	3.4	1.4	0.2
학 교 급	중학교	2016	4,683	42.1	7.6	20.9	11.4	50.0	27.0	18.9	3.5	-	6.2
		2018	4,425	52.0	9.9	22.4	11.0	46.6	19.6	14.8	3.0	2.2	0.8
		2020	3,513	51.9	9.4	34.3	16.0	39.7	28.2	22.2	3.2	1.8	0.4
	고등 학교	2016	5,630	53.9	7.7	23.5	8.8	48.2	20.1	25.6	3.9	-	7.7
		2018	5,620	63.2	9.0	24.4	8.8	43.4	14.7	22.1	4.1	3.0	0.5
		2020	3,816	62.1	9.7	35.4	13.3	43.8	19.6	25.9	4.0	2.3	0.4

\* 주: 1) 업소별 이용방법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기본 상식 또는 자연스럽게'는 조사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타 사유에 다수 포함되어 별도 제시하였음.



【그림 III-81】청소년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 ②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나이트클럽/음악클럽', '유흥/단란주점'의 이용방법 인지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멀티방/룸카페', '비디오/DVD방'의 이용방법 인지율은 20.0%에 미치지 못함.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많고,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 '친구들', '언론매체',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 등의 순임.
-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이용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정책: 3-2-1.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청소년보호 활성화  
3-2-2. 만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및 신고의식 제고

-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의 이용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소는 '나이트클럽/음악클럽'이었음.
- 이용방법 인지율: '나이트클럽/음악클럽'(55.8%) > '유흥/단란주점'(53.6%) >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42.3%) > '비디오/DVD방'(19.8%) > '멀티방/룸카페'(14.7%)
- '들어보았지만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비디오/DVD방'(37.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멀티방/룸카페',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 나이트클럽/음악클럽, '유흥/단란주점'의 순임. 이러한 업소의 출입에 관해 모르겠다는 응답은 모두 20.0%를 상회함.
- '멀티방/룸카페'를 제외한 모든 업소의 이용방법 인지율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았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이용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16년 조사 이후 '비디오/DVD방'의 이용방법 인지율은 올해 다소 증가('18년 대비 3.6%p)하였으나, '유흥/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음악클럽'의 이용방법 인지율은 '16년 이후 감소함.

표 III-103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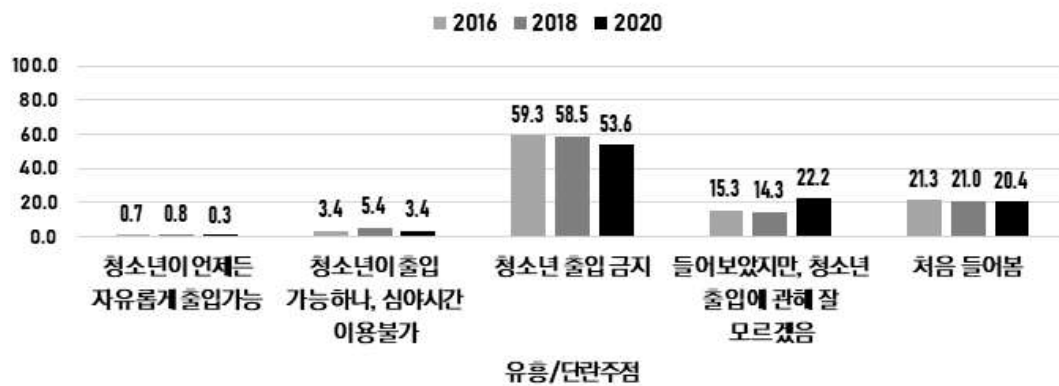
업소유형			사례수	청소년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가능	청소년이 출입 가능하나, 심야시간 (밤10시 이후)에는 이용불가	청소년 출입 금지	들어보았지만 ,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처음 들어봄	
1) 비디오/ DVD방	전체		2016	10,955	5.3	22.2	16.2	38.3	18.0
			2018	10,745	4.1	27.0	16.2	35.1	17.5
			2020	9,096	1.6	20.9	19.8	37.4	20.3
	성별	남자	2016	5,710	5.1	18.3	15.0	37.3	24.4
			2018	5,603	4.1	24.4	15.5	33.5	22.5
			2020	4,784	1.6	17.6	19.0	36.2	25.6
		여자	2016	5,245	5.5	26.4	17.6	39.3	11.1
			2018	5,142	4.1	29.9	17.1	36.8	12.1
			2020	4,312	1.7	24.5	20.7	38.8	14.4
	학교급	중학교	2016	5,160	4.6	17.3	12.3	40.4	25.4
			2018	4,876	3.8	22.7	13.1	35.9	24.5
			2020	4,357	1.5	17.5	17.9	38.2	24.9
		고등 학교	2016	5,795	6.0	26.5	19.7	36.4	11.4
			2018	5,869	4.4	30.6	18.8	34.4	11.8
			2020	4,738	1.7	24.0	21.6	36.7	16.0
2) 유흥/ 단란주점	전체		2016	10,957	0.7	3.4	59.3	15.3	21.3
			2018	10,734	0.8	5.4	58.5	14.3	21.0
			2020	9,089	0.3	3.4	53.6	22.2	20.4
	성별	남자	2016	5,712	0.9	3.8	48.8	18.6	27.9
			2018	5,602	1.2	6.5	49.7	16.9	25.7
			2020	4,778	0.3	3.6	45.4	25.0	25.8
		여자	2016	5,245	0.4	3.0	70.8	11.7	14.1
			2018	5,132	0.4	4.3	68.0	11.4	15.9
			2020	4,310	0.4	3.3	62.8	19.2	14.4
	학교급	중학교	2016	5,161	0.5	2.8	46.3	17.6	32.9
			2018	4,867	0.8	5.4	45.2	16.1	32.5
			2020	4,349	0.3	3.0	46.7	23.0	27.0
		고등 학교	2016	5,796	0.9	3.9	70.9	13.3	11.0
			2018	5,866	0.9	5.5	69.5	12.7	11.5
			2020	4,740	0.3	3.8	60.0	21.6	14.4
3) 나이트 클럽/음악 클럽	전체		2016	10,952	0.7	3.3	63.8	18.7	13.4
			2018	10,741	0.9	5.7	62.5	17.7	13.3
			2020	9,091	0.4	3.3	55.8	24.6	16.0
	성별	남자	2016	5,706	1.0	3.6	53.6	22.6	19.3
			2018	5,606	1.2	6.9	53.0	20.6	18.2
			2020	4,781	0.4	3.5	47.1	27.6	21.5
		여자	2016	5,246	0.4	3.0	75.0	14.6	7.0
			2018	5,135	0.5	4.3	72.9	14.5	7.8
			2020	4,310	0.4	3.0	65.4	21.4	9.8

업소유형				사례수	청소년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가능	청소년이 출입 가능하나, 심야시간 (밤10시 이후)에는 이용불가	청소년 출입 금지	들어보았지만 ,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처음 들어봄
	학교급	중학교	2016	5,162	0.5	2.5	55.4	23.6	18.0
			2018	4,872	0.9	5.4	53.3	22.4	18.0
			2020	4,353	0.4	2.9	50.9	26.9	18.8
		고등 학교	2016	5,790	0.9	4.1	71.3	14.4	9.3
			2018	5,869	0.8	5.9	70.2	13.8	9.3
			2020	4,738	0.3	3.6	60.2	22.6	13.3
4) 멀티방/ 룸카페 <sup>2)</sup>	전체	2016	10,953	9.4	21.9	13.7	28.6	26.5	
		2018	10,744	7.8	29.9	15.1	26.4	20.9	
		2020	9,093	4.9	28.3	14.7	32.1	20.0	
	성별	남자	2016	5,711	5.8	15.9	14.8	28.7	34.7
			2018	5,605	5.4	22.7	18.0	25.8	28.1
			2020	4,779	3.2	21.0	17.2	31.9	26.7
		여자	2016	5,241	13.3	28.3	12.5	28.4	17.6
			2018	5,139	10.3	37.8	12.0	27.0	12.9
			2020	4,315	6.8	36.3	12.0	32.4	12.6
	학교급	중학교	2016	5,159	6.8	16.0	11.9	28.2	37.1
			2018	4,875	6.1	24.3	13.6	26.9	29.2
			2020	4,353	4.1	23.2	14.3	33.4	25.0
		고등 학교	2016	5,794	11.6	27.1	15.3	28.9	17.1
			2018	5,869	9.2	34.6	16.3	26.0	14.0
			2020	4,740	5.7	32.9	15.1	31.0	15.4
	5)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	전체	2016	-	-	-	-	-	-
			2018	10,741	3.9	7.0	42.6	27.8	18.6
			2020	9,091	1.8	4.8	42.3	32.0	19.0
성별		남자	2016	-	-	-	-	-	-
			2018	5,601	4.5	7.9	36.8	27.9	23.0
			2020	4,778	2.0	4.7	36.5	32.0	24.8
		여자	2016	-	-	-	-	-	-
			2018	5,140	3.4	6.1	49.1	27.7	13.8
			2020	4,314	1.6	5.0	48.8	32.1	12.6
학교급		중학교	2016	-	-	-	-	-	-
			2018	4,871	3.1	5.9	36.0	28.8	26.3
			2020	4,352	1.8	4.4	37.7	32.7	23.5
		고등 학교	2016	-	-	-	-	-	-
			2018	5,870	4.7	8.0	48.2	27.0	12.2
			2020	4,739	1.8	5.2	46.6	31.4	14.9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룸카페는 현행 법령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포함되지 않으나, 멀티방과 유사 형태로 운영되므로 '멀티방/룸카페'를 병기하여 조사하였음.







【그림 III-82】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이용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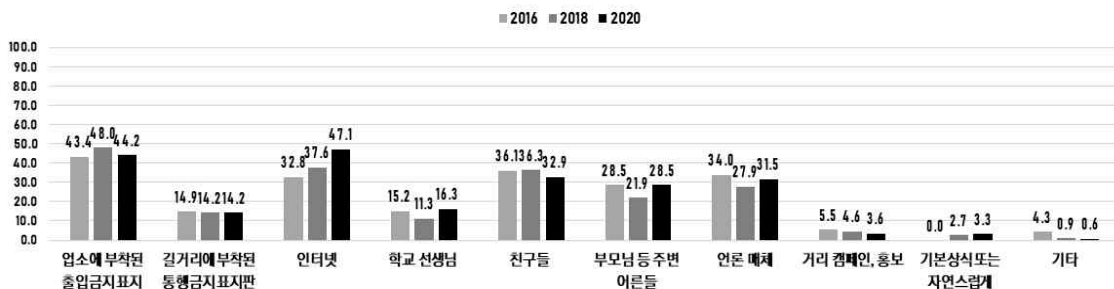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 ‘친구들’, ‘언론매체’,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 등의 순임.
-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18년에 비해 9.5%p 높아짐.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이용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든 성별과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여자청소년의 경우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에서는 ‘친구들’ 보다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 중학생은 ‘친구들’ 보다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과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 고등학생에게서도 ‘인터넷’을 통한 인지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인터넷’ 보다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를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제한 및 출입금지 업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자주 접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의 방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III-104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 지 표지	길거리에 부착된 통행금지 표지판	인터넷	학교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	언론 매체	거리 캠페인, 홍보	기본상 식 또는 자연스 럽게	기타	
전체	2016	7,712	43.4	14.9	32.8	15.2	36.1	28.5	34.0	5.5	-	4.3	
	2018	7,812	48.0	14.2	37.6	11.3	36.3	21.9	27.9	4.6	2.7	0.9	
	2020	5,002	44.2	14.2	47.1	16.3	32.9	28.5	31.5	3.6	3.3	0.6	
성별	남자	2016	3,470	43.8	17.0	31.0	15.9	35.0	24.4	30.6	6.1	-	4.4
		2018	3,619	44.6	14.8	37.0	11.5	37.8	19.1	24.9	4.9	2.8	1.0
		2020	2,191	40.1	14.1	44.7	17.6	34.4	25.7	27.8	4.2	4.3	1.0
	여자	2016	4,242	43.0	13.2	34.3	14.7	37.1	31.9	36.8	5.0	-	4.2
		2018	4,193	50.9	13.6	38.1	11.2	34.9	24.3	30.5	4.4	2.6	0.8
		2020	2,811	47.4	14.3	49.0	15.2	31.8	30.7	34.4	3.2	2.5	0.4
학교급	중학교	2016	3,151	36.6	14.0	33.0	17.1	34.0	33.4	33.3	5.8	-	4.8
		2018	3,092	42.0	13.3	36.5	13.1	34.3	24.9	25.5	5.1	3.0	0.9
		2020	2,192	37.6	12.8	48.1	18.9	28.7	35.6	32.0	3.5	3.4	0.8
	고등 학교	2016	4,561	48.1	15.5	32.7	13.9	37.6	25.2	34.6	5.3	-	4.0
		2018	4,721	51.9	14.7	38.3	10.2	37.6	19.9	29.5	4.3	2.5	0.9
		2020	2,810	49.3	15.3	46.4	14.2	36.2	23.1	31.2	3.8	3.2	0.5

\* 주: 1) 업소별 이용방법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기본 상식 또는 자연스럽게'는 조사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타 사유에 다수 포함되어 별도 제시하였음.



【그림 III-83】청소년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경로(중복응답)

#### 4-4.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

- '16년 조사 이후 청소년들이 등하굣길과 집 주변 등 생활환경 내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42.6%는 등하굣길에, 41.8%는 집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 정책: 3-1-2.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비 및 주요 생활지역 단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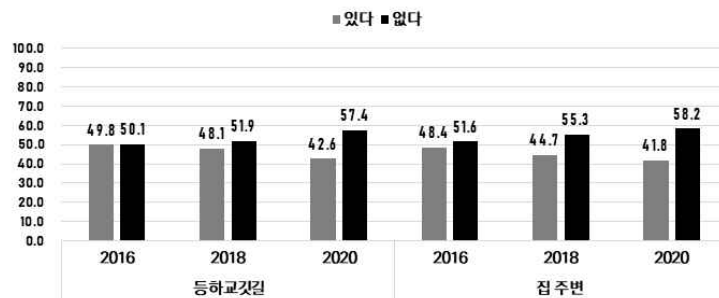
- 조사대상 청소년의 40.0% 이상이 등하굣길과 집 주변에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업소 등의 유해업소가 '있다(매우 많다'+ '조금 많다')고 응답함.
  - '등하굣길'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이고, 집 주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로 파악됨.
  -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은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에 비해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16년 조사 이후 청소년들이 등하굣길과 집 주변 등 생활환경 내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등하굣길: ('16) 49.8% → ('18) 48.1% → ('20) 42.6%
    - 집 주변: ('16) 48.4% → ('18) 44.7% → ('20) 41.8%

표 III-105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생활환경			사례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1) 등하굣길	전체		2016	10,984	21.3	28.8	39.4	10.4	
			2018	10,704	23.2	28.7	37.7	10.4	
			2020	9,155	25.3	32.1	34.7	7.9	
	성별	남자	2016	5,748	21.6	26.7	41.0	10.8	
			2018	5,587	24.2	27.6	38.1	10.1	
			2020	4,785	27.6	31.1	33.8	7.5	
		여자	2016	5,237	21.0	31.2	37.7	10.1	
			2018	5,117	22.1	29.9	37.2	10.8	
			2020	4,371	22.9	33.2	35.7	8.2	
		학교급	중학교	2016	5,195	21.8	29.4	39.2	9.5
				2018	4,846	25.2	28.9	37.1	8.7
				2020	4,400	27.5	32.0	34.0	6.5
	고등학교		2016	5,789	20.9	28.3	39.6	11.2	
			2018	5,859	21.5	28.6	38.1	11.8	
			2020	4,756	23.4	32.2	35.4	9.1	
2) 집 주변	전체		2016	10,971	23.0	28.6	37.8	10.6	
			2018	10,688	25.1	30.2	34.7	10.0	
			2020	9,128	27.2	31.0	33.6	8.2	
	성별	남자	2016	5,740	24.2	28.0	38.0	9.7	
			2018	5,570	26.7	29.8	34.3	9.2	
			2020	4,767	29.7	30.7	32.5	7.1	
		여자	2016	5,231	21.6	29.2	37.7	11.5	
			2018	5,118	23.4	30.6	35.1	10.9	
			2020	4,361	24.5	31.3	34.8	9.4	
	학교급	중학교	2016	5,183	24.5	28.2	37.5	9.7	
			2018	4,834	27.2	31.2	32.8	8.8	
			2020	4,379	29.2	31.9	32.0	6.9	
		고등학교	2016	5,788	21.6	28.9	38.1	11.3	
			2018	5,854	23.4	29.4	36.2	11.0	
			2020	4,749	25.4	30.2	35.0	9.4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84】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에 관한 인식

## 5. 근로·보호 영역

### 5-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4.6%로, '18년에 비해 감소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1.4%)에 비해 고등학생(7.6%)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았고, 특히 직업계고 청소년의 경험률이 16.7%로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5-3. 근로권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0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4.6%로, ('16)11.3% 및 ('18) 9.0%에 비해 낮게 나타남.
  - COVID-19의 영향으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뷔페·웨딩홀·연회장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이 반영될 결과로 볼 수 있음.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4%에 그친 반면 고등학생은 7.6%로 5.4배 높게 나타남.
- 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5.7%)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16.7%)이 높게 나타남.
  - 시계열 비교 결과, 직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16) 36.2% 및 ('18) 34.4%로 35% 안팎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 16.7%로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현행 근로기준법 제6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연령별 비교를 실시해보았음.
  - 15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0.8%로, '16년(2.0%), '18년(1.0%)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III-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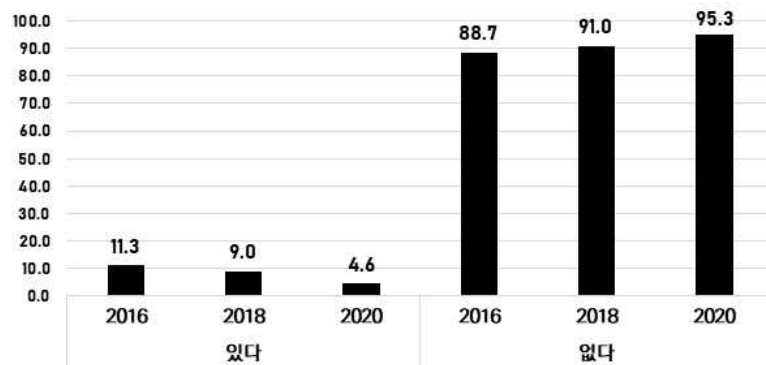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한 적 있다	한 적 없다	
전체		2016	11,150	11.3	88.7
		2018	10,870	9.0	91.0
		2020	9,303	4.6	95.3
성별	남자	2016	5,820	10.7	89.3
		2018	5,657	8.7	91.3
		2020	4,862	4.4	95.6
	여자	2016	5,330	12.0	88.0
		2018	5,213	9.4	90.6
		2020	4,441	4.9	95.0
학교급	중학교	2016	5,240	3.6	96.4
		2018	4,917	1.8	98.2
		2020	4,412	1.4	98.6
	고등학교	2016	5,910	18.1	81.9
		2018	5,953	15.0	85.0
		2020	4,891	7.6	92.4
	└ 일반계고	2016	4,854	14.2	85.8
		2018	4,922	11.0	89.0
		2020	4,061	5.7	94.2
	└ 직업계고	2016	1,056	36.2	63.8
		2018	1,031	34.4	65.6
		2020	830	16.7	83.3
연령	만15세 미만 <sup>1)</sup>	2016	3,541	2.0	98.0
		2018	3,275	1.0	99.0
		2020	2,928	0.8	99.2
	만15세 이상	2016	7,599	15.6	84.4
		2018	7,595	12.5	87.5
		2020	6,338	6.4	93.6

\* 주: 1) '16년 조사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8년 조사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20년 조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85】'20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5-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7.9%(‘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4.4%+‘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13.5%)로, ’18년(13.4%)보다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5-3-1.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지원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18.4%,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보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라서’ 13.5% 순으로 파악되었음.
-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7.9%(‘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4.4%+‘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13.5%)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16년(14.7%) 및 ’18년(13.4%)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결과임.
  - 특히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중학생 8.8%, 고등학생 3.7%로 나타나, 중학생이 2.4배 더 높게 나타남.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는 가정형편의 영향이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함.
-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직업계 고등학생이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일반계 고등학생 15.8%, 직업계 고등학생 23.6%).



표 III-107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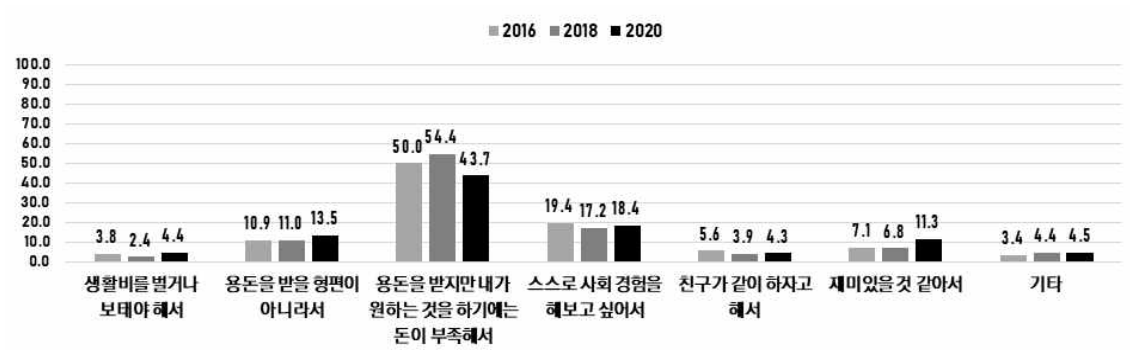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해서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용돈을 받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2016	1,250	3.8	10.9	50.0	19.4	5.6	7.1	3.4
	2018	978	2.4	11.0	54.4	17.2	3.9	6.8	4.4
	2020	413	4.4	13.5	43.7	18.4	4.3	11.3	4.5
성별	남자	2016	613	4.5	8.5	47.2	21.0	7.3	4.2
		2018	486	3.0	11.2	49.8	20.8	4.3	4.9
		2020	204	4.1	12.5	41.5	16.9	7.2	4.5
	여자	2016	637	3.0	13.2	52.6	17.8	3.9	6.8
		2018	492	1.8	10.7	58.9	13.6	3.6	7.5
		2020	209	4.6	14.4	46.0	19.9	1.5	9.2
학교급	중학교	2016	187	5.0	4.7	48.8	14.8	5.6	10.8
		2018	88	2.3	8.6	42.0	15.2	6.0	14.5
		2020	53	8.8	4.5	36.3	16.0	5.3	17.5
	고등학교	2016	1,062	3.5	12.0	50.2	20.2	5.6	6.4
		2018	890	2.4	11.2	55.6	17.4	3.7	6.0
		2020	360	3.7	14.8	44.8	18.7	4.1	10.4
	└ 일반계고	2016	682	3.7	9.6	50.8	20.8	5.8	6.8
		2018	537	1.9	9.2	56.6	16.9	3.8	6.9
		2020	224	4.1	15.3	45.2	15.8	4.8	11.7
	└ 직업계고	2016	380	3.3	16.2	49.1	19.0	5.2	5.7
		2018	353	3.1	14.2	54.1	18.1	3.7	4.7
		2020	136	3.1	13.9	44.3	23.6	3.0	8.2
연령	만15세 미만	2016	72	2.8	5.6	44.4	15.3	5.6	12.5
		2018	34	0.0	10.8	40.1	20.2	2.6	12.9
		2020	18	8.3	6.3	34.6	15.1	6.7	18.0
	만15세 이상	2016	1,177	3.7	11.2	50.3	19.6	5.6	6.8
		2018	944	2.5	11.0	54.9	17.1	4.0	6.6
		2020	388	3.6	14.0	44.9	18.3	4.0	11.1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만15세 미만은 '16년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8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20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86】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 5-3. 아르바이트 업종

-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37.2%)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예년에 비해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뷔페·웨딩홀·연회장’에서 일한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한 반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함.

▶ 관련 정책: 5-1-2. 청소년 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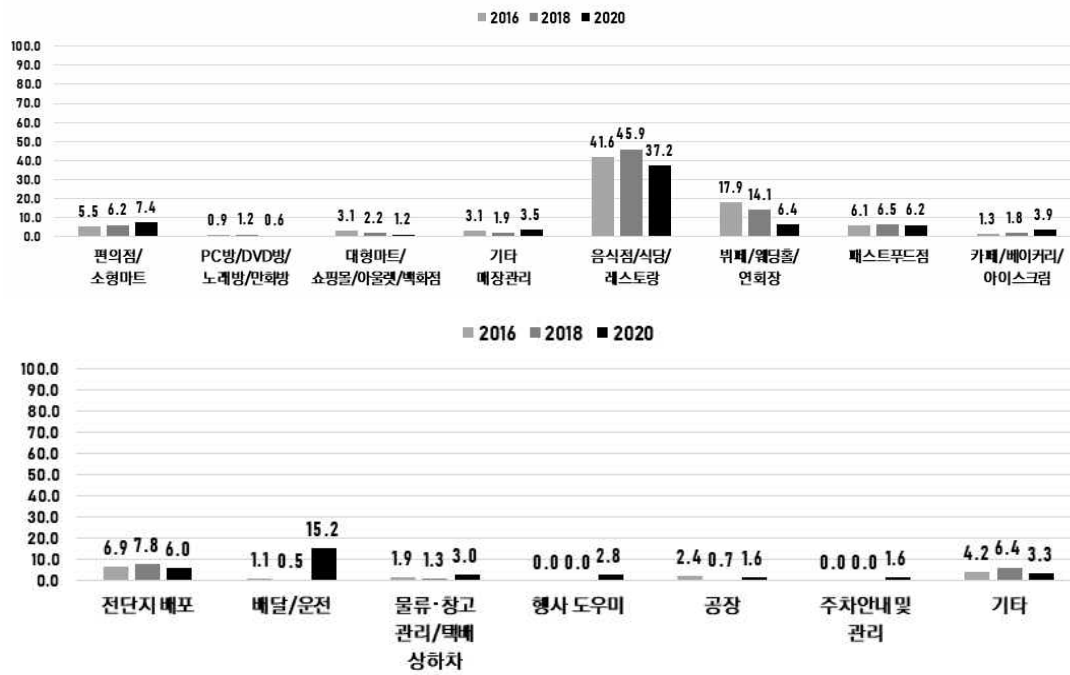
- '20년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중에서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을 조사한 결과,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당 업종은 '16년 및 '18년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업종으로 조사되었으나, '16년(41.6%) 및 '18년(45.9%)에 비해 '20년에는 37.2%로 크게 감소하였음.
  - ‘뷔페·웨딩홀·연회장’을 선택한 비율은 '16년 17.9%, '18년 14.1%로 나타났으나, '20년에는 6.4%로 이전 조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결과는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및 뷔페·웨딩홀·연회장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함.
- 그에 비해, ‘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을 주로 했다는 응답 비율은 15.2%로 '16년(1.1%) 및 '18년(0.5%)에 비해 크게 높아짐.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음식점·식당·레스토랑’에서 주로 일했다는 응답 비율이 16.0%로 과거('16년 32.1%, '18년 39.5%)에 비해 크게 낮아짐.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40.2%)과도 커다란 격차를 보여줌.
  - 과거 중학생 집단에서 주로 관찰되었던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업종에 대한 응답 비율도 15.7%에 불과해, ('16) 30.1% 및 ('18) 29.9%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반면, ‘배달·운전’을 했다는 응답 비율은 22.5%로, '16년과 '18년에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음.

구분		사례수	편의점/ 소형마트	PC방/DVD 방/노래방/ 만화방	대형마트/ 쇼핑몰/아울 렛/백화점	기타 매장관리	음식점/ 식당/레스 토랑	뷔페/웨딩홀/ 연회장	패스트푸드점 (피자, 치킨, 햄버거)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카페	
전체	2016	1,244	5.5	0.9	3.1	3.1	41.6	17.9	6.1	1.3	1.7	
	2018	954	6.2	1.2	2.2	1.9	45.9	14.1	6.5	1.8	2.4	
	2020	404	7.4	0.6	1.2	3.5	37.2	6.4	6.2	3.9	-	
학교 급	중학교	2016	184	9.1	0.5	1.1	5.0	32.1	5.7	1.8	0.0	1
		2018	87	3.7	1.8	2.6	2.3	39.5	3.9	1.4	2.8	2.2
		2020	50	5.8	1.4	1.4	4.2	16.0	4.0	1.6	1.4	-
	고등학교	2016	1,059	4.9	0.9	3.5	2.8	43.3	20.0	6.8	1.5	1.8
		2018	867	6.4	1.1	2.2	1.9	46.5	15.1	7.0	1.7	2.4
		2020	354	7.7	0.4	1.2	3.4	40.2	6.8	6.8	4.3	-
	└ 일반계고	2016	682	3.7	1.1	3.4	3.1	42.1	20.9	6.1	1.5	2.1
		2018	526	6.2	1.4	2.4	1.9	43.9	15.2	7.3	2.2	2.2
		2020	223	7.4	0.4	1.6	2.4	36.9	9.3	7.4	4.6	-
	└ 직업계고	2016	378	7.1	0.5	3.6	2.1	45.4	18.4	8.0	1.5	1.3
		2018	342	6.8	0.7	1.8	1.8	50.5	14.8	6.6	0.8	2.6
		2020	131	8.2	0.4	0.6	5.2	45.8	2.5	5.7	3.8	-
아르 바이 트 이유	기타	2016	1,067	5.0	0.8	3.2	3	40.6	18.8	4.8	1.1	1.8
		2018	830	6.0	1.0	2.3	2.1	44.6	13.9	6.4	2.0	2.5
		2020	375	7.8	0.4	1.1	3.6	37.9	6.3	5.8	4.3	-
	가정형편 때문	2016	183	8.2	1.1	2.7	3.8	47.8	11.5	13.7	2.2	1.1
		2018	124	7.1	2.2	1.1	0.3	54.6	15.2	7.1	0.0	1.2
		2020	15	5.8	0.0	5.3	0.0	24.4	0.0	10.3	0.0	-
구분		사례수	전단지 배포 (스티커붙이 기)	배달/운전 (오토바이배 달,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	물류·창고 관리/택배 상하차	공사현장	행사 도우미 (이벤트,지역 축제,놀이공원 등)	공장 (제조·가공/ 포장·조립)	사무업무 보조	주차안내 및 관리	기타	
전체	2016	1,250	6.9	1.1	1.9	1.0	-	2.4	1.3	-	4.2	
	2018	954	7.8	0.5	1.3	0.4	-	0.7	1.0	-	6.4	
	2020	404	6.0	15.2	3.0	-	2.8	1.6	-	1.6	3.3	
학교 급	중학교	2016	184	30.1	0.0	0.7	2.6	-	0.6	2.7	-	6.9
		2018	87	29.9	0.0	2.8	0.0	-	0.0	3.1	-	4.2
		2020	50	15.7	22.5	7.2	-	2.3	3.0	-	2.5	11.1
	고등학교	2016	1,059	2.9	1.3	2.1	0.7	-	2.8	1.1	-	3.7
		2018	867	5.5	0.6	1.1	0.4	-	0.8	0.8	-	6.6
		2020	354	4.7	14.1	2.4	-	2.9	1.4	-	1.5	2.2
	└ 일반계고	2016	682	2.9	1.6	2.5	0.6	-	2.8	1.0	-	4.3
		2018	526	5.6	0.4	1.5	0.7	-	0.9	1.2	-	7.0
		2020	223	4.7	14.9	1.4	-	3.7	1.7	-	1.8	1.8
	└ 직업계고	2016	378	2.8	0.7	1.4	0.8	-	2.6	1.2	-	2.6
		2018	342	5.4	0.8	0.5	0.0	-	0.6	0.2	-	6.0
		2020	131	4.7	12.7	4.1	-	1.6	1.0	-	0.9	2.8
아르 바이 트 이유	기타	2016	1,067	7.7	1.3	2.0	1.0	-	2.8	1.5	-	4.5
		2018	830	8.0	0.5	1.5	0.4	-	0.8	1.0	-	6.8
		2020	375	6.5	13.7	3.2	-	2.8	1.8	-	1.7	3.0
	가정형편 때문	2016	183	2.7	0.0	1.1	0.5	-	1.1	0.0	-	2.2
		2018	124	6.2	0.6	0.0	0.0	-	0.0	0.8	-	3.6
		2020	15	0.0	36.2	0.0	-	5.3	0.0	-	0.0	12.7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보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라서'를 '가정형편 때문'으로, 나머지를 기타 사유로 분류하였음.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87】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 5-4.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가 48.4%로 가장 많고,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30.1%),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자매 등의 소개’(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5-2-2.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강화  
5-3-1.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지원

-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응답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지만, (‘16) 55.4%, (‘18) 54.2%, (‘20) 48.4%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응답 비율이 30.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특히 해당 응답 비율은 (‘16) 26.2% → (‘18) 27.9% → (‘20) 30.1%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다만 ‘16년 및 ‘18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와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 또는 사이트’로 조사하던 것을 ‘20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으로 선택지를 통합하였으므로, 선택지 변화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라는 응답 비율이 53.8%로, 여자청소년(43.2%) 보다 10.6%p 더 높게 나타남. 그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이 36.5%로 남자청소년(23.4%) 보다 13.1%p 더 높음.
-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자매 등의 소개’로 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이 고등학생(17.0%)보다 중학생(27.9%)이 높았음.
  - 그에 비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 항목의 응답률은 중학생(15.0%)이 고등학생(32.4%)에 비해 절반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나 앱과 같은 경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보다는, 친구 또는 선후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지인 등 주변의 사적 관계를 통해 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냄.

표 III-109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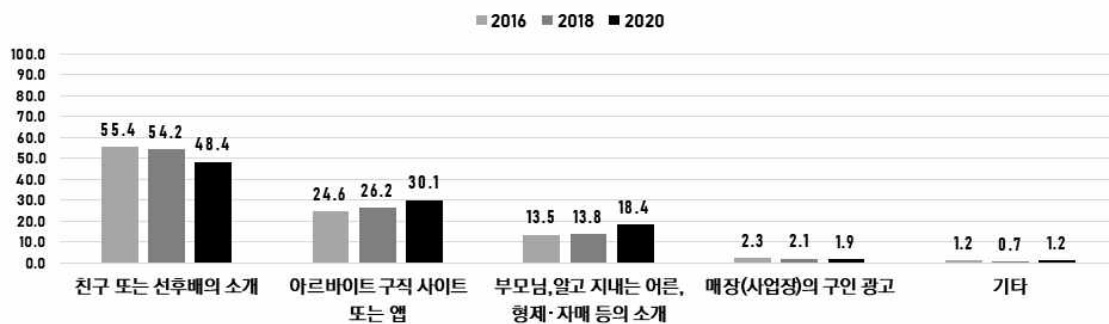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	특정 분야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 또는 사이트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자매 등의 소개	매장(사업장)의 구인 광고	생활 정보지 구인 광고	학교, 공공기관 모집 공고	기타
전체	2016	1,250	55.4	24.6	1.6	13.5	2.3	0.6	0.8	1.2
	2018	971	54.2	26.2	1.7	13.8	2.1	0.9	0.4	0.7
	2020	418	48.4	30.1	-	18.4	1.9	-	-	1.2
성별	남자	2016	617	61.9	20.3	0.9	14.2	1.2	0.7	0.7
		2018	486	60.1	20.5	0.5	14.9	2.2	0.6	0.4
		2020	204	53.8	23.4	-	19.4	2.7	-	0.8
	여자	2016	633	49.1	28.8	2.4	12.8	3.3	1.0	1.6
		2018	485	48.2	31.8	3.0	12.6	2.1	1.3	0.9
		2020	214	43.2	36.5	-	17.4	1.2	-	1.7
학교급	중학교	2016	190	49.3	21.0	0.0	22.8	3.7	0.4	2.8
		2018	88	52.9	16.6	0.4	24.7	0.4	2.5	1.0
		2020	55	49.1	15.0	-	27.9	4.3	-	3.7
	고등학교	2016	1,060	56.5	25.2	1.9	11.8	2.0	0.6	0.9
		2018	883	54.3	27.1	1.9	12.7	2.3	0.8	0.6
		2020	363	48.3	32.4	-	17.0	1.5	-	0.8
	일반계고	2016	685	55.4	27.4	1.3	11.5	1.6	0.8	1.1
		2018	532	55.5	23.6	2.1	13.2	3.2	1.2	0.7
		2020	226	47.1	31.9	-	18.3	1.8	-	0.9
	직업계고	2016	375	58.5	21.3	3.1	12.5	2.7	0.2	0.5
		2018	352	52.4	32.4	1.4	11.8	0.9	0.2	0.5
		2020	136	50.1	33.3	-	14.7	1.1	-	0.8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해 '16년 및 '18년에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호텔리어, 웨딩잡 등 특정 분야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 또는 사이트'로 질문하였던 것을 '20년 조사에서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으로 통일하였음. 또한 '매장(사업장)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 '생활 정보지(벼룩시장, 가로수 등)의 구인 광고', '학교, 공공 기관의 모집 공고'는 '20년 조사에는 미포함하였음.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88】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 5-5.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

### ①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했다는 응답 비율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전 조사에 비해 장기 아르바이트 비율이 증가함.
-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학교급, 고교유형,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일~6일' 26.9%,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8.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3.3% 순으로 나타남.
  - '16년 및 '18년에는 '1일~6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년 조사에서는 '6개월 이상' 비교적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 특징적임.
  - 이러한 결과는 '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단기간일 회성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특히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16) 14.1%, ('18) 20.6%, ('20) 27.1%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학교급 및 고교 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
  - 학교급의 경우, '1일~6일' 단기간 아르바이트 응답 비율이 중학생이 51.9%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23.3%로 절반 수준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시장은 절반 이상이 일주일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임을 의미함. 그에 비해 고등학생은 '6개월 이상' 했다는 응답이 2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고교 유형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일반계고 학생의 근무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나타냄('6개월 이상' 응답 비율: 일반계고 23.8%, 직업계고 39.9%).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6개월 이상' 일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패스트푸드(51.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편의점(37.4%)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처럼 대기업 또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방증함.
  - 반면,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업종의 경우, 57.0%가 '1일~6일'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파악되었고, '뷔페·웨딩홀연회장' 업종의 경우에는 54.0%가 '1일~6일' 단기 아르바이트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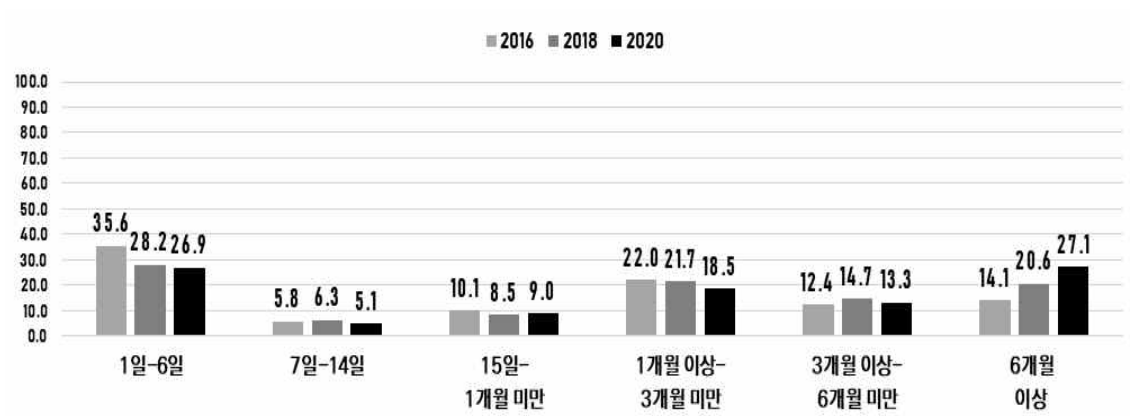


표 III-110 근속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일~ 6일	7일~ 14일	15일~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전체		2016	1,257	35.6	5.8	10.1	22.0	12.4	14.1
		2018	978	28.2	6.3	8.5	21.7	14.7	20.6
		2020	425	26.9	5.1	9.0	18.5	13.3	27.1
성별	남자	2016	620	37.7	6.6	10.6	19.9	11.0	14.1
		2018	488	27.5	6.6	7.3	21.5	16.1	21.1
		2020	208	26.7	4.3	11.9	18.4	11.9	26.9
	여자	2016	637	33.5	5.0	9.6	24.1	13.7	14.2
		2018	490	28.9	6.1	9.7	21.9	13.2	20.1
		2020	217	27.2	5.9	6.2	18.7	14.7	27.3
학교급	중학교	2016	189	48.0	9.8	11.2	14.8	11.2	5.0
		2018	88	43.4	10.2	14.7	17.6	4.8	9.2
		2020	54	51.9	7.1	7.0	23.6	2.1	8.4
	고등학교	2016	1,069	33.4	5.1	9.9	23.3	12.6	15.7
		2018	890	26.7	5.9	7.9	22.1	15.6	21.7
		2020	371	23.3	4.8	9.3	17.8	15.0	29.8
	└ 일반계고	2016	688	37.2	5.6	9.3	23.5	11.2	13.3
		2018	538	31.8	6.3	7.3	23.9	13.8	17.0
		2020	232	26.9	5.7	10.7	18.1	14.7	23.8
	└ 직업계고	2016	380	26.4	4.1	11.2	22.9	15.1	20.2
		2018	352	19.0	5.3	8.9	19.5	18.4	28.9
		2020	138	17.2	3.3	7.0	17.3	15.4	39.9
주요 업·직종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2016	518	24.3	5.8	12.2	28.2	16.0	13.5
		2018	436	19.3	4.9	10.5	27.2	15.7	22.5
		2020	149	17.4	4.6	5.5	22.7	22.5	27.4
	뷔페· 웨딩홀· 연회장	2016	222	61.7	1.4	3.6	11.3	8.1	14.0
		2018	133	53.7	6.4	5.7	13.0	6.7	14.5
		2020	26	54.0	5.0	7.9	4.7	14.9	13.5
	전단지 배포	2016	84	66.7	10.7	10.7	9.5	0.0	2.4
		2018	74	67.4	7.7	9.9	10.4	1.7	2.8
		2020	24	57.0	9.0	9.3	14.7	8.3	1.7
	패스트 푸드점	2016	75	10.7	2.7	5.3	22.7	25.3	33.3
		2018	62	10.1	5.0	5.1	20.8	29.1	29.9
		2020	25	5.9	0.0	3.0	18.3	21.6	51.3
	편의점/ 소형마트	2016	68	17.6	8.8	20.6	23.5	14.7	14.7
		2018	59	14.2	10.0	10.4	25.2	19.7	20.5
		2020	30	12.2	4.4	6.6	29.6	9.7	37.4
	배달·운전	2020	61	32.1	8.7	18.9	15.1	3.3	21.9
아르바이트 이유	가정형편 때문	2016	181	23.2	4.4	5.0	24.9	12.2	30.4
		2018	130	14.3	5.6	7.3	25.6	13.5	33.6
		2020	18	32.8	7.2	7.4	14.3	15.8	22.5
	기타	2016	1,066	37.5	6.1	11.1	21.6	12.5	11.3
		2018	848	30.3	6.4	8.7	21.1	14.8	18.6
		2020	391	25.9	4.8	9.0	19.1	13.8	27.4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16년 및 '18년에 '편의점'으로 조사되었던 항목은 '20년 '편의점/소형마트'로 일부 수정하여 질의하였음.  
 3)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89】근속 기간

## ②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2.9일임.
-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3.4일로 나타남.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2.9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16년(2.8일) 및 '18년(2.7일)과 유사한 수준임.
  - 남학생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3.1일로, 여학생(2.7일)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2.6일, 고등학생은 2.9일로 나타남.
- 업종 및 아르바이트 사유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달리 나타남.
  - 음식점·식당·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3.1일로 비교적 주당 근로일수가 많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은 1.6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남. 뷔페·웨딩홀·연회장은 업종의 특성 상,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아르바이트 사유별 비교에서는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집단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3.4일로 나타나, 기타 사유(2.8일)보다 길었음.

표 III-111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단위: 명,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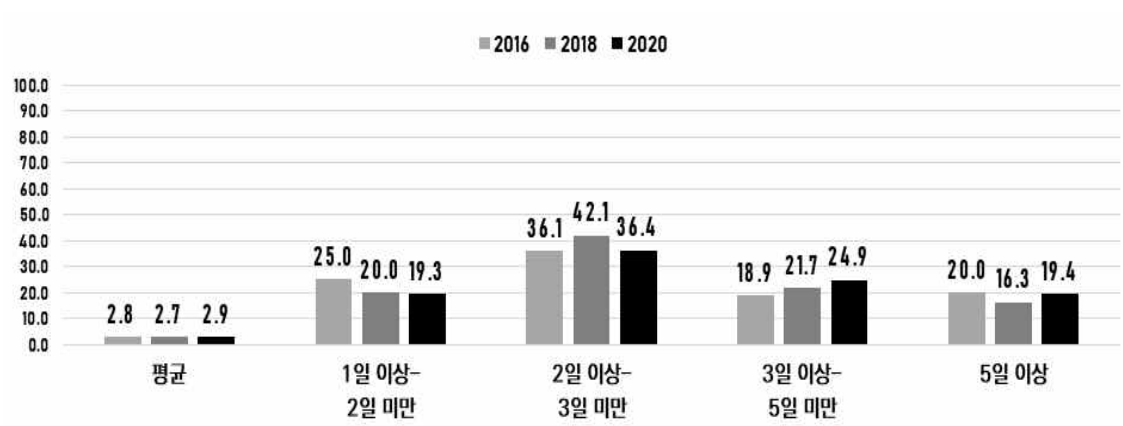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일 이상~ 2일미만	2일 이상~ 3일미만	3일 이상~ 5일미만	5일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247	25.0	36.1	18.9	20.0	2.8(1.8)
		2018	975	20.0	42.1	21.7	16.3	2.7(1.6)
		2020	412	19.3	36.4	24.9	19.4	2.9(1.7)
성별	남자	2016	612	27.1	32.1	20.3	20.5	2.8(1.8)
		2018	488	21.4	36.6	21.5	20.4	2.8(1.7)
		2020	199	17.4	33.1	25.0	24.5	3.1(1.8)
	여자	2016	635	22.9	40.0	17.6	19.6	2.8(1.7)
		2018	487	18.5	47.6	21.8	12.1	2.5(1.4)
		2020	213	21.0	39.5	24.8	14.6	2.7(1.6)
학교급	중학교	2016	188	34.4	32.2	18.0	15.4	2.5(1.9)
		2018	86	28.0	39.0	20.3	12.7	2.4(1.5)
		2020	51	37.4	26.3	17.3	19.1	2.6(1.9)
	고등학교	2016	1,059	23.3	36.8	19.1	20.8	2.8(1.7)
		2018	889	19.2	42.4	21.8	16.6	2.7(1.6)
		2020	361	16.8	37.8	26.0	19.5	2.9(1.7)
	└ 일반계고	2016	681	26.9	34.7	20.9	17.5	2.7(1.7)
		2018	536	21.9	40.7	23.8	13.6	2.6(1.5)
		2020	227	17.3	39.2	26.4	17.1	2.9(1.7)
	└ 직업계고	2016	377	16.8	40.6	15.7	27.0	3.1(1.8)
		2018	353	15.2	45.0	18.7	21.1	2.9(1.6)
		2020	134	15.9	35.4	25.2	23.5	3.0(1.7)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2016	516	12.2	37.0	22.1	28.7	3.3(1.8)
		2018	435	11.2	42.7	26.0	20.1	3.0(1.6)
		2020	148	14.0	30.3	35.7	19.9	3.1(1.6)
	뷔페·웨딩홀· 연회장	2016	219	53.0	39.3	5.9	1.8	1.6(0.9)
		2018	133	44.8	43.9	6.6	4.7	1.8(1.2)
		2020	25	52.1	43.2	3.1	1.6	1.6(0.7)
	전단지 배포	2016	85	54.1	18.8	16.5	10.6	2.1(1.7)
		2018	74	46.8	20.6	21.7	10.9	2.2(1.4)
		2020	23	38.2	20.0	24.8	17.0	2.5(1.7)
	패스트푸드점	2016	75	0.0	18.9	56.8	24.3	3.7(1.2)
		2018	61	7.7	35.6	41.0	15.8	3.0(1.3)
		2020	24	11.3	36.5	31.1	21.1	3.1(1.5)
	편의점	2016	67	6.0	56.7	6.0	31.3	3.3(2.0)
		2018	59	7.8	62.9	14.8	14.5	2.7(1.5)
		2020	30	18.7	47.6	11.8	22.0	2.9(1.9)
	배달/운전	2020	58	18.4	32.4	25.0	24.1	3.2(2.0)
아르 바이트 이유	가정형편 때문	2016	181	12.2	37.6	24.3	26.0	3.3(1.8)
		2018	130	10.8	40.9	22.8	25.6	3.2(1.7)
		2020	16	16.4	36.3	12.5	34.8	3.4(2.2)
	기타	2016	1,055	27.1	36.0	18.0	18.9	2.7(1.7)
		2018	845	21.4	42.3	21.5	14.8	2.6(1.5)
		2020	381	19.2	36.2	26.1	18.5	2.8(1.7)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16년에는 분석 범주를 1일, 2일, 3-4일, 5일 이상으로 하였으나, '18년 조사부터는 1일 이상-2일 미만, 2일 이상-3일 미만, 3일 이상-5일 미만, 5일 이상으로 변경하였음.

3)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0】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 ③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15.2%임.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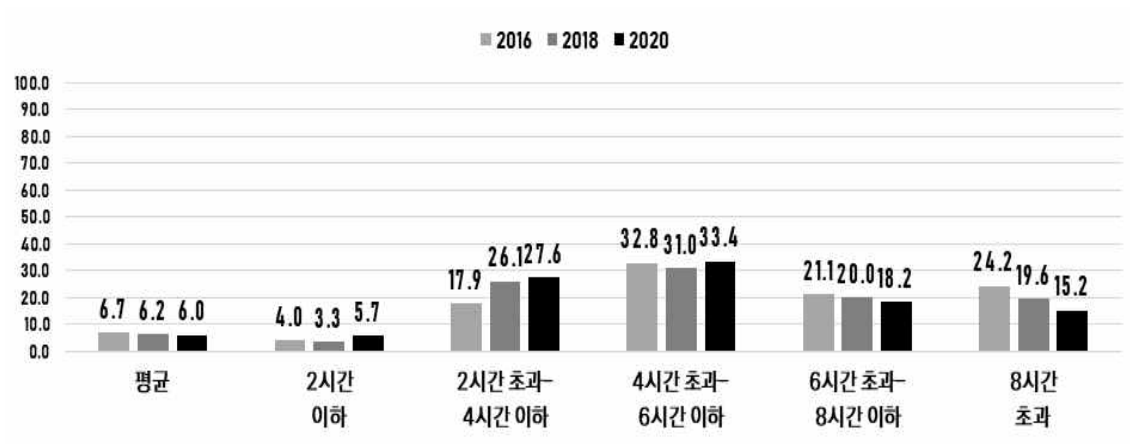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6.0시간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16년(6.7시간) 및 '18년(6.2시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청소년(6.3시간)이 여자청소년(5.7시간)보다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6.1시간)이 중학생(5.6시간)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중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이하'라는 응답 비율이 21.5%로 전체 응답자의 1/5을 차지해,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3.5%) 보다 6.1배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업종별 비교에서는 뷔페웨딩홀연회장의 경우 7.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편의점(6.8시간), 음식점·식당·레스토랑(5.8시간), 패스트푸드점(5.1시간), 전단지 배포(3.6시간) 순으로 나타남.
  - 다만, 뷔페·웨딩홀연회장의 경우, '16년 및 '18년 조사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0.0%로 파악된 반면, '20년 조사에서는 17.6%로 이전의 1/3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제69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15.2%임.
  -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8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편의점 업종이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비율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16년과 '18년에 8시간 초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뷔페·웨딩홀·연회장의 경우, '20년에는 그 비율이 17.6%로 감소하였음.

표 III-112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4시간이하	4시간 초과~6시간이하	6시간 초과~8시간이하	8시간 초과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251	4.0	17.9	32.8	21.1	24.2	6.7(2.8)
		2018	973	3.3	26.1	31.0	20.0	19.6	6.2(2.6)
		2020	415	5.7	27.6	33.4	18.2	15.2	6.0(2.9)
성별	남자	2016	614	5.5	16.4	29.8	21.0	27.2	6.8(2.9)
		2018	486	3.9	24.1	28.6	22.3	21.1	6.4(2.7)
		2020	201	4.4	26.0	30.4	20.2	19.0	6.3(3.1)
	여자	2016	637	2.5	19.3	35.7	21.2	21.3	6.5(2.6)
		2018	488	2.8	28.1	33.3	17.7	18.1	6.0(2.4)
		2020	214	6.8	29.1	36.2	16.3	11.6	5.7(2.6)
학교급	중학교	2016	188	14.9	24.5	30.3	12.8	17.6	5.5(3.0)
		2018	86	11.6	45	23.1	7.9	12.4	5.0(2.6)
		2020	51	21.5	17.6	30.3	14.1	16.5	5.6(3.3)
	고등학교	2016	1,063	2.1	16.7	33.3	22.5	25.4	6.9(2.7)
		2018	887	2.5	24.3	31.7	21.2	20.3	6.3(2.5)
		2020	365	3.5	29.0	33.8	18.7	15.0	6.1(2.8)
	└ 일반계고	2016	684	3.1	15.0	34.0	22.3	25.5	6.9(2.7)
		2018	536	2.7	24.1	32.1	22.7	18.5	6.3(2.5)
		2020	231	3.8	28.6	34.0	18.4	15.1	6.1(2.9)
	└ 직업계고	2016	379	0.3	19.8	31.9	23.0	25.1	6.9(2.6)
		2018	351	2.3	24.5	31.2	18.8	23.1	6.4(2.6)
		2020	134	2.9	29.7	33.3	19.2	14.8	6.0(2.5)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레스토랑	2016	514	0.6	24.1	40.3	12.6	22.4	6.4(2.6)
		2018	434	2.7	33.1	34.9	13.5	15.8	5.8(2.3)
		2020	149	0.5	43.4	29.2	13.5	13.4	5.8(3.2)
	뷔페·웨딩홀·연회장	2016	222	0.0	5.4	15.8	28.8	50.0	8.7(2.6)
		2018	132	0.0	6.0	18.4	25.6	50.0	8.4(2.4)
		2020	25	0.0	11.1	22.1	49.3	17.6	7.2(1.9)
	전단지 배포	2016	84	19.0	38.1	25.0	13.1	4.8	4.4(2.2)
		2018	74	16.0	57.5	16.7	8.9	1.0	3.9(1.7)
		2020	23	32.2	32.4	31.7	3.7	0.0	3.6(1.6)
	패스트푸드점	2016	75	0.0	20.0	61.3	12.0	6.7	5.7(1.8)
		2018	62	0.0	27.4	51.2	19.9	1.6	5.4(1.4)
		2020	24	0.0	37.0	49.3	13.7	0.0	5.1(1.3)
	편의점	2016	69	1.4	13.0	36.2	31.9	17.4	6.8(2.6)
		2018	58	0.0	9.9	33.6	31.4	25.1	7.1(2.3)
		2020	30	3.1	15.1	43.2	13.4	25.3	6.8(2.7)
	배달/운전	2020	60	6.5	16.9	41.1	15.3	20.3	6.2(2.9)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	1일 이상 2일미만	2016	310	6.5	9.0	20.0	32.3	32.3	7.4(3.0)
		2018	195	4.0	22.4	19.1	23.5	31.0	6.8(2.8)
		2020	79	7.6	18.4	37.5	26.0	10.5	6.0(3.0)
	2일 이상 3일미만	2016	445	2.5	10.6	27.4	25.6	33.9	7.4(2.7)
		2018	407	2.4	17.0	30.1	25.2	25.3	6.8(2.6)
		2020	149	4.2	17.4	33.4	22.0	23.0	6.7(2.7)
	3일 이상 5일미만	2016	235	3.8	27.2	47.2	11.1	10.6	5.6(2.3)
		2018	211	3.7	36.7	40.2	12.2	7.2	5.3(2.1)
		2020	102	3.6	45.3	35.0	7.4	8.7	5.3(2.8)
	5일 이상	2016	249	3.6	32.9	43.8	9.2	10.4	5.5(2.3)
		2018	157	4.6	38.9	35.5	13.2	7.8	5.2(2.1)
		2020	80	9.4	34.3	25.5	17.9	12.9	5.5(2.8)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1】 하루 평균 근로시간



#### ④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6.8시간으로 '18년(15.7시간) 대비 다소 증가함.
- 연소근로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5.9%로 '18년(3.2%) 보다 증가함.
- 주당 최대 근로시간(40시간) 초과 비율은 업종별로는 편의점(7.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가정형편 때문인 경우가 11.7%로 비교적 높게 파악됨.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6.8시간으로, '18년(15.7시간) 보다 1.1시간 증가하였음.
  -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19.1시간)이 여자청소년(14.7시간)보다 길게 나타남.
  -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편의점(18.9시간)이었으며,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17.0시간, 패스트푸드점이 15.8시간 순이었음.
  -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20.3시간)이 여타 사유(16.5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남.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제69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즉, 연장근로까지 합산하여 연소근로자가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됨.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5.9%임.
  - 남자청소년(8.7%)이 여자청소년(3.3%) 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비율이 높음.
  - 업종별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배달/운전이 10.7%로 가장 많았음.
  -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비율이 11.7%로 여타 사유(5.4%)보다 2배 이상 높음.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18년 3.2%에서 '20년 5.9%로 다소 증가함.

표 III-113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0시간이하	10시간 초과~ 15시간이하	15시간 초과~ 20시간이하	20시간 초과~ 40시간이하	40시간 초과~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240	22.6	11.5	18.3	21.1	21.9	4.6	17.2(11.9)
	2018	970	22.8	13.2	22.1	22.1	16.5	3.2	15.7(10.2)
	2020	411	26.3	9.4	21.8	20.7	15.9	5.9	16.8(13.6)
성별	남자	2016	608	22.2	10.2	18.1	20.9	24.0	17.6(12.2)
		2018	484	23.6	10.0	17.7	23.3	20.4	17.1(11.4)
		2020	198	21.1	8.5	18.6	25.1	18.0	19.1(15.0)
	여자	2016	633	22.9	12.7	18.5	21.4	19.9	16.9(11.7)
		2018	486	22.1	16.4	26.4	20.9	12.7	14.4(8.5)
		2020	213	31.3	10.2	24.7	16.7	13.8	14.7(11.8)
학교급	중학교	2016	186	43.8	10.3	11.4	13.5	16.8	14.5(13.9)
		2018	86	44.4	8.6	17.4	18.4	10.2	12.1(9.7)
		2020	51	54.8	2.8	10.2	15.2	5.7	15.2(17.6)
	고등학교	2016	1,055	19.0	11.7	19.5	22.4	22.8	17.7(11.5)
		2018	884	20.7	13.7	22.5	22.5	17.2	16.1(10.1)
		2020	360	22.3	10.3	23.4	21.5	17.3	17(12.9)
	└ 일반 계고	2016	679	22.2	12.2	19.9	21.2	20.9	16.7(10.9)
		2018	532	23.9	14.3	22.0	21.2	15.3	15.5(10.1)
		2020	227	24.5	12.0	21.2	20.3	16.5	16.9(13.4)
	└ 특성 화고	2016	376	13.0	10.6	18.8	24.7	26.3	19.5(12.2)
		2018	351	15.9	12.7	23.3	24.5	20.0	17.0(10.1)
		2020	133	18.7	7.5	27.1	23.6	18.7	17.3(12.2)
주요 업·직종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2016	513	12.1	13.5	16.8	23.8	28.1	19.5(11.9)
		2018	433	18.8	12.8	22.8	25.2	18.3	15.9(8.9)
		2020	148	19.5	7.8	26.0	24.3	19.1	17.0(12.0)
	뷔페· 웨딩홀· 연회장	2016	219	31.5	14.2	17.4	20.1	16.9	13.6(6.8)
		2018	132	20.4	22.8	17.5	26.2	12.0	14.4(7.5)
		2020	25	48.9	0.0	24.8	24.8	1.6	11.4(6.4)
	전단지 배포	2016	83	69.5	8.5	11.0	3.7	4.9	9.5(12.3)
		2018	74	66.3	10.0	13.3	4.3	6.1	8.3(6.4)
		2020	23	60.3	17.4	13.6	6.8	1.9	8.2(5.9)
	패스트 푸드점	2016	75	1.3	5.3	25.3	36.0	29.3	20.8(9.4)
		2018	61	14.0	6.6	46.1	13.9	18.5	15.8(7.3)
		2020	24	18.5	21.6	15.0	21.1	22.2	15.8(9.5)
	편의점	2016	67	9.0	4.5	32.8	14.9	28.4	21.5(14.8)
		2018	58	8.7	11.0	25.4	27.6	23.8	18.0(9.5)
		2020	30	20.2	7.1	21.3	22.5	21.1	18.9(16.2)
	배달/운전	2020	58	21.4	8.8	19.0	17.8	22.3	20.3(17.5)
아르 바이트 이유	가정 형편 때문	2016	179	11.7	6.7	19.6	27.4	29.6	19.7(10.6)
		2018	129	15.8	10.3	22.5	21.4	26.3	18.0(10.3)
		2020	16	23.8	16.5	0.0	32.7	15.3	20.3(16.2)
	기타	2016	1,050	24.5	12.4	18.1	20.2	20.6	16.8(12.0)
		2018	841	23.9	13.7	22.0	22.2	15.0	15.4(10.1)
		2020	380	26.5	9.3	22.9	19.6	16.2	16.5(13.2)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일주일 평균 근로일수×하루 평균 근로시간.

3) '16년에는 최대 범주를 '46시간 초과'로 설정하였으나, '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년 조사부터 연소자 주당 최대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범주를 '40시간 초과'로 변경하였음.

4)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5)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III-114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주당 최대 근무시간초과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240	3.3	17.2(11.9)
		2018	970	3.2	15.7(10.2)
		2020	411	5.9	16.8(13.6)
성별	남자	2016	608	3.8	17.6(12.2)
		2018	484	4.9	17.1(11.4)
		2020	198	8.7	19.1(15.0)
	여자	2016	633	2.8	16.9(11.7)
		2018	486	1.5	14.4(8.5)
		2020	213	3.3	14.7(11.8)
학교급	중학교	2016	186	3.8	14.5(13.9)
		2018	86	0.9	12.1(9.7)
		2020	51	11.3	15.2(17.6)
	고등학교	2016	1,055	3.2	17.7(11.5)
		2018	884	3.4	16.1(10.1)
		2020	360	5.1	17.0(12.9)
	└ 일반계고	2016	679	2.7	16.7(10.9)
		2018	532	3.3	15.5(10.1)
		2020	227	5.6	16.9(13.4)
	└ 직업계고	2016	376	4.2	19.5(12.2)
		2018	351	3.6	17.0(10.1)
		2020	133	4.4	17.3(12.2)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레스토랑	2016	513	4.1	19.5(11.9)
		2018	433	2.0	15.9(8.9)
		2020	148	3.3	17.0(12.0)
	뷔페·웨딩홀·연회장	2016	219	0.0	13.6(6.8)
		2018	132	1.1	14.4(7.5)
		2020	25	0.0	11.4(6.4)
	전단지 배포	2016	83	1.2	9.5(12.3)
		2018	74	0.0	8.3(6.4)
		2020	23	0.0	8.2(5.9)
	패스트푸드점	2016	75	1.3	20.8(9.4)
		2018	61	0.9	15.8(7.3)
		2020	24	1.7	15.8(9.5)
	편의점	2016	67	4.5	21.5(14.8)
		2018	58	3.5	18.0(9.5)
		2020	30	7.8	18.9(16.2)
	배달/운전	2020	58	10.7	20.3(17.5)
아르바이트 이유	가정형편 때문	2016	179	3.4	19.7(10.6)
		2018	129	3.7	18.0(10.3)
		2020	16	11.7	20.3(16.2)
	기타	2016	1,050	3.1	16.8(12.0)
		2018	841	3.1	15.4(10.1)
		2020	380	5.4	16.5(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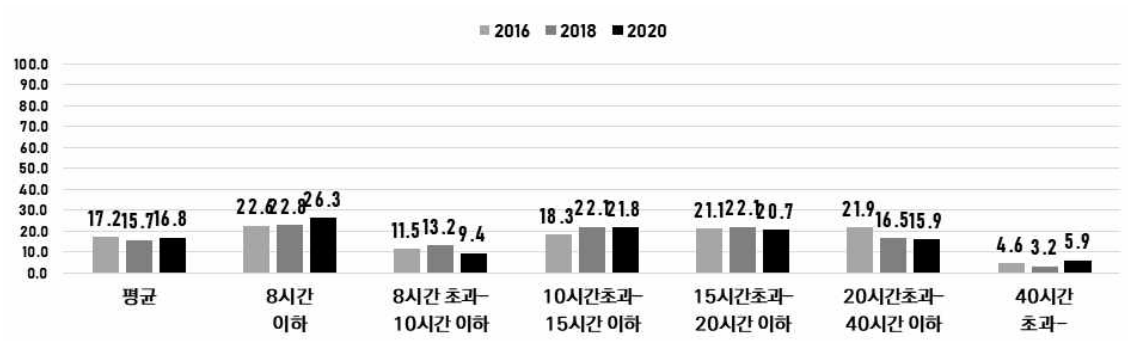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일주일 평균 근로일수×하루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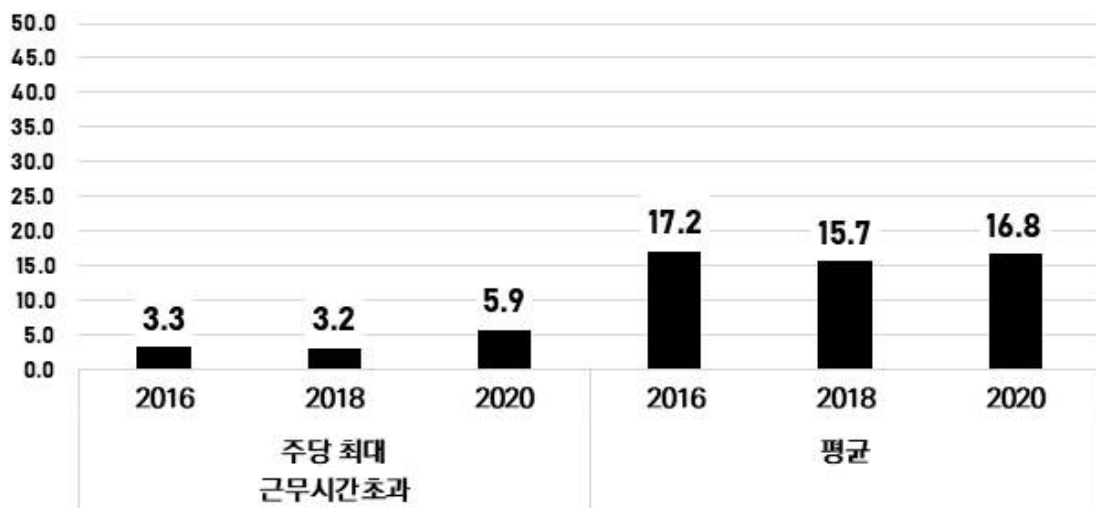
3) 주당 최대 근무시간 기준은 '16년 46시간, '18년부터 40시간임.

4)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5)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92】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그림 Ⅲ-93】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

## 5-6. 아르바이트 급여

### ① 급여 지급 기준

-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기준은 시급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음.
- 업종별 비교 결과, 시급으로 지급받았다는 비율은 패스트푸드점이 78.7%로 가장 높고,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전단지 배포가 27.3%로 가장 높았음.

▶ 관련 정책: 5-1-2. 청소년 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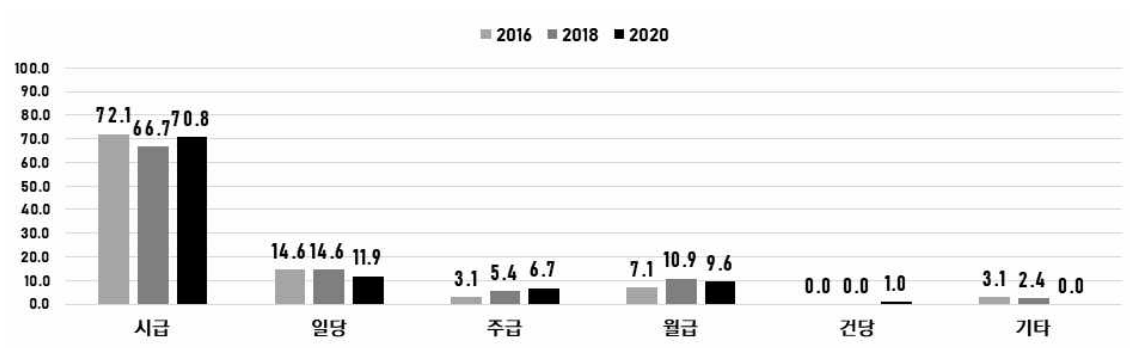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70.8%가 시급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 다음으로는 일당(11.9%), 월급(9.6%), 주급(6.7%) 순으로 나타났음.
  - 시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16년 72.1%에서 '18년 66.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년 70.8%로 다시 증가함.
  -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16년(14.6%) 및 '18년(14.6%)에 비해 '20년 조사에서 11.9%로 다소 감소하였음. 이는 일당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뷔페·웨딩홀·연회장 등의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음.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중학생(25.6%)은 고등학생(10.2%)에 비해 일당으로 지급받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시된 주요 업종 가운데 시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패스트푸드점(78.7%)이었음.
  -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위 5개 업종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 분포를 살펴보면 뷔페·웨딩홀·연회장(20.5%) 및 전단지 배포(27.3%)의 경우에는 여타 업종에 비해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또한, 편의점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 비율(16.7%)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15 급여 지급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시급	일당	주급	월급	건당	기타	
전체		2016	1,237	72.1	14.6	3.1	7.1	-	3.1
		2018	977	66.7	14.6	5.4	10.9	-	2.4
		2020	401	70.8	11.9	6.7	9.6	1.0	0.0
성별	남자	2016	607	68.7	17.8	2.9	6.9	-	3.7
		2018	487	67.6	14.9	5.4	9.5	-	2.7
		2020	190	69.2	11.6	8.3	10.1	0.9	0.0
	여자	2016	630	75.5	11.4	3.3	7.3	-	2.6
		2018	491	65.8	14.2	5.5	12.3	-	2.1
		2020	211	72.3	12.1	5.3	9.2	1.0	0.0
학교급	중학교	2016	185	64.3	18.3	0.8	4.9	-	11.6
		2018	87	71.8	11.2	5.0	5.3	-	6.8
		2020	45	66.6	25.6	5.2	0.0	2.6	0.0
	고등학교	2016	1,052	73.5	13.9	3.5	7.5	-	1.6
		2018	890	66.2	14.9	5.5	11.5	-	2.0
		2020	357	71.4	10.2	6.9	10.8	0.8	0.0
	└ 일반계고	2016	676	71.7	14.9	3.5	7.8	-	2.2
		2018	539	64.6	17.1	5.2	10.6	-	2.5
		2020	223	73.1	10.0	6.7	10.1	0.0	0.0
	└ 직업계고	2016	376	76.8	12.2	3.5	6.9	-	0.6
		2018	351	68.7	11.5	5.9	12.8	-	1.1
		2020	134	68.4	10.3	7.2	12.0	2.0	0.0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2016	510	78.6	8.4	4.1	8.2	-	0.6
		2018	435	67.8	12.0	7.2	12.4	-	0.5
		2020	149	73.1	10.0	6.7	10.1	0.0	0.0
	뷔페·웨딩홀 ·연회장	2016	219	80.4	15.1	1.8	1.8	-	0.9
		2018	134	69.1	18.1	5.1	4.7	-	3.0
		2020	26	61.6	20.5	10.0	7.8	0.0	0.0
	전단지 배포	2016	86	57.0	26.7	1.2	0.0	-	15.1
		2018	74	67.8	21.7	4.0	0.0	-	6.4
		2020	20	72.7	27.3	0.0	0.0	0.0	0.0
	패스트 푸드점	2016	75	84.0	4.0	4.0	8.0	-	0.0
		2018	62	78.1	1.7	1.3	15.6	-	3.3
		2020	24	78.7	6.0	5.3	10.1	0.0	0.0
	편의점	2016	68	82.4	1.5	0.0	11.8	-	4.4
		2018	59	79.0	3.6	0.0	15.8	-	1.6
		2020	30	73.0	6.6	3.6	16.7	0.0	0.0
	배달/운전	2020	54	64.2	12.2	8.7	11.7	3.2	0.0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94】 급여 지급 기준

## ② 급여 수준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0년 최저시급 8,590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비율은 29.9%로, '18년(34.9%)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약 3명 중 1명에 해당함.
- 특히,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비율이 64.1%로 여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5-1-2. 청소년 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평균 시급은 9,073원으로 나타남.
  - 급여가 최저시급인 8,590원이었다는 응답이 22.7%로 파악되었고, 8,590원 초과~9,000원 미만 9.1%, 9,000원이었다는 응답이 11.1%, 9,000원을 초과하였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남.
  -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도 29.9%를 차지해, '20년 아르바이트 유경험 청소년 3명 중 1명 비율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시계열 비교 결과,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 받은 비율은 ('16) 25.8% → ('18) 34.9% → ('20) 29.9%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3명 중 1명 비율로 최저시급 위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중학생(37.0%) 집단에서 고등학생(29.0%)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평균 시급은 배달/운전 업종이 9,791.6원으로 가장 높고, 뷔페웨딩홀연회장 업종이 9,032.3원으로 그 뒤를 이었음. 편의점 업종은 7,740.1원으로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편임.
  - 특히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은 응답 비율이 편의점에서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편의점은 이전 조사에서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비율이 '16년 65.0%, '18년 63.8% 등 지속적으로 60%를 상회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해당 업종의 최저시급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표 III-116 급여 수준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8,590원 미만	8,590원	8,590원 초과 ~9,000원 미만	9,000원	9,000원 초과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2	29.9	22.7	9.1	11.1	27.3	9,073.0 (2,549.9)
성별	남자	178	30.6	18.9	7.2	12.1	31.2	9,195.1 (2,819.3)
	여자	194	29.2	26.2	10.8	10.2	23.7	8,960.7 (2,276.0)
학교급	중학교	40	37.0	1.7	0.0	13.6	47.6	10,146.2 (5,440.7)
	고등학교	332	29.0	25.2	10.2	10.8	24.8	8,943.2 (1,906.1)
	└ 일반계고	209	27.2	25.3	9.9	11.4	26.1	9,019.8 (1,881.5)
	└ 직업계고	123	32.1	25	10.6	9.7	22.6	8,812.9 (1,948)
연령	만15세 미만	16	25.4	0.0	0.0	11.5	63.0	10,851.4 (5,545.3)
	만15세 이상	352	30.1	23.9	9.6	11.0	25.4	8,968.8 (2,256.5)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141	25.4	26.3	11.8	14.5	21.9	8,774.7 (1,345.9)
	뷔페·웨딩홀· 연회장	21	33.4	33.2	3.8	3.3	26.3	9,032.3 (981.3)
	전단지 배포	18	34.9	2.5	0.0	13.4	49.3	8,727.1 (3,016.8)
	패스트푸드점	24	23.1	58.7	4.6	4.4	9.2	8,830.2 (1,731.4)
	편의점	27	64.1	21.0	3.8	3.2	7.9	7,740.1 (1,377.9)
	배달/운전	47	30.6	10.3	9.7	13.0	36.3	9,791.6 (4,018.5)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만 15세 미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III-117 급여 수준 비교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최저시급 미만	평균(표준편차)	
전체		2016	1,165	25.8	6,574.8(1,980.6)
		2018	926	34.9	7,785.1(2,392.5)
		2020	372	29.9	9,073.0(2,549.9)
성별	남자	2016	567	21.7	6,767.3(2,244.1)
		2018	460	32.6	7,994.2(2,883.3)
		2020	178	30.6	9,195.1(2,819.3)
	여자	2016	598	29.6	6,392.3(1,674.7)
		2018	466	37.2	7,578.8(1,759.1)
		2020	194	29.2	8,960.7(2,276.0)
학교급	중학교	2016	157	43.9	6,615.2(3,064.5)
		2018	76	46.7	7,883.8(3,174.9)
		2020	40	37.0	10,146.2(5,440.7)
	고등학교	2016	1,008	22.9	6,568.6(1,755.2)
		2018	850	33.8	7,776.3(2,312.0)
		2020	332	29.0	8,943.2(1,906.1)
	└ 일반계고	2016	643	20.9	6,686.3(2,009.7)
		2018	508	35.4	7,779.3(1,966.2)
		2020	209	27.2	9,019.8(1,881.5)
	└ 직업계고	2016	365	26.5	6,360.9(1,153.2)
		2018	342	31.5	7,771.9(2,750.0)
		2020	123	32.1	8,812.9(1,948.0)
연령	만15세 미만	2016	56	48.2	6,420.6(3,644.3)
		2018	28	43.2	8,126.9(3,439.5)
		2020	16	25.4	10,851.4(5,545.3)
	만15세 이상	2016	1,109	24.6	6,582.7(1,859.1)
		2018	898	34.6	7,774.5(2,354.3)
		2020	352	30.1	8,968.8(2,256.5)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2016	491	27.3	6,416.3(1,239.9)
		2018	423	33.4	7,763.6(1,694.4)
		2020	141	25.4	8,774.7(1,345.9)
	뷔페·웨딩홀· 연회장	2016	214	15.9	6,312.9(810.7)
		2018	125	29.1	7,867.7(1,514.8)
		2020	21	33.4	9,032.3(981.3)
	전단지 배포	2016	70	40.0	7,248.6(3,222.6)
		2018	68	52.7	7,527.6(2,022.3)
		2020	18	34.9	8,727.1(3,016.8)
	패스트푸드점	2016	74	13.5	6,063.2(1,174.9)
		2018	60	28.5	7,533.1(1,338.7)
		2020	24	23.1	8,830.2(1,731.4)
	편의점	2016	60	65.0	5,523.8(884.4)
		2018	55	63.8	6,667.8(1,544.0)
		2020	27	64.1	7,740.1(1,377.9)
	배달/운전	2020	47	30.6	9,791.6(4,018.5)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만15세 미만은 '16년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8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20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16년도 최저시급 기준은 6,030원, '18년도는 7,530원, '20년은 8,590원임.

4)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5)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5-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로, '16년(59.3%) 및 '18년(61.6%)에 비해 감소함.
- 학교급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고등학생(50.9%)보다 중학생(69.6%)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전단지 배포(71.6%) 및 편의점(70.1%)에서 높게 나타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비율은 54.6%에 불과함.

▶ 관련 정책: 5-1-2. 청소년 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조사한 결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16년(59.3%) 및 '18년(61.6%)보다 감소한 결과임.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고등학생(50.9%)보다 중학생(69.6%)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유형 중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42.8%로 낮은 편이며,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 비율이 41.5%로 여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전체 응답자 기준 29.8%, 고등학생 32.1%, 일반계고 26.5%).
- 연령별로는 만15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0.4%를 차지해, 만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전단지 배포(71.6%), 편의점(70.1%)에서 높게 나타남. 배달·운전 업종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62.1%로 높은 편임.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미작성 비율은 17.6%로 가장 낮았고,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 비율은 59.8%로 가장 높았음.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20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받은 경우는 54.6%에 불과함.

표 III-11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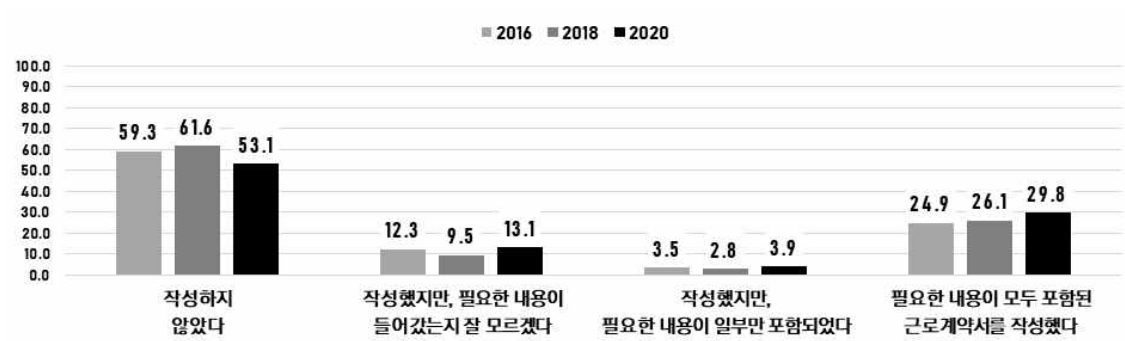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지만,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작성했지만, 필요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었다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전체		2016	1,253	59.3	12.3	3.5	24.9
		2018	978	61.6	9.5	2.8	26.1
		2020	415	53.1	13.1	3.9	29.8
성별	남자	2016	619	57.6	11.6	2.6	28.2
		2018	487	62.1	8.3	3.0	26.6
		2020	202	53.8	10.0	3.8	32.5
	여자	2016	634	60.9	13.1	4.3	21.7
		2018	491	61.0	10.7	2.7	25.6
		2020	213	52.5	16.2	4.1	27.3
학교급	중학교	2016	187	75.3	5.8	1.5	17.4
		2018	87	81.0	3.2	2.8	13.1
		2020	49	69.6	15.3	2.4	12.7
	고등학교	2016	1,065	56.4	13.5	3.8	26.3
		2018	891	59.7	10.1	2.8	27.4
		2020	366	50.9	12.9	4.1	32.1
	└ 일반계고	2016	685	56.7	12.9	4.4	26.0
		2018	537	60.8	10.3	3.0	25.9
		2020	229	55.7	14.1	3.7	26.5
	└ 직업계고	2016	380	56.0	14.6	2.6	26.7
		2018	353	57.9	9.8	2.6	29.7
		2020	136	42.8	10.7	4.9	41.5
연령	만15세 미만	2016	72	81.9	5.6	1.4	11.1
		2018	33	77.8	6.0	3.7	12.5
		2020	18	80.4	4.0	0.0	15.6
	만15세 이상	2016	1,180	57.9	12.8	3.6	25.8
		2018	945	61.0	9.6	2.8	26.6
		2020	393	51.8	13.4	4.1	30.7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2016	515	65.4	9.7	2.7	22.1
		2018	437	62.6	10.0	2.6	24.9
		2020	149	56.7	11.1	4.4	27.9
	뷔페·웨딩홀· 연회장	2016	222	48.2	17.1	5.4	29.3
		2018	134	55.9	16.2	0.8	27.1
		2020	26	47.1	14.4	0.0	38.5
	전단지 배포	2016	84	86.9	3.6	1.2	8.3
		2018	74	87.1	4.0	6.4	2.6
		2020	23	71.6	19.3	5.0	4.2
	패스트 푸드점	2016	76	23.7	15.8	2.6	57.9
		2018	62	34.0	1.5	2.7	61.8
		2020	25	17.6	22.0	0.6	59.8
	편의점	2016	69	50.7	21.7	5.8	21.7
		2018	59	77.3	5.0	2.6	15.0
		2020	30	70.1	15.4	4.2	10.4
	배달/운전	2020	56	62.1	14.1	6.9	16.8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만15세 미만은 '16년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8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20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5】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표 III-119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가졌다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갖지 않았다 (못받았다)	
전체		2018	370	58.0	42.0
		2020	182	54.6	45.4
성별	남자	2018	179	65.7	34.3
		2020	86	60.0	40.0
	여자	2018	191	50.7	49.3
		2020	96	49.6	50.4
학교급	중학교	2018	16	89.5	10.5
		2020	15	67.9	32.1
	고등학교	2018	354	56.6	43.4
		2020	167	53.4	46.6
	└ 일반계고	2018	208	54.5	45.5
		2020	94	47.0	53.0
	└ 직업계고	2018	146	59.5	40.5
		2020	73	61.6	38.4
연령	만15세 미만	2018	7	69.2	30.8
		2020	4	56.8	43.2
	만15세 이상	2018	363	57.8	42.2
		2020	177	54.2	45.8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레스토랑	2018	161	57.1	42.9
		2020	61	45.1	54.9
	뷔페·웨딩홀·연회장	2018	59	42.3	57.7
		2020	12	42.1	57.9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2018	10	74.7	25.3
		2020	7	15.6	84.4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2018	41	72.2	27.8
		2020	20	53.7	46.3
	편의점	2018	12	54.1	45.9
		2020	9	40.9	59.1
	배달/운전	2020	18	66.0	34.0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2) 이 문항은 '18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만15세 미만은 '18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20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5-8.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

### ①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

- 오토바이 배달이나 배달앱을 통해 배달·운전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 방식을 조사한 결과, ‘매장이나 업체 직접 고용’이 55.6%,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44.4%로 나타남.

▶ 관련 정책: 5-1-1.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가운데 배달업은 고용 방식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측면에서 여타 업종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배달업종의 근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년 조사에서는 배달·운전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음.
- 먼저,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지 근로 방식을 조사한 결과, ‘매장이나 업체에 직접 고용’되었다는 응답이 55.6%,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했다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는 직접 고용 형태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플랫폼 노동도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Ⅲ-120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장이나 업체 직접 고용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 (개인사업자)	기타
전체		61	55.6	44.4	0.0
성별	남자	33	56.9	43.1	0.0
	여자	28	54.0	46.0	0.0
학교급	중학교	11	44.1	55.9	0.0
	고등학교	50	58.2	41.8	0.0
	└ 일반계고	33	55.1	44.9	0.0
	└ 직업계고	17	64.4	35.6	0.0
연령	만15세 미만	5	77.9	22.1	0.0
	만15세 이상	54	55.0	45.0	0.0

\* 주: 1) '20년에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만15세 미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②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 배달 업무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24.3%,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남.

▶ 관련 정책: 5-1-1.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 배달 업무 및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24.3%,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4.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로 조사되었음.

-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움.

○ 다음으로,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조사한 결과, ‘작성했다’는 응답이 11.2%, ‘작성하지 않았다’ 33.9%, ‘잘 모르겠다’ 54.9%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존재함을 시사함.

표 III-12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 배달 업무 및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	전체		24	24.3	24.1	51.6
	성별	남자	14	34.6	21.3	44.1
		여자	10	10.6	27.9	61.5
	학교급	중학교	6	31.2	0.0	68.8
		고등학교	17	21.7	32.9	45.3
		└ 일반계고	12	20.0	43.1	36.8
		└ 직업계고	5	25.9	7.9	66.2
	연령	만15세 미만	1	0.0	0.0	100.0
		만15세 이상	21	24.3	27.7	48.0
2)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	전체		23	11.2	33.9	54.9
	성별	남자	13	14.4	38.7	46.9
		여자	10	7.3	27.9	64.8
	학교급	중학교	6	11.8	19.5	68.8
		고등학교	17	11.0	39.4	49.6
		└ 일반계고	12	7.5	53.1	39.4
		└ 직업계고	5	19.1	7.9	73.1
	연령	만15세 미만	1	0.0	0.0	100.0
		만15세 이상	20	9.2	39.1	51.7

\* 주: 1) '20년에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배달대행업체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개인사업자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만 15세 미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함.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5-9. 근로권익교육 경험

### ①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의 5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교육 받은 장소는 학교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특히 직업계 고등학생 64.1%가 학교에서 근로권익교육을 받았음.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5-2-2.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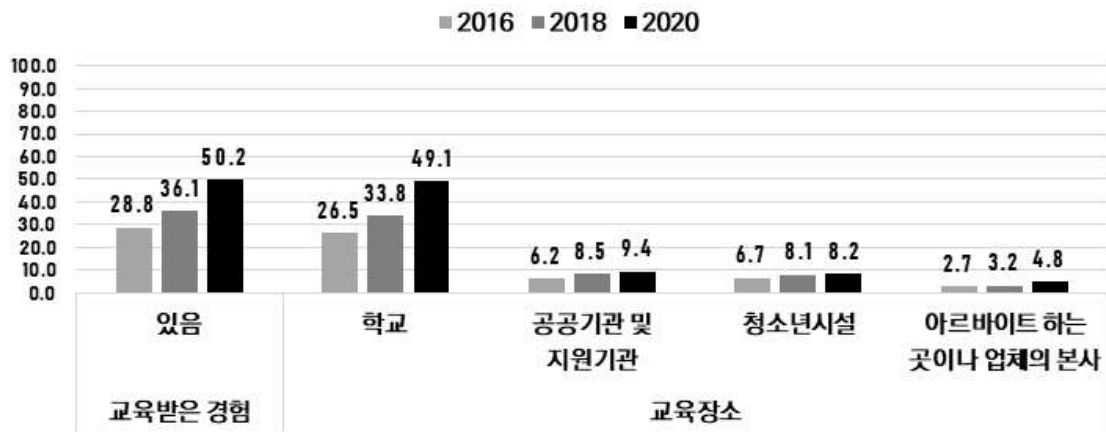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의 근로권익(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0.2%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16) 28.8% 및 ('18) 36.1%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근로권익(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추진해 온 정책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육받은 장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9.1%가 '학교'에서 받았다고 답했고,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고용지청, 교육청,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연수원 등)'이라는 응답이 9.4%,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라는 응답이 8.2%를 차지함.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남.
  - 여타 장소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16년 및 '18년 조사와 대동소이한 수준을 나타낸 데 비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16) 26.5% → ('18) 33.8% → ('20) 49.1%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바, 전체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경험률의 상승이 주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추동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학생의 근로권익(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44.5%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55.5%로 10%p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직업계고 학생의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경험률은 65.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체 응답자의 64.1%가 학교에서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여타 학교급이나 학교 유형에 비해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이 좀 더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함.

표 III-122 근로권익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중복응답): 학교급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육 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곳(중복응답)			
				학교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청소년 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전체	2016	11,169	28.8	26.5	6.2	6.7	2.7
	2018	10,889	36.1	33.8	8.5	8.1	3.2
	2020	9,568	50.2	49.1	9.4	8.2	4.8
학교급	중학교	2016	26.8	24.5	5.9	7.6	2.6
		2018	28.9	26.0	7.9	9.1	3.0
		2020	44.5	43.2	8.5	7.9	3.9
	고등학교	2016	30.5	28.3	6.6	5.8	2.9
		2018	42.0	40.3	8.9	7.2	3.4
		2020	55.5	54.6	10.3	8.4	5.7
	└ 일반계고	2016	25.4	23.1	4.8	4.8	2.5
		2018	39.1	37.6	7.2	6.2	2.8
		2020	53.5	52.7	9.3	7.8	5.1
	└ 직업계고	2016	53.9	52.4	14.8	10.6	4.8
		2018	55.5	53.6	17.4	11.9	6.5
		2020	65.1	64.1	15.4	11.7	8.6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6】 근로권익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중복응답)

## ② 근로권익교육 방식 및 도움 정도

- 근로권익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이전에 비해 강의식 수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증가함.
- 교육장소별로 근로권익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학교'가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가 가장 낮았음.
- 교육방식에 따른 근로권익교육의 도움 정도는 '모둠활동식 수업'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체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5-2-2.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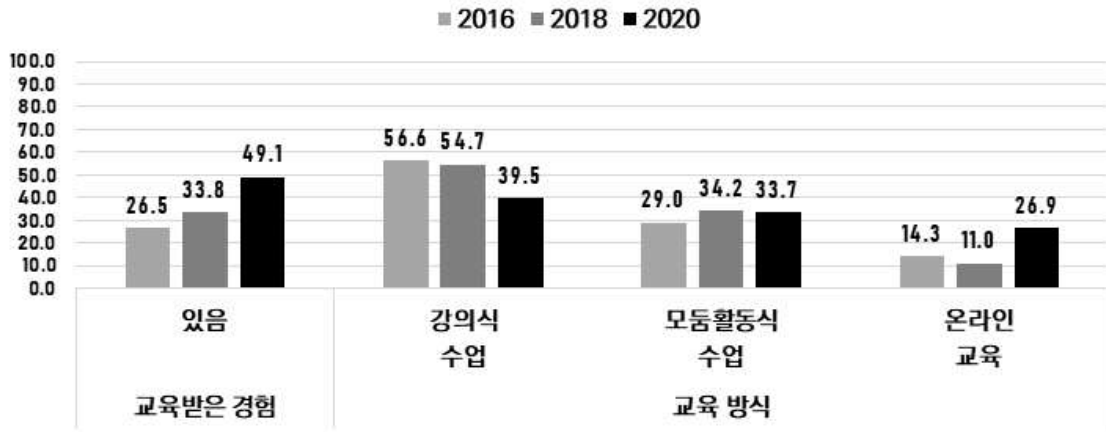
- 근로권익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 이전에 비해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들이 근로권익교육을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학교'의 경우, '16년 및 '18년에는 '강의식 수업'을 받았다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으나, '20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9.5%로 감소하였음. 반면,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16년 및 '18년에는 11~14% 수준에 머물렀으나, '20년에는 그 비율이 26.9%로 크게 상승함.
  - 이러한 결과는 COVID-19의 영향으로 집합형태의 강의식 수업이 제한되고, 재택수업/온라인 수업이 확산되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III-123 기관별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및 교육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모둠활동식 수업	온라인 교육
1) 학교	2016	11,167	26.5	56.6	29.0
	2018	10,889	33.8	54.7	34.2
	2020	9,579	49.1	39.5	33.7
2)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2016	11,162	6.2	52.0	24.3
	2018	10,880	8.5	54.2	29.1
	2020	9,548	9.4	41.8	26.8
3) 청소년시설	2016	11,156	6.7	56.2	25.8
	2018	10,883	8.1	57.2	29.0
	2020	9,543	8.2	44.7	28.0
4)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2016	11,161	2.7	53.7	20.0
	2018	10,887	3.2	48.2	28.7
	2020	9,552	4.8	41.0	22.9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7】 기관별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및 교육 방식

-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교육받은 장소별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가장 낮게 파악되었음.
  -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79.2%(도움이 됨 63.1%+매우 도움이 됨 16.1%)로 나타남.
  -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받은 교육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74.3%(도움이 됨 53.8%+매우 도움이 됨 20.5%)로 나타남.
  - ‘청소년 시설’에서 받은 근로권익교육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71.2%(도움이 됨 51.5%+매우 도움이 됨 19.7%)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에서 받은 근로권익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63.4%(도움이 됨 44.5%+매우 도움이 됨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육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형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교육방식의 경우, ‘모둠활동식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강의식 수업보다 높게 파악되었음.

표 III-124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

(단위: 명, %)

교육 장소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학교	전체		4,416	6.8	14.0	63.1	16.1
	성별	남자	2,373	8.5	13.7	60.6	17.2
		여자	2,044	4.8	14.4	66.0	14.7
	학교급	중학교	1,840	4.7	11.4	63.1	20.7
		고등학교	2,576	8.3	15.9	63.1	12.7
		└ 일반계고	2,071	8.6	16.9	62.6	11.9
		└ 직업계고	505	7.0	11.6	65.3	16.1
	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1,696	8.3	15.2	62.1	14.4
		모둠활동식 수업	1,485	4.1	11.0	67.3	17.6
		온라인 교육	1,171	7.3	15.4	60.6	16.6
(2)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전체		820	12.7	13.0	53.8	20.5
	성별	남자	492	14.5	13.8	49.7	22.0
		여자	328	9.9	11.8	59.9	18.3
	학교급	중학교	349	9.5	11.3	53.6	25.7
		고등학교	471	15.0	14.3	53.9	16.7
		└ 일반계고	354	16.7	15.9	51.4	16.0
		└ 직업계고	117	10.2	9.4	61.4	19.0
	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312	14.6	15.1	50.3	20.0
		모둠활동식 수업	198	7.0	8.8	64.5	19.7
		온라인 교육	244	7.3	11.8	57.0	23.9
(3) 청소년 시설	전체		702	14.7	14.1	51.5	19.7
	성별	남자	426	16.6	13.7	48.4	21.3
		여자	275	11.8	14.8	56.2	17.2
	학교급	중학교	324	11.2	12.3	52.4	24.1
		고등학교	377	17.7	15.7	50.7	15.9
		└ 일반계고	292	19.8	16.3	48.9	15.0
		└ 직업계고	85	10.6	13.6	57.1	18.7
	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274	14.3	17.8	47.7	20.2
		모둠활동식 수업	178	8.4	10.7	62.9	18.0
		온라인 교육	167	9.9	9.6	55.9	24.6
(4) 아르 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전체		420	22.6	14.0	44.5	18.9
	성별	남자	282	24.2	11.7	43.1	21.0
		여자	138	19.3	18.7	47.4	14.7
	학교급	중학교	163	20.3	10.7	45.5	23.5
		고등학교	257	24.0	16.1	43.9	16.1
		└ 일반계고	193	25.5	18.1	41.3	15.1
		└ 직업계고	64	19.6	9.9	51.4	19.1
	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127	17.5	19.5	43.3	19.7
		모둠활동식 수업	78	11.4	9.6	59.9	19.1
		온라인 교육	120	14.2	10.9	49.1	25.8

\* 주: 1)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 시계열 비교

- '16년 및 '18년 조사에서는 교육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근로권익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16년 71.2%(도움이 됨 58.8%+매우 도움이 됨 12.4%), '18년 71.9%(도움이 됨 60.1%+매우 도움이 됨 11.8%)로 파악되었음.

표 III-125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2016	3,142	9.2	19.7	58.8	12.4
		2018	3,859	9.5	18.6	60.1	11.8
성별	남자	2016	1,753	11.1	19.0	56.0	13.9
		2018	2,115	12.2	17.8	57.2	12.7
	여자	2016	1,389	6.7	20.5	62.4	10.4
		2018	1,745	6.1	19.5	63.7	10.7
학교급	중학교	2016	1,369	7.3	17.0	60.3	15.4
		2018	1,395	8.7	17.0	59.5	14.8
	고등학교	2016	1,773	10.6	21.8	57.6	10.0
		2018	2,465	9.9	19.5	60.5	10.1
	└ 일반계고	2016	1,212	11.5	23.6	56.7	8.2
		2018	1,897	9.9	20.3	60.0	9.8
	└ 직업계고	2016	561	8.6	17.9	59.6	14.0
		2018	568	9.9	17.1	62.0	11.0
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2016	2,536	11.3	19.9	56.2	12.5
		2018	3,057	12.1	18.2	56.6	13.1
	모둠활동식 수업	2016	1,244	6.2	14.6	61.2	18.0
		2018	1,810	7.1	14.7	64.4	13.8
	온라인 교육	2016	763	12.1	19.9	55.5	12.5
		2018	725	13.5	17.8	54.1	14.6

\* 주: 1)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5-10.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 ①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률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행위는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받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15.7%가 경험하였음.
-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18.9%로, '18년(21.7%)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관련 정책: 5-3-1.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지원  
5-3-2. 청소년 권익 침해 등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20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및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임금 또는 급여(시급, 일당, 수당)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는 응답이 15.7%로 가장 많았음.
  - 그 밖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4.7%,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3.2%로 나타남.
  - 새롭게 추가된 문항 중에서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실이 발생해서 내 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3%로 나타남.
-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제시된 부당행위를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16년 30.5%, '18년 37.5%, '20년 34.5%로 파악되었음.
  - '20년 조사에서 신규항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대비 부당행위 경험률은 3.0%p 감소함.
  -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18년 21.7%에서 '20년 18.9%로 2.8%p 감소함.
-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주요 부당행위 항목에서 더 취약한 경향성을 나타냄.
  - 대표적으로,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는 응답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응답 비율(17.9%)이 남자청소년(13.4%)보다 4.5%p 더 높았음.
-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패스트푸드점에서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31.2%로 나타나, 전체 평균(15.7%) 보다 2배 높게 파악되었음. 또한 ‘일을 하면서 휴게 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2.2%로 여타 업종 및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 편의점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 요구 받았다’는 응답이 26.8%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파악되었음.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요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낮게 파악되었음.

-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 가운데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11.1%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7.4%)에 비해 6.3%p 낮게 나타남.

표 III-126 부당행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전체	부당행위 경험	30.5	37.5	34.5
항목별	1) 임금 또는 급여(시급, 일당, 수당)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13.4	16.3	15.7
	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8.8	8.4	6.4
	3)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짜보다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초과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했다	6.6	7.3	5.1
	임금체불 소계	19.6	21.7	18.9
	4)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	16.9	17.7	14.7
	5)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4.0	4.5	3.4
	6)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5.4	8.5	5.4
	7)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3.5	4.0	3.2
	8)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	14.9	13.2
	9) 최저임금 인상 후 내가 원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강제로 요구받았다	-	3.8	2.0
	10)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주일을 개근하였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	-	7.1	5.8
	11) 고용주,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	2.2
	12) 일을 하다 실수로 손실이 발생해서 내 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다	-	-	4.3
	13) 기타	0.6	2.3	1.6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임금체불은 ‘1) 임금 또는 급여(시급, 일당, 수당)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4)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짜보다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초과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했다’ 3개 항목에 대하여 한 개라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출함.

3) 전체 부당행위 경험은 ‘16년은 전체 8개 항목, ‘18년은 전체 11개 항목, ‘20년은 전체 13개 항목에 대하여 한 개라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출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III-127 주요 부당행위 및 처우 유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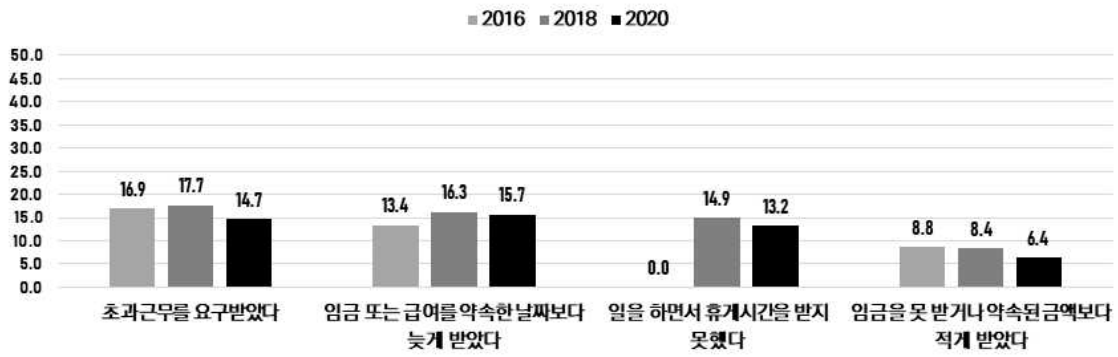
구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전체		2016	16.9	13.4	-	8.8	
		2018	17.7	16.3	14.9	8.4	
		2020	14.7	15.7	13.2	6.4	
성별	남자	2016	11.3	11.0	-	6.1	
		2018	15.3	14.5	11.0	7.6	
		2020	12.5	13.4	12.6	7.5	
	여자	2016	22.4	15.8	-	11.5	
		2018	20.2	18.0	18.8	9.2	
		2020	16.9	17.9	13.8	5.4	
	주요 업·직종	음식점·식당· 레스토랑	2016	21.6	15.5	-	10.2
			2018	18.9	15.3	17.7	7.0
2020			19.3	16.5	17.5	4.7	
뷔페·웨딩홀· 연회장		2016	11.3	16.2	-	8.6	
		2018	17.6	19.1	19.7	12.8	
		2020	1.8	11.1	4.5	12.8	
전단지 배포		2016	2.3	4.7	-	5.8	
		2018	3.0	9.1	6.0	9.5	
		2020	0.0	9.9	5.7	7.2	
패스트푸드점		2016	32.9	21.1	-	14.5	
		2018	25.2	18	8.0	9.8	
		2020	19.3	31.2	22.2	3.8	
편의점		2016	26.1	21.7	-	13.0	
		2018	30.7	25.8	16.8	14.4	
		2020	26.8	8.5	12.9	5.8	
배달/운전		2020	13.3	16.3	12.2	7.8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안함/잘 모름 /일부포함	2016	17.1	14.0	-	9.2	
		2018	17.2	16.9	16.5	9.3	
		2020	15.6	17.4	14.0	7.5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2016	16.8	11.9	-	7.7	
		2018	19.5	14.7	10.5	6.1	
		2020	12.1	11.1	10.8	2.9	

\* 주: 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16년부터 '20년 조사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상위 4개의 주요 부당행위 항목에 대하여 분석함.

3) 주요 업직종은 각 연도 상위 5개 업직종을 대상으로 함. 단,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16년 및 '18년에는 상위 5개 업직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년에 포함됨.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8】 주요 부당행위 및 처우 유경험률

## ②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

-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17.6%로,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에 그침.
- '18년과 비교해보면,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0.9%에서 74.1로 3.2%p 증가하였음.
- 적극적 대처 유형 중에서는 ‘나 혼자 묻고 따졌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남.

▶ 관련 정책: 5-3-1.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지원  
5-3-2. 청소년 권익 침해 등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음.
  - ‘참고 계속 일했다’(74.1%)가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17.6%로 그 뒤를 이었음.
  - 적극적인 대처로는 ‘나 혼자 묻고 따졌다’(9.6%), ‘친구나 아는 사람과 함께 가서 항의하였다’(3.5%), ‘가족과 함께 가서 항의하였다’(2.5%) 등으로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자청소년(22.6%)은 남자청소년(11.7%)에 비해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2배 정도 높았음.
- '16년 및 '18년과 비교해보면,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16) 65.8% → ('18) 70.9% → ('20) 7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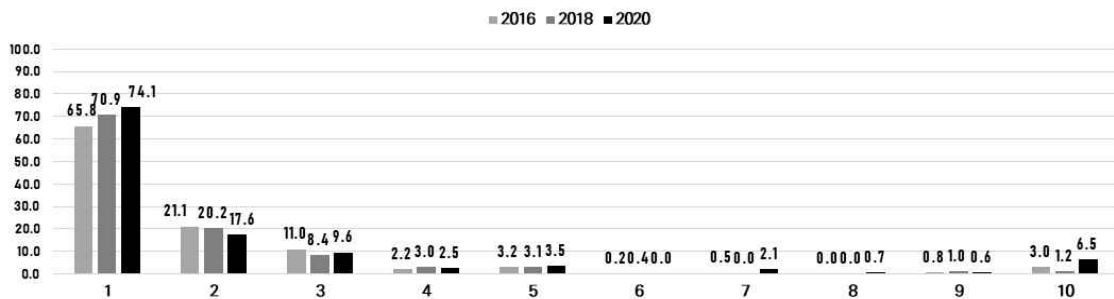
표 III-128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016	371	65.8	21.1	11	2.2	3.2	0.2	0.5	-	0.8	3.0	
	2018	340	70.9	20.2	8.4	3.0	3.1	0.4	0.0	0.0	1.0	1.2	
	2020	125	74.1	17.6	9.6	2.5	3.5	0.0	2.1	0.7	0.6	6.5	
성별	남자	2016	140	65.9	22.3	11.4	0.4	4.6	0.2	0.8	-	0.1	3.0
		2018	145	67.3	22.0	12.2	5.2	4.1	0.9	0.0	0.0	2.3	1.3
		2020	58	78.7	11.7	8.0	1.4	6.2	0.0	2.6	1.5	0.0	5.0
	여자	2016	230	65.8	20.4	10.8	3.3	2.3	0.2	0.3	-	1.2	3.0
		2018	195	73.6	18.9	5.6	1.3	2.4	0.0	0.0	0.0	0.1	1.1
		2020	67	70.1	22.6	11.0	3.4	1.1	0.0	1.6	0.0	1.1	7.7
		학교급	중학교	2016	31	55.7	38.3	9.8	3.4	0.0	0.0	1.9	-
2018	11			44.6	48.1	3.4	0.0	0.0	0.0	0.0	0.0	0.0	3.9
2020	8			77.2	22.8	9.0	17.8	9.0	0.0	9.0	0.0	9.0	9.0
고등학교	2016		339	66.8	19.6	11.1	2.1	3.5	0.2	0.4	-	0.9	2.9
	2018		329	71.8	19.3	8.6	3.1	3.2	0.4	0.0	0.0	1.1	1.1
	2020		117	73.9	17.2	9.7	1.4	3.1	0.0	1.6	0.7	0.0	6.3
└ 일반계고	2016		204	66.9	17.2	11.7	2.3	3.7	0.0	0.6	-	1.1	3.1
	2018		190	71.7	20.9	8.1	4.4	1.6	0.7	0.0	0.0	1.3	0.7
	2020		70	69.9	20.7	13.4	1.1	3.8	0.0	0.0	1.2	0.0	7.4
└ 직업계고	2016		135	66.7	23.0	10.2	1.9	3.1	0.5	0.0	-	0.4	2.5
	2018		139	71.8	17.1	9.2	1.3	5.5	0.0	0.0	0.0	0.7	1.7
	2020		47	79.9	11.9	4.0	1.7	2.1	0.0	4.0	0.0	0.0	4.5

\* 주: 1)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 2) 1. 참고 계속 일했다/ 2.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3. 나 혼자 묻고 따졌다/ 4. 가족과 함께 가서 항의하였다/  
5. 친구나 아는 사람과 함께 가서 항의하였다/ 6. 선생님에게 알렸다/ 7.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노무 상담을 통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았다/ 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9. 고용노동부/고용지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였다('16년 조사문항은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임)/ 10. 기타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99】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 ③ 항의나 신고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정도

-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항의나 신고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86.8%로 '18년 대비 증가함.

▶ 관련 정책: 5-3-1.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지원  
5-3-2. 청소년 권익 침해 등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부당행위 및 처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항의나 신고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함.
- 항의나 신고가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44.7%,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19.3%, '도움이 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응답은 22.8%로 파악되었음.
  - 이들을 합산하여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을 산출한 결과, ('16) 70.2% → ('18) 81.0% → ('20) 86.8%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함.
- 반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2%로 나타나, '18년(19.0%) 대비 5.8%p 감소하였음.

표 III-129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문제해결이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일부 해결	도움이 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음
2016	69	35.3	22.1	12.8	29.9
2018	53	47.3	22.7	11.0	19.0
2020	19	44.7	19.3	22.8	13.2

\* 주: 1)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항의,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100】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문제해결이 도움이 된 정도

#### ④ 부당행위 및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 청소년들이 부당행위 및 처우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37.8%), ‘신고할 만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금방 해결되어서’(22.1%)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관련 정책: 5-3-1.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지원  
5-3-2. 청소년 권익 침해 등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부당행위 및 처우를 당했을 때, 항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고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는 ‘신고할 만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금방 해결되어서’(22.1%), ‘고용주가 평소에 잘해줬기 때문에’(13.9%),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9.5%)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 ‘신고할 만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금방 해결되어서’를 선택한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15.6%)보다 여자청소년(27.5%)이 11.9%p 높게 나타남.
- 근로권익교육 경험을 받은 경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교육을 받은 경우 ‘귀찮고 번거로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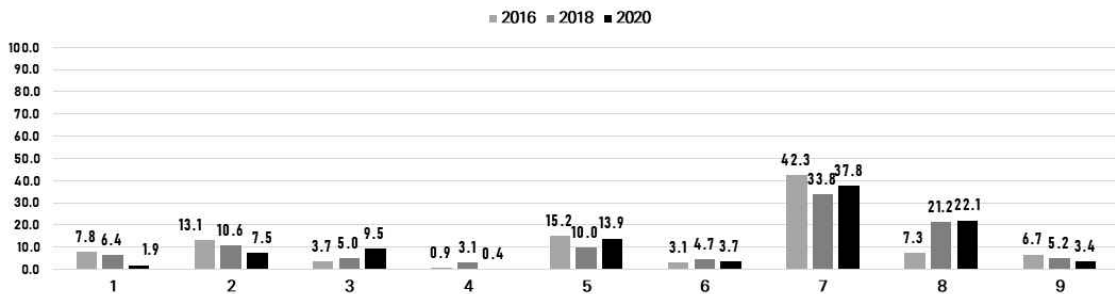
표 Ⅲ-130 부당행위 및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전체		2016	303	7.8	13.1	3.7	0.9	15.2	3.1	42.3	7.3	6.7
		2018	292	6.4	10.6	5.0	3.1	10.0	4.7	33.8	21.2	5.2
		2020	104	1.9	7.5	9.5	0.4	13.9	3.7	37.8	22.1	3.4
성별	남자	2016	118	11.4	9.1	3.9	1.2	18.1	1.6	43.4	3.8	7.5
		2018	119	4.9	11.3	5.6	0.8	8.0	2.1	41.1	19.3	7.0
		2020	47	2.6	8.7	12.1	0.8	14.4	6.6	38.4	15.6	0.8
	여자	2016	185	5.4	15.8	3.6	0.6	13.3	4.1	41.6	9.5	6.1
		2018	173	7.5	10.1	4.5	4.7	11.4	6.5	28.7	22.6	4.1
		2020	56	1.3	6.4	7.3	0.0	13.5	1.2	37.3	27.5	5.5
학교급	중학교	2016	28	7.1	7.4	11.3	0.0	8.1	5.7	44.9	15.4	0.0
		2018	9	0.0	28.5	9.8	0.0	0.0	0.0	20.4	26.9	14.3
		2020	5	0.0	0.0	0.0	0.0	41.2	23.7	0.0	35.0	0.0
	고등학교	2016	275	7.8	13.7	2.9	1.0	15.9	2.9	42.1	6.4	7.4
		2018	283	6.6	10.1	4.8	3.2	10.3	4.9	34.2	21.1	5.0
		2020	98	2.0	7.9	10.0	0.4	12.5	2.6	39.8	21.4	3.5
	Ⅱ 일반계고	2016	161	8.3	13.3	2.6	1.6	17.1	2.8	39.0	5.3	10.0
		2018	165	8.6	10.5	4.9	2.9	9.1	5.8	31.1	21.4	5.6
		2020	58	2.6	10.6	8.2	0.0	14	1.4	41.8	20.2	1.2
	Ⅱ 직업계고	2016	114	7.2	14.3	3.3	0.0	14.2	3.0	46.4	8.0	3.7
		2018	118	3.9	9.5	4.6	3.6	11.9	3.5	38.4	20.6	4.0
		2020	40	1.0	3.8	12.6	1.0	10.3	4.4	36.8	23.1	7.0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없음	2016	181	8.8	15.5	5.0	1.7	13.8	4.4	35.9	7.2	7.7
		2018	134	7.4	11.3	3.7	1.5	10.6	6.4	31.6	21.7	5.9
		2020	37	3.2	8.4	18.3	1.1	5.9	0.0	28.4	32.9	1.8
	있음	2016	122	5.7	9.8	1.6	0.0	17.2	1.6	51.6	7.4	4.9
		2018	158	5.6	10.1	6.1	4.4	9.5	3.3	35.6	20.9	4.7
		2020	65	0.0	7.1	4.5	0.0	18.9	5.8	44.1	16.3	3.3

\* 주: 1)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해 '참고 계속 일했다',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 2) 1.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2.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4. 보복이 두려워서/ 5. 고용주가 평소에 잘해줬기 때문에/ 6.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말하기 무서워서/ 7. 귀찮고 번거로워서/ 8. 신고할 만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금방 해결되어서/ 9. 기타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101] 부당행위 및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 5-11.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옮겨갈 수 있다’는 질문에 청소년의 29.9%가 동의함.
-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위험하거나 청소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다’는 데는 청소년의 13.7%가 동의함.

▶ 관련 정책: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또는 매니저)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나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청소년의 84.6%가 동의하였음(그렇다 46.9%+매우 그렇다 37.7%).
- ‘유명 연예인이 최저 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홍보하는 것이 알바생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66.6%(그렇다 47.0%+매우 그렇다 19.6%)로 나타남.
  - 시계열 비교 결과, 해당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은 ‘16) 63.0% → ‘18) 64.8% → ‘20) 66.6%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알바생의 권리에 대해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92.5%(그렇다 43.5%+매우 그렇다 49.0%)로 나타남.
  - 근로권익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비교 결과,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동의 비율(94.1%)이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의 동의 비율(90.9%)보다 3.2%p 높게 나타났음.
-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옮겨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청소년의 29.9%가 동의함(그렇다 20.0%+매우 그렇다 9.9%).
  - 시계열별로는 주어진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이 ‘18년 32.6%에서 ‘20년 29.9%로 다소 감소함.
  -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동의 비율(35.8%)이 여자청소년의 동의 비율(23.6%)보다 높게 나타남.
-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위험하거나 청소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은 13.7%(그렇다 9.1%+매우 그렇다 4.6%)로 나타남.
  -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동의 비율(19.8%)이 여자청소년(7.0%)보다 2.8배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동의 비율(16.6%)이 중학생(10.5%)보다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근로권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근로와 관련된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 올바른 노동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표 III-131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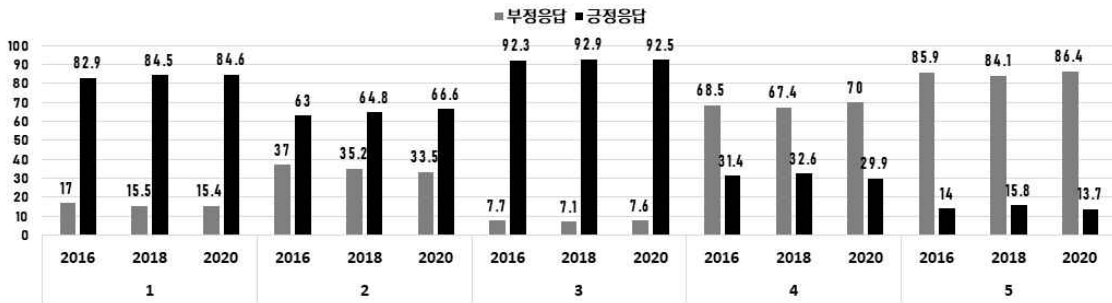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또는 매니저)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나의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체		2016	11,172	4.5	12.5	47.5	35.4
			2018	10,888	4.3	11.2	46.1	38.4
			2020	9,563	4.0	11.4	46.9	37.7
	성별	남자	2016	5,832	6.0	10.7	44.9	38.4
			2018	5,670	5.3	8.9	43.7	42.1
			2020	4,984	4.8	8.4	45.7	41.2
		여자	2016	5,340	2.9	14.5	50.3	32.2
			2018	5,219	3.1	13.8	48.6	34.4
			2020	4,580	3.1	14.7	48.2	34.0
	학교급	중학교	2016	5,250	5.6	10.8	44.9	38.7
			2018	4,931	5.3	9.8	43.8	41.2
			2020	4,586	4.7	9.9	47.7	37.7
		고등학교	2016	5,922	3.6	14.1	49.8	32.6
			2018	5,957	3.4	12.5	47.9	36.2
			2020	4,977	3.3	12.8	46.2	37.7
		└ 일반계고	2016	4,863	3.2	13.9	50.1	32.8
			2018	4,923	3.2	12.2	47.7	36.9
			2020	4,124	2.9	13.2	45.8	38.1
		└ 직업계고	2016	1,059	5.0	14.8	48.5	31.6
			2018	1,034	4.5	13.7	49.0	32.8
			2020	854	5.3	10.6	48.3	35.9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없음	2016	7,954	5.0	12.6	47.5	34.9
			2018	6,957	4.8	11.7	46.5	37.0
			2020	4,732	4.6	12.5	46.7	36.2
		있음	2016	3,209	3.3	12.4	47.5	36.8
			2018	3,924	3.3	10.5	45.3	40.9
			2020	4,788	3.2	10.4	47.0	39.3
2) 유명 연예인이 최저 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홍보하는 것이 알바생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전체		2016	11,168	10.5	26.5	45.3	17.7
			2018	10,883	9.6	25.6	45.3	19.5
			2020	9,553	9.5	24.0	47.0	19.6
	성별	남자	2016	5,831	11.8	22.1	45.2	20.9
			2018	5,671	10.5	20.9	45.4	23.3
			2020	4,981	10.0	19.2	48.3	22.4
		여자	2016	5,337	9.2	31.3	45.5	14.1
			2018	5,212	8.7	30.8	45.1	15.4
			2020	4,571	8.9	29.1	45.5	16.5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알바생의 권리에 대해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학교급	중학교	2016	5,248	11.1	26.0	45.0	18.0	
			2018	4,925	10.0	26.4	44.6	19.0	
			2020	4,577	9.9	24.9	48.0	17.2	
		고등학교	2016	5,920	10.1	27.0	45.6	17.3	
			2018	5,958	9.3	25.0	45.8	20.0	
			2020	4,976	9.1	23.1	46.1	21.7	
		└ 일반계고	2016	4,862	9.7	26.7	46.1	17.6	
			2018	4,924	9.2	24.7	45.8	20.3	
			2020	4,122	9.0	23.5	45.3	22.1	
		└ 직업계고	2016	1,058	12.0	28.4	43.5	16.1	
			2018	1,034	9.6	26.5	45.5	18.4	
			2020	854	9.6	21.0	49.6	19.8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없음	2016	7,952	11.0	27.3	44.9	16.8	
			2018	6,954	10.4	26.8	44.5	18.3	
			2020	4,725	10.3	25.2	46.9	17.6	
		있음	2016	3,208	9.4	24.5	46.3	19.9	
			2018	3,922	8.2	23.5	46.6	21.7	
			2020	4,784	8.7	22.8	46.9	21.6	
		전체	2016	11,164	3.1	4.6	46.3	46.0	
			2018	10,874	2.8	4.3	45.2	47.7	
			2020	9,540	2.7	4.9	43.5	49.0	
		성별	남자	2016	5,830	4.5	5.0	46.8	43.8
				2018	5,659	3.8	4.9	45.5	45.8
				2020	4,968	3.6	4.8	45.2	46.4
			여자	2016	5,334	1.6	4.2	45.8	48.4
				2018	5,215	1.7	3.6	44.8	49.9
				2020	4,572	1.6	5.0	41.6	51.7
학교급		중학교	2016	5,245	4.2	4.5	44.7	46.7	
			2018	4,922	3.9	4.9	43.9	47.4	
			2020	4,572	3.3	4.9	45.0	46.7	
		고등학교	2016	5,919	2.2	4.7	47.8	45.3	
			2018	5,952	1.9	3.8	46.3	48.0	
			2020	4,968	2.1	4.8	42.1	51.0	
		└ 일반계고	2016	4,862	1.9	4.5	47.1	46.6	
			2018	4,918	1.8	3.5	45.0	49.8	
			2020	4,117	1.7	4.4	41.2	52.7	
		└ 직업계고	2016	1,057	3.5	6.1	51.0	39.3	
			2018	1,034	2.5	5.3	52.3	39.9	
			2020	851	3.7	7.0	46.2	43.1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없음	2016	7,950	3.5	4.8	46.6	45.1	
			2018	6,950	3.3	4.6	45.7	46.4	
			2020	4,720	3.3	5.8	44.4	46.5	
		있음	2016	3,206	2.2	4.1	45.6	48.1	
			2018	3,917	1.9	3.7	44.3	50.1	
			2020	4,777	2.0	4.0	42.5	51.6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옮겨갈 수 있다	전체		2016	11,162	17.3	51.2	21.9	9.5
			2018	10,880	19.3	48.1	22.0	10.6
			2020	9,554	22.5	47.5	20.0	9.9
	성별	남자	2016	5,826	18.8	44.3	24.3	12.7
			2018	5,663	19.9	42.3	23.9	13.9
			2020	4,979	22.0	42.1	22.2	13.6
		여자	2016	5,336	15.8	58.9	19.4	6.0
			2018	5,216	18.7	54.5	19.9	6.9
			2020	4,575	23.0	53.4	17.7	5.9
	학교급	중학교	2016	5,243	19.7	48.7	21.5	10.0
			2018	4,925	21.2	46.3	21.7	10.8
			2020	4,579	23.4	48.1	19.3	9.2
		고등학교	2016	5,919	15.2	53.4	22.3	9.0
			2018	5,954	17.7	49.6	22.3	10.4
			2020	4,975	21.7	47.0	20.8	10.5
		Ⅱ 일반계고	2016	4,860	14.9	54.6	21.6	8.9
			2018	4,920	18.1	50.7	21.1	10.0
			2020	4,122	21.4	47.5	20.6	10.5
		Ⅱ 직업계고	2016	1,059	16.8	48.1	25.3	9.8
			2018	1,034	15.8	44.4	27.8	12.0
			2020	854	23.2	44.5	21.7	10.7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없음	2016	7,947	17.7	51.1	21.9	9.3
			2018	6,953	19.5	47.9	22.4	10.2
			2020	4,730	22.6	47.4	20.3	9.7
		있음	2016	3,207	16.6	51.4	22.0	10.0
			2018	3,919	18.9	48.6	21.3	11.2
			2020	4,782	22.5	47.8	19.6	10.1
	아르바이트 이유 <sup>2)</sup>	가정형편 때문	2016	182	11.0	42.9	29.7	16.5
			2018	129	10.7	44.1	25.9	19.4
			2020	17	52.5	11.9	23.9	11.8
		기타	2016	1,065	15.0	46.9	27.0	11.0
			2018	850	13.9	45.1	26.9	14.1
			2020	389	18.3	43.9	22.9	14.9
5)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위험하거나 청소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다	전체		2016	11,165	58.6	27.3	9.9	4.1
			2018	10,887	57.1	27.0	10.5	5.3
			2020	9,561	62.7	23.7	9.1	4.6
	성별	남자	2016	5,829	47.9	31.7	14.2	6.3
			2018	5,669	46.4	30.7	14.8	8.2
			2020	4,981	52.2	28.0	12.6	7.2
		여자	2016	5,336	70.4	22.5	5.3	1.8
			2018	5,219	68.9	23.1	5.8	2.2
			2020	4,580	74.0	19.0	5.2	1.8
	학교급	중학교	2016	5,249	65.1	22.4	8.6	3.8
			2018	4,929	62.4	24.4	8.3	5.0
			2020	4,585	69.1	20.4	7.0	3.5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등학교	2016	5,917	52.9	31.6	11.1	4.4
			2018	5,958	52.8	29.2	12.3	5.6
			2020	4,976	56.7	26.7	11.0	5.6
		└ 일반계고	2016	4,859	53.6	31.7	10.5	4.3
			2018	4,924	54.0	29.1	11.5	5.4
			2020	4,123	57.4	26.8	10.5	5.3
		└ 직업계고	2016	1,058	49.9	31.5	13.8	4.9
			2018	1,034	47.2	30.2	16.2	6.4
			2020	853	53.4	26.0	13.2	7.3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없음	2016	7,949	59.4	26.9	9.7	4.1
			2018	6,956	58.0	26.5	10.2	5.2
			2020	4,733	62.9	23.1	9.4	4.6
		있음	2016	3,207	56.9	28.2	10.5	4.4
			2018	3,924	55.7	27.9	10.9	5.4
			2020	4,786	62.5	24.2	8.6	4.6
	아르바이트 이유 <sup>2)</sup>	가정형편 때문	2016	182	41.2	27.5	22.5	8.8
			2018	130	38.4	32.8	19.2	9.6
			2020	17	41.6	37.1	9.5	11.8
		기타	2016	1,066	47.4	32.6	14.3	5.8
			2018	850	43.0	34.3	14.4	8.3
			2020	388	44.6	29.2	16.5	9.7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함.



【그림 III-102】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 6. 생활 일반

### 6-1. 사회적 관계

- 청소년들은 가족(보호자)과의 관계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가족과의 관계는 학년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학교급이 올라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주변의 유의미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보았음.

- 전반적으로 가족(86.0점)과의 관계가 친구(80.0점)나 선생님(80.0점)과의 관계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학년이 높아지면서 성인과의 관계(가족,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는 낮아지는 반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같이 증가하였음.
-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남학생(78.1점)보다 여학생(82.1점)의 점수가 더 높아 여학생이 친구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족 및 선생님과 관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표 III-132 사회적 관계

(단위: 명, 점)

		가족(보호자)			친구			선생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315	86.0	(15.6)	14,296	80.0	(16.2)	14,296	80.0	(16.1)
성별	남자	7,372	86.4	(15.3)	7,352	78.1	(17.0)	7,359	80.4	(16.6)
	여자	6,943	85.5	(15.8)	6,944	82.1	(15.0)	6,937	79.6	(15.6)
학교급	초등학교	4,702	88.7	(14.3)	4,686	77.1	(17.3)	4,687	82.0	(15.3)
	중학교	4,616	85.6	(15.7)	4,614	80.7	(15.7)	4,613	79.5	(15.9)
	고등학교	4,997	83.8	(16.1)	4,996	82.2	(15.3)	4,996	78.5	(16.9)
학년	초4	1,506	89.3	(14.1)	1,492	75.5	(18.1)	1,490	82.2	(15.3)
	초5	1,631	89.3	(14.1)	1,631	78.0	(16.9)	1,636	83.0	(15.4)
	초6	1,566	87.6	(14.6)	1,563	77.6	(16.7)	1,561	80.9	(15.3)
	중1	1,536	87.2	(15.2)	1,535	81.1	(15.3)	1,533	81.5	(14.5)
	중2	1,593	85.2	(16.2)	1,593	80.4	(16.1)	1,594	79.2	(16.7)
	중3	1,486	84.3	(15.6)	1,485	80.8	(15.6)	1,485	77.8	(16.1)
	고1	1,484	84.3	(15.8)	1,483	82.5	(15.0)	1,484	79.8	(16.1)
	고2	1,671	83.7	(16.0)	1,672	83.0	(14.6)	1,671	78.5	(17.0)
	고3	1,843	83.5	(16.4)	1,842	81.3	(16.0)	1,841	77.5	(17.4)

\* 주: 1) 가족(보호자),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6-2. 자율적 통제능력

-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율적 통제능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74.8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율적 통제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증가함.

-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율적 통제능력(대응역량)은 74.8점이었음.
  - 남자는 74.4점, 여자는 75.1점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점수가 약간 높았음.
  -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은 71.1점, 중학생 75.4점, 고등학생 77.6점으로 청소년들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자율적 통제능력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

표 III-133 자율적 통제능력 (단위: 명, 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163	74.8	(14.6)
성별	남자	7,301	74.4	(15.3)
	여자	6,863	75.1	(13.9)
학교급	초등학교	4,574	71.1	(15.2)
	중학교	4,598	75.4	(14.0)
	고등학교	4,991	77.6	(13.9)
학년	초4	1,438	67.5	(16.9)
	초5	1,583	71.9	(14.6)
	초6	1,553	73.5	(13.4)
	중1	1,528	75.0	(13.9)
	중2	1,586	75.1	(14.4)
	중3	1,484	76.1	(13.6)
	고1	1,483	77.7	(13.9)
	고2	1,670	77.6	(13.6)
	고3	1,838	77.6	(14.2)

\* 주: 1) 자율적 통제능력을 측정하는 6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6-3. 자율적 통제능력과 청소년들 자기 보호 노력

- 청소년들이 유해매체 및 유해약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자율성은 노력하지 않는 집단(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의 자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알린 적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자율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폭력피해를 알린 경험률은 높으나 성폭력 피해는 자율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알린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들의 자율적 통제능력과 성인용 매체에서의 자기 보호 능력을 살펴보면, 성인용 영상물과 간행물을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자율성이 3점으로, 노력하지 않는 집단(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의 자율성 점수 2.9점보다 다소 높았음.

표 III-134 자율적 통제능력과 성인용 매체 자기 보호

(단위: 점(표준편차))

		사례수	성인용 영상물/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스스로 노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율성	영상물	14,012	2.9(0.7)	2.9(0.5)	3.0(0.5)	3.0(0.6)
	간행물	13,989	2.9(0.7)	2.9(0.5)	3.0(0.5)	3.0(0.6)

○ 청소년들의 자율적 통제능력 수준에 따라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율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폭력피해를 알린 경험(62.8%)이 자율성이 낮은 청소년(61.7%)들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청소년(64%)이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가 자율성이 낮은 청소년(66%)보다 근소하게 낮았음.

표 III-135 자율적 통제능력과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알림 여부

(단위: %)

		사례수	자율성	
			낮음	높음
폭력피해	알린 적 있다	449	61.7	62.8
	알린 적 없다	275	38.3	37.2
성폭력피해	알린 적 있다	147	66	64
	알린 적 없다	82	34	36

- 청소년들의 자율적 통제능력 수준에 따라 유해약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차이를 확인 결과, 집단 간 다소 차이를 보임. 술이나 담배, 전자담배를 하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자율성(술: 3.1, 담배: 3.1, 전자담배: 3.1)이 가장 높았음. 반면 술, 담배, 전자담배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한 청소년들의 자율성(술: 2.9, 담배: 2.9, 전자담배: 2.9)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I-136 자율적 통제능력과 유해약물 관련 자기보호 능력 (단위: 점(표준편차))

		사례수	술/담배/전자담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율성	술	9,549	2.9(0.8)	2.9(0.6)	3.0(0.5)	3.1(0.6)
	담배	9,541	2.9(0.8)	2.9(0.6)	3.0(0.5)	3.1(0.6)
	전자담배	9,536	2.9(0.8)	2.9(0.6)	2.9(0.5)	3.1(0.5)





## 제 IV 장

---

# 정책 제언

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 2022년 조사를 위한 제언



## 제 IV 장 정책 제언

### 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sup>2)</sup>

#### 1-1. 매체 영역

〈제언1〉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및 콘텐츠 노출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정책제안 내용
1-1-2. 매체물 유통 사업자 자율조치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1-2-1.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2016년 이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 상물 및 간행물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성인물 유경험 청소년 중 나이 확인 을 한 경우는 영상물 이용의 주요 경 로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36.2%, 간 행물 이용의 주요 경로인 웹툰은 44.6%에 불과함.  • 초등학생 중 성인용 영상물이나 간행 물에 관심이 없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은 영상물 7.3%, 간행물 6.1%임.	① 매체 이용 및 성교육 간 융합 교육 실시  ② 성인용 매체 및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기관의 자율규제 협업체 구성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③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 절차의 강화

#### ■ 제언 배경

- 초등학생들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년 동안 초등생의 성인용 영상물 경험률: ('16) 18.6% → ('18) 19.6% → ('20) 33.8%
  - 최근 1년 동안 초등생의 성인용 간행물 경험률: ('16) 11.8% → ('18) 13.2% → ('20) 27.7%
  -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음(4학년 중 영상물 이용률: 43.4%, 간행물 이용률: 35.1%).

2) 정책제언의 틀과 구성은 2018년 제2차 통합조사 보고서(김지경 외, 2018)를 준용함.

- 이는 초등학생들의 발달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성적 호기심이 증가하는 개인적 측면과 온라인을 통한 성인물에 대한 접근경로가 다양하고 편리해진 환경적 측면이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에 개인적 측면을 살펴보면 청소년들 스스로가 유해매체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매체 이용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에 맞는 매체 이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한 성인용 매체 및 콘텐츠의 변화 및 분화 속도는 매우 빨라 정부 규제기관에 의존하는 공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및 사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전자신문, 2018.9.9).
  - ※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민간 사업자 및 기관이 실제 규제업무를 수행하되 정부가 그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민간의 규제 수행 여부를 관리·감독함.
- 특히 간행물의 유통경로가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심의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현황(표 IV-1)을 보면 간행물과 영상물, 게임물의 심의형태 및 조치사항에 차이가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심의형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뿐 아니라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IV-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구분	담당매체	심의형태	심의내용	조치사항
청소년 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포함)	사후심의	청소년유해성	청소년 유해매체물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 파일 포함)	사전 등급분류	청소년유해성 제한상영제	18세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등급분류
			연소자 유해성	18세 청소년관람불가 연령 등 등급분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사후심의	청소년유해성	청소년유해매체물
			불온성	거부, 정지, 제한명령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청소년유해성	청소년유해매체물
			공공성, 공정성	사과명령, 프로그램 정정·중지 등
간행물 윤리위원회	간행물	사후심의	청소년유해성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성	수거 폐기명령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청소년유해성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2&ccciNo=1&cnpClsNo=1>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 ■ 제안 내용

### 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및 실효성 제고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은 통신사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김지경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는 차단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관련 통신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 단계에서 프로그램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는 통신사가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를 보완하여 통신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집에서 사용하는 PC나 태블릿기기에 대한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호자(학부모)의 협조가 중요한 바, 학교 전달체계를 통한 학부모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인식을 제고해야 함.
  - 교육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교육부 보도자료, 2020.10.5.)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빠르게 전환될 온라인 학습에 대비하여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면서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에 노출되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논의 과정에 유해매체 접촉 차단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협력이 요구됨.
-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청소년 이용 기기에 대한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제고와 함께 실제 유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잘 이루어져야 함.
  -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개발자 및 통신사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해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기술 지원 병행이 요구됨.

② 성인용 매체 및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기관의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정책 제언 유형	기존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거 법령	유		

- 근거법령
  - 자율 규제: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7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동법 시행령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자율 규제 단체 지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1조(자율규제단체 등의 지원)
- 현재 자율규제 기구나 협의체가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시시각각 쏟아지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개별심의가 불가능할 뿐더러 심의기구나 협의체마다 심의 기준이나 방식이 각기 다름.

- 자율규제기구나 협의체 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 및 방식 설정에 있어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급변하는 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다각적인 교육지원과 홍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성인물 매체 및 콘텐츠 심의에 대한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자율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③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 절차의 강화

정책 제안 유형	신규정책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응답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에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기기 판매 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성인 인증 후 차단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인용 인쇄 간행물의 경우는 판매 시 포장 등을 통해 열람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이 직접 구매하거나 공식적인 대여처에서 대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나이확인이 불가할 수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이용경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언2〉

청소년의 매체 이용 증가에 따른 유해매체로부터의 보호 역량 강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1-1. 청소년 유해매체물 신속대응 강화 기반 마련  1-2.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활용 능력 함양	• 청소년의 74.9%가 스마트폰을 이용 하고 있으며, 집 PC(데스크탑, 노트 북) 이용 비율이 증가함.  •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스마트폰 31.4%, 집 PC(데스크탑, 노트북) 20.6% 수준에 그침.  • '16년 이후 초등학교생의 성인용 영상 물 및 간행물 이용률 지속적으로 증 가함.  •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경험 률은 '16년 60.8% 대비 '20년 51.2%로 오히려 감소함.	① 체계적인 매체 이용 교육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 매체 이용 교육 및 성교육 간 융합 교육 실시

■ 제안 배경

○ 실태조사 결과,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접촉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 초등학교생들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년 동안 초등생의 성인용 영상물 경험률: ('16) 18.6% → ('18) 19.6% → ('20) 33.8%
- 최근 1년 동안 초등생의 성인용 간행물 경험률: ('16) 11.8% → ('18) 13.2% → ('20) 27.7%

○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74.9%)이며, 집 PC(데스크탑, 노트북) 이용률도 62.9%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집 PC(데스크탑, 노트북) 이용률은 '18년 56.4%에서 '20년 62.9%로 증가함.
- 집 태블릿PC, 스마트패드 이용률 역시 '18년 31.0%에서 '20년 43.1%로 증가함.

○ 그에 비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스마트폰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1.4%에 불과함.
- 집 PC(데스크탑, 노트북)와 태블릿PC/스마트패드의 설치율은 각각 20.6% 및 24.0%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 PC(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패드) 설치율도 33.8% 수준임.

○ 매체 이용 교육 경험률은 온라인 도박 예방 교육 경험률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경험률은 ('16) 60.8% → ('18) 51.3% → ('20) 51.2%로 오히려 감소함.
-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경험률은 ('16) 34.5% → ('18) 36.5% → ('20) 48.4%로 증가함.
-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률은 ('16) 72.0% → ('18) 71.0% → ('20) 73.5%로 큰 변동이 없음.

## ■ 제언 내용

### ① 체계적인 매체 이용 교육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법령	유		

○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확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확산 등으로 향후 청소년의 통신기기 및 매체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대단히 빠르게 변모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서 규제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한 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매체 이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주로 과의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으로 분절되어 이루어지는 매체 이용 교육 전반을 점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매체 이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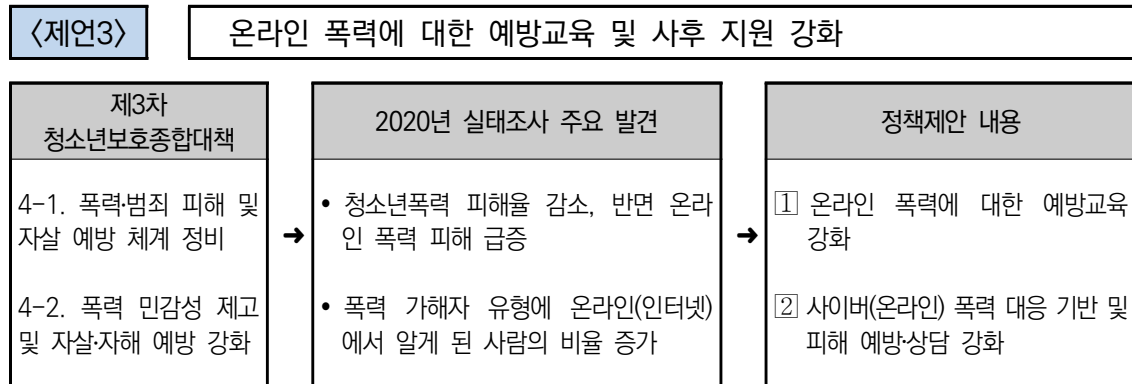
- 매체 이용 교육이 학기 당 1회, 연간 1-2회 등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별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매체 이용에 관한 광범한 내용을 망라하여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이 학교급과 학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단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의 범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능력, 유해매체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매체 이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② 매체 이용 교육 및 성교육 간 융합 교육 실시

정책 제언 유형	기존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유		

-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초등학생들의 발달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에 따라 성적 호기심이 증가하는 개인적 특성과 온라인을 통한 성인물에 대한 접근경로가 다양하고 편리해진 환경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스스로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매체 이용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에 맞는 매체 이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증가에 대응하고 발달특성에 맞는 매체 이용 교육의 강화를 위해, 매체 이용 교육과 성교육 간 융합 교육 실시를 제언함. 현재 매체 이용 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의8(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으며, 성교육은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음.
  -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교육청 등 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함.
  -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보급에 앞서서는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이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지 교사 대상 연수 및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파악한 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 융합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아리 지원 등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의 청소년 자치 활동을 활용하여 교육 이후의 연계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2. 행위 영역



### ■ 제안 배경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2018년 대비 감소하였고, 학교 내에서의 폭력 피해는 감소하고 있음.

-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율: ('16) 75.7% → ('18) 71.3% → ('20) 45.9%
-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율: ('16) 63.6% → ('18) 62.8% → ('20) 32.5%

○ 반면, 폭력 피해자 중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임.

-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 ('16) 7.7% → ('18) 10.7% → ('20) 26.7%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16) 13.8% → ('18) 17.1% → ('20) 44.7%

○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율이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남자청소년 폭력 피해율(온라인): ('16) 6.0% → ('18) 4.8% → ('20) 24.9%
- 남자청소년 성폭력 피해율(온라인): ('16) 2.9% → ('18) 8.3% → ('20) 19.8%

○ 여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율이 2018년 대비 증가하였음.

- 여자청소년 폭력 피해율(온라인): ('16) 10.4% → ('18) 18.5% → ('20) 29.1%
- 여자청소년 성폭력 피해율(온라인): ('16) 25.2% → ('18) 24.2% → ('20) 58.4%

## ■ 제안 내용

### ① 온라인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 폭력예방교육) 1호에 근거하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교육부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산(‘19)4,506개교→(‘20) 모든 초·중·고)하고, 민관협력 캠페인 등을 통해 전 사회적 사이버 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1.15.).
- 또한 학생의 인터넷 윤리 함양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1.15.).

○ 그러나, 교육부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1.15.)」에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폭력 및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COVID-19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시행됨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률 및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현실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폭력 피해 유형 및 피해 공간, 폭력 가해자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진 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폭력 예방교육의 도입이 요구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폭력 예방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② 온라인 폭력 대응 기반 및 피해 예방·상담 강화

정책 제안 유형	신규정책 및 기존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유		

- 청소년들의 온라인 환경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물리적 공간에서의 폭력 양상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임.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가 아닌, ‘사이버 따돌림’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이에 온라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법적 용어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폭력 피해 공간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에서 ‘온라인(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도록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온라인(인터넷)’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청소년들이 온라인 폭력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기반을 강화해야 함.

〈제언4〉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4-3-1. 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4-3-2. 폭력 피해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 알리지 않는 비율은 '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0명 중 3~4명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음. •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임. 이어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①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부분에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 제언 배경

-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못하는 청소년이 35.0%에 달함(청소년폭력 37.6%, 성폭력 34.7%).
  -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않음: ('16) 53.5% → ('18) 51.7% → ('20) 37.6%
  -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않음: ('16) 47.8% → ('18) 50.6% → ('20) 34.7%
-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기관)에게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임. 이러한 이유 외에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알리지 못한다고 응답률이 '16년 이후 증가함.
  - 청소년폭력: ('16) 7.7% → ('18) 8.0% → ('20) 9.9%
  - 성폭력: ('16) 5.5% → ('18) 6.4% → ('20) 13.3%
- 특히 청소년폭력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성폭력은 남자청소년들에게서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폭력: ('20) 남자청소년 7.1%, 여자청소년 15.6%
  - 성폭력: ('20) 남자청소년 28.8%, 여자청소년 5.0%
-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비율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11.2%p 높게 나타남.

## ■ 제안 내용

### ①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보완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유		

-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리지 않는 주요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임. 청소년들이 주변환경이나 매체를 통해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조 2항에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하여 가해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를 명시하고 있음(2019년 8월 20일 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피해 청소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피해 학생 간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여학생에게서 특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피해를 알리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이에 성폭력 피해 시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도움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3. 약물 영역

<제언5>	유해약물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 개선 및 불법 대리구매 근절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 교육 확대·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약물(술, 담배, 전자담배) 경험률은 감소했으나 유경험자의 직접 구매 및 대리구매는 여전히 존재함.</li> <li>• 유해약물 구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li> </ul> →	① 유해약물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확인 절차 개선과 그에 대한 지원  ② 대리구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대리구매 근절

#### ■ 제안 배경

○ 술, 담배, 전자담배와 같은 유해약물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함.

- 생애 음주 경험률: ('16) 35% → ('18) 33.5% → ('20) 28.3%
- 생애 흡연 경험률: ('16) 11.5% → ('18) 9.6% → ('20) 8.7%
- 생애 흡연(전자 담배) 경험률: ('16) 8.0% → ('18) 5.9% → ('20) 5.6%

○ 최근 1개월간 유경험 청소년들의 술·담배 획득경로를 살펴보면 직접구매나 대리구매가 여전히 존재함.

-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 청소년 중 직접구매율 12%, 대리구매율 7.9%
-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 청소년 중 직접구매율 26.9%, 대리구매율 20.8%
- 최근 1개월간 흡연(전자 담배) 경험 청소년 중 직접구매율 13.4%, 대리구매율 12.8%
- 특히 담배의 직접 및 대리 구매율이 높은 이유는 일단 흡연 습관이 형성되면 금연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이에 흡연 예방 교육 및 흡연에 진입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이 중요함을 시사함.

## ■ 제안 내용

### ① 유해약물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확인 절차 개선과 그에 대한 지원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보완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경찰청,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유		

-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업소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경우는 17~32% 범위 내에 있었음.
  - 확인 절차에서도 신분증 제시 요구는 대개 절반 정도를 상회하며 나머지는 구두확인에 그침.
  -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우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계로 확인하는 경우는 적음.
- 유해약물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24년부터 슈퍼마켓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연합뉴스, 2020.11.21).
- 따라서 유해약물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
  -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방법 및 내용, 피해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 신분증 위·변조 등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한 청소년 적발 시 해당 청소년 및 친권자에 대한 특별 교육 이수 의무화
  - 신분증 위·변조 식별기 도입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지원 필요
  - 주류 및 담배의 판매를 위한 바코드 인식 시 성인인증물품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나이 및 본인 확인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
  -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판매처를 중심으로 유해약물 판매처의 단계적 제한
  -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온라인 구매(예: 배달앱 등)에서의 유해약물 판매 및 배달 제한

② 유해약물 대리구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대리구매 근절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유		

-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 청소년 중 대리구매를 통해 술·담배를 구입한 경우는 7~21%의 범위 내에 있었음.
- 이에 대리구매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청소년 및 대리구매를 해 주는 성인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제언6〉

음주 및 흡연의 진입 경로 차단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2-1-2.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2-2-1. 유해약물 예방교육 확대·강화 2-2-2. 유해약물 대국민 캠페인 강화 2-3-1.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 치료지원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41.3%) 또는 가족 외 성인(22.0%)의 권유,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생애 음주 경험률이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li> <li>• 청소년 유해약물 접촉의 일차적 보호환경인 가족과 주변의 성인이 음주 경험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권유·강요·방조하는 성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li> <li>② 유해약물 예방 및 금주·금연 교육의 강화</li> </ul>

■ 제안 배경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족의 권유·강요(41.3%)와 가족 이외 성인의 권유·강요(22%)에 따른 음주 경험이 적지 않았음.
  - 가족: (전체) 41.3%, (남자청소년) 42.6%, (고등학생) 42%
  - 가족 이외 성인: (전체) 22%, (남자청소년) 22.5%, (고등학생) 24.3%
-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관습의 영향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성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가족 안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및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흡연은 음주와 달리 성인보다는 친구나 선배 등 또래를 통해 담배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자 중 친구나 선배가 담배를 준 경우: 담배 57.4%, 전자담배 67.7%
- 청소년들이 담배를 습득하는 주된 경로는 친구나 선배로, 또래 간 흡연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일단 흡연 습관이 형성되면 금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흡연 예방 교육 및 흡연에 진입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이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높지 않음. 특히 음주 및 흡연 경험자에 대한 교육 효과는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을 한 경우보다 다소 낮음.
-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중 교육에 도움을 받은 정도를 보면 흡연 경험자 중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8.7%(전자담배 57.5%) 비경험자 중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5%(전자담배 49.6%)임.

## ■ 제안 내용

### 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권유·강요·방조하는 성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보완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	-------------------

- 주류판매업소에 청소년을 동반·동석하는 성인에게 청소년의 음주 권유·조장·방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 신설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7.20.)<sup>3)</sup>에 따르면 제28조 ④, 제6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file:///D:/Users/User/Downloads/2102285\_%EC%9D%98%EC%82%AC%EA%B5%AD%20%EC%9D%98%EC%95%88%EA%B3%BC\_%EC%9D%98%EC%95%88%EC%9B%90%EB%AC%B8.pdf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표 IV-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신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 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 유·유인·강요한 자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file:///D:/Users/User/Downloads/2102285\_ %EC%9D%98%EC%82%AC%EA%B5%AD%20%EC%9D%98%EC%95%88  
%EA%B3%BC\_ %EC%9D%98%EC%95%88%EC%9B%90%EB%AC%B8.pdf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 송언석 의원의 발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류판매업소에 청소년 동반·동석을 자제하는 대국민 홍보, 청소년에게 음주 권유·조장·방조 등의 행위를 한 성인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특별 교육 이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음주 미화·조장 방송 및 광고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중파 TV, 온라인 동영상 등에서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 신고 유도 방안의 다양화를 통한 신고율 제고가 필요함.

## ② 유해약물 예방 및 금주·금연 교육의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보완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	-------------------

-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기 음주 및 흡연 관련 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성이 낮고 특히 음주 및 흡연 경험자에 대한 교육 효과는 더 낮음. 따라서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없는 저연령에서부터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발달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강의식 집체교육에서 탈피, 참여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 이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주·금연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실제 금주·금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교육과 금주·금연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일선 학교, 보건소, 청소년 기관 등)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청소년에게 맞는 금주·금연 지원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함.

#### 1-4. 업소 영역

〈제언7〉 청소년 출입제한 및 출입·고용금지 업소 대상 단속 및 계도 강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3-1-1.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  3-2-1. 청소년 출입금지·제한업소의 청소년보호 활성화  5-1-2.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 청소년 출입제한 및 출입금지 업소의 이용률이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출입제한 업소 이용 시도 청소년 중 절반 정도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거나, 나이를 확인하였어도 출입 가능하였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시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규정 마련 필요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주 대상 계도 및 단속 강화

#### ■ 제안 배경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출입 시 나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멀티방/룸카페는 이용청소년의 49.3%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하였다'고 응답함.
  - 특히 멀티방/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의 51.4%, 고등학생의 75.6%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하였다'고 응답함.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조사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16) 5.8% → ('18) 3.8% → ('20) 2.4%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시 나이 미확인률: ('16) 8.4% → ('18) 12.7% → ('20) 17.4%

## ■ 제안 내용

### ① 청소년 룸카페 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경찰청,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근거 법령	유		

-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등 법적으로는 방이 있는 식당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방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청소년실’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함. 그러나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멀티방과 숙박업의 변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2015년 국정감사 시 신경림 의원이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향시설이나 침구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객실 내부가 보이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 룸카페를 규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행법 상 룸카페 관련 단속규정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성가족부 고시(제2013-52)」에 따라 시설형태(밀실·밀폐된 공간) 및 설비유형(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노래방 기기 등 설치), 영업형태(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에 해당하는 업소가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
-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룸카페 내에서 이성 청소년 간 혼숙 등 풍기문란 행위 장소 제공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호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접객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①, 제97조(벌칙), 별표17 제7호 다목)
-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97조(벌칙),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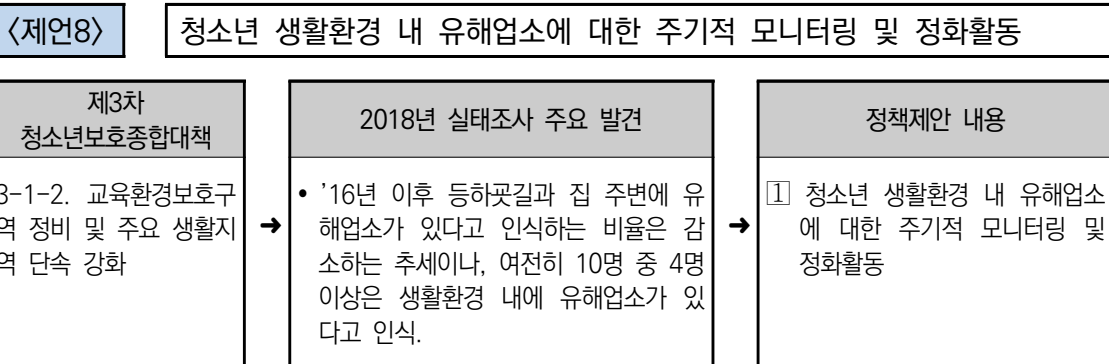
- 룸카페와 같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8.13.시행)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이에 고시에 부합한 형태(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실 형태 등)로 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룸카페 출입에 대한 청소년과 보호자, 업소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주 대상 계도 및 단속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근거 법령	유		

- 올해 조사에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한 결과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감소의 영향인지, 시기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업주의 자정노력 영향으로 인한 감소 추세인지 변별하기 어려움.
- 다만,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에게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위법 사항이며, 법 준수를 위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활동 및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 제안 배경

- 조사 대상 청소년의 42.6%는 등하굣길에, 41.8%는 집 주변에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업소 등 유해업소가 '있다'고 응답함.
- 청소년들이 등하굣길과 집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조사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의 생활환경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마주하고 있음.
  - 등하굣길: ('16) 49.8% → ('18) 48.1% → ('20) 42.6%
  - 집 주변: ('16) 48.4% → ('18) 44.7% → ('20) 41.8%

## ■ 제안 내용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경찰청, 여성가족부, 지자체
근거 법령	유		

- 본 조사의 결과에서 유해업소 이용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율이 '18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10명 중 4명 이상은 등하굣길과 집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학교 주변 유해환경은 '17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음.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환경인 등하굣길과 집 주변의 유해업소의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정화활동, 그리고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1-5. 근로보호 영역

〈제언9〉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5-1-2. 청소년 근로사 업장 지도 감독 강화  5-2-1. 청소년 및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 식 제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53.1%로 과반을 차지하고, 계약서 작성자 중에 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 비율은 54.6%에 불과  •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비 율 29.9%  • 연소근로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40시 간) 초과 비율 5.9%로 나타나, '18년 3.2% 대비 상승	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 로감독 강화  ② 업종별 집중 근로감독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방안 마련

### ■ 제안 배경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시급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53.1%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함.
- '20년 최저시급(8,59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응답 비율도 29.9%를 차지하며, 특히 중학생은 37.0%가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일부개정]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함. 따라서 연장근로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연소근로자가 주당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40시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비율이 5.9%로 '18년(3.2%)에 비해 2.7%p 증가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실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업종 중에서 편의점 업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18년 77.3%, '20년 70.1% 등으로 매우 높음.
- 최저시급 미만 지급 비율도 편의점 업종에서 64.1%로 평균(29.9%)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 제안 내용

### 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령	유		

-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시급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준수되도록 환경을 구축함.
-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근로자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임.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근로감독과 위반 시 처벌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2년부터 근로감독 내용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4일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미작성 1건 당 500만원의 벌금(과태료)을 부과했음. 그러나 법 시행 1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는 미준수 비율이 여전히 높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액수를 크게 상향하고, 즉시 부과하며, 유예 및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 업종별 집중 근로감독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방안 마련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령	유		

- 청소년 고용 업종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편의점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해 보임.
  - 편의점 업종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하는 비율이 37.4%로 평균(27.1%)보다 10%p 이상 높은 장기간 근로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0.1%로 대단히 높은 편임. 또한 최저 시급 미만의 임금 지급 비율은 64.1%로 평균(29.9%) 보다 2배 이상 높고, 주당 최대 근무시간 초과 비율 역시 7.8%로 평균(5.9%) 보다 높게 나타남. 실제로

편의점 업종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초과 근무를 요구받았다'는 부당처우 경험률은 26.8%로, 평균(14.7%) 대비 2배 수준에 달함.

- 「근로기준법」은 제11조(적용범위)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동법을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됨.
- 편의점은 업종 특성 상 대다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요구됨.
  - 또한 '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및 동법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3호, 2018.3.19.제정, 2018.3.20.시행]으로 단순노무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 감액 규정 적용을 금지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가 의무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업종에서는 여전히 개정된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편의점 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감액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감독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임시·단기직 근로자의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은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바, 고의성과 상습성을 고려하여 악질적인 체불 사업주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과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등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모범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이를 인증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제언10〉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 개선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20년 실태조사 주요 발견	정책제안 내용
5-1-2. 청소년 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5-2-1. 청소년 및 고용사업자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 '18년 0.5%에서 '20년 15.2%로 30배 이상 증가  • 근로권익교육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의 비율이 증가함.	① 특수형태 직종(배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② 근로권익교육 교육과정 반영 및 교육의 질 제고

■ 제안 배경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배달운전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6년 1.1%, '18년 0.5%로 1% 안팎에 머물렀으나, '20년 15.2%로 이전 조사 대비 30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중 직접 고용이 아닌 경우, 근로권익보호에서 체계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대상으로 근로방식을 조사한 결과, 직접 고용이 55.6%,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이른바 '플랫폼 노동' 형태가 44.4%로 나타남.
-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근로권익보호에서 체계적으로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큼.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배달업무 및 수수료 관련 계약서 작성 비율이 24.3%,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 작성 비율은 11.2%로 나타남.

○ 한편, 근로권익교육 경험률은 '16년 28.8% → '18년 36.1% → '20년 5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교육 방식의 경우, 강의식 수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이 증가함.
- 교육효과 측면에서는 모둠활동식 수업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제안 내용

### ① 특수형태 직종(배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정책 제안 유형	신규 정책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고용부, 여가부
근거 법령	무		

-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업종 전반에 걸쳐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매우 미흡함.
  - 전통적인 대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배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플랫폼 노동은 진입장벽이 낮고, 최근 배달은 오토바이 배달 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도보 배달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음.
  - 이처럼 배달 산업은 급격히 확장되고 청소년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를 비롯해 관련 규정들이 미비함. 또한 지역별로 소재한 배달대행업체도 다양하여 그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직접고용이 아닌 플랫폼을 통한 배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보호에 취약함. 특히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어떠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지 계약조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배달의 경우에도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플랫폼 배달 근로자가 특히 취약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확대 적용이 요구됨.
  - 실태조사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산재보험가입 제외 동의서를 작성한 비율이 11.2%로 나타남.
  - 배달 근로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② 근로권익교육의 질적 개선 및 교육과정·교사연수와의 연계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강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근거 법령	유		

- 근로권익교육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다소 모호함.
  -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근로권익교육의 도움 정도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 비율이 60~8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남.
  -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를 경험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참고 계속 일했다’,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등 소극적 대처가 90% 안팎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상담/신고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은 대단히 미미하게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응 방법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근로권익교육 방식이 실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방증함.
- 따라서 차제에 현행 근로권익교육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단지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일회성·집체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근로권익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청소년들에게 체감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2. 2022년 조사를 위한 제언

### 2-1. 실사 기간 및 조사 방식 조정

- 본 조사는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한 전국 단위 학교조사로, 실사과정 전반에서 개별 학교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나 양질의 통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실사기간과 조사 방식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8년 조사에서도 1학기 내 자료수집을 완료하여야 조사 시점에 따른 응답 편향을 최소화하고 10월 이내에 분석결과를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김지경 외, 2018).
- 이에 '20년 조사에서 1학기 내 실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COVID-19에 따른 온라인수업 시행 등으로 불가하였음. 다만 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이 2주 내외로 예년보다 짧았고 집합금지명령 및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 시행으로 우편조사를 병행(통계청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2018년도 조사기간을 동일하게 유지함.
- 따라서 '22년 조사에서는 실사 기간과 조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1학기 내 자료 수집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와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또한 COVID-19 대응에 따른 학습효과로, 단위학교가 방역조치 및 안전을 이유로 기존과 같은 대면조사방식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계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기획 단계부터 우편조사, 웹조사 등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2. 조사 대상 학교의 학급 수 조정

- 본 조사는 표본설계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표본 학급 수와 학교 수가 동일하도록 설계하였으나 학령기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가 각 표본학교에서 1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한 이유는 조사 내용에 다소 민감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여 실사 성공률을 높임과 동시에 표본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화에 유리하기 때문임.
- 그러나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초등학교 약 21명, 중학교 약 25명, 고등학교 약 2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도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시 일부 학교의 경우 1개 학교에서 2개 이상의 학급을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한 만큼, 향후 1개 표본학교에서 2개 학급을 조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실사 비용이 일부 절감될 수 있으나 표본학교 수가 감소하더라도 통계품질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므로 표본설계 과정에서 표본규모 등 면밀한 제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청소년 인권교육 표준교안.
- 교육부 (2018.02.). 2018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추진 계획(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0.1.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2020.10.5.).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2020.10.5.).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2145&lev=0&m=02>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09.0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관계부처합동 (2016.04.21.)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 \_\_\_\_\_ (2019.04.21).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창수 (2012).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경기: 한국학술정보.
- 남인순 (2018.03.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35).
- 통계청 (2017.11.).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2017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 허민숙 (2018). 청소년 음주 규제 법규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NARS 현안분석. vol. 33. 국회입법조사처.
- 홍익표 (2018.05.3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28).
- 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학교보건법」

「학교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8.13.시행)

[기사 및 홈페이지]

[국감현장] 룸카페 청소년 탈선 온상으로…식약처 "규제할 것" <https://www.news1.kr/articles/?2421182>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연합뉴스(2020.11. 21). 네덜란드, 2024년부터 슈퍼마켓서 담배 판매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1053900098?input=1195m>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전자신문(2018.9.9.). 딜라이브-KAIST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된 자율규제’ 필요. <https://m.etnews.com/201809090000035>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file:///D:/Users/User/Downloads/2102285\_%EC%9D%98%EC%82%AC%EA%B5%AD%20%EC%9D%98%EC%95%88%EA%B3%BC\_%EC%9D%98%EC%95%88%EC%9B%90%EB%AC%B8.pdf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2&cciNo=1&cnpClsNo=1>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

## 부 록

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초등용 조사표
2.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고등용 조사표



# 부 록

## 부록 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초등용 조사표

기관 ID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등용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인사말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여러분이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여러분 주변의 유해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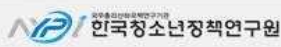
응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 혹은 학교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한 국가승인(협의)통계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ankook Research

※ 조사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okness@nypi.re.kr

※ 조사 수행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 1본부 박종경 차장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2.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설문 작성 방법

-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원형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표시 하세요.
- 02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다른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O)로 표시하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 03 질문 중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1개 이상) 선택하세요.  
없을 경우에는 하나씩만 선택해 주세요.

14-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 ⑤ 경찰(112)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04 응답을 선택한 후 (점선 또는) 화살표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해서 응답하세요.

7 최근 1개월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7-1      ② 없다 → 8 로 가십시오.

7-1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회 정도      ③ 1달에 1~2회 정도      ④ 주말, 공휴일에만

※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① 있다 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후 화살표에 따라 문 7-1을 응답합니다.  
이용한 적이 없다면 ② 없다 에 표시한 후 화살표에 따라 8번으로 이동합니다.

## 설문 작성 방법

### 05 여러 내용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응답한 후 오른쪽의 화살표를 따라가서 응답하세요.

#### 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매체	이용 여부	이용 빈도 및 주로 이용하는 기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1개씩만 선택해 주세요)
1) 지상파 TV방송 (KBS, MBC, SBS, EBS)	① 이용했음 →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② 전혀 이용 안함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2) 지상파를 제외한 TV방송 (tvN, Mnet, OCN, JTBC 등)	① 이용했음 →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② 전혀 이용 안함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 이용한 적이 있다면 ① 이용했음에 표시한 후 화살표에 따라 오른쪽의 이용 빈도와 주로 이용하는 기기를 응답합니다.  
이용한 적이 없다면 ② 전혀 이용 안함에 표시한 후 다음 번호로 이동합니다.

### 06 응답한 후 아래쪽에 이동 지시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이동하세요.

#### 34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단,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용했던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장소	이용한 적이
1) 전자오락실	① 있다      ② 없다
2)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① 있다      ② 없다
3) PC방	① 있다      ② 없다
4) 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일반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코인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5) 찜질방	① 있다      ② 없다
6) VR체험카페	① 있다      ② 없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에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34-1로 가십시오.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35로 가십시오.

※ 34번 아래 이동 지시문과 같이 3)-6)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34-1로 이동합니다.

## I 매체 영역

### 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매체	이용 여부	이용 빈도 및 주로 이용하는 기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1개씩만 선택해 주세요)
1) 자성파 TV방송 (KBS, MBC, SBS, EBS)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2) 자성파를 제외한 TV방송 (tvN, Mnet, OCN, JTBC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3)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4) 종이 신문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5) 종이 만화책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6) 종이 잡지 또는 책 (참고서나 문제집 제외)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7) 인터넷 신문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매체	이용 여부	이용 빈도 및 주로 이용하는 기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1개씩만 선택해 주세요)
8) 인터넷 만화 (웹툰)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9)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E-book)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0)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1)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2)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텀블러,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3)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본 적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3 으로 가십시오.

2-1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어디에서 보았나요?  
또 사거나 빌리는 등 이용을 할 때, 나이를 확인하였나요?

2-1 이용 매체	이용한 적이	2-1-1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1) TV방송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 네이버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3)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4)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5)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텀블러,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6)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7)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용불가', '19세이상이용가'로 표시된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본 적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4 로 가십시오

3-1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어디에서 보았나요?  
또 사거나 빌리는 등 이용을 할 때, 나이를 확인하였나요?

3-1 이용 매체		이용한 적	3-1-1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1) 신문	종이 신문	① 있다	
		② 없다	
	인터넷 신문	① 있다	
		② 없다	
2) 잡지	종이 잡지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인터넷 잡지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3) 만화책	종이 만화책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인터넷 만화 (웹툰)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4) 사진집 (화보집)	종이 사진집 (화보집)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전자 사진집 (화보집)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5) 소설책	책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인터넷 소설 (웹소설, 팬픽 등)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전자책 (E-book)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4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 해 주세요.

※성인용 영상물: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  
 ※성인용 간행물: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이용가'로 표시된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스스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나 스스로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것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이용해 본 것이 있다면, 이용 할 때 나이를 확인했나요?

5 이용 유무	이용한 적이	5-1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1)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 돈 또는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를 갖고 하는 도박성 게임 (온라인 고스톱, 포커, 경마, 스포츠 토토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3) 19세 이상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 파일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4)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6

다음의 기기를 사용하나요?

사용한다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키즈락, 맘아이그린, 엑스키퍼 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6 기기 사용 여부	사용 여부	6-1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1) 우리 집 데스크탑 PC, 노트북 ※ 컴퓨터가 2대 이상일 경우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① 한다 →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안한다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2) 우리 집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① 한다 →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안한다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3) 학교 데스크탑 PC, 노트북,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① 한다 →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안한다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4)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되는 휴대전화)	① 한다 →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안한다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7

최근 1개월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8 로 가십시오.

7-1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회 정도    ③ 1달에 1~2회 정도    ④ 주말, 공휴일에만

7-2 어떤 기기를 주로 이용하였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PC(데스크탑, 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④ 콘솔기기(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8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2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8-1** 로 가십시오.

2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9** 로 가십시오.

8-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성인용 게임/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② 심야 시간(밤12시~새벽6시)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③ 여러 개의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④ 내 계정이 없어서(정지·분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9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 외에 인터넷(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한 적이	
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10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10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10-1 도움 정도	
1)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② 도움이 안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② 도움이 안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3) 안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② 도움이 안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10

## II 행위 영역

11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① 있다	② 없다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① 있다	② 없다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있다	② 없다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5) 왕따(따돌림)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6) 강제 심부름(빨서들, 와이파이어들, 게임서들 등)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7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2 로 가십시오.

77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15 로 가십시오.

12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주로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교실 안
- ②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복도, 화장실, 옥상, 운동장, 휴미진 곳, 매점 등)
- ③ 학교 주변 공터/골목
- ④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 ⑤ 시내 유흥가/변화가
- ⑥ 공원/지하도/야산 등
- ⑦ 학원 안
- ⑧ 학원 건물 주변
- ⑨ 온라인(인터넷)공간(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13 최근 1년 동안, 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①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 ②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 ③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 ④ 잘 모르는 사람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14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14-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⑤ 경찰(112)에 알렸다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③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

→ **14-4** 로 가십시오.

**14-3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4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15** 로 가십시오.

**14-4-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5**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1)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2)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3)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4)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5)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6)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안 또는 강요받음	① 있다	② 없다
7)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신체촬영 강요, 성적이미지 합성 및 유포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6** 으로 가십시오.

7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19** 로 가십시오.

**16**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주로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교실 안
- ②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복도, 화장실, 옥상, 운동장, 휴미진 곳, 매점 등)
- ③ 학교 주변 공터/골목
- ④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 ⑤ 시내 유흥가/번화가
- ⑥ 공원/지하도/아산 등
- ⑦ 학원 안
- ⑧ 학원 건물 주변
- ⑨ 온라인(인터넷)공간(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17** 최근 1년 동안, 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①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 ②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 ③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 ④ 잘 모르는 사람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18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18-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성폭력상담소 등)  
⑤ 경찰(112)에 알렸다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8-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③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

→ **18-4** 로 가십시오.

**18-3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⑦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8-4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19** 로 가십시오.

**18-4-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단체·기관 등)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9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19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19-1 도움 정도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 성폭력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3) 성매매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21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회 정도인가요?

① 없다 → 22 로 가십시오.

② 1회

③ 2회

④ 3~4회

⑤ 5회 이상

21-1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하루

② 2~5일

③ 6~9일

④ 10~30일

⑤ 한 달 이상

21-2 가출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가출에 대한 호기심으로

②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③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④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⑤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⑥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⑦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⑧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5

22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보호/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22 보호/상담기관	보호/상담기관을	22-1 이용한 적이
1) 청소년쉼터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3) 청소년전화1388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3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22-2 로 가십시오.

3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23 으로 가십시오.

22-2

위의 시설/기관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제공 받았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필요한 물품(생필품, 의약품 등)      ② 잠시 쉴 공간과 간식  
③ 하루 이상의 의식주      ④ 상담 및 정보  
⑤ 긴급구조(구호)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3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24 로 가십시오.

23-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여러분이 성(性)에 대해 아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 III 약물 영역

24 최근 1개월 동안, 다음의 것을 얼마나 자주 먹거나 이용해 보았나요?

문항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전혀 없다
1) 핫식스(HOT6), 레드불(RedBull), 몬스터, 박카스처럼 카페인 많이 들어 있는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	①	②	③	④
2)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①	②	③	④
3) 비타스틱처럼 흡입 형태의 비타민	①	②	③	④
4) 담배모양, 술병모양, 술잔모양의 형태를 지닌 사탕, 젤리, 과자류	①	②	③	④



## IV

25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26 태어난 해는 몇 년도 인가요?

년도

27 다음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직장 및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에 포함됩니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또는 자매

④ (외)할아버지

⑤ (외)할머니

⑥ 친척

⑦ 친구나 선후배

⑧ 쉽터, 그룹홈,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식구들

⑨ 나 혼자 산다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8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1) 나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2) 아버지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3) 어머니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29 다음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행동의 결과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행동에 따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30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보호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우리 가족(또는 나의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1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내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고등용 조사표

기관 ID				
-------	--	--	--	--



승인(협약)번호  
제167001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고등용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인사말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여러분이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여러분 주변의 유해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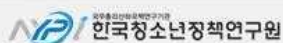
응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 혹은 학교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제18조에 의거한 국가승인(협약)통계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ankook Research

※ 조사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okness@nypi.re.kr

※ 조사 수행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 1본부 박종경 차장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언제든지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2.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설문 작성 방법

-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원형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표시 하세요.
- 02**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다른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O)로 표시하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 03** 질문 중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1개 이상) 선택하세요.  
없을 경우에는 하나씩만 선택해 주세요.

**14-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 ⑤ 경찰(112)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 04** 응답을 선택한 후 (점선 또는) 화살표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해서 응답하세요.

**7** 최근 1개월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8** 로 가십시오.

**7-1**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회 정도      ③ 1달에 1~2회 정도      ④ 주말, 공휴일에만

※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① 있다 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후 화살표에 따라 **문 7-1**을 응답합니다.  
이용한 적이 없다면 ② 없다 에 표시한 후 화살표에 따라 **8번으로** 이동합니다.

## 설문 작성 방법

**05** 여러 내용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응답한 후 오른쪽의 화살표를 따라가서 응답하세요.

**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매체	이용 여부	이용 빈도 및 주로 이용하는 기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1개씩만 선택해 주세요)
1) 지상파 TV방송 (KBS, MBC, SBS, EBS)	① 이용했음 →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② 전혀 이용 안함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2) 지상파를 제외한 TV방송 (tvN, Mnet, OCN, JTBC 등)	① 이용했음 →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② 전혀 이용 안함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 이용한 적이 있다면 ① 이용했음에 표시한 후 화살표에 따라 오른쪽의 이용 빈도와 주로 이용하는 기기를 응답합니다.  
이용한 적이 없다면 ② 전혀 이용 안함에 표시한 후 다음 번호로 이동합니다.

**06** 응답한 후 아래쪽에 이동 지시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이동하세요.

**34**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단,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용했던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장소	이용한 적이
1) 전자오락실	① 있다      ② 없다
2)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① 있다      ② 없다
3) PC방	① 있다      ② 없다
4) 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일반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코인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5) 찜질방	① 있다      ② 없다
6) VR체험카페	① 있다      ② 없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에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34-1**로 가십시오.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35**로 가십시오.

※ 34번 아래 이동 지시문과 같이 3)~6)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34-1로 이동합니다.

## I 매체 영역

### 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매체	이용 여부	이용 빈도 및 주로 이용하는 기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1개씩만 선택해 주세요)
1) 자상파 TV방송 (KBS, MBC, SBS, EBS)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2) 자상파를 제외한 TV방송 (tvN, Mnet, OCN, JTBC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3)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4) 종이 신문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5) 종이 만화책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6) 종이 잡지 또는 책 (참고서나 문제집 제외)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7) 인터넷 신문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매체	이용 여부	이용 빈도 및 주로 이용하는 기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1개씩만 선택해 주세요)
8) 인터넷 만화 (웹툰)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9)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E-book)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0)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1)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2)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틱톡,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13)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	① 이용했음 → ② 전혀 이용 안함	① 거의 매일 ② 1주 1~2회 ③ 1달 1~2회 ④ 1년 3~4회	① PC/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 ④ TV

최근 1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본 적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3 으로 가십시오.

## 2-1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어디에서 보았나요?  
또 사거나 빌리는 등 이용을 할 때, 나이를 확인하였나요?

2-1 이용 매체	이용한 적	2-1-1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1) TV방송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 네이버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3)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팟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4)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5)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텀블러,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6)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7)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용불가', '19세이상이용가'로 표시된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본 적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4 로 가십시오

3-1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어디에서 보았나요?  
또 사거나 빌리는 등 이용을 할 때, 나이를 확인하였나요?

3-1 이용 매체		이용한 적	3-1-1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1) 신문	종이 신문	① 있다	
		② 없다	
	인터넷 신문	① 있다	
		② 없다	
2) 잡지	종이 잡지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인터넷 잡지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3) 만화책	종이 만화책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인터넷 만화 (웹툰)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4) 사진집 (화보집)	종이 사진집 (화보집)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전자 사진집 (화보집)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5) 소설책	책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인터넷 소설 (웹소설, 팬픽 등)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전자책 (E-book)	① 있다 →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② 없다	

**4**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 하주세요.

※성인용 영상물: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  
 ※성인용 간행물: '청소년관람불가', '19세이상이용가'로 표시된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스스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나 스스로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성인용 간행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성인용 간행물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것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이용해 본 것이 있다면, 이용 할 때 나이를 확인했나요?

5 이용 유무	이용한 적이	5-1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1) 19세 이상 이용 인터넷 게임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2) 돈 또는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를 갖고 하는 도박성 게임 (온라인 고스톱, 포커, 경마, 스포츠 토토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3) 19세 이상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 파일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4)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지 않았음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6

다음의 기기를 사용하나요?

사용한다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키즈락, 맘아이그린, 엑스키퍼 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6 기기 사용 여부	사용 여부	6-1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1) 우리 집 데스크탑 PC, 노트북 ※ 컴퓨터가 2대 이상일 경우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① 한다 → ② 안한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2) 우리 집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① 한다 → ② 안한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3) 학교 데스크탑 PC, 노트북,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① 한다 → ② 안한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4)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되는 휴대전화)	① 한다 → ② 안한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7

최근 1개월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8 로 가십시오.

7-1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회 정도    ③ 1달에 1~2회 정도    ④ 주말, 공휴일에만

7-2

어떤 기기를 주로 이용하였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PC(데스크탑, 노트북)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④ 콘솔기기(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8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2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8-1** 로 가십시오.

2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9** 로 가십시오.

8-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성인용 게임(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② 심야 시간(밤12시~새벽6시)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③ 여러 개의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④ 내 계정이 없어서(정지·분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9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 외에 인터넷(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한 적이	
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① 있다	② 없다

10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10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10-1 도움 정도	
1)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② 도움이 안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② 도움이 안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3)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② 도움이 안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10

## II 행위 영역

11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① 있다	② 없다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① 있다	② 없다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있다	② 없다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5) 왕따(따돌림)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6) 강제 심부름(행사들, 와이파이어들, 게임서들 등)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2 로 가십시오.

7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15 로 가십시오.

12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주로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교실 안
- ②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복도, 화장실, 옥상, 운동장, 휴미진 곳, 매점 등)
- ③ 학교 주변 공터/골목
- ④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 ⑤ 시내 유흥가/번화가
- ⑥ 공원/지하도/야산 등
- ⑦ 학원 안
- ⑧ 학원 건물 주변
- ⑨ 온라인(인터넷)공간(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13 최근 1년 동안, 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①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 ②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 ③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 ④ 잘 모르는 사람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14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14-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⑤ 경찰(112)에 알렸다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③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

→ **14-4** 로 가십시오.

**14-3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4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15** 로 가십시오.

**14-4-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5**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1)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2)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3)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4)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5)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6)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안 또는 강요받음	① 있다	② 없다
7)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신체촬영 강요, 성적이미지 합성 및 유포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6** 으로 가십시오.

7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19** 로 가십시오.

**16**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주로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교실 안
- ②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복도, 화장실, 옥상, 운동장, 휴미진 곳, 매점 등)
- ③ 학교 주변 공터/골목
- ④ 동네 공터/골목/놀이터/주차장
- ⑤ 시내 유흥가/번화가
- ⑥ 공원/지하도/야산 등
- ⑦ 학원 안
- ⑧ 학원 건물 주변
- ⑨ 온라인(인터넷)공간(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7** 최근 1년 동안, 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①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 ②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 ③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 ④ 잘 모르는 사람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8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18-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성폭력상담소 등)  
⑤ 경찰(112)에 알렸다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8-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③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후속) 피해도 없었다

→ **18-4** 로 가십시오.

**18-3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⑦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8-4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19** 로 가십시오.

**18-4-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단체·기관 등)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9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19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	19-1 도움 정도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 성폭력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3) 성매매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21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회 정도인가요?

① 없다 → 22 로 가십시오.

- ② 1회  
③ 2회  
④ 3~4회  
⑤ 5회 이상

21-1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① 하루 ② 2~5일 ③ 6~9일  
④ 10~30일 ⑤ 한 달 이상

21-2 가출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출에 대한 호기심으로  
②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③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④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⑤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⑥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⑦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⑧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2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보호/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22	보호/상담기관	보호/상담기관을	22-1	이용한 적이
1) 청소년쉼터	<div>① 알고 있다→</div> <div>② 모른다</div>	<div>① 있다</div> <div>② 없다</div>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iv>① 알고 있다→</div> <div>② 모른다</div>	<div>① 있다</div> <div>② 없다</div>		
3) 청소년전화1388	<div>① 알고 있다→</div> <div>② 모른다</div>	<div>① 있다</div> <div>② 없다</div>		

3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22-2 로 가십시오.  
3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23 으로 가십시오.

22-2

위의 시설/기관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제공 받았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필요한 물품(생필품, 의약품 등)

② 잠시 쉴 공간과 간식

③ 하루 이상의 의식주

④ 상담 및 정보

⑤ 긴급구조(구호)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3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4 로 가십시오.

23-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여러분이 성(性)에 대해 아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 III 약물 영역

24 최근 1개월 동안, 다음의 것을 얼마나 자주 먹거나 이용해 보았나요?

문항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전혀 없다
1) 핫식스(HOT6), 레드불(RedBull), 몬스터, 박카스처럼 카페인 많이 들어 있는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	①	②	③	④
2)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①	②	③	④
3) 비타스틱처럼 흡입 형태의 비타민	①	②	③	④
4) 담배모양, 술병모양, 술컵모양의 형태를 지닌 사탕, 젤리, 과자류	①	②	③	④

25 지금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 본 적이 있나요?

※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종교 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① 있다 →

② 없다 → 27 로 가십시오

25-1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함께 간 성인이 술 마실 것을 권유한다거나 마시라고 강요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을 말리지 않은 적이 있나요?

※ 성인이라 가족(부모님 등), 만19세 이상의 선배, 생일이 빠른 친구, 아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문항	성인의 술 권유나 강요 또는 말리지 않은 적이	
1) 가족	① 있다	② 없다
2) 가족 이외의 성인	① 있다	② 없다

※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종교 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① 있다 →

② 없다 → 27 로 가십시오.

**26-1** 그 술을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에 술이 있었다  
 ②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③ 성인이 줬다  
 ④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

→ 27 로 가십시오.

⑤ 내가 직접 샀다 → 26-2 로 가십시오.

**26-2** 술을 직접 구입한 곳은 어디인가요?  
또,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나요?

26-2 문항	구입한 적어	26-2-1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26-2-2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	26-2-3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2) 대형마트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3) PC방, 노래방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4) 식당, 음식점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6)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탁구, 스크린 야구장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7)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 (직거래, 심부름앱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27** 지금까지 종류에 관계없이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28** 로 가십시오.      ② 없다 → **29** 로 가십시오.

**28**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29** 로 가십시오.

**28-1** 최근 1개월 동안, 피워본 담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일반 담배(필립)      ② 액상형 전자담배(쥬, 몬스터엑스팟, 비엔토 액상 카트리지 등)  
 ③ 켈런형 전자담배      ④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롤 등)

**28-2** 그 담배를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에 담배가 있었다      ②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③ 성인이 줬다      ④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      → **29** 로 가십시오.  
 ⑤ 내가 직접 샀다 → **28-3** 으로 가십시오.

**28-3** 담배를 직접 구입한 곳은 어디인가요?  
 또,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나요?

28-3	문항	구입한 적어	28-3-1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28-3-2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	28-3-3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로 확인
2)	대형마트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로 확인
3)	PC방, 노래방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로 확인
4)	식당, 음식점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로 확인
5)	배달음식 주문하면서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로 확인
6)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스쿼트 기구장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기)로 확인
7)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 (직거래, 심부름업체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29 지금까지 종류에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30 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31 로 가십시오.

30 최근 1개월 동안, 전자담배(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31 로 가십시오.

30-1 그 전자담배(기기 포함)를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에 전자담배가 있었다
  - ② 친구 또는 선배가 줬다
  - ③ 성인이 줬다
  - ④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
  - ⑤ 내가 직접 샀다
- 31 로 가십시오.
- 30-2 로 가십시오.

30-2 전자담배를 직접 구입한 곳은 어디인가요?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했나요?

30-2 문항	구입한 적	30-2-1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30-2-2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이 확인 방법	30-2-3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 확인 방법
1)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2) 전자담배 판매 (충전점)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3) PC방, 노래방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① 알/구두로만 확인 → ② 신분증 제시요구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로 확인 ② 위조·변조된 신분증인지 식별? (계로 확인)
4)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직접 주문 (직거래, 심부름업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확인했음 ②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③ 확인하지 않았음		

**31**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술을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자담배를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전자담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2**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 환각성 물질: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켜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부탄가스, 본드, 마약류(허브마약 등) 등이 해당됩니다.

① 있다 → ② 없다 → **33** 으로 가십시오.

**32-1** 그 환각성 물질을 어떻게 구해서 이용하게 되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집에 있어서            | ②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
| ③ 성인에게 얻어서          | ④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부탁해서 |
| ⑤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 ⑥ 대형 마트에서 직접 사서        |
| ⑦ PC방, 노래방에서 직접 사서  | ⑧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직접 주문해서  |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

**3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술/담배/고카페인 음료/환각성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33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33-1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데 도움이 된 정도
1) 음주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2) 흡연 예방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3)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건강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4)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 IV 업소 영역

**34**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단,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용했던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장소		이용한 적이	
1) 전자오락실		① 있다	② 없다
2)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① 있다	② 없다
3) PC방		① 있다	② 없다
4) 노래방	일반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코인노래방	① 있다	② 없다
5) 찜질방		① 있다	② 없다
6) VR체험카페		① 있다	② 없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에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34-1** 로 가십시오.

PC방,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35** 로 가십시오.

**34-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심야 시간(밤 10시 이후)에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b>34-1</b> 장소		심야 시간에 이용하려고 한 적이	<b>34-1-1</b> 심야 시간에 이용하려고 할 때, 나이를 확인했나요? ※ 가장 최근의 이용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PC방		① 있다 →	① 확인하고 못 들어가게 함
		② 없다	②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③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2) 노래방	일반노래방	① 있다 →	① 확인하고 못 들어가게 함
		② 없다	②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③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코인노래방	① 있다 →	① 확인하고 못 들어가게 함
		② 없다	②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③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3) 찜질방		① 있다 →	① 확인하고 못 들어가게 함
		② 없다	②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③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4) VR체험카페		① 있다 →	① 확인하고 못 들어가게 함
		② 없다	②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③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함



**35**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35 장소	이용한 적이	35-1 이용할 때, 나이를 확인했나요? ※ 가장 최근의 이용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비디오/DVD방	① 있다 → ② 없다	①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2) 유흥/단란주점	① 있다 → ② 없다	①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3) 나이트클럽/음악클럽	① 있다 → ② 없다	①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4) 멀티방/룸카페	① 있다 → ② 없다	①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5)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	① 있다 → ② 없다	①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함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함

**36**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만화방, PC방, 노래방, VR체험카페, 비디오/DVD방, 숙박업소, 소주방·호프집 등 술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36-1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을 때, 나이를 확인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① 나이를 확인함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음

**37** 다음 각 장소의 청소년 출입 및 이용방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장소	청소년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 가능	청소년이 출입가능하나, 심야 시간(밤 10시 이후)에는 이용 불가	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1) PC방	①	②	③	④
2) 일반노래방	①	②	③	④
3) 코인노래방	①	②	③	④
4) 찜질방	①	②	③	④
5) VR체험카페	①	②	③	④

5개 장소 모두 '④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38** 로 가십시오

**37-1** 위 업소들의 출입 및 이용방법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지를 보고
- ② 업소 근처 길거리에 부착된 통행금지 표지판(또는 현수막)을 보고
- ③ 인터넷을 통해서
- ④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 ⑤ 친구들을 통해서
- ⑥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 ⑦ 언론 매체(TV, 방송, 신문 등)를 통해서
- ⑧ 거리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38 다음 각 장소의 청소년 출입 및 이용방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장소	청소년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 가능	청소년이 출입 가능하나, 심야 시간(밤 10시 이후)에는 이용 불가	청소년 출입 금지	들어보았지만,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처음 들어봄
1) 비디오방/DVD방	①	②	③	④	⑤
2) 유흥/단란주점	①	②	③	④	⑤
3) 나이트클럽/음악클럽	①	②	③	④	⑤
4) 멀티방/룸카페	①	②	③	④	⑤
5) (아성이 동행한) 숙박업소	①	②	③	④	⑤

5개 장소 모두 '④ 들어보았지만, 청소년 출입에 관해 잘 모르겠음' 또는 '⑤ 처음 들어봄'으로 응답한 경우만 39 로 가십시오.

38-1 위 업소들의 출입 및 이용방법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지를 보고  
 ③ 인터넷을 통해서  
 ⑤ 친구들을 통해서  
 ⑦ 언론 매체(TV, 방송, 신문 등)를 통해서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② 업소 근처 길거리에 부착된 통행금지 표지판(또는 현수막)을 보고  
 ④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⑥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⑧ 거리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39 다음 각 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 및 고용금지업소가 얼마나 많다고 느끼나요?

※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업소: PC방, 일반노래방/코인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 비디오/DVD방, 유흥/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음악클럽, 멀티방/룸카페, 숙박업소 등을 말합니다.

문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1) 등하곳길	①	②	③	④
2) 집 주변	①	②	③	④

## V 근로보호 영역

**40**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 ① 현재 하고 있다 → **41** 로 가십시오.  
 ②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20년) 한 적 있다  
 ③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0년) 한 적 없다 → **51** 로 가십시오.

**41**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②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보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라서  
 ③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④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⑤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⑥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42** 올해(2020년) 한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1개만 선택해 주세요.

매장관리	① 편의점/소형마트 ②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③ 대형마트/쇼핑몰/아웃렛/백화점 ④ 기타(의류·집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용품 등)
서빙·주방	⑤ 음식점·식당·레스토랑 ⑥ 뷔페/웨딩홀/연회장 ⑦ 패스트푸드점(피자/치킨/햄버거) ⑧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기타	⑨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⑩ 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 ⑪ 물류·창고 관리/택배 상하차 ⑫ 행사 도우미(이벤트/지역축제/놀이공원 등) ⑬ 공장(제조·가공/포장·조립) ⑭ 주차안내 및 관리 ⑮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내용을 써주세요):

**43** 에서 **50** 까지는 **42** 에서 선택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43 그 아르바이트 정보는 주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
- ②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자매 등의 소개
- ③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
- ④ 매장(사업장)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44 그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① 1일 ~6일                      ② 7일 ~ 14일  
③ 15일 ~ 1개월 미만        ④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⑤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45 그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했나요?

일주일(7일) 평균	일
------------	---

46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일했나요?

- ※ 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적어주세요  
※ 배달대행인 경우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만 적어주세요

1일평균	시간
------	----

47 그 아르바이트의 급여 또는 보수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받았나요?  
1개만 선택해서 금액을 적어 주세요.

- ① 시급 (시간당) \_\_\_\_\_ 원)
- ② 일당 (일당) \_\_\_\_\_ 원)
- ③ 주급 (주급) \_\_\_\_\_ 원)
- ④ 월급 (1개월에) \_\_\_\_\_ 원)
- ⑤ 건당 (1건당) \_\_\_\_\_ 원)
- ⑥ 기타 (급여 지급방법과 금액을 써주세요.) \_\_\_\_\_

48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작성했나요?

- ① 작성하지 않았다
- ②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 ③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었다
- ④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 48-1 작성한 근로계약을 고용주(또는 관리자)와 한 부씩 나누어 가졌나요?

- ① 근로계약을 나누어 가졌다(받았다)
- ② 근로계약을 나누어 갖지 않았다(못 받았다)

49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 42에서 ⑩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 ① 매장이나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서 → 50 으로 가십시오.
- ② 배달대행업체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개인사업자)
- ③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50 으로 가십시오.

#### 49-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했나요?

문항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 배달 업무 및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	①	②	③
2)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 ※ 산재보험은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일하면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②	③

28

50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나요?

문항	경험한 적이	
1) 임금 또는 급여(사급, 일당, 수당)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① 있다	② 없다
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① 있다	② 없다
3)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	① 있다	② 없다
4)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짜보다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초과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했다	① 있다	② 없다
5)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6)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7)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	① 있다	② 없다
8)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① 있다	② 없다
9) 최저임금 인상 후 내가 원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강제로 요구받았다	① 있다	② 없다
10)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주일을 개근하였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	① 있다	② 없다
11) 고용주,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모욕, 일감 떠넘기기, 사생활에 대한 간섭과 소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12) 일을 하다 실수로 손실이 발생해서 내 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13) 기타 부당한 경험(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① 있다	② 없다

13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50-1 로 가십시오.

13가지 문항에 모두 '②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51 로 가십시오.

**50-1**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참고 계속 일했다  
 ②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
- **50-1-1** 로 가십시오.
- ③ 나 혼자 묻고 따졌다  
 ④ 가족과 함께 가서 합의하였다  
 ⑤ 친구나 아는 사람과 함께 가서 합의하였다  
 ⑥ 선생님에게 알렸다  
 ⑦ 인터넷 알바 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제공하는 노무 상담을 통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았다  
 ⑧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⑨ 고용노동부/고용지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50-1-1** 그 일에 대해 항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②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④ 보복이 두려워서  
 ⑤ 고용주가 평소에 잘해줬기 때문에  
 ⑥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라 말하기 무서워서  
 ⑦ 귀찮고 번거로워서  
 ⑧ 신고할 만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금방 해결되어서

**50-1-2** 항의나 신고를 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다  
 ③ 도움이 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④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51**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또는 매니저)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나의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유명 연예인이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홍보하는 것이 알바생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알바생의 권리에 대해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옮겨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위험하거나 청소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30



52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에서 청소년의 근로 권익(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장소	52 교육 받은 적이	52-1 교육 방식			52-2 교육 도움정도			
		여러 학급 규모의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식 수업	한 학급 정도의 인원으로 하는 모둠활동식 수업	온라인 교육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학교	① 있다 →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② 없다							
2)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고용지청, 교육청,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연수원 등)	① 있다 →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② 없다							
3) 청소년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있다 →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② 없다							
4)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① 있다 →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② 없다							



58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보호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우리 가족(또는 나의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59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내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60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 표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2020-22

연구보고 20-R57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20년 12월 30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정영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代)

인쇄처 : (주)계문사

전화 / 044-868-745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819-11

